

'95 2/4 分期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목 차

I. 대북 경수로 지원 / 3

1. 베를린 전문가회의 재개 / 3
2. 칼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 / 43
3. 북한, 한국형 경수로 수용 / 85

II. 대북 곡물 제공 / 121

1. 정부, 곡물제공 제의 / 121
2. 남북 차관급 북경회담 / 143
3. 대북 쌀 제공 / 165

III. 남북관련 분야 / 199

1. 대북정책 / 199
2. 정전협정 관련 / 217
3. 대북투자 상담 / 235
4. 종교인 접촉·교류 / 247
5. 북, 「제86 우성호」 나포 / 267
6. 일·북 접촉 등 / 273

IV. 북한 동향 / 297

1. 북한 정세 / 297
2. 미·북 교류 / 317

V. 사설·칼럼 / 327

VI. 남북관계 일지 / 377

I . 대북 경수로 지원

1. 베를린 전문가회의 재개

정부, 美 北核전략 이의제기

▽동아일보 1995. 4. 1

한국형 경수로 미관철면 재정부담 철저히 통보방침

【서울 1일 특파원 특보】 재정부담을 철저히 통보방침을 위한 한국형 경수로 미관철면의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철저히 통보방침을 위한 한국형 경수로 미관철면의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철저히 통보방침을 위한 한국형 경수로 미관철면의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철저히 통보방침을 위한 한국형 경수로 미관철면의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서울 1일 특파원 특보】 재정부담을 철저히 통보방침을 위한 한국형 경수로 미관철면의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철저히 통보방침을 위한 한국형 경수로 미관철면의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철저히 통보방침을 위한 한국형 경수로 미관철면의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철저히 통보방침을 위한 한국형 경수로 미관철면의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한국일보 1995. 4. 3

北 한국형 끝내 거부면 北美합의 무효선언

【서울 3일 특파원 특보】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내 거부하면 북미합의는 무효선언될 것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내 거부하면 북미합의는 무효선언될 것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내 거부하면 북미합의는 무효선언될 것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내 거부하면 북미합의는 무효선언될 것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경고하고 있다.

【서울 3일 특파원 특보】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내 거부하면 북미합의는 무효선언될 것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내 거부하면 북미합의는 무효선언될 것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내 거부하면 북미합의는 무효선언될 것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끝내 거부하면 북미합의는 무효선언될 것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경고하고 있다.

“한국형 경수로는 돈이 못된다”

金대통령, 경수로 입장표명 北-美합의도 전부 깨질 것

美 日 北韓만이 주목

【서울 1일 특파원 특보】 김대중 대통령은 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합의는 돈이 못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합의는 돈이 못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합의는 돈이 못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합의는 돈이 못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北, 경수로문제 해결보다 美軍철수-平和협정 역점

동아일보 1995. 4. 2

“협상을 결렬시키면 우리는 승리” 전략

本報, 北의 극비 유엔철폐수단 독립입수

美입장 동향 보고하라

【워싱턴 2일路透電】北韓은 절치양치 양쪽을 경유 한판으로 경수로문제가 제대로 해결 될때까지 양측이 수렴과 조화를 보여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은 1일 발표했다. 북한은 또 경수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또 “협상을 결렬시키면 우리는 승리”라는 전략을 밝힌 것이다. 북한은 또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 협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 협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북한이 제네바회담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주한미군철수와 北美간 평화협정 체결수단 등을 골고루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이 협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美軍철수-공군목표」달성전략

北韓과 美國간 제네바 회담의 이행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북한은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미국정책들과 고위 군사당국자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탑스피리트」군사연습의 재개, 남조선주둔 미군부리강화를 요구하는 언동들을 놓고 평양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조미(朝美)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하여 평가한 기본합의문에 완전히 위반되며 그 리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것으로 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北韓 훈령 전문

남조선괴뢰들의 아부제기를 그대로 수용하며 우리에게 대한 압력과 위협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이것은 기본합의문 리행에 난관만을 조성하고 있으며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경수로협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와 미군철수문제를 가지고 대대적인 공세를 발라려함을 내적으로 알고 있을 것. 미국이 경수로협문제에서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고 남조선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음. 우리는 평화보장체계, 미군철수문제를 들고 기본합의문 리행을 뺀채 나갈수 있고 우리 불장 다 볼수 있음. 경수로협과 관련한 미국의 립장및 동향 장악할 것. 미국의 현존립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면 즉시 보고할 것.

경수로-北美관계 개선은 중간다리 이용 20억달러 추가요청도 시간끌기 수단일뿐

北美관계 개선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은 또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미국은 경수로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韓·美관계 급속냉각

北核이전·통상압력 싸고

▽경향신문 1995. 4. 3

美、對北접근 가속·잇단 무역보복 위협

정부, 정책 전면 재검토

對北(대북)경수로제공 중에도 다른 불협화음으로
을 둘러싼 韓美양국간의 韓美양국관계가 급속히 냉
심각한 이견 노출과 미국
의 對韓(대韓)통상압력 가
알려졌다.

이같은 韓美간의 관계 美 행정부가 자국기업의
간에 전면적인 외교마찰
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
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신통일, 미
국의 북한문제에 대한 대
처방안에서 우리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것을 들춰
 고 있다.
미국이 최근들어 북·미
간 배를린 경수로제공회
담에서 북측이 일부 타협
형성수준을 배제하면서 모
종의 타협제안을 받고자
신들의 북·미 양국, 남북
한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경수로제공협정
체결과 나아가 북·미합의
자체가 중단하고 미를 맞
고 있는 시점에서 美 스태
프들의 대북제안 체결을
허가한데 이어 美 A.T.&
T사의 대북진출허가신청
을 허용, 대북진출허가신청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또한 對韓(대
한)통상관계에서 유통및
소시지 심지어는 개사로
에 이르기까지 美기업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
들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에서의 제소등 무역보복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로 알려졌다. 미국의
또 자칫하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기
부
자문제와 관련된 韓美투자
협정의 체결을 독촉하는
등 전면적인 투자시장개
방을 요구하고 있기
로 전해진다.

韓美 21日직전 추진 北선 조기개최 희망

韓美 日 7일 뉴욕서 최종결정
한 對北(대북)경수로제공 회담의 개최시기를 놓고
와 관련, 북한정부가 회담의 개최시기를 놓고
작성된 보고에 있는가 北美간의 긴장이 고조되
고 있다.
정권의 한 관계자는 2
일 《한겨레》에 "미국 對北(대북)
수로제공을 만류한 北
정부는 개회 시기를
이제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해시설 재가동 대비 航空母艦배치-駐韓軍중강 계획

美、北제재 준비태세

우리측 韓國型의 지 시험점한다

美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한 對北(대북)경수로제공 회담을 가급적
협시할 재가동 의지를 밝힌
정부는 재가동 시기를 놓고
다시 한 번 협시할 의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對北(대북)경수로
제공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미국은 對北(대북)경수로
제공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미국은 對北(대북)경수로
제공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경수로회담 재개시기 실랑이

▽조선일보 1995. 4. 3

美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한 對北(대북)경수로제공 회담을 가급적
협시할 재가동 의지를 밝힌
정부는 재가동 시기를 놓고
다시 한 번 협시할 의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對北(대북)경수로
제공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미국은 對北(대북)경수로
제공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미국은 對北(대북)경수로
제공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高泰成기자】
미국이 경수로제공협정
체결과 나아가 북·미합의
자체가 중단하고 미를 맞
고 있는 시점에서 美 스태
프들의 대북제안 체결을
허가한데 이어 美 A.T.&
T사의 대북진출허가신청
을 허용, 대북진출허가신청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또한 對韓(대
한)통상관계에서 유통및
소시지 심지어는 개사로
에 이르기까지 美기업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
들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에서의 제소등 무역보복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로 알려졌다. 미국의
또 자칫하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기
부
자문제와 관련된 韓美투자
협정의 체결을 독촉하는
등 전면적인 투자시장개
방을 요구하고 있기
로 전해진다.

北「경수로협상」극비훈령 정부 긴급대책 회의

이달중경의위 추적 가동경대이

여말부 달까지 "협상입지강화전략" 가능성도

정부가 2일 북한으로 알려진 북한 핵 실험장 유전지인 경의위(京義衛)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실험장 유전지인 경의위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으로 알려진 북한 핵 실험장 유전지인 경의위(京義衛)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실험장 유전지인 경의위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으로 알려진 북한 핵 실험장 유전지인 경의위(京義衛)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실험장 유전지인 경의위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으로 알려진 북한 핵 실험장 유전지인 경의위(京義衛)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실험장 유전지인 경의위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한반도 긴장고조 전략 분석

정부는 여말부 달까지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실험장 유전지인 경의위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北韓 「극비훈령」 후일 긴급회의

「평화협정」 위해 「대이추적」 가능성 「핵협상 카드」 판단 韓美공조 강화

정부는 여말부 달까지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실험장 유전지인 경의위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말부 달까지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실험장 유전지인 경의위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협상입지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한국형 경수로 관철 안되면 金대통령 '중대결단'

對美·對北관계 전면 재검토

美·韓國고위인사상대막후로비압력

송두환(宋斗煥)이 북한에 대한 수교를 추진할 때 관철 안되면 '중대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두환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5년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두환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5년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두환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5년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두환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5년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두환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5년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두환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5년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두환은 2일 서울에서 열린 '95년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5. 4. 3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관철 안하면 '중대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 인본권강화방안 평등권

북의 교란작전에 쐐기

일본·미국이 주도권 지렛대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 교란작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남한은 이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인권과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을 분단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은 이를 반박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을 '반인륜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은 이를 반박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을 '반인륜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은 이를 반박해야 한다.

"통일도움 안되는 재정부담 不可"

정부 한국형관철 강경대응 배경

정부가 북·미간 배틀린 정수회담을 가담하며 정수회담을 강수하려 한 것은, 북한이 정수회담을 강수하려 한 것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수회담을 강수하려 한 것은, 북한이 정수회담을 강수하려 한 것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수회담을 강수하려 한 것은, 북한이 정수회담을 강수하려 한 것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美·日 국의 우선 對北 접근 美 동 北 「숨이」의도」 국제사회 부각도

북한이 최근 고조되고 있다. 파 차원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 추가적인 양보를 강추 하면서까지 대북 접근을 일방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전한 목적의 의도 역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고조되고 있다. 파 차원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포기유구하느니라가 돈매라”

金대통령 韓國型 정수로 양보 못한다

남남하게 협상하라 관계자에 지시

북한이 최근 고조되고 있다. 파 차원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 추가적인 양보를 강추 하면서까지 대북 접근을 일방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전한 목적의 의도 역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고조되고 있다. 파 차원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고조되고 있다. 파 차원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韓-美-日 「최후통첩안」 조율

7일 대사급 「核회담」 발의 논의하

【7일 뉴델리 특파원 리정호 기자】 7일 뉴델리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대사급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안'의 조율을 위한 자리였다. 회담은 14일 오후 14시에 시작될 예정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최후통첩안'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돌리산 갈등등 해소가 관전

협상시 한후 對北 제재 여부 모색

【7일 뉴델리 특파원 리정호 기자】 7일 뉴델리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대사급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안'의 조율을 위한 자리였다. 회담은 14일 오후 14시에 시작될 예정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최후통첩안'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뉴델리 특파원 리정호 기자】 7일 뉴델리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대사급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안'의 조율을 위한 자리였다. 회담은 14일 오후 14시에 시작될 예정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최후통첩안'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뉴델리 특파원 리정호 기자】 7일 뉴델리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대사급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안'의 조율을 위한 자리였다. 회담은 14일 오후 14시에 시작될 예정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최후통첩안'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美·韓·日과 「北」타협案 「협이

내주北·美회담 재개앞서 “北, 경수로로 한국 주도 수공”

【7일 뉴델리 특파원 리정호 기자】 7일 뉴델리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대사급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안'의 조율을 위한 자리였다. 회담은 14일 오후 14시에 시작될 예정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최후통첩안'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뉴델리 특파원 리정호 기자】 7일 뉴델리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대사급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안'의 조율을 위한 자리였다. 회담은 14일 오후 14시에 시작될 예정으로, 양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최후통첩안'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北核 超黨대처하자"

민중세의 與野대표단 美·日과 견주진

민중세이 북한을 위한 한류... 4월 5일 기자회견과 관련... 李承濬 委員長의 발언... 李承濬 委員長의 발언... 李承濬 委員長의 발언...

北 한국형 경수로 수용 때까지 美연락사무소 개설 연기 요청

政府 방침... 日엔 수교 늦추도록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北핵을 둘러싼 고위급회담 재개... 北핵을 둘러싼 고위급회담 재개... 北핵을 둘러싼 고위급회담 재개...

美연락사무소 하반기 개설

연속된다는 북핵 경수로 협상·南北관계 연계

연속된다는 북핵 경수로 협상... 南北관계 연계... 南北관계 연계... 南北관계 연계...

색물부지 연락사무소 北대표단 워싱턴 도착

【워싱턴= 中央社 워싱턴 4日電】北代表團은 4월 4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北代表團은 4월 4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북대표단 3일 발령했다. 북대표단 3일 발령했다. 북대표단 3일 발령했다. 북대표단 3일 발령했다...

북한 군사정보 韓美 합동수집

軍공조강화... 24시간 비상근무팀 구성

유사시 신속대응근무요과

한미합동군사정보수집과 방위협력 강화... 24시간 비상근무팀 구성... 24시간 비상근무팀을 구성해 24시간 합동수집을 위한 군사협력...

이 결정으로 4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 군사협력 강화... 24시간 비상근무팀을 구성해 24시간 합동수집을 위한 군사협력...

이 결정으로 4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 군사협력 강화... 24시간 비상근무팀을 구성해 24시간 합동수집을 위한 군사협력...

이 결정으로 4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 군사협력 강화... 24시간 비상근무팀을 구성해 24시간 합동수집을 위한 군사협력...

이 결정으로 4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 군사협력 강화... 24시간 비상근무팀을 구성해 24시간 합동수집을 위한 군사협력...

▽조선일보 1995. 4. 6

북해인통색등 대책 검토

국방부, 경수로 결렬대비 RSOI 훈련 내달 실시

北제재 共助총력 의무부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RSOI 훈련 내달 실시... 北제재 共助총력 의무부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RSOI 훈련 내달 실시... 北제재 共助총력 의무부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RSOI 훈련 내달 실시... 北제재 共助총력 의무부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RSOI 훈련 내달 실시... 北제재 共助총력 의무부

▽중앙일보 1995. 4. 6

北 "러시아형 韓國통해 달라"

러 對韓채무 상환형식 경수로제공 요구

러시아는 북한에 핵무기... 러시아형 한국통해 달라... 러 對韓채무 상환형식 경수로제공 요구

러시아는 북한에 핵무기... 러시아형 한국통해 달라... 러 對韓채무 상환형식 경수로제공 요구

한반도 전쟁 발발땐 美해군력 40% 투입

합성 百60척·항공기 5百대

걸프도戰 투입규모 월씬 상회

美, 새韓美방위계획 마련 「경수로」난항관련 주목

美國의 한반도와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 해군은 총 전력의 약 40%를 투입, 대 규모 해상작전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한 韓美연합 방위계획에 원안 수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미국의 이르면 6월 말에 해군본부에서 발간될 「北

韓과 미방간의 경우로서 원안인 100척을 가늠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는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駐韓美軍의 한 고위소속 부속인 「미방위」한반도 유관시 작전명령장 인보영 대령은 「北」의 핵무기를 쫓아내려는 것

포함, 북방위계획을 작전부령으로 하고, 제3함대의 태평양함대사령부 전령전체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속부령인 「미방위」의 이같은 계획은 북한이 기술기능을 갖출 경우 5개 함대전투단과 각종 전투

아함정과 전함을 가동하여 60척의 항공기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일부는 「미방위」의 항공기보다도 더 빠르다고 말했다.

한반도유사시 투입될 美 해군력 규모는 항공모함 5~7척을 포함한 5개 함대전투단과 각종 전투

합성함 1백60척의 함정, 1백50대의 항공기, 5백대의 기뢰인근 등으로 전해졌다.

특히 약 40척의 잠수함 전단에는 1개 핵잠수함전 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90년 걸프도戰에서 다분전투의 동원된 100척의 미함정의 그보다가 훨씬 큰 것이다. 미방위 계획전파 日本 요코스카(橫須賀)를 기점으로 한 제7함대를 주축으로 함정 1백30척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알려졌다.

한국경수로로 중싱명(核)을

北원자로재가동땐 핵합의 파기간주

美하원료태수위결의안 채택

【워싱턴=申相仁특파원】美하원료 태수위결의안(태수위결의안)은 「美」 핵합의 재수면(재수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5월 5일까지 결정될 때까지 5개월 동안 미하원료 태수위결의안(태수위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이를 채택하는 데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핵합의 재수면(재수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5월 5일까지 결정될 때까지 5개월 동안 미하원료 태수위결의안(태수위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이를 채택하는 데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위 하원료 태수위결의안(태수위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핵합의 재수면(재수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5월 5일까지 결정될 때까지 5개월 동안 미하원료 태수위결의안(태수위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이를 채택하는 데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체계획을 촉구했다. 美-北경수로회담 빠르면 12일 재개

【남부=합】미하원료 태수위결의안(태수위결의안)은 「美」 핵합의 재수면(재수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5월 5일까지 결정될 때까지 5개월 동안 미하원료 태수위결의안(태수위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이를 채택하는 데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이련再開검토

「경수로協商」남한에 10월말 실시가능...美와 협의중

북한이 남한에 수송용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남한에 전달한 데 이어 남한은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李仲根기자〉

北·美 경수로 공급계약 이전이라도 연락소상호설치가능

북한이 미국에 수송용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남한에 전달한 데 이어 남한은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美·한국평명칭 포기 준비

민중총진의원 駐韓美대사관통해 통일외무부의원설득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이미 10월 말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관철, 與野한목소리"

명칭 왜 이제와서 문제되나 北핵의무파기엔 제재추진 담변

北核 北情의무파기 제의 발표

북핵 폐기의무파기 제의 발표 6일 孔鶴明(孔)외무장관을 통해 공개된 뒤, 국내 정치권과 야당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한반도를 평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무부는 발표 직후 "북핵 폐기의무파기 제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한반도를 평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한반도를 평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한반도를 평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한반도를 평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北核협상 強 穩 待 公 房

北情의무추경수로관련 시가지

외무부 발표 "北情의무추경수로관련 시가지"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한반도를 평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한반도를 평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韓國型거부하면 과거... 단호한의지 추구 民衆

명칭 집착 말고 한류 중심 역할 모색해야 民衆

【서울 7일 특보】 김대중 대통령의 "북핵 폐기의무파기" 제의 발표 직후, 국내 정치권과 야당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한반도를 평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한반도를 평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한반도를 평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牛龍九기〉

한국형 원자로

「올진3호기」설치

羅부총리 "건설현장 北참관 허용용의"

한국형 원자로 3호기(올진3호기)의 설치가 4월 9일 오후 1시 30분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 위치한 강원발전유지관리소 1호기 건설현장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부총리 겸 장관이 참석했다. 이인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원발전유지관리소 1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한 뒤, 1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3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본 후, 3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했다.

이인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원발전유지관리소 1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한 뒤, 1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3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본 후, 3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했다. 이인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원발전유지관리소 1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한 뒤, 1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3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본 후, 3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했다.

羅北참관 허용, 韓北참관 허용

이인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원발전유지관리소 1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한 뒤, 1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3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본 후, 3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했다. 이인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원발전유지관리소 1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한 뒤, 1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3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본 후, 3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했다.

한국형 원자로 '올진3호기' 착공

美·北 "진거리" 영국의미노

이인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원발전유지관리소 1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한 뒤, 1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3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본 후, 3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했다. 이인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원발전유지관리소 1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한 뒤, 1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3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본 후, 3호기 건설현장에 도착했다.

“北 원자로 재장전 준비”

IAEA 총장 "核燃料 파기 야망"

IAEA 총장인 사카모치 요시카즈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총회 개막식에서 북한이 핵연료 파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연료 파기를 시도하면 이는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연료 파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연료 파기를 시도하면 이는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연료 파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핵연료 파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연료 파기를 시도하면 이는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연료 파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수로-연락사무소 연계

韓·美·日 합의 「韓國型」수용팬 조기개설

▽동아일보 1995. 4. 9

기술 국산화95%
한국형경수로
제작비 1兆7千億

울진 3호기 어떻게 만들어졌나

울진 3호기 건설비 절감등 부수효과 커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터빈길이 60m : 1百萬kW 전력 생산

北 제공팬 건설비 절감등 부수효과 커

한국형 경수로의 터빈 길이가 60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한국형 경수로의 터빈 길이가 60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한국일보 1995. 4. 9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北·日수교협상이 본격추진

韓·美·日 합의 「韓國型」수용팬 조기개설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현 기자】 한국형 경수로의 국산화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외국산 경수로에 비해 10% 이상 높고, 국산화율 90%에 불과했던 울진 1·2호기보다 5%포인트 높았다.

北 원자로재가동땀 제재

美, 강경대책 中國통보

한국원자로재가동 北韓실질적요청

베를린 경수로회의의 18일 續開

【워싱턴=李相石특파원】수동물 기부하고 5일 우측 對北(대북)제재의 미북(미북)회담이 14일 베를린에서 18일 續開될 예정이다. 미북(미북)회담이 14일 베를린에서 18일 續開될 예정이다.

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국무부에서 對北(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한 뒤,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경수로 공동주계약사제의

北「수정제안」에 70%반대 한국측 선반대

北(북)측은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수로건설北-美기업계약"

北, 베를린회담서 제안 「조선설비 수출」-CE社

▽중앙일보 1995. 4. 16

發注도北韓기업서 전담요구 공급협정후 KEDO 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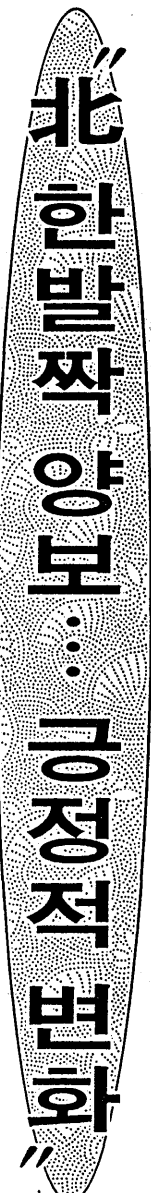
북한의 지난 13일 당시 설비수출회사가 파악하며 이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후 KEDO가 불인정하는 등 북한이 KEDO에 대한 불인정을 선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13일 당시 설비수출회사가 파악하며 이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후 KEDO가 불인정하는 등 북한이 KEDO에 대한 불인정을 선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주 주계약자로 삼았음을 인정하지 않는데 대해서도 KEDO가 한 협정문을 면서 한-미-일간의 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후 KEDO가 불인정하는 등 북한이 KEDO에 대한 불인정을 선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13일 당시 설비수출회사가 파악하며 이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후 KEDO가 불인정하는 등 북한이 KEDO에 대한 불인정을 선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北한발작양보: 긍정적 변화

13일 당시 베를린에서 열린 북-美 정상회담 중 북한은 '조선설비 수출'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KEDO가 불인정하는 등 북한이 KEDO에 대한 불인정을 선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가 꾀하는 北 「경수로」

실제·제작 韓國 제한적 참여 수용 회담재개 意志 눈여겨 볼 대목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조선설비 수출'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KEDO에 대한 불인정을 선언한 사실과 대조된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조선설비 수출'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KEDO가 불인정하는 등 북한이 KEDO에 대한 불인정을 선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조선설비 수출'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KEDO에 대한 불인정을 선언한 사실과 대조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조선설비 수출'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KEDO에 대한 불인정을 선언한 사실과 대조된다.

美 「한국 주계약」 영모 요구

경수로 타협案 제시 정부 "원천왜곡 우려" 거부

미국이 남북 정전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北, 경수로로 美상표로

한국인력 35% 이상 참여 거부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北核「결렬된」아전「혁파」

駐韓美軍 증가설 일축

美군본부 대변인

미국군 본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군 본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군 본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군 본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군 본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군 본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군 본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군 본부 대변인은 14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중심역」 교묘히 배제

北경수로 새 제안 배경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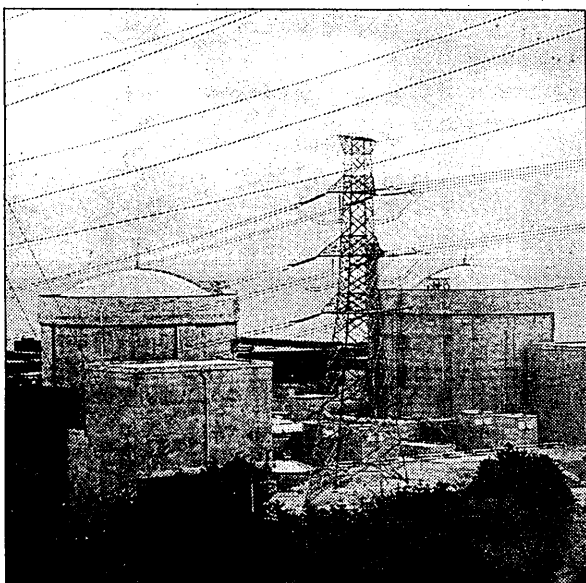
북한이 12, 13일 열린 북-미 핵안보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12, 13일 열린 북-미 핵안보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12, 13일 열린 북-미 핵안보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12, 13일 열린 북-미 핵안보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형」 한정등 핵심양도안해 설계참여 인정... 협상에 실마리



◇북한은 지난번 베를린 북-미 전문가회담에서 경수로제강문제와 관련, 미국회사와 직접 상업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한국형 경수를 사용하고 있는 울진원전 1, 2호기.

북한이 12, 13일 열린 북-미 핵안보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12, 13일 열린 북-미 핵안보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12, 13일 열린 북-미 핵안보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12, 13일 열린 북-미 핵안보 회의에서 '95년 핵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주계약 영모를 요구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16일 알래스카주 팰머에서 열린 '95년 핵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北 核동결 약속 파기맨 유엔 회부전 「즉각 제재」

남북 經協동결-軍事대비 강화

經濟제재완화 철회-電話중단

수교협상 중지-고포送金규제

韓-美-日 구체방안 합의... 駐韓美軍도 증강

【서울 17일 AP 통신】 북핵 동결 약속을 파기한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즉각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韓-美 「경수로공조」 집중 조율

美-北 베를린 전문가회담 대비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1995. 4. 18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은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대해 고포로 송금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北 경수로회의 오늘 재개 韓·美, 北설득 주력

北 「시스템80」형 개량 요구함

전문가회의에서 북한이 한 국표준형과 한국의 중순 적 표준형 경수로에 대해 대항의 제안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경수부 16일 워싱턴에서 韓·美·北 3국 실무자회의를 열어 3국 실무자회의의 의제와 배치를 협의한 뒤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북측이 제시한 수정안과 韓·美 양측의 수정안, 그리고 3국 실무자회의의 의제와 배치를 협의한 뒤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수로로 막후협상 급진전

당국자 "北 핵무장수용이 北 방향 선회"

북·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점별 韓·美·北 입장 (可: 절충가능, 不: 절충불가)

정점	입장	한국	미국	북한
경수로노형		한국형	한국형	미국형
명칭표기		명기(可)	양보	거부
참조모델		명기(不)	양보	거부
주계약자		한국기업	한국기업(可)	미국기업 또는 컨소시엄
발주자		KEDO	KEDO	조선설비
사업관리(PM)		한국기업	미국기업	미국기업
감리(PC)		미국기업	미국기업	미국기업

韓·美·北 한국형 인정 맨 명칭 양보

협정 체결 시 한·미 양보... 韓·美·北 입장 드러

18일 워싱턴에서 북·미 실무자회의가 18일 오후 18시 30분부터 19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9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기업 주계약자」 선정 北 「반대」 美기업 역할문제선 韓·美간 이견

북·미 실무자회의는 18일 오후 18시 30분부터 19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9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美對北 정책 대안 제시

【서울=연합통신】미국 정부는 18일 워싱턴에서 韓·美·北 3국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실무자회의는 17일 오후 17시 30분부터 18일 오후 18시 30분까지 18일 재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美업체가 北경수로工事 감리"

추계약사는 한 국 기업

美 새방안 오늘 美-北 회담서 논의할 듯

【서울 18일路透電】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北 물류투입 돕는다"

AEA 총장 분석 기술 인공위성 통해 확인

【워싱턴 18일路透電】미국 원자력청(AEA) 총장인 로버트 글러버는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조선이 미국에 물품을 투입하는 것을 돕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물품이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수로" 고위급 회담이로 넘어갈 듯

北美 베를린 회담서

【서울 18일路透電】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美 비즈니스 위크誌 보도

미국의 경제지 '비즈니스 위크'는 18일 '미-북 회담'에 대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北경수로 공급자 美, 웨스팅하우스 검토"

의회 반대-法저촉등 문제 많아 주저

【서울 18일路透電】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추계약사의 한 국 기업 참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약사는 미국의 새방안인 '프로그램 조정자(Program Coordinator)'로 알려진 미-북 경수로 공동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北-美 경수로 막바지 절충

베를린회의 연쇄 수석대표·실무회담

핵안 이견점근 가능성

【서울 20일 연합뉴스】 북-미 수석대표 회담이 20일 오전 11시 30분 베를린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은 북-미 핵안 협정 타결을 위한 마지막 절충 회담으로, 양측은 핵안 협정 제1차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합의된 4항을 바탕으로, 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17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정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안 협정 제1차 수석대표회담에서 합의된 4항을 바탕으로, 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17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정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안 협정 제1차 수석대표회담에서 합의된 4항을 바탕으로, 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17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정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1995. 4. 20

北 경수로외부대시설유구

美-北회담서 노르웨이-한국-일본공동장동 10억弗규모

【서울 20일 연합뉴스】 북-미 수석대표 회담이 20일 오전 11시 30분 베를린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은 북-미 핵안 협정 타결을 위한 마지막 절충 회담으로, 양측은 핵안 협정 제1차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합의된 4항을 바탕으로, 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17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정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안 협정 제1차 수석대표회담에서 합의된 4항을 바탕으로, 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17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정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안 협정 제1차 수석대표회담에서 합의된 4항을 바탕으로, 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17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정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노르웨이-한국-일본 공동장동 10억弗규모로, 북-미 핵안 협정 제1차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합의된 4항을 바탕으로, 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17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정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1995. 4. 20

「핵동결」모상 주장

【서울 20일 연합뉴스】 북-미 수석대표 회담이 20일 오전 11시 30분 베를린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은 북-미 핵안 협정 타결을 위한 마지막 절충 회담으로, 양측은 핵안 협정 제1차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합의된 4항을 바탕으로, 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17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정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안 협정 제1차 수석대표회담에서 합의된 4항을 바탕으로, 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17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정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안 협정 제1차 수석대표회담에서 합의된 4항을 바탕으로, 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17항을 포함하는 최종 협정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극적타결이나 核위기 재현이나

美·北 「경수로 협상」

美·북 협상은 지난 4주 동안 남북이 세 번의 회담을 통해 진척을 보였지만, 협상이 타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협상은 4월 15일 평양에서 4주째 진행되고 있다. 18일의 미국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협상은 4월 15일 평양에서 4주째 진행되고 있다. 18일의 미국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北·美 “영변재가동 안하는 대화 계속”

北·美 “실리 계산... ‘결렬이 원치 않음’ 드러나”

북·미 협상은 지난 4주 동안 남북이 세 번의 회담을 통해 진척을 보였지만, 협상이 타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협상은 4월 15일 평양에서 4주째 진행되고 있다. 18일의 미국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북·미 협상은 지난 4주 동안 남북이 세 번의 회담을 통해 진척을 보였지만, 협상이 타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협상은 4월 15일 평양에서 4주째 진행되고 있다. 18일의 미국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爐型·계약구조 사고 줄다리기

경수로협상 韓美·北 입장 비교

북·미 협상은 지난 4주 동안 남북이 세 번의 회담을 통해 진척을 보였지만, 협상이 타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협상은 4월 15일 평양에서 4주째 진행되고 있다. 18일의 미국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한국형제공영부보다 「명분화」 의 이전

北·韓國 기업 주계약자 선정 강력 반발

북·미 협상은 지난 4주 동안 남북이 세 번의 회담을 통해 진척을 보였지만, 협상이 타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협상은 4월 15일 평양에서 4주째 진행되고 있다. 18일의 미국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북·미 협상은 지난 4주 동안 남북이 세 번의 회담을 통해 진척을 보였지만, 협상이 타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협상은 4월 15일 평양에서 4주째 진행되고 있다. 18일의 미국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항목	북한	미국	한국
협상 목적	핵무기 생산을 위한 원자로 건설	핵무기 확산 방지	핵무기 확산 방지
협상 대상	원자로 건설	핵무기 확산 방지	핵무기 확산 방지
협상 내용	원자로 건설	핵무기 확산 방지	핵무기 확산 방지
협상 결과	원자로 건설	핵무기 확산 방지	핵무기 확산 방지

북·미 협상은 지난 4주 동안 남북이 세 번의 회담을 통해 진척을 보였지만, 협상이 타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협상은 4월 15일 평양에서 4주째 진행되고 있다. 18일의 미국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한국 실질적 중심역 확보"에 무게

정부, 對北 경수로협상 전략 전환

韓·美 양국 정부는 베를린에서 계속되고 있는 북·미간 경수로협상관계의 개선 명분보다는 실질적 내용 무채를 신중 타협적인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이러한 유연한 태도를 환영하며, 여전히 협상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 전략을 전환하여, 실질적 중심역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협상 전략을 전환하여, 실질적 중심역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北경수로 전문가회의의 북한측 수석대표 김정수가 19일 베를린주재 미국 정부에 도착. 북측의 김성환(왼쪽)과 함께하고 있다. [본문인쇄=원]

명칭·美社 역할등서 유연입장 협상 계속여부 北태도에 달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北경수로 재장전 조짐없다"

IAEA 대변인 본사와 인터뷰
북한은 北美 경수로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협상의 정당성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IAEA 대변인은 이 말을 단호히 부정했다. 대변인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협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IAEA 대변인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협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IAEA 대변인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협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995. 4. 21

북한이 이 대협상에서 이터(이)로서 경수로사...
정부가 경수로사업에 있어 한 단계 앞을 나가...
정부는 협상 전략을 전환하여, 실질적 중심역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협상 전략을 전환하여, 실질적 중심역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협상 전략을 전환하여, 실질적 중심역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네바합의 문제있다”

羅부총리 주장 南北회담과 병행돼야 경수로 진전

【서울 21일 특파원 특보】 미국의 제네바 합의가 남북 정상회담과 병행돼야 경수로 진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羅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모습 <李德廉기자>

【서울 21일 특파원 특보】 미국의 제네바 합의가 남북 정상회담과 병행돼야 경수로 진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羅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모습 <李德廉기자>

한국, 「北核」 독자위상 확보 메시지



◇ 羅雄培 통일부총리가 최근 제네바 합의에 따른 미북 핵논의 구도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4일 羅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모습 <李德廉기자>

美·北만의 논의구도 비판

美·北만의 논의구도 비판

美·北만의 논의구도 비판

“南北대화 필수” 對美·對北 경고의 미 정부 고위인사론

【서울 21일 특파원 특보】 미국의 제네바 합의가 남북 정상회담과 병행돼야 경수로 진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羅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모습 <李德廉기자>

【서울 21일 특파원 특보】 미국의 제네바 합의가 남북 정상회담과 병행돼야 경수로 진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羅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모습 <李德廉기자>

北核 대화 해결 촉구

【北京 21일 특파원 특보】 미국의 제네바 합의가 남북 정상회담과 병행돼야 경수로 진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羅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모습 <李德廉기자>

【北京 21일 특파원 특보】 미국의 제네바 합의가 남북 정상회담과 병행돼야 경수로 진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羅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모습 <李德廉기자>

30만弗 제공

【싱가포르 21일 특파원 특보】 미국의 제네바 합의가 남북 정상회담과 병행돼야 경수로 진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羅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모습 <李德廉기자>

【싱가포르 21일 특파원 특보】 미국의 제네바 합의가 남북 정상회담과 병행돼야 경수로 진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羅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모습 <李德廉기자>

韓-美, 「북한核」 強穩양면 대응

「경수로 회담 결렬」 대책

북한은 4월 21일 미국을 초청한 3차 북-美 핵 회담을 1주일 만에 결렬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美 회담은 4월 14일 평양에서 1차 회담을 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15일 2차 회담을 열어 핵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타협가」로 인정받았다 「대화와 노력」 계속

북한은 4월 21일 미국을 초청한 3차 북-美 핵 회담을 1주일 만에 결렬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美 회담은 4월 14일 평양에서 1차 회담을 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15일 2차 회담을 열어 핵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북한은 4월 21일 미국을 초청한 3차 북-美 핵 회담을 1주일 만에 결렬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美 회담은 4월 14일 평양에서 1차 회담을 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15일 2차 회담을 열어 핵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북한은 4월 21일 미국을 초청한 3차 북-美 핵 회담을 1주일 만에 결렬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美 회담은 4월 14일 평양에서 1차 회담을 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15일 2차 회담을 열어 핵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제네바협약의 9개월 무효화 운명 계속 판명

북한은 4월 21일 미국을 초청한 3차 북-美 핵 회담을 1주일 만에 결렬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美 회담은 4월 14일 평양에서 1차 회담을 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15일 2차 회담을 열어 핵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북한은 4월 21일 미국을 초청한 3차 북-美 핵 회담을 1주일 만에 결렬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美 회담은 4월 14일 평양에서 1차 회담을 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15일 2차 회담을 열어 핵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제네바협약의 이행일지

- △94.10.21=北韓과 美國,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서명. 경수로와 대 체에너지 제공을 약속한 클린턴 美대통령전서 북한에 전달
- △11.1=北韓, 5MW 원자로 재장전계획 취소. 50MW 2백MW 원자로 건설중단
- △11.8=南韓, 對北경협안화초지 발표
- △11.19=1차 北-美 폐연료봉 전문가회의(평양)
- △11.30=1차 北-美 경수로 전문가회의(北京)
- △12.6=1차 北-美 연락사무소 전문가회의(워싱턴). 北-美관계단 절이후 처음으로 북한 정부대표단 워싱턴 방문
- △95.1.14=美, 대체에너지 重油 5만t 제공
- △1.18=2차 폐연료봉 전문가회의(평양). 폐연료봉 건설보관 합의
- △1.20=美, 對北제재 1단계 완화초지 발표(통신 여행 언론 금융 거래 무역등)
- △1.23=南韓,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공식발족
- △1.31=2차 경수로 전문가회의(베를린)
- △2.4=韓美의무장관 회담(워싱턴)
- △2.11=韓日의무장관 회담(東京)
- △3.9=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공식발족
- △3.25=3차 경수로 전문가회의 1차회담 개최(베를린)
- △4.4=駐유엔 북한대표부 韓성열공사, 北-美연락사무소 부지 풀 색차 워싱턴 방문
- △4.10=北-美 직통전화 개설
- △4.12=3차 경수로 전문가회의 2차회담 개최(베를린)
- △4.19=3차 경수로 전문가회의 3차회담 개최(베를린)

북한은 4월 21일 미국을 초청한 3차 북-美 핵 회담을 1주일 만에 결렬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美 회담은 4월 14일 평양에서 1차 회담을 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15일 2차 회담을 열어 핵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북한은 4월 21일 미국을 초청한 3차 북-美 핵 회담을 1주일 만에 결렬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美 회담은 4월 14일 평양에서 1차 회담을 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15일 2차 회담을 열어 핵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북한은 4월 21일 미국을 초청한 3차 북-美 핵 회담을 1주일 만에 결렬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美 회담은 4월 14일 평양에서 1차 회담을 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15일 2차 회담을 열어 핵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북한은 4월 21일 미국을 초청한 3차 북-美 핵 회담을 1주일 만에 결렬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美 회담은 4월 14일 평양에서 1차 회담을 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15일 2차 회담을 열어 핵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북한은 4월 21일 미국을 초청한 3차 북-美 핵 회담을 1주일 만에 결렬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 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美 회담은 4월 14일 평양에서 1차 회담을 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15일 2차 회담을 열어 핵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北 비현실적 전략 고집 "좌초"

경수공업협정 체결

결산·정밀

【서울 21일路透電】 북한이 21일 남한과 맺은 경수공업협정 체결에 대해 "북한은 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핵연료 재장전 - AEA 탈퇴 위협할 듯

막판 정치적 절충 등 「항후手順」에 관심

북한이 핵연료 재장전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이 AEA(국제핵연료은행) 탈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핵연료 재장전 작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AEA 탈퇴를 위협하며, 핵연료 재장전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핵연료 재장전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이 AEA(국제핵연료은행) 탈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핵연료 재장전 작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AEA 탈퇴를 위협하며, 핵연료 재장전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北韓 경수로계약 컨소시엄

美·日社 + LG 제안

요미우리신문 美, 베를린 회담 때 타진

민간기업 첫구체 거론

【서울 22일路透電】 미국, 일본, LG 컨소시엄이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제안했다.

미국, 일본, LG 컨소시엄은 2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미국, 일본, LG 컨소시엄은 2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미국, 일본, LG 컨소시엄은 2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美, 北核재가동 강령경고

페리國防 "합의파기면 군사적 외방책 강구"

【워싱턴 22일路透電】 미국은 북한이 핵재가동을 강령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재가동을 강령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재가동을 강령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재가동을 강령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재가동을 강령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재가동을 강령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재가동을 강령경고했다.

I. 대북 경수로 지원

2. 쿨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

美 北에 고위회담 제의

크리스토퍼國務 발령 경수로회담상 결렬 돌파구 모색

스위스서 갈루치·姜錫柱 대표로

【서울 22일路透電】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고위회담이 22일 결렬된 가운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23일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이다. 갈루치 스위스 외교장관과 함께 북·미 고위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2일路透電】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이다. 갈루치 스위스 외교장관과 함께 북·미 고위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2일路透電】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이다. 갈루치 스위스 외교장관과 함께 북·미 고위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22일路透電】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이다. 갈루치 스위스 외교장관과 함께 북·미 고위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첫 양보시사 政府

【서울 22일路透電】 정부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고위회담이 결렬된 뒤, 「한국형」 첫 양보시사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北 “고위회담 결렬”

고위회담 결렬

【서울 22일路透電】 북한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고위회담이 결렬된 것을 비난하며,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22일路透電】 북한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고위회담이 결렬된 것을 비난하며,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22일路透電】 북한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고위회담이 결렬된 것을 비난하며,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25일부터 베를린에서 시작되어 그동안 여러차례의 휴회를 거듭하여 온 경수로 제공에 대한 제3차 조-미 실무협상이 유감스럽게도 20일 결렬상태에 들어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대표단은 어떻게 하나 위기에 빠진 경수로문제에 타결을 이룩하기 위해 거듭되는 획기적 제안을 내놓으면서 최대의 아량과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이 부당하게도 아직도 양측 남조선형 경수로를 마지막까지 내려 먹이려 한 것으로 하여 협상에서는 끝내 아무런 합의도 이룩될 수 없었다.

고위회담 관련 北 외교부 성명

한편 베를린 경수로 제공 실무협상이 결렬된 직후 미국무성순회대사 로버트 엘 갈루치에 우리에게 5월 첫째 주에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을 하자고 제기하여 왔다. 우리는 실무협상에 참가했던 대표단을 통하여 협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며 정부단에서 미국측의 진의를 더 알아본데 기초하여 필요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취하게 될 대책은 우리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백번 정당하고 타당할 것이다.

北으로 넘어간 경수로 「強穩카드」

美고위급회담제의

클린턴 행정부(美北)는 고위급회담을 제의할 수 있는 18일부로 3일간 매일 정보 기관을 의뢰하여 고위급회담을 제안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 고위급회담을 제안할 수 있는 18일부로 3일간 매일 정보 기관을 의뢰하여 고위급회담을 제안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 고위급회담을 제안할 수 있는 18일부로 3일간 매일 정보 기관을 의뢰하여 고위급회담을 제안할 수 있다.

美、姜錫柱 입지강화 對坐 유도

「駐韓軍 증강」등 강경책도 완비

北 「한국형」 끝내 거부맨 1년전 긴장상황 "회귀" 확실



◆고민하는 클린턴
클린턴 대통령이 21일 속연한 표정으로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부부는 연방 건물 폭파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에 참가하기 위해 23일 오클라호마시리로 갈 예정이다. 【워싱턴=AP합】

클린턴 행정부(美北)는 고위급회담을 제의할 수 있는 18일부로 3일간 매일 정보 기관을 의뢰하여 고위급회담을 제안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 고위급회담을 제안할 수 있는 18일부로 3일간 매일 정보 기관을 의뢰하여 고위급회담을 제안할 수 있다.

경수로·관계개선 일괄타결 겨냥

합의문 채택 당사자 통한 '교착' 돌파구 모색...북 반응 관심

김성호 기자

베를린에서 지난 18일 속개된 경수로 전문가회담이 결렬된 데 이어 한-미가 북한에 고위급 정치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이제 경수로 회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베를린 전문가 회담 결렬 이후 전개될 상황으로는 북한이 핵연봉을 재정전해 대결국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고위급 정치회담을 받아들여 돌파구를 모색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현재 한-미는 북한이 합의문을 완전 폐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새로운 대화형식을 통해 협상국면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 경수로 회담이 결렬된 뒤 21일 오전 공로명 외무장관과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 사이의 후속대책 협의에서도 대화 지속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한-미 협의에 따라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갈루치 미국 핵담당 대사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이 제의된 것이다.

갈루치 회담은 단순히 경수로 문제뿐 아니라 북-미 관계개선 등 북-미간 현안을 포괄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갈루치 회담은 전문가회담을 통해 경수로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네바 합의문 파기에 따른 파국을 막기 위해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오래전부터 전망돼 왔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제네바 합의문 채택의 당사자로서 교착상태에 빠진 경수로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오래

협상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그동안 3차례 전문가회담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갈루치 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북-미간에는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 방식 등에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노형문제에서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경수로 설계와 주계약자는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표준형인 울진 3.4호기와 모체인 미국의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CE)의 'SYSTEM-80'를 기초로 미국회사가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이 이런 요구에 대해 미국 기업이 맡는 경수로 사업 감리·감독기구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회사의 역할 강화를 내세워

북한을 설득하려했으나 실패했다. 설령 한국이 설계를 직접 맡는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경수로 설계에 대한 감리역할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제안이었다.

물론 북한이 제네바 합의문을 완전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고위급 정치회담 제의와 상관없이 일단 연변 5메가와트짜리 실험용 원자로에 핵연료봉을 재정전해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경수로 계약체결시한인 21일까지 공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경수로 공급협정체결 때까지 우선 연료봉을 재정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앞으로 경수로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대화국면의 지속으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위기국면으로 치달을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연과 재정전에도 사전 전 비워둬야 한다는 시한의 을 할 수 있다. 고위급 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갈루치 회담이 제의된 것이다. 북한이 합의문을 완전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고위급 정치회담 제의와 상관없이 일단 연변 5메가와트짜리 실험용 원자로에 핵연료봉을 재정전해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경수로 계약체결시한인 21일까지 공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경수로 공급협정체결 때까지 우선 연료봉을 재정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앞으로 경수로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대화국면의 지속으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위기국면으로 치달을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北경수로 부대시설 經協차원 지원 검토

정부 "공급협정 체결후 제의편협의 민중(공민)사업이로 추진"

남북-한만-승배전시설비 지원

【서울 24일 연합뉴스】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한간 전력수급협정'의 일환으로, 정부는 북한에 남-북-한만-승배전시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전력수급협정 체결 후 제의편협의 민중(공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전력수급협정 체결 후 제의편협의 민중(공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전력수급협정 체결 후 제의편협의 민중(공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전력수급협정 체결 후 제의편협의 민중(공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북한이 북-미-포탈인
경수로 부대시설비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시설비를 지원
함으로써 북한에 전력수급
협정 체결 후 제의편협의
민중(공민)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이다.

▽조선일보 1995. 4. 24

「한강(公)」로 명칭 변경 영특이성

정부는, 경수로(公)의 명칭을 한강(公)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전력수급협정 체결 후 제의편협의 민중(공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수로(公)의 명칭을 한강(公)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전력수급협정 체결 후 제의편협의 민중(공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1995. 4. 24

北美회담 5개원칙 美전달

정부, 기본합의문 수정불가·한국형 관철등

【서울 24일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에 5개원칙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전력수급협정 체결 후 제의편협의 민중(공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수로(公)의 명칭을 한강(公)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전력수급협정 체결 후 제의편협의 민중(공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수로(公)의 명칭을 한강(公)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전력수급협정 체결 후 제의편협의 민중(공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北·美 핵 합의」위기 직면

北京방송 양보 어려워 이행 난망

【경주 23일 특보】 북·미 핵합의 이행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가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상 분위기가 얼얼해지고 있다. 갈루치는 "북·미 핵합의 이행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가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상 분위기가 얼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북·미 핵합의 이행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가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상 분위기가 얼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1995. 4. 25

북핵협상 강경파·타협파 누구인가

김성호 기자

경수로 문제가 그동안 세차례의 북·미 전문가 회담에서도 타결되지 못한 데 따라 지난해 제네바 합의 당사자들인 김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로버트 갈루치 미국 핵담담 대사가 다시 협상의 전면에서 서로 원치않음을 내세우다보니 북핵협상이 타협보다는 팽팽한 대립양상으로 나타났다.

김정우는 지난해 11월 1차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 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표준형은 태어나지도 않은 유령"이라며 한국표준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데 이어 지난 21일 끝난 3차 전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인건적으로 호소하자 갈루치가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북한의 일부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북한의 김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과 미국의 로드 국무부 차관보가 맡으면서 서로 원치않음을 내세우다보니 북핵협상이 타협보다는 팽팽한 대립양상으로 나타났다.

김정우는 지난해 11월 1차 베를린 경수로 전문가 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표준형은 태어나지도 않은 유령"이라며 한국표준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데 이어 지난 21일 끝난 3차 전

강경 김정우-로드 대립 강·갈루치 다시 전면에

미묘한 입장차...경쟁관계도

정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서 북한과 미국내에는 타협파와 강경파가 서로 미묘한 입장차이를 함께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의 김석주 부부장과 미국의 갈루치 핵대사를 타협파로, 북한의 김정우와 미국의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각각 강경파로 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김석주와 갈루치는 협상과정에서 상대가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면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해 밀어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 타협을 이끌어 냈다. 당시 협상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바 협상 말미에 김석주가 "이번에 타결을 보지 못하면

문가 회담에서도 이를 굽히지 않았다. 김은 또 3차 전문가 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봐야 별로 나올 것이 없다며 김석주에 대한 견제와 함께 자신과 경수로 문제를 타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것이다.

외무부 관계자들은 김석주는 외교 관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김정우는 대외경제 담당자로서 국내 정치영향 등을 고려해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갈루치의 경우도 핵담담 대사로써 북핵문제를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 차원에서 접근해 타협적인 경향이 강하고,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로드는 지역문제 전문가로서 전반적인 안보와 국제정세 등을 우선시하는 데서 입장차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北「고위급회담」수용 시사

核협상관계자 美서 경수로로 타협안 제시 조건부

【경주 23일 특보】 북·미 핵합의 이행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가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상 분위기가 얼얼해지고 있다.

【경주 23일 특보】 북·미 핵합의 이행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가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상 분위기가 얼얼해지고 있다. 갈루치는 "북·미 핵합의 이행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가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상 분위기가 얼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 23일 특보】 북·미 핵합의 이행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가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상 분위기가 얼얼해지고 있다. 갈루치는 "북·미 핵합의 이행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가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상 분위기가 얼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 23일 특보】 북·미 핵합의 이행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가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상 분위기가 얼얼해지고 있다. 갈루치는 "북·미 핵합의 이행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가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상 분위기가 얼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 23일 특보】 북·미 핵합의 이행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가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상 분위기가 얼얼해지고 있다. 갈루치는 "북·미 핵합의 이행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가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상 분위기가 얼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北, 대외외교담 조전파수락

美제의에 담긴 "미국형爐논의하자" 주장

내달초 제네바서 회담열릴듯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북한은 26일 평양에서 열린 대외외교담에서 미국형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26일 평양에서 열린 대외외교담에서 미국형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北、美에 韓國型경수로 개량 요구

북한은 26일 평양에서 열린 대외외교담에서 미국형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中 "北제재 거부권 포기"

北에 「核동결 이행」 막후실력 작업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중국은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대외외교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중국은 또 북한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중국은 또 북한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중국은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대외외교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중국은 또 북한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중국은 또 북한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北, 대외외교담 조전파수락 배경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북한은 26일 평양에서 열린 대외외교담에서 미국형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美國型논의 못박아 난항 예고

「爐型실무회담 재개」 합의로 끝날 가능성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북한은 26일 평양에서 열린 대외외교담에서 미국형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대외외교담에서 핵무기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美, 「미국형논의 전제」 일축

“조선부 고위회담 불가”

김일치 북에서한

북조선의 김일치 북한 최고지도자(위원장)가 27일 평壤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다. (김정일과 김일치)

【합성성 기자】

▽경향신문 1995. 4. 28

경수로협상 타결위해 南北당국자 대화촉구

宋秉世원장판

宋秉世 원장은 28일 평壤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宋 원장은 “미국은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宋 원장은 “미국은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신문 1995. 4. 27

“경수로 돌파구 열까” 北-美 書翰외교

교착상태속 일단 메시지 교환안판

미국이 경수로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경수로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경수로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美 核동결 유지 강조... 대화 통한 해결 유도

北 美입장 타진 후 새달 고위회담 응할 듯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타결할 때까지는 고위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미국형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경향신문=합성성 기자〉

北, 「核동결」 부분과기 방침

“고위회담서 핵해결 난망”

北유엔공사발령 재가동할 구체대상이 언급안해

【서울 28일 연합뉴스】 북은 28일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핵동결을 전제로 한 부분과기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핵해결이 언제쯤 가능할지, 고위회담이 언제 열릴지, 유엔공사발령이 언제쯤 가능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은 이번 회담에서 핵동결을 전제로 한 부분과기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핵해결이 언제쯤 가능할지, 고위회담이 언제 열릴지, 유엔공사발령이 언제쯤 가능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수로 주제약자는 韓電”

갈루치 고위회담때 정치문제비중적응을 것

【서울 28일 연합뉴스】 미국의 갈루치 부통령이 28일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핵동결을 전제로 한 부분과기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핵해결이 언제쯤 가능할지, 고위회담이 언제 열릴지, 유엔공사발령이 언제쯤 가능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韓國배제 美-北담판 경제

경과 「대안」 채택 가능성

【서울 28일 연합뉴스】 미국과 북한은 28일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핵동결을 전제로 한 부분과기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핵해결이 언제쯤 가능할지, 고위회담이 언제 열릴지, 유엔공사발령이 언제쯤 가능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核협상 더 이상 소외不可” 판단 한국형경수로 관철에 총력전

【서울 28일 연합뉴스】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28일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핵동결을 전제로 한 부분과기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핵해결이 언제쯤 가능할지, 고위회담이 언제 열릴지, 유엔공사발령이 언제쯤 가능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北核시설 일부 해제방침

북미회담이후

【東京=聯合통신】北米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東京=聯合通信】北米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경수로협상 관련 北 강온路線투쟁”

日紙면

【東京=聯合通信】日本新聞은 28일 경수로 협상 관련 北의 강온路線투쟁을 보도했다. 北은 협상을 강행할 태세에 있다고 보도했다.

北 핵동결 파기땀 美, 즉각 유엔제재

【東京=聯合通信】北米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美 北사무소 조만간 개설 시사

허바드 박사관보 “경수로·南北대학의 연계안돼”

기술적 문제 해결되는 대로 설치할 준비

【東京=聯合通信】北米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東京=聯合通信】北米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東京=聯合通信】北米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北 美업체와 경수로 상담

갈루치 시인 “해당사에 不應응을 했었다”

【東京=聯合通信】北米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북미회담이후 北核시설의 일부 해제방침이 기대되고 있다.

北·美 고위급회담때 南北대화 재개 촉구

평화적 북핵해결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국은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적 고위급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적 고위급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核제재 동참말라 북한, 日에 촉구

【東京특파원】북한이 1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1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1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수로 韓國型 꼭 관철” 北 수용안하면 즉각 制裁조치



갈루치 美 核대사

갈루치 美 核대사 中央日報 단독회견

【서울특파원】중국 북경에 있는 갈루치 美 核대사는 1일 중앙일보 기자(KEDO)에게 한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갈루치 美 核대사는 1일 중앙일보 기자(KEDO)에게 한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갈루치 美 核대사는 1일 중앙일보 기자(KEDO)에게 한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北·美 고위급회담서 정부는 「일괄타결」 추진

연락사무소 개설 - 한국형수용 교환

【서울특파원】미국 정부는 1일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1일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1일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 주장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 주장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 주장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美·北, 고위급회담 장소논란

北 "평양" 美 "제네바" 맞서

북한, 평양회담정체결 제기 가능성

【한미연합군사령관실 4일 특파원 보도】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평양에서 열겠다고 제안했다고 미국이 4일 밝혔다. 미국은 제네바를 회담장소로 제안했다.

북한은 4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회담장소를 평양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제네바를 회담장소로 제안했다.

북한은 4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회담장소를 평양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제네바를 회담장소로 제안했다.

▽한국일보 1995. 5. 7

美·北 고위급회담 이견

美, 18일 제네바 제의... 北 15일 평양 맞서

【한미연합군사령관실 7일 특파원 보도】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평양에서 열겠다고 제안했다고 미국이 7일 밝혔다. 미국은 제네바를 회담장소로 제안했다.

북한은 7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회담장소를 평양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제네바를 회담장소로 제안했다.

▽동아일보 1995. 5. 5

對北 제재 대폭 완화 검토

「한국형」 수용조건 韓 千萬달러 이상 투자 美 직접투자 허용

【서울 5일 특파원 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완화는 북한이 「한국형」 수용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완화는 북한이 「한국형」 수용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다.

▽한국일보 1995. 5. 8

北·美 회담 평양不可

정부 北核동결상태 安保理 보고 추진

【서울 8일 특파원 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완화는 북한이 「한국형」 수용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완화는 북한이 「한국형」 수용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다.

對北중유 조기제공 검토

輕水爐 협정 직후 事務所 개설

한국형전제... 경제제재 추가완화도

평화協定 남북한 당사자논의 합의

崔단장-갈루치美北회담 대책회의
한-미-영방위 북한이 경제 제재완화 KEDO를 조기
인정할 경우 중유 조기 제공을 검토할 것

경제제재도 추가로 완화하
고 KEDO를 조기에 인정할 것
이런 의결을 내렸다.
한-미-영방위 부평양
-양산회담 12일 오후 2시
정양산부수회담과 함께
노역니지개방기구(KED
O)가 조속히 인정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령한 뒤 북-미 회담을
인정할 것으로 합의했다.
양산회담 12일 오후 2시
정양산부수회담과 함께
노역니지개방기구(KED
O)가 조속히 인정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령한 뒤 북-미 회담을
인정할 것으로 합의했다.

양산회담 12일 오후 2시
정양산부수회담과 함께
노역니지개방기구(KED
O)가 조속히 인정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령한 뒤 북-미 회담을
인정할 것으로 합의했다.

의견이 분분한데다가 단국대
의 단국대 교수인 김민준 교수의
발언이 주목된다. 김 교수는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경제제
재완화를 요구할 것이고, 이
때 우리는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면, 북한은 경제제재를 완화
할 것이고, 이 때 우리는 북
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보-趙漢秀기자】

▽중앙일보 1995. 5. 10

北-美회담 北京서 열릴듯

외무부 韓-美北 제의편 수용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 평양이나 제네바가
를 제1차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 북
한은 회담 장소로 평양을 제안했다.
미국은 회담 장소로 제네바를 제안했다.
외무부는 북-미 제의편을 수용할
것을 시사했다.

외무부는 북-미 제의편을
수용할 것을 시사했다.
북한은 회담 장소로 평양을
제안했다. 미국은 회담 장소
로 제네바를 제안했다.
외무부는 북-미 제의편을
수용할 것을 시사했다.

▽세계일보 1995. 5. 10

▽서울신문 1995. 5. 9

北核관련 정보수집·대책수립

북핵관련 정보수집·대책수립
외무부, 국방부, 정보원 등
관련부처가 북한 핵개발 관련
정보수집과 대책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외무부, 국방부, 정보원 등
관련부처가 북한 핵개발 관련
정보수집과 대책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朴宰範기자〉

고위회담 「제3장소」 제안

갈루치 서한 北 평양개최요구 거듭거부

갈루치 서한 北 평양개최요구
거듭거부
외무부, 국방부, 정보원 등
관련부처가 북한 핵개발 관련
정보수집과 대책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속보-趙漢秀기자】
갈루치 서한 北 평양개최요구
거듭거부
외무부, 국방부, 정보원 등
관련부처가 북한 핵개발 관련
정보수집과 대책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형」수용맨 對北전향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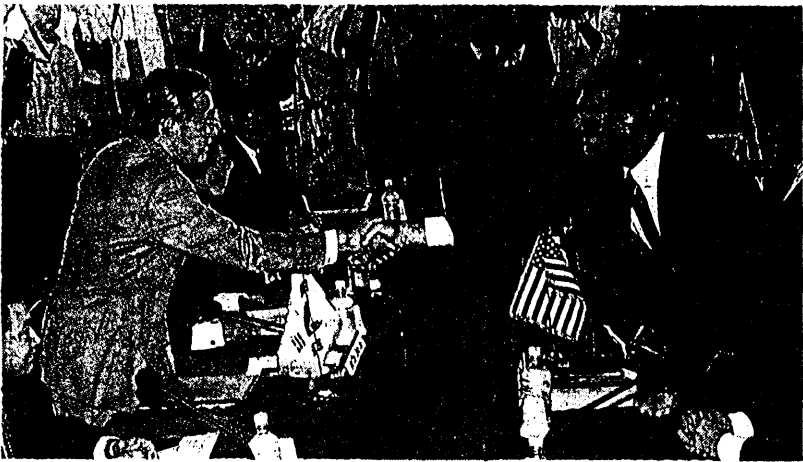
韓美의 「제네바합의」 南北대화 연계 재확인

「한반도 평화체제문제 南北이 직접 협의해야」

한미 양국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네바합의」 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韓美, 「美北교섭단」대책 조율

한미 양국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네바합의」 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군인들-전투복 입수 美北교섭단 9일 워싱턴에서 「제네바합의」 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네바합의」 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美-北회담 의제 「제네바합의」 한정

北의 「對美평화협정」공세 “사전차단” 核시설再가동 대비 「제재」문제도 협의

한미 양국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네바합의」 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네바합의」 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네바합의」 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네바합의」 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北核협정이행 계속 거부

추출된 핵물질도 동량 증정 못해

—AEA 총장

【워싱턴 9일路透電】 핵에너지위원회(AEA) 총장인 로버트 아틀링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네바합의」 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틀링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네바합의」 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네바합의」 1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수로로 韓國型 명기양기보

韓美日 합의 한국 중심 역할 할 재확인

'KEDO 제공' 표기... 北반응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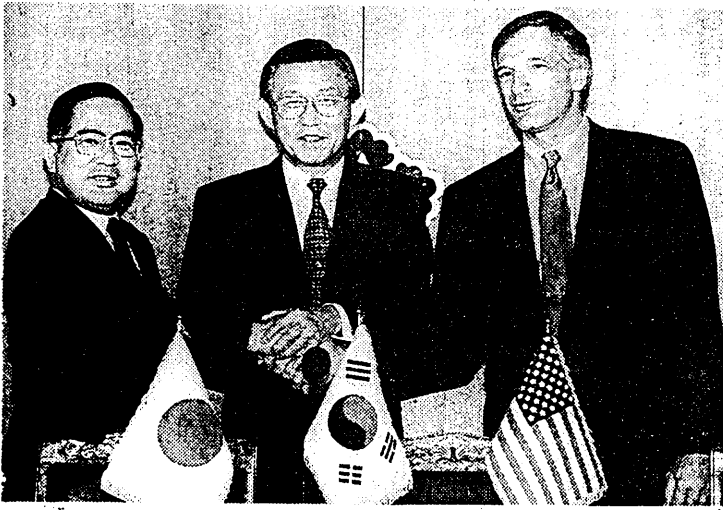
한-미-일 3국 합의 북한(KEDO)가 제공할 경수로 명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미-일 3국 합의가 10일 양국 정부에서...

한-미-일 3국 합의는 10일 양국 정부에서... KEDO의 명기 제재... KEDO의 명기 제재...

한-미-일 3국 합의는 10일 양국 정부에서... KEDO의 명기 제재... KEDO의 명기 제재...

3국核대사 공동회견

韓東嶺장수부(韓東嶺)가... KEDO의 명기 제재... KEDO의 명기 제재...



韓東嶺장수부(韓東嶺)가... KEDO의 명기 제재... KEDO의 명기 제재...

爐型 KEDO문안에 명시돼 언급안해

평화협정체결이 南北韓당사자간문제

韓東嶺장수부(韓東嶺)가... KEDO의 명기 제재... KEDO의 명기 제재...

韓東嶺장수부(韓東嶺)가... KEDO의 명기 제재... KEDO의 명기 제재...

韓東嶺장수부(韓東嶺)가... KEDO의 명기 제재... KEDO의 명기 제재...

高位회담장사 합의 北美 卜의 卜의 卜의

【본지 10일 부속 1면】... KEDO의 명기 제재... KEDO의 명기 제재...

北-美 내주「準고위급회담」

次官補급 참석 北京서 北 요청으로 格 나치취

「서울 11일路透電」 北韓의 김계관외교부 부장(차관급)이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김계관은 회담에 앞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김계관은 회담에 앞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北 對美 회담「格」 왜 낮췄나

「서울 11일路透電」 北韓의 김계관외교부 부장(차관급)이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김계관은 회담에 앞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姜錫柱 신변에 이상說 대두

持久戰위한 시간벌기 분석

「서울 11일路透電」 北韓의 김계관외교부 부장(차관급)이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김계관은 회담에 앞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北-美 회담 새 대표
김계관 부장(차관급)

北韓측이 11일 姜錫柱의 대표로 1 부부장대신 北-美 회담의 대표로 내세운 김계관(차관급)은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1938년 10월 19일 함북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학력 등은 베일에 싸여 있다. 그는 85년 9월 외교부전문위원, 89년 9월엔 순화대사가 됐으며 91년과 92년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한 姜錫柱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93년 6월 뉴욕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북한과 미국간의 제1단계 고위급회담에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으며 그 해 10월 게리 애커먼 미하원외교소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으로 돌아올 때 전송을 맡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北-美 고위급 3 단계 2차회담이 마지막 고비에 접어들었을 때 허버트 미용아태담당차관급과 무회담을 벌여 제네바합의의 마지막 절충을 시도한 장본인으로 대미외교와 핵문제에 정통한 인물. 그는 지난 1월 외교부 부장으로 승진, 북한의 외교부 부장은 모두 12명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한북회담에 반드시 나올 작이 없다. (韓起興)

「韓國型명칭양보」 사실과 달라

「서울 11일路透電」 北韓의 김계관외교부 부장(차관급)이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김계관은 회담에 앞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北 회담기간만 核동결

「서울 11일路透電」 北韓의 김계관외교부 부장(차관급)이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김계관은 회담에 앞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서울 11일路透電」 北韓의 김계관외교부 부장(차관급)이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김계관은 회담에 앞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 참석했다.

北準규위법협제의 배경

전문가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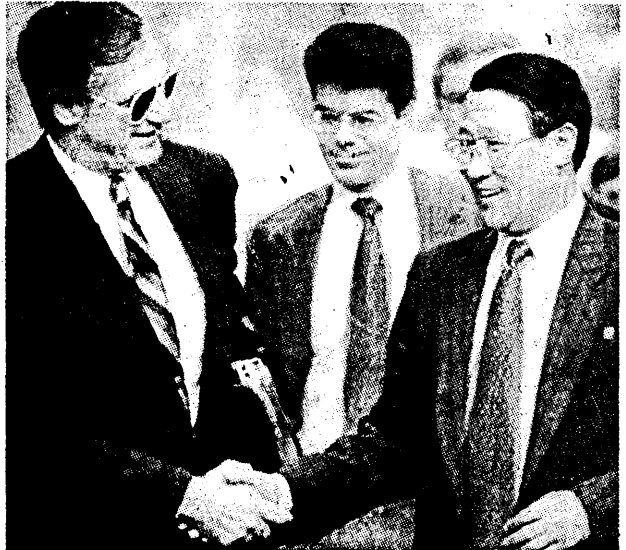
북한은 최근 남한과 30년 만에 재차 정상회담을 열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1991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1991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남한과 30년 만에 재차 정상회담을 열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1991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새협상창구 개설 시간별기

북한은 지난 11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남한과 30년 만에 재차 정상회담을 열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1991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姜錫柱-갈루치회담에 앞서 準규위법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형경수로 채택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제네바에서 열린 北-美3단계고위급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姜錫柱북한외교부 제1부장과 갈루치 美대사가 악수하고 있다. (제네바=AP통신)

「姜갈루치」배제 한국형경수로 거부 표시 對美대화 유지...정치협상화 속셈

북한은 최근 남한과 30년 만에 재차 정상회담을 열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1991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남한과 30년 만에 재차 정상회담을 열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1991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인물 포커스
崔東鎭
경수기획단장

「원자력평정력 비평가 어등」

북한은 최근 남한과 30년 만에 재차 정상회담을 열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1991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1995. 5. 12

韓國 중심외교활화돼야 對北경수로 지원

북한은 최근 남한과 30년 만에 재차 정상회담을 열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1991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北·美 準고위회담 19일 말聯서

어미과 남미

북한과 미국인 각자 순계관의교부부장과 토머스 워턴의 북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19일부터 할라를부터 시작한다. 북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은 19일부터 할라를부터 시작한다. 북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은 19일부터 할라를부터 시작한다.

북한과 미국인 각자 순계관의교부부장과 토머스 워턴의 북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19일부터 할라를부터 시작한다. 북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은 19일부터 할라를부터 시작한다.

對美 고위회담 北, 정치회담후 진행

북한이 13일 현재 '對美 고위회담'이 정치회담 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3일 현재 '對美 고위회담'이 정치회담 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 협정」 이제 포함여부 이견

北·美 準고위회담 재개 합의 지연
북한은 지난 11일 미국에 보내준 제안서에서 '평화 협정'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 미국의 제재도 부담 기간 연장 등이 합의 지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北 원자로 재가동 위협

美 핵협상 양보안하면 동결해제

美 핵협상 양보안하면 동결해제
미국은 핵협상을 양보하면 북한 원자로 재가동 위협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협상을 양보하면 북한 원자로 재가동 위협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협상을 양보하면 북한 원자로 재가동 위협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서울 13일 특보】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갈라거 부장관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19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갈라거 부장관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19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北 회담 장소 아직 확정안돼
【서울 13일 특보】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갈라거 부장관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19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갈라거 부장관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19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北에 전달 주말까지 제3의 장소서

核회담장 北京 피하사

고추장했다. 노무현은 이 사설에서 '노무현은 이 사설에서'라고 썼다.

미 "평화협정은 논의 않을 것"

칼라룸푸르회담 관련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15일 "오는 19일부터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북-미 준고위급 회담에서는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준비된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의 주된 목적은 경수로 문제의 해결"이라고 지적하고 "미국 대표인 허버드 부차관이 보가 다른 적절한 쟁점들도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남과 북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미국은 남과 북이 원할 경우 이를 기꺼이 지원할 것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美 "경수로-연락소 연계안해"

갈루치 本紙 회견 核동결 유지되면 합의 이행

【워싱턴=송홍기 기자】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대사는 16일 워싱턴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미국은 핵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루치는 이날 회견에서 "미국은 핵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루치는 이날 회견에서 "미국은 핵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라룸푸르 北-美 회담

美 정치문제 논의 시사

번스 국무부 대변인 발언

【워싱턴=李載笑】 미국은 15일(한국시간) 16일 경수로 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에서 열린 미 국무부 대변인 번스(Scott D. Brown)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핵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스는 "미국은 핵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경수로 문제 결정에 19일 회담이 마지막 北-美에 경고서한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15일 "오는 19일부터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북-미 준고위급 회담에서는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스캔들의 상징(魏錫柱) 북한 외무부 부차관이 지난 주말 모스크바에서 미 국무부 대변인에게 보낸 내내 회담에서 이 회담의 사안 중 경수로 문제와 관련된 미군사정기 마지막 회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경수로의 의제 다뤄도 놀라지 않을 것" 뒤늦게 "평화협정 협상은 안한다" 해명

북미 회담에서 '경수로' 의제가 다뤄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협정 협상은 안한다" 해명

미국 국무부 대변인 번스(Scott D. Brown)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핵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스는 "미국은 핵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한국형 경수로 입장 확고"

▽한국일보 1995. 5. 19

北수용만 기다리는 상태

國務部관리 「연락사무소」 협의도 완료

【서울 18일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할 때까지는 계속 해 북미합의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16일 시사주간지 『타임』에 "미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北·美 연락사무소 8월前 개설不可

韓·美 합의

北美중립위회담은 개 회를 앞두고 韓·美 양국은 北美 연락사무소를 8월 이전 개설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양국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北美중립위회담은 개 회를 앞두고 韓·美 양국은 北美 연락사무소를 8월 이전 개설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양국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경향신문 1995. 5. 19

美, 北에 重油공급 연기

"차분 轉用 海軍임업일편" 軍부장관

이 통보...연락사무소로 설치안해

【서울 18일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할 때까지는 계속 해 북미합의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北, 경수로 백지화 희망

美紙도 美와 「기본합의」 재협상 노력

【서울 18일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할 때까지는 계속 해 북미합의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美, 北과 평화협정 논의 안할 것」

美, 北과 평화협정 논의 안할 것

【서울 18일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할 때까지는 계속 해 북미합의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1995. 5. 18

19일부터 말레이시아 팔라방에서 개최되는 「北·美」회담은 「北美」회담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美·北準고위급회담 개막 안팎

지난달 20일 북-미 베를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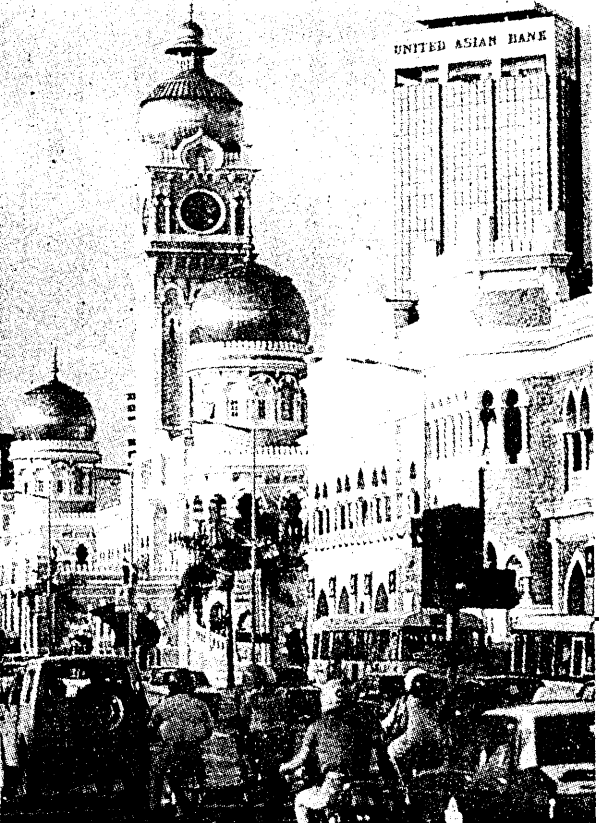
북한의 김桂冠 외무부 부장관과 미국의 노무스 외무부 부장관이 19일 오후 10시 베를린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은 2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돌다 핵보단 지역전문가 정치권 결정 가능한 위상

美·北수석대표이틀만

이틀만 머문다는 사실은

미·북 수석대표 회담이 19일 오후 10시 베를린에서 시작됐다. 회담은 2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조선의 수도 평양시에서 촬영된 김일성종합대학의 모습이다. 이 대학은 1956년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 「意中」 탐색전 치열

전망 불투명... 엇갈린 대화 분위기

북한은 회담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회담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美·평화협정 논의가 북미의

이들美·北準고위급회담 의제싸고 논란 예상

북한은 회담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회담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회담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회담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北 「벼랑끝 전술」 계속 할듯

전격적인회담도 어떻게 될까

북한측이 최근 들어 전격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측은 최근 들어 전격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북한측은 최근 들어 전격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입장차 커 空轉가능성

北서 美 당근전략 긍정반응맨 진전

북한측이 최근 들어 전격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북한측은 최근 들어 전격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북한측은 최근 들어 전격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北-美 “의제가 難題”

활라룸푸르 准고위급회담 전망

북한측이 최근 들어 전격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북한측은 최근 들어 전격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북한측은 최근 들어 전격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남북 대화 - 평양회담 첫 줄다리기

예비접촉부터 격론 10일 시작될듯

북한측이 최근 들어 전격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북한측은 최근 들어 전격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북한측은 최근 들어 전격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본지 특파부 리 = 朴東敏)

北 "회담결렬엔 결정적 조치"

金桂寬대표 말聯도착 심명 核동결해제 강력 시사

美하바드대표 "美-北사무소 개설 논의"

【한미합동통신】북한 김桂寬(김기광) 대표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렬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담 결렬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김 대표는 "회담 결렬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결렬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결렬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단은 이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렬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담 결렬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김 대표는 "회담 결렬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결렬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결렬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北 핵동결 유지 최우선

韓·美·日 합의 北대표 "결정적 회담 될 것"

평화협정 체결도 美와 협의

【한미합동통신】북한 김桂寬(김기광) 대표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렬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담 결렬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김 대표는 "회담 결렬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결렬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결렬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담 결렬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결렬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결렬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北-美

전화로 예비접촉 「의제」 협의

평壤대표단 準備도입해회담 이듬저다

【한미합동통신】북한 김桂寬(김기광) 대표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렬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담 결렬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회담적 의제 개편

○...회담적 의제 개편
북한 김桂寬(김기광) 대표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렬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담 결렬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회담적 의제 개편

○...회담적 의제 개편
북한 김桂寬(김기광) 대표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렬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담 결렬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北韓대표단 밤늦게 도착... 간단히 통화 北 "姜錫柱 부부장은 평양서 할 일 있다"

【한미합동통신】북한 김桂寬(김기광) 대표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렬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담 결렬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美·日 합의

○...회담적 의제 개편
북한 김桂寬(김기광) 대표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렬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담 결렬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회담적 의제 개편

○...회담적 의제 개편
북한 김桂寬(김기광) 대표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렬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담 결렬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회담적 의제 개편

○...회담적 의제 개편
북한 김桂寬(김기광) 대표가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렬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담 결렬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北-美경수로 우선논의

北평안위원회 주장등 自制

5월 準대우급회담 1차회의

【북한 평안북도 함흥시 20일路透電】北한정안위원회가 20일 평안북도 함흥시에서 열린 대우급회담 1차회의에서 '北-美경수로 우선논의'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북한측이 20일 평안북도 함흥시에서 열린 대우급회담 1차회의에서 '北-美경수로 우선논의'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북한측이 20일 평안북도 함흥시에서 열린 대우급회담 1차회의에서 '北-美경수로 우선논의'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北한정안위원회는 20일 평안북도 함흥시에서 열린 대우급회담 1차회의에서 '北-美경수로 우선논의'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북한측이 20일 평안북도 함흥시에서 열린 대우급회담 1차회의에서 '北-美경수로 우선논의'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北정치공세자제 예상

北-美準대우급회담 첫째

【북한 평안북도 함흥시 20일路透電】北한정안위원회가 20일 평안북도 함흥시에서 열린 대우급회담 1차회의에서 '北-美경수로 우선논의'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북한측이 20일 평안북도 함흥시에서 열린 대우급회담 1차회의에서 '北-美경수로 우선논의'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서로 입장만 개선 탐색전 성격

美허바드 「한국형」경수로 거론

【북한 평안북도 함흥시 20일路透電】北한정안위원회가 20일 평안북도 함흥시에서 열린 대우급회담 1차회의에서 '北-美경수로 우선논의'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북한측이 20일 평안북도 함흥시에서 열린 대우급회담 1차회의에서 '北-美경수로 우선논의'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北-美準대우급회담의 양측 입장

| 주제 | 北한측 입장 | 美측 입장 |
|--------|---|---|
| 핵무기 문제 | 북한측은 핵무기 보유를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국측은 핵무기 보유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핵실험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
| 경수로 문제 | 북한측은 '한국형' 경수로 도입을 우선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미국측은 '한국형' 경수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외교 문제 | 북한측은 대외관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 미국측은 대외관계를 확대할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北-美 「한국형」 2차 설중

평양회담이 1차회담을 준고위급회담

【평양 21일 AP통신】 북한은 평양에서 열린 1차회담이 2차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차회담이 1차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차회담이 1차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차회담이 1차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차회담이 1차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차회담이 1차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차회담이 1차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차회담이 1차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美, 駐韓軍증강 첫단계 돌입

통신장비등... 핵협상 위기대처

【워싱턴 21일 AP통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해 주한 미군의 통신장비를 증강하는 첫 단계를 시작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해 주한 미군의 통신장비를 증강하는 첫 단계를 시작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예정이다.

北-美 첫대좌 「입장차이」만 확인

평양회담이 1차회담을 준고위급회담 이어서

북한은 평양에서 열린 1차회담이 2차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차회담이 1차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 북측 | 미측 |
|------------------------|---------------------------|
| 정성일 (지도원 개장·차량담당) | 대니 라셀 (주한미대사관 1등 서기관) |
| 홍정철 (과장·이주담당) | 로이드 마이클 (합참 한국담당관·중령) |
| 홍정철 (과장·이주담당) | 제프 골드스타인 (국무부 북한담당관) |
| 김재환 (부부장) | 제리 사이모어 (문부총리실 미국부 북한담당관) |
| 최영화 (동역) | 토머스 허버드 (국무부 북한담당관) |
| 홍정호 (부국장·핵및 국제원자력기구담당) | 제이 임 (한국부 지역안보부장·중령) |
| 홍정길 (연구관) | 스티브 아오키 (국가안전보장회의 핵안보담당관) |
| | 뉴턴 허이스미스 (국무부 법률지원관실 근무) |



20일 평양에서 열린 1차회담이 2차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차회담이 1차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美 “한국형경수로 가장 현실적” 설득 北측 “평화상태 전환필요” 원칙 강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해 주한 미군의 통신장비를 증강하는 첫 단계를 시작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예정이다.

북한은 평양에서 열린 1차회담이 2차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차회담이 1차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해 주한 미군의 통신장비를 증강하는 첫 단계를 시작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예정이다.

美기업 「韓國型」 제공 방해

컴퍼스천 엔지니어링社 북한에 自社경수로 선택 로비

미국의 경수로 제작업체인 컴퍼스천 엔지니어링(ABB-CE)이 북한의 핵개발이 아닌 자사 제품인 경수로의 개발을 위한 美北경수로 협상의 개입을 구세적인 증가가 드러나 출몰을 주도하고 있다.

ABB-CE는 自社 제품인 경수로의 개발을 위한 협상을 위한 「미국(Comparison Basis)의 자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ABB-CE가 미국 정부에 신청한 「미국이 경수로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은 「미국이 경수로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은 「미국이 경수로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은 「미국이 경수로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은 「미국이 경수로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은 「미국이 경수로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은 「미국이 경수로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美·北 실무협상

오늘부터 경수로 기술적 부분 異見질충

【평양 22일 김성호 기자】평양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미 양측은 핵개발을 위한 경수로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교통부 부장은 22일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전체회담을 원하지만, 미국은 대외적으로 경수로 개발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전체회담을 원하지만, 미국은 대외적으로 경수로 개발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전체회담을 원하지만, 미국은 대외적으로 경수로 개발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전체회담을 원하지만, 미국은 대외적으로 경수로 개발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전체회담을 원하지만, 미국은 대외적으로 경수로 개발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전체회담을 원하지만, 미국은 대외적으로 경수로 개발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전체회담을 원하지만, 미국은 대외적으로 경수로 개발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전체회담을 원하지만, 미국은 대외적으로 경수로 개발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北 「한국 중심 역할」 해빙

【평양 22일 김성호 기자】북·미 실무협상에서, 북측은 핵개발을 위한 경수로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측은 핵개발을 위한 경수로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측은 핵개발을 위한 경수로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측은 핵개발을 위한 경수로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측은 핵개발을 위한 경수로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측은 핵개발을 위한 경수로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측은 핵개발을 위한 경수로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측은 핵개발을 위한 경수로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북-미 준고위급 2차회담

북, 남한 중심 역할 축소 초점

‘경수로’ 사업 핵심 ‘설계부분’ 의견접근이 타결관건

평양 22일 김성호 기자

평양에서 열린 북·미 준고위급 회담 2차 본회의에서는 경수로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질충방안이 논의됐다.

북측은 경수로 사업에서 남한의 중심적 역할을 축소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둔 것으로 외교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남한 역할 축소 주장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훼손할 정도여서 한·미·일 3국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측이 이날 회담에서 내세운 한국표준형 거부 이유로는 크게 정치적 부분과 경수로 사업 관련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과 북한에 미칠 영향, 남북대화 재개 부담감 등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첫 날에 이어 이날 회담에서도 "한국표준형 제공에는 남한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외교관계자들은 전했다.

경수로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한국표준형 명칭 일체 사용불가 △미국기업의 경수로 설계 △경수로 공급협정과 건설과정에서 발주자로서의 북한 권한인정 △앞으로 경수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협의는 북·미간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 북한 주장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날 회담에서 경수로 '공급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대표한 미국이 책임지고 건설과정에서도 미국기업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참구 역할을 맡는다는 사실을 들어 북한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경수로 사업의 핵심인 설계부분과 관련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역할의 확대를 통해 미국기업이 설계부분에 간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수로 문제 타결 여부는 바로 설계부분에 대한 북·미간 의견접근 여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외교관계자들의 전망이다.

北대표 “한국형 못받는 입장 알텐데..”

北·美 준고위급 2차회의 표정

北·美 준고위급 회담은 2차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북측이 한국형 협상을 못받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기로 하고, 합의할 수 없는 분야는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분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기로 하고, 합의할 수 없는 분야는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분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金桂寬 협상력 “아직 미지수” 北대사관들 기자들에게 공개



金桂寬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22일 평라봉푸르 소재 北韓대사관에 도착한 토머스 허버드 北·美 준고위급회담 美측 수석대표를 맞고 있다. (평양출판사 AP)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기로 하고, 합의할 수 없는 분야는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분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기로 하고, 합의할 수 없는 분야는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분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과 미국은 지난 20일 미국대사관에서 준고위급회담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22일 북한대사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협상을 한 발 진전시켰다. 2차 회의는 이틀전 1차 회의 때처럼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전 10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북한측 주최로 근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협상 분위기를 지속시켰다.

北 기자들 질타에 아연장

北·美 2차회의 이면적면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기로 하고, 합의할 수 없는 분야는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분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기로 하고, 합의할 수 없는 분야는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분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수로型」 거론엔 화제 회피

오찬등 함께하며 협상분위기 유지 신경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기로 하고, 합의할 수 없는 분야는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분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기로 하고, 합의할 수 없는 분야는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분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기로 하고, 합의할 수 없는 분야는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분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기로 하고, 합의할 수 없는 분야는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분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北 "美社에 경수로로下請權"

美社 거부 진전 못 봐

【한라봉루트=高素成 기자】북한은 23일 블라디미르 아탈라프코프에서 속자판 부민장관(외무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아직 진전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가정내외의 한 남학생은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韓國型「단점만 집중부각」

北, 경수로 거부 근거로 이용

【한라봉루트=高素成 기자】북한은 23일 블라디미르 아탈라프코프에서 속자판 부민장관(외무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아직 진전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수로로爐型」탐색전 계속

【한라봉루트=高素成 기자】북한은 23일 블라디미르 아탈라프코프에서 속자판 부민장관(외무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아직 진전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北, KEDO 무시 韓國배제 입장 고수

오늘 양측 수석대표 회담... 돌파구 기대

【한라봉루트=高素成 기자】북한은 23일 블라디미르 아탈라프코프에서 속자판 부민장관(외무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아직 진전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REFERENCE PLANT | YONGGWI | YONGGWI | YONGGWI |
|--------------------|----------------|----------------|----------------|
| SIZE | SYSTEM 80 | SYSTEM 80 | SYSTEM 80 |
| NATURAL MW | 1000 | 1000 | 1000 |
| THERMAL OUTPUT, MW | 3017 | 3017 | 3017 |
| FUEL ASSEMBLER | 241 | 117 | 40 |
| LICENSE BASE | GENERAL ATOMIC | PLANT SPECIFIC | GENERAL ATOMIC |

◇ABB-CE가 만든 비교자료. 「울진(UCN) 3-4호」의 시스템 명칭(NSS)이 「한국표준형(KSNP)」 대신 「SYSTEM 80」으로 되어 있어 한국형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美, 北에 일괄타결 제의

한국형수용-北美연락소 개설 등 제시

北선 「평화협정」 포함 주장

평안북도 평壤시에서

【평양 24일 연합뉴스】 평안북도 평壤시에서 24일 열린 남북회담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24일 발표한 10개항목의 제의안과 함께, 이 제의안에서 '평화협정'을 포함하라는 주제를 제기했다. 북측은 '평화협정'을 포함하라는 주제를 제기했다. 북측은 '평화협정'을 포함하라는 주제를 제기했다.

【평양 24일 연합뉴스】 평안북도 평壤시에서 24일 열린 남북회담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24일 발표한 10개항목의 제의안과 함께, 이 제의안에서 '평화협정'을 포함하라는 주제를 제기했다. 북측은 '평화협정'을 포함하라는 주제를 제기했다. 북측은 '평화협정'을 포함하라는 주제를 제기했다.

北 「합동행정부」 구성·달보상태

美-北 準근위협단 중가결산

【평양 24일 연합뉴스】 북한은 24일 발표한 10개항목의 제의안과 함께, 이 제의안에서 '합동행정부'를 구성하고, '달보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합동행정부'를 구성하고, '달보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금까지 협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합동행정부'를 구성하고, '달보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합동행정부'를 구성하고, '달보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평양 24일 연합뉴스】 북한은 24일 발표한 10개항목의 제의안과 함께, 이 제의안에서 '합동행정부'를 구성하고, '달보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합동행정부'를 구성하고, '달보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평양 24일 연합뉴스】 북한은 24일 발표한 10개항목의 제의안과 함께, 이 제의안에서 '합동행정부'를 구성하고, '달보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합동행정부'를 구성하고, '달보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책정 내년 「KEDO 지원」 예산

美하원, 대폭삭감추진

【워싱턴 24일 연합뉴스】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24일 발표한 1996년 예산안에서, 내년 「KEDO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24일 발표한 1996년 예산안에서, 내년 「KEDO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회의가 끝난 뒤 韓美日 협상대행단이 韓議대사관에서 3차 협의를 갖고 일일 평壤회담을 관할부채를 논의했다.

北 KEDO 제공 경수로 수용

美·北 회담서 「美 경수로 고집」 태도 변화

“KEDO 역할 첫 인정” 주목

소식통

【합천=합천=】북한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미·북 회담에서 KEDO의 역할을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KEDO가 북한에 경수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KEDO는 199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이 회원국이다. KEDO는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KEDO는 또한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KEDO는 또한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계일보 1995. 5. 26

美 北 협상 지구전 양상

准고위급회담 중간점검

【합천=합천=】북한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미·북 회담에서 KEDO의 역할을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KEDO가 북한에 경수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KEDO는 199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이 회원국이다. KEDO는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KEDO는 또한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KEDO는 또한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선일보 1995. 5. 26

“경수로 제공엔 전면 불응”

일부 북한 핵무기 수용 가능성 높아

【합천=합천=】북한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미·북 회담에서 KEDO의 역할을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KEDO가 북한에 경수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KEDO는 199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이 회원국이다. KEDO는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KEDO는 또한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KEDO는 또한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北 동결核 가동땀 北·美합의 무효' 對北 타협배제 法案 제출

美의원 대외연설... 권가 켈텔릭

의는 무효가 된 것으로 하며, 비무장지대의 군사력 삭감, 중거리 미사일의 배차 등 3대 분야에 대한 양측 합의는 26일 이후 진척이 없을 경우 법안이 고안되고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 켈텔릭은 이 법안이 법안과 결의안이 공화당의 의원들의 의해 제출되기 때문의 조만간 하원에서 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북·미 합의를 타협배제 법안인 '동결 핵 동결'의 추가 조항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26일 유엔 안전이사회 회의에서 공개되었다. 이 법안은 '동결 핵 동결'의 추가 조항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26일 유엔 안전이사회 회의에서 공개되었다. 이 법안은 '동결 핵 동결'의 추가 조항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26일 유엔 안전이사회 회의에서 공개되었다.

북-미 '경수로' 대부분 합의

북쪽 한국형 수용 불투명 진의파악 초점

【팔라투르=김성호 기자】 팔라투르 푸트 중고위급 정치회담을 통해 경수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북안과 미국은 경수로 공급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봤으나 노형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표준형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이 26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표준형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형 수용 여부에 대해

서는 명확한 거부입장도 아니고 애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수로 명칭 등 포장만 해주면 한국표준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회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는 이번 회담에서 이미 경수로 공급협정 등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PCO)를 중심으로 체결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를 봤다.

미, 중유-경수로 연계안해

국무부 재확인

【워싱턴=연합】 미국 정부는 대부분 추가 중유제과 경수로 공급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26일 재확인했다.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가 전날 뉴욕연설에서 대북한 중유공급 재개와 경수로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북한이 중유를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대로 우리는 중유 선적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두개 현안(중유와 경수로)을 연계시키지 않으나 북한이 이를 연계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의 입장은 경수로 문제가 타결될 때까지 향후 중유전용 방지책 마련에 관한 회담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北·美회담 결렬되면 北,核연료봉 재처리"

IAEA 전문가 경고

【리=텔릭】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표준형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이 26일 전했다.

안정된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IAEA는 "북한이 핵연료봉 재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IAEA는 "북한이 핵연료봉 재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고 말하며,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문제점이 많지만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IAEA는 "북한이 핵연료봉 재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한 핵협상 의미있는 진척

北·미 핵협상 KEPCO인정안판

【미국】 북·미 핵협상에서 KEPCO(한국에너지개발공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26일 유엔 안전이사회 회의에서 공개되었다. 이 법안은 '동결 핵 동결'의 추가 조항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26일 유엔 안전이사회 회의에서 공개되었다.

사실 북·미 핵협상의 KEPCO 인정안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진척 사항으로 꼽힌다. KEPCO 인정안은 '동결 핵 동결'의 추가 조항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26일 유엔 안전이사회 회의에서 공개되었다.

韓國이 핵심인 경수로공급지역할 수구

발주권은 계속 검토... 결정적돌파구 지연

【서울=연합】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동결 핵 동결'의 추가 조항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26일 유엔 안전이사회 회의에서 공개되었다. 이 법안은 '동결 핵 동결'의 추가 조항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26일 유엔 안전이사회 회의에서 공개되었다.

【서울=연합】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동결 핵 동결'의 추가 조항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26일 유엔 안전이사회 회의에서 공개되었다. 이 법안은 '동결 핵 동결'의 추가 조항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26일 유엔 안전이사회 회의에서 공개되었다.

北 韓·美 公 同 設 계 經 済 开 發 区 設 立

「韓 國 中 心 型 合 作 区 設 立」 日 本 部 門 認 定

【서울 27일 = 聯合通信社】北 韓 美 國 間 設 立 經 済 开 發 区 設 立 協 定 書 簽 署 後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서울 27일 = 聯合通信社】北 韓 美 國 間 設 立 經 済 开 發 区 設 立 協 定 書 簽 署 後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서울 27일 = 聯合通信社】北 韓 美 國 間 設 立 經 済 开 發 区 設 立 協 定 書 簽 署 後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서울 27일 = 聯合通信社】北 韓 美 國 間 設 立 經 済 开 發 区 設 立 協 定 書 簽 署 後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한국일보 1995. 5. 28

北 韓 經 済 开 發 区 設 立 不 問

「韓 國 中 心 型 合 作 区 設 立」 日 本 部 門 認 定

【서울 27일 = 聯合通信社】北 韓 美 國 間 設 立 經 済 开 發 区 設 立 協 定 書 簽 署 後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서울 27일 = 聯合通信社】北 韓 美 國 間 設 立 經 済 开 發 区 設 立 協 定 書 簽 署 後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서울 27일 = 聯合通信社】北 韓 美 國 間 設 立 經 済 开 發 区 設 立 協 定 書 簽 署 後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日 本 外 務 省 日 韓 經 済 協 力 課 長 官

경수로명칭

美「新浦1-2호기」제의

美聯美-北회담 협정문엔「KEDO제공」표현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미-북 회담 협정문에 '신미-1, 2호기'로 명칭된 경수로에 대한 미국의 제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 회담 협정문에 '신미-1, 2호기'로 명칭된 경수로에 대한 미국의 제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 회담 협정문에 '신미-1, 2호기'로 명칭된 경수로에 대한 미국의 제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 회담 협정문에 '신미-1, 2호기'로 명칭된 경수로에 대한 미국의 제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 회담 협정문에 '신미-1, 2호기'로 명칭된 경수로에 대한 미국의 제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 회담 협정문에 '신미-1, 2호기'로 명칭된 경수로에 대한 미국의 제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美 접근이후인간 인권 개선...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agreement and international reactions.)

北 경수로 근본입장 "불변"

"생산지不問" 불구 한국설계 거부 여전

북-美 회담이후인간 인권 개선...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agreement and international reactions.)

美 핵전문가 내달 訪北

美 핵전문가 내달 訪北...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nuclear expert mission to North Korea.)

韓·美 안보회담 격주 개최

경수로관련 孔외무, 데이니대사등 4명

韓(서울) 경수로 관련...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security talks and the delegation.)

北 새 제안...경수로 타결 고비



개최 8일째를 맞고 있다. 선전선인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선전선인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북측은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선전선인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생산지 불문」, 韓美입장에 접근 한국 중심 역할 확보 교섭 초점

北진의 불투명... 한국소의 전략 가능성도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선전선인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북측은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선전선인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美-北 경수로 협상 새 국면

美-北 협상 새 국면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선전선인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북측은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선전선인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北, 기종입장서 후퇴 '한국제작, 수용' 시사 "계통설계, 누가 맡느냐" 새 핵심쟁점 부상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선전선인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북측은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선전선인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선전선인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북측은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선전선인 「경수로」가 이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 문제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경수로監理 北추천인 포함

▽조선일보 1995. 5. 30

美、對북한양보案 제시 「책임시공」각서도 전달

準고위 7차회의 : 北, 환담미련

【평양 29일 연합뉴스】북한은 29일 미군정에서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7차 고위급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고위급회담이 7차 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길 원하고 있다.

또 미군정(UN)은 29일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금지하고, 핵실험을 한다면 핵실험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핵실험을 한다면 핵실험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9일 미군정(UN)에 대해 핵실험을 금지하고, 핵실험을 한다면 핵실험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핵실험을 한다면 핵실험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명칭 포기면
北核협상 잘 풀릴 것
북결재 北영사
【北京 29일 연합뉴스】북한은 29일 미군정(UN)에 대해 핵실험을 금지하고, 핵실험을 한다면 핵실험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 「한국제」라고 명명하여
고급회담 포기만 한다면
北核협상의 고위급회담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고 주장했다.

북결재 북한 대사관의
핵개발을 중단할 대가로 북한
에 판매할 원자로들과 관
련해 미국과 아무런 이견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
했다.

▽중앙일보 1995. 5. 31

北「한국형」수용할 것

갈루치 외교협서 밝혀

【워싱턴 29일 연합뉴스】북한은 29일 미군정(UN)에 대해 핵실험을 금지하고, 핵실험을 한다면 핵실험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열린 북한 핵협상 고위급회담에서 갈루치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북핵협상을 위한 7차 고위급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갈루치 차관보는 북핵협상을 위한 7차 고위급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경수로로써 10억弗 요구

北,核회담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된 중후(10만t) 조기제 재원화에도 희망한 것으로 북한은 또 10월도에 공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 전해졌다.

【평양 29일 연합뉴스】북한은 29일 미군정(UN)에 대해 핵실험을 금지하고, 핵실험을 한다면 핵실험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핵실험을 한다면 핵실험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한국형」수용 모델 투명

관공무 美측 양보 가능성에만 관심

미국은 (北측은) 아무런 조건 없이도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있는 한도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은 (北측은) 아무런 조건 없이도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있는 한도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경향신문 1995. 5. 31

한국일보 1995. 5. 31

남바지 접어 든 北·美 準그리워하다

북한이 북한형의 수용 모델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미국은 양보할 수 있는 한도를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爐型 신축 자세 불구

北진의 아직 도 베일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미국은 양보할 수 있는 한도를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미국은 양보할 수 있는 한도를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경수로가 동 모델 설계 비밀라

경수로회담 北 주장 요구 내용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미국은 양보할 수 있는 한도를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미국은 양보할 수 있는 한도를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모의 작동 장치 등 10여 가지 총 10億달러 소요

送配電설비 부두 시설 등도 건설까지 떠넘겨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미국은 양보할 수 있는 한도를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미국은 양보할 수 있는 한도를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미국은 양보할 수 있는 한도를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태도 변화 하루만에 추가양보 요구

"최대한 연기" "결렬명분" 분석 엇갈려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미국은 양보할 수 있는 한도를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국의 양보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美, 경수로 추가 부담 거부

北美회담

「韓國型」수용때 기술보충지원은 검토

金계관-하바드 특별회담

【북한특파부=평양특약취재팀 특보】북한측 특한이 31일 북·미 정상회담의 마지막 부분인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회담이 남한 특한이 31일 오후 10시 서울에서 열린 후, 남한측은 이 회담에서 남한측이 합의한 사항 중 '北-南 평화협정 체결 시, 남한측이 제공하기로 한 원자로 2기 중 1기(경수로)에 대한 기술보충 지원은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남한측은 이 회담에서 남한측이 합의한 사항 중 '北-南 평화협정 체결 시, 남한측이 제공하기로 한 원자로 2기 중 1기(경수로)에 대한 기술보충 지원은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남한측은 이 회담에서 남한측이 합의한 사항 중 '北-南 평화협정 체결 시, 남한측이 제공하기로 한 원자로 2기 중 1기(경수로)에 대한 기술보충 지원은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수로 합의면 '내주발표' 가능성

北-南 합의, 北-南 합의, 北-南 합의

【북한특파부=평양특약취재팀 특보】북한측 특한이 31일 남한측 특한과 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의 마지막 부분인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회담이 남한 특한이 31일 오후 10시 서울에서 열린 후, 남한측은 이 회담에서 남한측이 합의한 사항 중 '北-南 평화협정 체결 시, 남한측이 제공하기로 한 원자로 2기 중 1기(경수로)에 대한 기술보충 지원은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남한측은 이 회담에서 남한측이 합의한 사항 중 '北-南 평화협정 체결 시, 남한측이 제공하기로 한 원자로 2기 중 1기(경수로)에 대한 기술보충 지원은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남한측은 이 회담에서 남한측이 합의한 사항 중 '北-南 평화협정 체결 시, 남한측이 제공하기로 한 원자로 2기 중 1기(경수로)에 대한 기술보충 지원은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수위원회 8월 前 체결

北·美 이견 좁혀 「평칭」 부의 금명 고비

【서울 2일 연합뉴스】 북·미 수교를 위한 경수위원회(이하 경수위)가 8월 1일 이전에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칭' 부의 금명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수교를 위한 경수위 협상이 2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칭' 부의 금명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수교를 위한 경수위 협상이 2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칭' 부의 금명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뒷전 밀린 「남북대화 재개」

北·美 김대중-김영삼 회담

북·미 수교를 위한 경수위 협상이 2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칭' 부의 금명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輕水爐」 난항 속 議題 꺼내지도 못해 北·美 소극적... 「원칙만 합의」 가능성

북·미 수교를 위한 경수위 협상이 2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칭' 부의 금명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北·美 김대중-김영삼 회담

북·미 수교를 위한 경수위 협상이 2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칭' 부의 금명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형식 모두 제네바회담 再版

밀접 美-北 회담 전개 양상

북·미 수교를 위한 경수위 협상이 2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칭' 부의 금명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전체-실무회담 번갈아 개최 의견 절충 정식조약보다 경수로원천회담의 수준 그칠 듯

북·미 수교를 위한 경수위 협상이 2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칭' 부의 금명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외 항만등 부대시설 明文化안되면 北 폐연료봉 재처리 위험

▽경향신문 1995. 6. 4

美·北 회담 막판 최대 고비 맞아 美·재가동할 땐 강력 응징 경고

【워싱턴 3일路透電】美·北 회담 막판 최대 고비 맞았다. 북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폐쇄할 경우, 미국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북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폐쇄할 경우, 미국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북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폐쇄할 경우, 미국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북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폐쇄할 경우, 미국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승상 태수 물고구락기

최대 고비 맞은 北·美 회담

美 협상회의적... 선택만 기다려

北선 경수로 폐기 임박화했는지 걱정

【워싱턴 3일路透電】美·北 회담 막판 최대 고비 맞았다. 북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폐쇄할 경우, 미국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북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폐쇄할 경우, 미국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1995. 6. 4

북·미 준고위급회담 고삐질 북 추가부대시설에 집념 해법 못찾고 또 미로행진

김성호 기자

팔라툼부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준고위급 정치회담이 종착점을 앞두고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이 경수로 추가부대시설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를 한국 표준형 수용과 연계하는 한편 핵동결 해제 위협을 하고 나섰다.

종한' 경수로 추가부대시설 문제로 일이 꼬이자 미국 대표들은 실망과 함께 회담 지속에 대한 의의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의 협상 태도와는 달리 이날 회담에서는 추가부대시설 지원을 경수로 공급 협정에 명기하지 않으면 핵연료봉 재처리와 핵시설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강압적으로 나왔다.

통해 "미국은 내일중 팔라툼부 회담의 지속과 관련해 접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북한의 경수로 추가부대시설에 대한 요구가 곧 이번 회담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담 성패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끝내 경수로 추가부대시설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회담은 깨

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양측은 현재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곳 북한 대사관의 한 직원은 3일 기자의 전화 질문에 "어제 회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회담 막바지에는 항상 이런 경색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는 애초 지난 1일 실무자 회의에서 정리한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견 부분을 집중적으로 절충할 계획이었다. 실무자 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회담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추가부대시설 문제가 등장하면서 엄중한 방향으로 일이 꼬이고 있는 것이다.

「先 한국형 수용·後 추가지원」 논의

▽문화일보 1995. 6. 6

北에 시뮬레이터 제공 방안도

北·美, 오늘준고위급회담 속개

【평양 5일路透電】북한측의 경우로 부대시설 추가지원 요구는 일단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북·미 양국은 이날 평양에서 5일째 되는 회담을 열고 있다. 회담은 4일 밤 11시에 시작됐으며,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에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회담은 5일째 되는 회담을 열고 있다. 회담은 4일 밤 11시에 시작됐으며,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에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회담은 5일째 되는 회담을 열고 있다. 회담은 4일 밤 11시에 시작됐으며,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에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1995. 6. 5

北 추가요구 철저히 앞을 막는다

美, 회담결렬 불辭방심

【평양 5일路透電】북한측의 경우로 부대시설 추가지원 요구는 일단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북·미 양국은 이날 평양에서 5일째 되는 회담을 열고 있다. 회담은 4일 밤 11시에 시작됐으며,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에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회담은 5일째 되는 회담을 열고 있다. 회담은 4일 밤 11시에 시작됐으며,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에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1995. 6. 6

韓美 2인 회담이 5일부로 5일째 되는 회담을 열고 있다. 회담은 4일 밤 11시에 시작됐으며,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에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회담은 5일째 되는 회담을 열고 있다. 회담은 4일 밤 11시에 시작됐으며,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에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北、韓電 주계약자 수용

정파·언론자 밝혀 경수로 韓國 기술자入北도

부대시설 추가요구 : 北·美 막판 조율 진행 중
북한이 말레이시아의 팔렙방 부대시설을 영구적으로 北·美 韓 3국에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북·미 양국은 이날 평양에서 5일째 되는 회담을 열고 있다. 회담은 4일 밤 11시에 시작됐으며,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에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회담은 5일째 되는 회담을 열고 있다. 회담은 4일 밤 11시에 시작됐으며,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에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北-美 유년들 심층 회담 재개

막바지 절충... 北대표 일부 철수

【합천=부림=연합뉴스】북-미 유년들 심층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막을 내렸다. 회담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으며, 양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회담은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북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회담은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합천회담 막바지 절충면담

가장 18일째를 맞고 있는 북-미 유년들 심층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막을 내렸다. 회담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으며, 양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북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회담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으며, 양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추가지원 별도 회담서 논의” 美서 칠명도 절충안 발표

북-미 유년들 심층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막을 내렸다. 회담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으며, 양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북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회담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으며, 양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北대표, 강경파 설득용 내세워 또 “벼랑끝 전술”

북-미 유년들 심층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막을 내렸다. 회담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으며, 양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북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회담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으며, 양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美서 경수로 모티브” 천연기를

북미회담 대표인 부지정리·용사 전반기 말 아야

북-미 유년들 심층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막을 내렸다. 회담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으며, 양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북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회담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으며, 양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부대시설 南北정협으로 추진”

美, 北에 타협안 제시

정부는 민간차원 건설참여 가능

【합천=부림=연합뉴스】북-미 유년들 심층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막을 내렸다. 회담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으며, 양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북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회담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됐으며, 양측은 회담이 6일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된 후 양측 대표단은 회담장 인근에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I . 대북 경수로 지원

3. 북한, 한국형 경수로 수용

北·美 회담 사실상 타결

금명 합의문 발표 爐型 선정 권 KEDO에

한국도 중역심역 인정

추가 시설비 늘려 추후 벌노노의

【합천=합의문발표】 19일간의 사실상 타결됐다. 7일 합의문 발표다. 북·미는 동수로사입과 중앙시설을 위한 실무자담담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합의할 때 이 두 수석대

표의회의를 갖고 합의의 주요내용을 합의했다. 북·미는 동수로사입과 중앙시설을 위한 실무자담담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합의할 때 이 두 수석대

했다. 동수로사입과 중앙시설을 위한 실무자담담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합의할 때 이 두 수석대

【합천=합의문발표】 19일간의 사실상 타결됐다. 7일 합의문 발표다. 북·미는 동수로사입과 중앙시설을 위한 실무자담담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합의할 때 이 두 수석대

【합천=합의문발표】 19일간의 사실상 타결됐다. 7일 합의문 발표다. 북·미는 동수로사입과 중앙시설을 위한 실무자담담과 관련된 핵심사항을 합의할 때 이 두 수석대

▽조선일보 1995. 6. 8

베에르-어마파 회견

7일 미-북간 정상회담이 합의된 후, 베에르-어마파 회견을 가진다. 베에르-어마파 회견은 7일 미-북간 정상회담이 합의된 후, 베에르-어마파 회견을 가진다. 베에르-어마파 회견은 7일 미-북간 정상회담이 합의된 후, 베에르-어마파 회견을 가진다.

北합의방송나오자 "韓國따돌림" 개탄도

北合의방송나오자 "韓國따돌림" 개탄도. 北合의방송나오자 "韓國따돌림" 개탄도. 北合의방송나오자 "韓國따돌림" 개탄도. 北合의방송나오자 "韓國따돌림" 개탄도. 北合의방송나오자 "韓國따돌림" 개탄도.

反轉... 난항... 北核협상 4년

한국형 경수로 수용까지

北핵협상은 지난 4년 동안 91년 후반부터 부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권교체가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협상 과정에서도 미측이 협상 목적을 불분명하게 하고, 협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미일 양국이 핵폐기 협상을 추진한 것은 91년 12월 31일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미국-일본 핵합의'였다. 이 협정에 따라 북한은 핵폐기 관련 협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91년 美 영변핵단지 미확인시설 포착

특별사찰→경수로→한국형등 쟁점 이동

北 10억달러 추가요구로 마지막 진통

- △ 93. 5. 17 = 北-美 고위급회담 예비회담
- △ " 6. 2 = 1단계 고위급회담 (姜錫柱-로버트 갈루치, 뉴욕)
- △ " 7. 14 = 2단계 고위급회담 (姜-갈루치, 제네바)
- △ " 11. 24 = 실무접촉 개시 (許鍾-토머스 허바드, 뉴욕)
- △ 94. 7. 8 = 3단계 고위급회담 (姜-갈루치, 제네바, 金日成사망으로 중단)
- △ " 8. 5 = 3단계 고위급회담 1차회의 (姜-갈루치, 제네바)
- △ " 9. 23 = 3단계 고위급회담 2차회의 (姜-갈루치, 제네바)
- △ " 10. 21 = 제네바 기본합의문 타결. 경수로와 대체에너지 제공을 약속한 클린턴 美대통령친서 북한에 전달
- △ " 11. 1 = 北韓, 5MW 원자로 재장전계획취소. 50MW 2백MW 원자로 건설중단
- △ " 11. 8 = 南韓, 북핵문제 돌파구 마련에 따라 對北 경협 완화조치 발표
- △ " 11. 19 = 1차 北-美 폐연료봉 전문가회담 (평양)
- △ " 11. 30 = 1차 北-美 경수로 전문가회담 (北京)

北核협상 일지

- △ " 12. 6 = 1차 北-美 연락사무소 전문가회담 (워싱턴). 北-美관계 단절이후 처음으로 북한 정부대표단 워싱턴 방문
- △ 95. 1. 14 = 美, 대체에너지 重油 5만t 제공
- △ " 1. 18 = 2차 폐연료봉 전문가회담 (평양). 폐연료봉 건설보관 합의
- △ " 1. 20 = 美, 對北제재 1단계 완화조치 발표 (통상 여행 언론 금융거래 무역등)
- △ " 1. 23 = 南韓, 경수로사업지원기확단 공식발족
- △ " 1. 28 = 2차 경수로 전문가회담 (베를린)
- △ " 3. 9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공식발족
- △ " 3. 25 = 3차 경수로 전문가회담 1차회의 개최 (베를린)
- △ " 4. 4 = 駐유엔 북한대표부 韓성열공사, 北-美연락사무소 부지 물색차 워싱턴 방문
- △ " 4. 10 = 北-美 직통전화 개설
- △ " 4. 12 = 3차 경수로 전문가회담 2차회의 개최 (베를린)
- △ " 4. 18 = 3차 경수로 전문가회담 3차회의 개최 (베를린)
- △ " 4. 20 = 경수로 전문가회담 결렬
- △ " 5. 20 = 北-美 準고위급회담개최 (金桂寬-허바드, 팔라룸푸르)

양측은 가담하지 않았다.

91년부터 시작된 핵폐기 협상은 91년 12월 31일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미국-일본 핵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한 협상 목적과 협상 절차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미국측은 협상 목적을 불분명하게 하고, 협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미일 양국이 핵폐기 협상을 추진한 것은 91년 12월 31일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미국-일본 핵합의'였다. 이 협정에 따라 북한은 핵폐기 관련 협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91년 12월 31일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미국-일본 핵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한 협상 목적과 협상 절차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국형」-「추가비용」 주고받기

北-美 핵협상 타결 배경과 전망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열린 北-美 핵협상 타결 배경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측이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은 2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제기한 추가비용이 20억 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추가비용이 협상 타결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열린 北-美 핵협상 타결 배경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측이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은 2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제기한 추가비용이 20억 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추가비용이 협상 타결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열린 北-美 핵협상 타결 배경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측이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은 2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제기한 추가비용이 20억 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추가비용이 협상 타결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열린 北-美 핵협상 타결 배경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측이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은 2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제기한 추가비용이 20억 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추가비용이 협상 타결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美 일부시설 제공... 韓國과 조율 변수 정부, 「양보」로 비칠때 제동걸 가능성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열린 北-美 핵협상 타결 배경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측이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은 2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제기한 추가비용이 20억 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추가비용이 협상 타결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열린 北-美 핵협상 타결 배경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측이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은 2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북측이 제기한 추가비용이 20억 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추가비용이 협상 타결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北경수로 「KEDO제공 2基」로 합의

사실상 「울진 3·4호기」

韓國型 표현 없었다 KEDO협정에 명기

정부선 합의문에 한국형 반영 촉구

북한과 미국이 북한을 위한 KEDO(국제에너지개발기구)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는데 합의한 것이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한국일보 1995. 6. 9

韓·美、北경수로 최중점협정

내일 갈루치來韓 정부 「한국형·중심역 명기」 요구

北·美회담 재담판 타결 늦어질 듯

미국 정부가 갈루치를 내일 서울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갈루치는 북·미 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미국은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KEDO가 제정하는 1천만 2천톤 표기한다.

「北韓 만전 못부리기」에 총력

「정수로」 타겟국면



◇羅雄培총일부총리가 8일 팔라봉푸르 美北협상진전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韓, 「北 무리한 부대시설」 거부

최대한 韓國型 알수 있도록 노력 표현

【서울 8일 특보】 북한이 남한에 요청한 판문점 평화의 집 부대시설에 대해 "북한이 요구한 시설은 대부분이 남한에 비해 무리하게 부대시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거부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시설 중 일부는 "북한형"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시설 중 일부는 "북한형"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시설 중 일부는 "북한형"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

남한이 제안한 시설 중 일부는 "북한형"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시설 중 일부는 "북한형"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美와 공조 중요한 시점” 불만감취

주계약자 韓電이 설계·제작·시공

올진3·4호기 간접지칭 「참조발전소」 삼입 압력

【서울 8일 특보】 북한이 남한에 요청한 판문점 평화의 집 부대시설에 대해 "북한이 요구한 시설은 대부분이 남한에 비해 무리하게 부대시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거부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시설 중 일부는 "북한형"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입장

【서울 8일 특보】 북한이 남한에 요청한 판문점 평화의 집 부대시설에 대해 "북한이 요구한 시설은 대부분이 남한에 비해 무리하게 부대시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거부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시설 중 일부는 "북한형"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美 책임 부각... 추가비용 10억달러 쟁기기

북의 수권

【서울 8일 특보】 북한이 남한에 요청한 판문점 평화의 집 부대시설에 대해 "북한이 요구한 시설은 대부분이 남한에 비해 무리하게 부대시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거부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시설 중 일부는 "북한형"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우리입장 꼭 관철" ... 제동

北·美 準고위급회담 막판주춤

北美간 고위급회담의 막판 주춤이 계속되고 있다. 3차 회담을 가졌다. 최종 북·미 양측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3차 회담은 6일 오후 3시에 시작됐다. 양측은 3일째 회담을 벌였다. 양측은 3일째 회담을 벌였다. 양측은 3일째 회담을 벌였다.

원칙·표현사고 南·北·美 시각차

北·美 準고위급회담 애매한 태도도

北美간 고위급회담의 막판 주춤이 계속되고 있다. 3차 회담을 가졌다. 최종 북·미 양측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3차 회담은 6일 오후 3시에 시작됐다. 양측은 3일째 회담을 벌였다. 양측은 3일째 회담을 벌였다. 양측은 3일째 회담을 벌였다.

▽경향신문 1995. 6. 9

"한국 중심설 명기돼야"

金대통령, 북미회담의 전격화

갈루치핵대사 내일來韓 임박

北美간 고위급회담의 막판 주춤이 계속되고 있다. 3차 회담을 가졌다. 최종 북·미 양측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3차 회담은 6일 오후 3시에 시작됐다. 양측은 3일째 회담을 벌였다. 양측은 3일째 회담을 벌였다. 양측은 3일째 회담을 벌였다.

▽국민일보 1995. 6. 9

"北核 KEDO서 해결" G7 의장聲明 내기로

【노보】(노보)가 다 헬리팩스에서 15일부터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노보총리의 8일 발표했다.

노보총리는 8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노보총리의 8일 발표했다. 노보총리는 8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노보총리의 8일 발표했다.

노보총리는 8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노보총리의 8일 발표했다. 노보총리는 8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노보총리의 8일 발표했다.

北美간 고위급회담의 막판 주춤이 계속되고 있다. 3차 회담을 가졌다. 최종 북·미 양측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3차 회담은 6일 오후 3시에 시작됐다. 양측은 3일째 회담을 벌였다. 양측은 3일째 회담을 벌였다. 양측은 3일째 회담을 벌였다.

"경수로교섭 한국 직접참여"

정부, 오늘 「韓·美협약」 대책 「KEDO전담」관철 통해

▽세계일보 1995. 6. 10

美, 對北지원규제안 의결

北·美직거래 종식 촉구

갈루치·로드來韓, 美, 추가시설-한국형명記연계

정부가 10일 개원후 첫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핵연료봉 제조에 필요한 중성자포획용 중성자 흡수체(캐비티)의 개발과 관련,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개원후 첫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핵연료봉 제조에 필요한 중성자포획용 중성자 흡수체(캐비티)의 개발과 관련,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든 지원조치 이행 사전승인

核재가동엔 제네바합의문 이행중단도

【워싱턴=연합】미국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핵연료봉 제조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재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핵연료봉 제조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재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핵연료봉 제조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재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한미 미차관보 임명인정

『워싱턴=연합』미국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핵연료봉 제조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재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워싱턴=연합』미국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핵연료봉 제조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재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워싱턴=연합』미국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핵연료봉 제조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재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한미 중립성 인정행위 혐의

부대시설 제공여부 KEDO가 결정

미국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핵연료봉 제조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재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핵연료봉 제조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재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핵연료봉 제조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재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핵연료봉 제조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재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워싱턴=연합】미국정부는 8일 북한에 대한 핵연료봉 제조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재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원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IAEA 『韓國型원자로 안전성 우수』

로젠 評價단장 울진 3·4호기 진단 결과 밝혀



울진3호기에 설치된 한국표준형

울진 원전 3호기에 설치되기 직전의 한국표준형 원자로 모습. 9일 국제원자력기구평가단에 의해 안전성이 우수한 설계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안전국장 모리스 로젠박사가 9일 과학기술처 회의실에서 한국표준형 원전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고대처 능력 뛰어난 첨단설계

한국표준형 원전인 울진 3·4호기가 국제적인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학기술처 회의실에서

로젠박사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일본 등 모두 7개국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IAEA 안전성 평가단이 울진 3·4호기를 가시적인 안전성 평가가 가능한 선진형의 현대식 설계를 갖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도 한층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로젠박사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일본 등 모두 7개국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IAEA 안전성 평가단이 울진 3·4호기를 가시적인 안전성 평가가 가능한 선진형의 현대식 설계를 갖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도 한층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가로 이뤄진 IAEA 안전성 평가단을 이끌고 지난 5월 29일 내한, 10일간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울진 원전건설현장에서 울진 3·4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안전성 평가단이 진단한 사항은 ▲원자로심과 핵연료 설계 ▲원자로계통 ▲기계적 건전성 ▲계통 ▲공학적 안전성 ▲비밀 사고해석 ▲중대사고 및 화물운반 안전성 분석 ▲인간공학 등 7개 분야이다. 로젠박사는 안전성 진단 결과 울진 3·4호기는 운전상태 감시능력을 향상시킨 최신식 디지털 제어제어, 노심용융을 야기하는 중대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원자로설계 등 다수의 개발 안전특성을 갖추었으며 원자로 잔여물 제거 계획 및 배관재질 강화 등을 증가시키는 등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영광 3·4호기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로젠박사는 특히, 디지털 제어제어용 칩과 외국에서도 채택하기 시작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의 신뢰도 향상은 원자로심과 스트로브 운전조향 유닛을 위한 노심연장치 구비를 권고했다. 로젠박사는 평가단의 공식적인 상세 보고서를 2개월 후 한국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려 기자>

한국형 명시여부 한-미 갈등 불씨

워싱턴 / 정연주 특파원

필라델피아의 준고위급 회담이 지난 주말부터 급진전하게 된 계기는 북한이 처음으로 경수로 제공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구두로 약속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또는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반응을 보여온 북한이었기에, 그것은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구두 약속'이 지난해 제네바 회담 때 한국형 경수로 수용문제에 대해 강석주 북한 단장이 '침묵'으로 '사실상 수용'의 뜻을 보인 것보다 훨씬 신속적이고 진척된 입장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회담은 급진전하여 합의문 초안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은

미 "형식보다 내용 중시" 내세워 양해 희망 선거 앞두고 정부쪽 강경입장 고삐 안 늦추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사실상 수용하고 이를 구두로 약속하면서도, 문서에 한국형을 기록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한성렬 공사의 6일 본지 전화회견에서 잘 드러났다. "우리는 경수로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상관없다. 그러나 'ROK'(한국형)라는 이름이 붙어는 안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은 굳이 문서에 한국형을 명시하지 않아도 북한이 '한국의 중심

적 역할'을 약속한 것만으로 커다란 진전으로 보고, 그것이 북한으로부터 받아들 수 있는 최대의 양보로 보았다. 그리고 이 정도 선의 합의문으로도 '한국형'이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한국이 수용해줄 것을 강력해 희망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한다면,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

스러운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을 터이다. 물론 한국형이 명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또 무엇을 요구할지, 그리고 북한이 약속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다는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현대기술의 종합판인 경수로 건설에서 돈을 대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실질적 수용'으로 족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 일각에는 회의론이 더 지배적이었다. 김영삼 대통령 자문관인 김의교안보 팀에 강경일색의 인물이 많은데다, 지자체 선거를 얼마 앞두고 많은 국내 정치 때문에 미국의 희망이 쉽게 수용되리라 보지 않았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계속 강경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위기적 상황'은 집권 여당에 호재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으며 '핵동결 포기' 위협을 하고 나온다면 사태는 더욱 혼미해진다. 결국 지자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묘안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자칫 한미간에 갈등과 마찰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미 일부 미국 언론은 그 위험성을 내다 보고 있다.



韓-美「核입장」소용 10일 오전 羅雄培부총리가 집무실에서 北-美 정상회담의 합의문안을 협의하기 위해 내한한 美 국무부의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와 윈스턴 로드 東亞차관보(왼쪽에서 두번째) 일행을 맞고 있다. 왼쪽끝은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 (徐英洙)

「한국형 명시안」 도입면 회담결렬

정부 방침확정 갈루치 “北 핵동결 해제면 제재”

부대시설 제공 의견접근 北-美 회담

【서울 10일 연합뉴스】 북-미 회담이 10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에서 종결된 뒤, 양측은 회담 결과에 대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며, 북한측은 회담이 양측의 이해를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 해제와 미국의 부대시설 제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진다.

【서울 10일 연합뉴스】 북-미 회담이 10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에서 종결된 뒤, 양측은 회담 결과에 대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며, 북한측은 회담이 양측의 이해를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 해제와 미국의 부대시설 제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진다.

韓-美 입장소용 이후 전망

이날 회담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미국측은 북한의 핵 동결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북한측은 미국의 부대시설 제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 해제와 미국의 부대시설 제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진다.

北-美 핵협상 다시 안개속

韓國 강경자세 확인한 美행보에 관심 北 태도 따라 장기화·결렬 우려기론에

북-미 핵협상은 다시 안개속으로 돌아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강경자세 확인한 미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면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 해제와 미국의 부대시설 제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진다.

회담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되 스시 사용이 허용될 경우, 북한은 핵 동결 해제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부대시설 제공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김대중은 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부대시설 제공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 해제와 미국의 부대시설 제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진다.

한국 예상밖 강경에 美 곤혹

韓·美 경수로협약의 표정

10일 오후 3시경 서울에서 열린 韓·美 핵협약 협상에서 美측은 韓측의 예상밖 강경 태도에 곤혹을 겪고 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10일 오후 3시경 서울에서 열린 韓·美 핵협약 협상에서 美측은 韓측의 예상밖 강경 태도에 곤혹을 겪고 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우리측, 밀통출처가며 보완점 지적 美측, 외부 메모받고 북도 熟議도

고급층 한미회담 과정 중 美측은 韓측의 예상밖 강경 태도에 곤혹을 겪고 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갈루치 일문일답

로버트 갈루치 美핵대사들은 10일 하오 남양동 美공보원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팔라툼푸르에서 北·美간에 「잠정적인 양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팔라툼푸르의 北·美간 준고위급회담 성공여부는.

『북한이 한국형경수로와 한국 중심역할을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면 北·美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라 더이상 말하기 곤란하다』

-북한의 기본합의문 이행과정을 어느 정도까지 낙관하는가.

『북한이 그를 묶을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달렸다. 남북대화는 합의문 이행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이 핵동결해제를 위협하고 있는 데.

『북한의 핵동결은 북한 자신을 포함한 전세계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이를 해제하는 것은 협상자체를 과국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왔다』

-한국형경수로와 한국 중심역할이 추후 나올 北·美간 발표문에 어떤 식으로 문서화되는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라 어떤 문구가 될지는 모른다. 다만 韓·美·日 3국간이 정한 공동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는 없을 것이다』

【洪潤五기자】

北, 핵동결해제 또 위협

美서 협상양보없이면 폐연료봉공조치

【남양동 10일】북한이 10일 협상도 중단하고 위협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美측은 협상 초반부터 韓측의 태도를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적'이라고 평가했다.

참조발전소 합의문에 추가항목

韓美 실무협의를 모호하면 北 "판소리" 소리

【합동특파원】 李度運(이도운) 韓美 실무협의를 11일 서울에서 개최한 뒤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의 KEDO가 결정 시대로 다소 모호하게 표현될 경우 북한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중심재활원·원천기금

끝내기수순 北美회담 정부입장

북미간 중립회담이 끝났지만 수순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진3·4호기 주계약자등 명기 필수적” 韓美협의 채널 격상 판협상 관철압력

이것이 바로 협상 채널 격상 판협상 관철압력이다. 이 때문에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北美합의문 마무리 작업 韓國이 수용하면 13, 14일째 발표

【합동특파원】 李度運(이도운) 韓美 실무협의를 11일 서울에서 개최한 뒤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협상 채널 격상 판협상 관철압력이다. 이 때문에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협상 채널 격상 판협상 관철압력이다. 이 때문에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측이 합의문에 추가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YS '한국형 경수로' 왜 도장받으려 하나

미국 이중플레이 췌기

조정자가 주계약자 역할 '한국 핫바지' 경계

장정수 기자

북한과 미국의 경수로 협상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일차적으로 협상 주무부서인 외무부의 강경 기류를 반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한국형 수용문제를 애매하게 언급한 북미 합의를 잠정합의에 대해 청와대의 일부 참모들이 "북한이 사실상 한국형을 수용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이를 일축하고 "최종합의문에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의 이러한 단호한 입장

은 표면적으로 북한의 한국 배제 전략에 대한 대응 카드의 징검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이중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칼라푸르 잠정합의가 선의로 해석할 때 북한의 체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한국 배제를 위한 교묘한 합정일 수도 있다. 김 대통령은 10일 청와대를 예방한 로버트 갈무치 미국 핵대사에게 "한국이 경수로의 설계, 시공, 제작, 감리 업무 등 주계약자의 구실을 사실상 수행할 수도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뒷바침이라도 하듯이 북한은 한국전력이 주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한전을 거부하고 프로그램 조정자만을 상대로 실무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미국측에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무부 등은 워싱턴으로부터의 각종 정보를 토대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컴버스컨 엔지니어링 등 원전 업체들이 북한 경수로 사업을 따내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에 맹렬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대통령이 10일 청와대를 예방한 로버트 갈무치 미국 핵대사에게 "한국이 경수로의 설계, 시공, 제작, 감리 등 모든 공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북미 합의에서 명시해야 경수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문서화를 요구한 것도 바로 프로그램 조정자의 변칙적 운영 가능성에 췌기를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北-美 「核협상」 완전합의 「韓國」 중심적 역할」 明記

KEDO 참조발전소 결정 경수로공급 주계약자 韓電 北美연락사무소 조기개설

합의내용

兩側대표 귀국...금일 공동발표키로

【광주 12일 연합뉴스】北-美 양측의 완전 합의 협상을 위한 13일 양측 대표가 귀국할 예정이다. 양측은 13일 양측 대표가 귀국할 예정이다. 양측은 13일 양측 대표가 귀국할 예정이다.

신미경의 나열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13일 양측 대표가 귀국할 예정이다. 양측은 13일 양측 대표가 귀국할 예정이다.

주계약자로 韓國電力을 지정하고 있어 한미협조수로 합의의 중심적 역할이 예상된다. 양측은 13일 양측 대표가 귀국할 예정이다.

北, 「韓國型 수용」 시인

金계관대표 "어디서 만들든 개의안해"

▽동아일보 1995. 6. 14

미국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은 팔라툼푸르에서 1995년 5월19일부터 6월12일까지 1994년 10월21일의 미-북기본합의문의 이행과 관련한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미-북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관한 정치적 약속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동 합의문에 입각한 경수로 사업의 원활한 이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미국은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관한 1994년 10월20일자 미대통령의 보장서한이 계속 유효함을 재확인한다.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미국 주도하에 미-북 기본합의문에 입각하여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사업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한다. 합의문에 명기되어 있는 바에 따라 미국은 경수로 사업에 있어서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관련, 미국 국민이 필요에 따라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KEDO 대표단 및 작업반의 대표가 된다.

2. 경수로 사업은 각각 두개의 냉각제 유로를 가진 약1,000MW(e)의 발전용량의 가압 경수로 2기로 구성된다. KEDO가 선정하는 경수로의 노형은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되어 현재 생산중인 개량형으로 한다.

3. 북한 정부를 대표한 대외경제위원회와 KEDO가 북한에 경수로를 터키 베이스로 제공하기 위한 공

美-北 공동발표 전문

급협정을 가능한한 최단시일내에 체결한다. 이 발표문에 기초하여 북한은 경수로 공급협정에 관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KEDO와 회동한다.

KEDO는 경수로 사업의 건설과 운전에 필요한 요건들을 확인하기 위해 부지조사를 실시한다. 동 부지조사와 부지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수로 사업의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KEDO는 경수로 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한다. 경수로 사업의 전반적 이행에 관하여 KEDO의 감리업무를 보조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미국기업이 담당하며, KEDO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선정한다. 북한기업은 경수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행에 관련된 계약에 참여한다.

4. 경수로 사업에 추가하여 양측은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의 전문가들은 기본합의문에 따른 중유의 단계적 공급을 위한 일정과 제반협력 조치에 합의하기 위해 6월중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에서 만난다. KEDO는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유의 일차분 공급을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1995년 1월20일자 사용후 연료봉의 안전한 보관에 관한 미-북한간 회담기록은 신속하게 실천에 옮겨진다. 이와 관련, 동 이행을 위해 미국 전문가들이 6월중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을 방문한다.

주계약자 KEDO 일일입

허바드美대표 蔚珍모델北에 제공될 것

「팔라툼푸르」李相遠美代表 北美 準고위급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의대표부 부장인 13일 경 수로 노형문제에 있어 우 리는 설계를 기습이 어디 에 기존한 것이냐를 중시

하지 그것이 어디서 만들 어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입찰해 한 국형 경수로를 사실상 수용형으로 시인했다. 그는 한반도의 에너지 개발 기구(KEDO)가 향후

전립을 주계약자로 선정할 경우에도 대해서도 주계약 자 선정에 대해서는 미 국과 KEDO가 일어서 하도록 내외교를 통해 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한 부 의 주도적 역할도 사실상 받아들였다. 그는 北美간 에 발표가 끝난 뒤 북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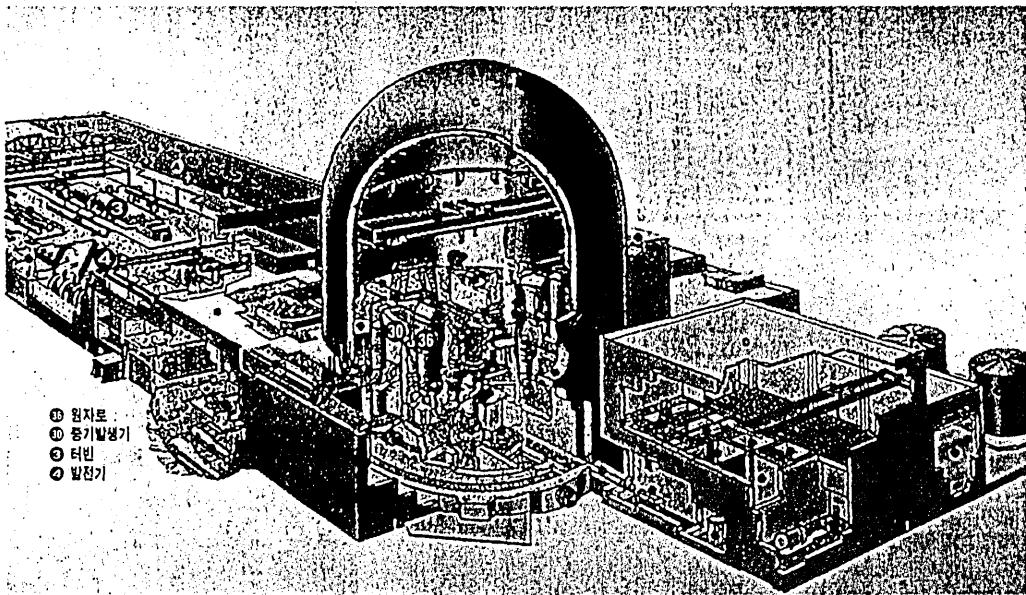
사판에서 경수로 협상과정 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 고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워싱턴 특파원 김계관(美)은 워싱턴 주 로 사업을 朝美기본합의 (제네바합의) 이행과정의 장했다.

그는 이번 합의문에 거 의 반영되지 않 10일달 러 삼달의 경수로 부대시 설 추가 지원 문제의 대해 「워싱턴포스트」 워싱턴 특파원 김계관(美)은 워싱턴 주 로 사업을 朝美기본합의 (제네바합의) 이행과정의 장했다.

美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제공될 경 수로」 현재 한국의 올린 에서 건설중인 한국형 모 델 「이라고 말하고 「한국 기업이 주계약자로 설계· 제작· 건설과 사업관리에 서 중추적 역할을 행사하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美 경수로 協商 타결

韓國은 내용, 北은 표현서 체면살려



韓國型원자로 모형 12일밤 팔라툼푸르에서 열린 北-美 準고위급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북한에 건설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모형. 한국형 원전은 현재 건설중인 세계의 원전에서 가장 최신설계와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 [서울=聯合]

우회적 文句 北정치전부담덜어

정부, KEDO에 韓國型공포 요구키로

北-美 합의문의 내용은, 기한을 무조건 연장할 것 등,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北은 합의문의 이 부분에서, 北-美 협정의 내용이, 北-美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北은 합의문의 이 부분에서, 北-美 협정의 내용이, 北-美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합의문의 이 부분에서, 北-美 협정의 내용이, 北-美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北은 합의문의 이 부분에서, 北-美 협정의 내용이, 北-美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향신문 1995. 6. 14

경수로, 타결 각국반응

일본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부총리 겸 외상은 13일 미국과 북한이 경수로 제공문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가 韓·日 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끈질긴 노력을 벌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또 일본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국으로서 한국 및

수로 제공에 있어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 전망 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 북경방송은 이날 오후 「미국과 북한 양측이 핵문제와 관련한 총체적 합의를 달성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이 「반드시 한국이 북한에 경수로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이 경수로 제공 문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北·美협상타결 높이평가

日 "KEDO 협조에 최선의 노력", 中 "경수로제공 한국이 중심돼야"

미국과 협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경수로 문제에 타협점을 찾음에 따라 지난 92년 11월 이후 중단 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을 재개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13일 북·미 팔라툼푸르 경수로 협상이 안전 타결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對北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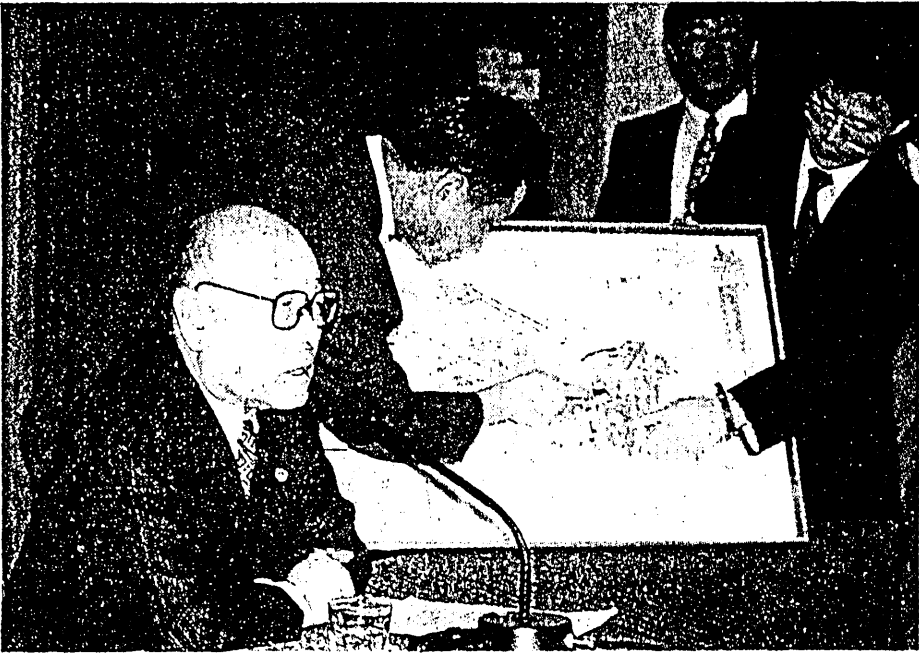
고 전했다. 러시아 국영 러시아방송도 이날 저녁 「어렵게 진행돼 오던 북·미회담에서 마침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논평하고 공동 보도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러시아방송은 특히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오던 북한의 러시아형 경수로 선호주장에 대한 언급없이 「평양당국이 마침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서울·東京=연합]

◇北-美합의 내용

| | | |
|---------------|---------------|---------------|
| 한국 | 북한 | 미국 |
| KEDO에 15%의 투자 | KEDO에 15%의 투자 | KEDO에 15%의 투자 |
| KEDO에 15%의 투자 | KEDO에 15%의 투자 | KEDO에 15%의 투자 |
| KEDO에 15%의 투자 | KEDO에 15%의 투자 | KEDO에 15%의 투자 |
| KEDO에 15%의 투자 | KEDO에 15%의 투자 | KEDO에 15%의 투자 |
| KEDO에 15%의 투자 | KEDO에 15%의 투자 | KEDO에 15%의 투자 |

한국은 합의문의 이 부분에서, 北-美 협정의 내용이, 北-美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北은 합의문의 이 부분에서, 北-美 협정의 내용이, 北-美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美-北 직거래」고착화 우려



◇孔외무, 「회담결과」 설명
 이 13일 오전 기자 회견에서 그림판을 이용하며 미-북 추고위급회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蔡承雨기자>

경수로 타결

합동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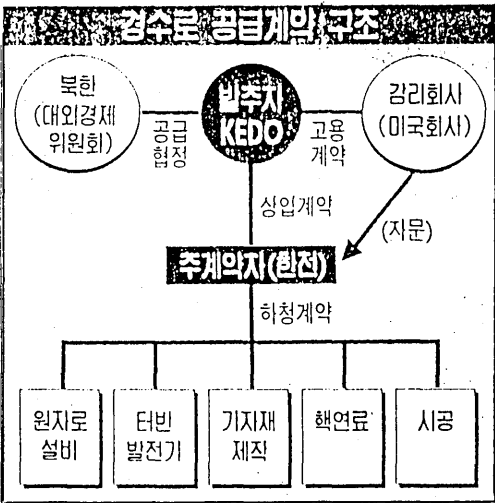
「제네바 합의」 긍정성 해소에 '8개월'

위기관으로 빠져들던 북중고위급회담의 성과는 북한핵문제 해결의 전반기 한마디로 작년 10월 제네바는「클라크로프트를기」비합의의내용중대북경외합을「양해사한이」이 지면서 다시「제네바로」수로지현부분의모호성을 나타내면서 불투명하게 회귀하게 됐다. 이번 미, 해수한점이라고 할 수 있

북「추가지원」문제 다시 들고나올듯

「클린턴 친서」보장 : 韓美共助 더 긴요

34후기를 명시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다. 한편의 중시적 역할은 KEDO에 의한 경제 자선성과 「추가지원」의 의의가 시사해볼 만한 것이 많다. 「추가지원」의 의의가 시사해볼 만한 것이 많다. 「추가지원」의 의의가 시사해볼 만한 것이 많다.



본회 (대외경제위원회) 김리회사 (미국회사) 공업계약 상업계약 허가계약 추진

설비 터빈 발전기 기지재 해연료 시공

「클린턴 친서」보장 : 韓美共助 더 긴요

북한은 「클린턴 친서」를 통해 「추가지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미국과 함께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문의 내용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추가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북한은 이러한 불투명함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번 합의문에서 북한은 「추가지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미국과 함께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네바 합의」 긍정성 해소에 '8개월'

위기관으로 빠져들던 북중고위급회담의 성과는 북한핵문제 해결의 전반기 한마디로 작년 10월 제네바는 「클라크로프트를기」비합의의내용중대북경외합을 「양해사한이」이 지면서 다시 「제네바로」수로지현부분의모호성을 나타내면서 불투명하게 회귀하게 됐다. 이번 미, 해수한점이라고 할 수 있

中·러, 경수로 합의 긍정평가

南北대화 재개전망등에 촉각

【합】중·러 소식
 13일 미·북 핵합의 관련 소식을 접한 중국과 러시아는 경수로 합의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중·러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방향을 지키기 위해 북미 간 핵합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북·중·러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韓國 靑景수로 보장"

金대통령에 親書 "모든분야 한국이 중심役"

북한이 남한을 도와 경제개발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 남한은 북한을 도와 경제개발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 남한은 북한을 도와 경제개발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탈북한계수교지원사업과 관련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보라.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이 편지에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중심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탈북한계수교지원사업과 관련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보라.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이 편지에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중심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탈북한계수교지원사업과 관련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보라.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이 편지에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중심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탈북한계수교지원사업과 관련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보라.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이 편지에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중심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核타결불구 南北대화 재개 반대

【서울 13일 특파원】 북한은 핵 문제의 타결이 도출될 때까지 남북 대화 재개를 반대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지지하며,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 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 문제의 타결이 도출될 때까지 남북 대화 재개를 반대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지지하며,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 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클린턴 親書 요지

- ▲95년6월8일 각하와 전화로 합의한데 따라 본인은 팔라룸푸르에서 미국이 북한과 가진 경수로 협상과 관련하여 이서신을 보냅니다.
- ▲6월13일 팔라룸푸르에서 발표될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북한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선정하는 경수로 노형을 수락키로 한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KEDO 설립협정상에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에 제공될 원자로 모델은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모델이 될 것입니다. KEDO와 주계약자간 체결될 상업계약에 명기되는 참조발전소는 울진 3,4호기가 될 것입니다.
-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또한 KEDO가 주계약자를 선정한다는 사실을 밝히게 될 것이며 주계약자는 설계·제작·시공 및 사업 관리를 포함한 경수로 사업의 모든 분야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

- 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KEDO의 창설멤버들이 결정한 바와 같이 주계약자는 한국회사가 될 것입니다.
- ▲KEDO는 채무 수행을 보조하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미국기업을 선정하며, 또한 미국기업은 주계약자인 한국기업의 하청업자로서 경수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 ▲경수로 사업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공동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본인은 미·북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문)에 명기된 남북대화 재개문제는 북한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미·북합의의 완전한 이행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믿으며 이에 대한 본인의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본인은 각하를 내달(7월) 워싱턴에서 뵈게 되길 기대하며 각하의 국빈방문이 우리 두 나라간 관계의 강화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爐型美설계 개량형 北「합의」공식포고

【서울 13일 특파원】 북한은 13일 북핵 문제의 타결이 도출될 때까지 남북 대화 재개를 반대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지지하며,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 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對北韓 30만弗 지원

연방정부의 지원은 3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알콜라아 마드 바다위 말레이시아외무장관에 이와 관련, 이 탈북한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의 연방정부에 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3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알콜라아 마드 바다위 말레이시아외무장관에 이와 관련, 이 탈북한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의 연방정부에 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간 북핵협상... [서울 11일] 미국은 북핵에 설치할 연료사무소를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에 있는 북인민대표부의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북한에 타진했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13일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까지 북한에 이르면 6월 말에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지난 99년 북핵협

平壤주재 스웨덴대사관 美對北사무소 개설 타진

태라면서 미국은 북핵협상의 진전과 함께 가능한 한 오는 8월까지 연료사무소 교향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북핵이 연료사무소 개설로 끝낼 수 있다면 대사관의 일과 북핵 협상 관련 업무는 99년 북핵협

경수로협상 최종조율 韓美정상 '막후 해결사'

하라인 연결 막판진통 해소



◇韓-美 양국 정상은 대북 경수로제공 타결과정에서 긴밀한 전화의교를 벌였다. 金泳三 대통령이 12일 클린턴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한국형보장 '둘러싼'이견 최대한 좁혀 클린턴친서 통해 구체적 문서로 확인

북핵협상 진척이 빨라지면서 한국형보장 문제가 대북 경수로제공 타결의 관건이 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클린턴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대북 경수로제공 타결과정에서 긴밀한 전화의교를 벌였다. 金泳三 대통령이 12일 클린턴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대북 경수로제공 타결과정에서 긴밀한 전화의교를 벌였다. 金泳三 대통령이 12일 클린턴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대북 경수로제공 타결과정에서 긴밀한 전화의교를 벌였다. 金泳三 대통령이 12일 클린턴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대북 경수로제공 타결과정에서 긴밀한 전화의교를 벌였다. 金泳三 대통령이 12일 클린턴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北 "南側과 대화안해"

核타결 불구 "기만책동" 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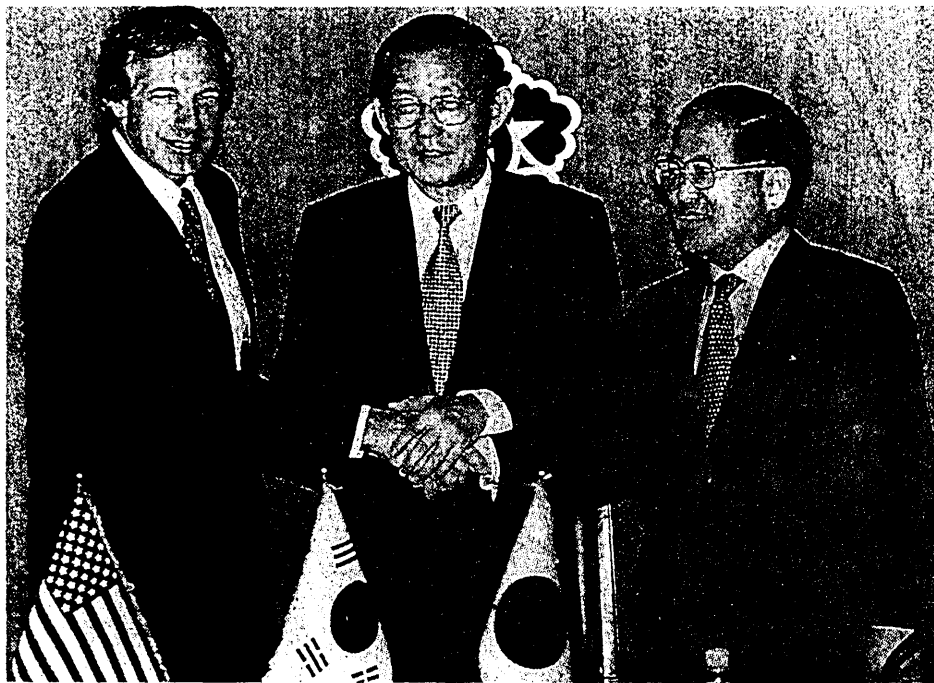
美 北 핵협상 진척이 빨라지면서 한국형보장 문제가 대북 경수로제공 타결의 관건이 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클린턴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美北회담誌-협상 일정

- △93년 5월17~21일 고위급 회담 위한 예비회담 △6월2~11일, 7월14~19일 1,2단계 고위급회담, △94년 7월8일 3단계 고위급회담(갈루치-姜錫柱, 제네바), △8월5~12일, 9월23일~10월17일 3단계 고위급회담 1,2차 회의(갈루치-姜錫柱, 제네바) △10월21일 제3단계회담 타결, 기본 합의문 서명 △11월30일~12월2일, 95년 1월28일~2월1일 1,2차경수로전문가회담 △3월25~27일, 4월12~13일, 18~20일 제3차 경수로전문가회담 1,2,3차회의 △5월20일~6월12일 제고위급 회담서 경수로 협상타결
- (허바드-김계관, 팔라투르트) (향후 일정)
- △95년 경수로 공급협정체결, 북미연료사무소 개설, 경수로부지 선정등을 위한 조사단 파견
- △96년 경수로 1호기 건설공정시작, 중유 50만t 본격 제공
- △99년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완전이행, 경수로 핵심부품 북한도착, 사용후 핵연료봉 제3국 인도시작
- △2001년 사용후 연료봉 제3국 인도완료, 잔류 핵시설 해체단행, 경수로1호기 완성
- △2003년 잔류 핵시설 해체완료, 경수로2호기 완료

한국형경수로 北제공

KEDO 이사회, 美-北 합의 따라 확정



韓-美-日 합의 KEDO 3개 집행이사국인 韓-美-日 3국의 崔東鎭경수로기획 단장(가운데), 로버트 갈루치 美핵대사, 인도 데스야 日경수로 담당대사가 13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金鍾信기자)

올진 3·4 호기 참조 모델 주계약자 韓電선정 합의

KEDO-北내달초 11유회담

【서울 13일 특파원 리포트】 핵연료 공급을 위한 KEDO-北내달초 11유회담이 13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다. KEDO의 3개 집행이사국인 韓-美-日 3국의 崔東鎭(가운데) 경수로 기획 단장(가운데), 로버트 갈루치(가운데) 美핵대사, 인도 데스야(가운데) 日경수로 담당대사가 13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金鍾信기자)

【서울 13일 특파원 리포트】 핵연료 공급을 위한 KEDO-北내달초 11유회담이 13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다. KEDO의 3개 집행이사국인 韓-美-日 3국의 崔東鎭(가운데) 경수로 기획 단장(가운데), 로버트 갈루치(가운데) 美핵대사, 인도 데스야(가운데) 日경수로 담당대사가 13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金鍾信기자)

【서울 13일 특파원 리포트】 핵연료 공급을 위한 KEDO-北내달초 11유회담이 13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다. KEDO의 3개 집행이사국인 韓-美-日 3국의 崔東鎭(가운데) 경수로 기획 단장(가운데), 로버트 갈루치(가운데) 美핵대사, 인도 데스야(가운데) 日경수로 담당대사가 13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金鍾信기자)

【서울 13일 특파원 리포트】 핵연료 공급을 위한 KEDO-北내달초 11유회담이 13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다. KEDO의 3개 집행이사국인 韓-美-日 3국의 崔東鎭(가운데) 경수로 기획 단장(가운데), 로버트 갈루치(가운데) 美핵대사, 인도 데스야(가운데) 日경수로 담당대사가 13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金鍾信기자)

▽서울신문 1995. 6. 14

崔東鎭 단장 갈루치 대사 공동회견

13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의를 마친 뒤 갈루치 미핵대사와 '경수로 제공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양측의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회견에서 'KEDO의 성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重油정유-폐연료공급 등 難題

對北관계 개선 「후진선병력 등 해결돼야

갈루치 미핵대사와 崔東鎭 경수로 기획 단장은 회견에서 'KEDO의 성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KEDO의 성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文豪英기자〉

“韓國 중심역할 不變”

「北·美 합의」 번시 美 국무부 대변인 김버랜드

미국 국무부는 12일 북한과 합의한 북·미 합의에 대해 “미국은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버랜드 대변인은 “미국은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버랜드 대변인은 “미국은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협상 타결 전폭 지원” 「文案」 워싱턴 검토 거친 뒤 발표

미국 국무부는 12일 북한과 합의한 북·미 합의에 대해 “미국은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버랜드 대변인은 “미국은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버랜드 대변인은 “미국은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孔魯明외무

孔魯明은 이 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버랜드 대변인은 “미국은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北韓軍 비무장지대 전진배치 美 北관계정신화에 장애요소

北韓軍 비무장지대 전진배치는 美 北관계정신화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버랜드 대변인은 “미국은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北韓軍 비무장지대 전진배치는 美 北관계정신화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버랜드 대변인은 “미국은 북·미 합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北트집 안할것” 실질적 南北대화 노력
“北트집 안할것” 실질적 南北대화 노력
“北트집 안할것” 실질적 南北대화 노력

美 "더이상 협상없다" 버랑끝 전술

북미가 클린턴 정부에서 이루어진 전방위적 접근으로 허탈감을 느낀 채로 협상에서 물러났다고 밝힌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이 12일째 25일이라는 시한이 임박하면서 더욱더 시련을 부채질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 25분께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협상없다"는 버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협상없다"는 버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협상없다"는 버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경수로 타결

합의 마지막 후

합의 마지막 후...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 25분께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협상없다"는 버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北몰아붙이기」한국측 강경주문 25일간 마라톤대좌 수차 위기도

북미가 클린턴 정부에서 이루어진 전방위적 접근으로 허탈감을 느낀 채로 협상에서 물러났다고 밝힌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이 12일째 25일이라는 시한이 임박하면서 더욱더 시련을 부채질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 25분께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협상없다"는 버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회담 쟁점과 타결내용

| 쟁점 | 북한 주장 | 미국 주장 | 공동 합의 |
|------|------------------------------|---------------|-------------------------------------|
| 명칭 | 경수로노형 | 미국형 | 한국표준형 |
| 발주자 | 조선실비 | KEDO | KEDO |
| 주계약자 | 미국기업주도의 합작형태 | 한국기업 | KEDO가 전액 (한국기업) |
| 주요조건 | 미국과 북한 | KEDO와 북한 | KEDO와 북한 |
| 부대시설 | 송배전시설, 시멘트, 연료, 배터리를 포함하는 범위 | 국제관행이 허용하는 범위 | 부지조사,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등 (세부협약의 범위) |



◇토머스 허버드 (왼쪽) 미국수석대표와 김계관 북한수석대표가 13일 미대사관에서 열린 합의문 발표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촬영제공=A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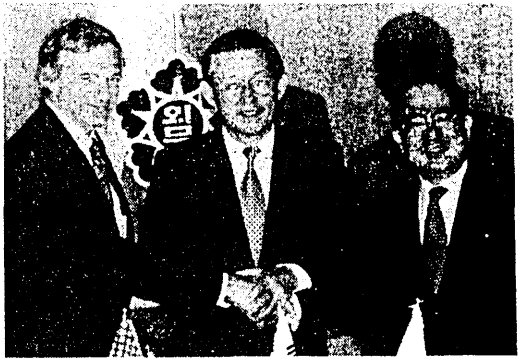
“한국중심역할 보장” 겨냥 주미공사교체 전술 동원

김대통령 초강경입장 견지... '담보물' 클린턴 친서 받아내

경수로 '한국입장' 관철까지

9일 방한한 갈루치 핵대사는 청와대를 예방해 김 대통령에게 클린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북한이 한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상황에서 협상을 깨기는 아까우며 협상이 결렬되면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면서 한국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팔라뉘프에서 미국측과 합의중단장제 주미공사를 교체하는 등 1단계 시위에 돌입했다. 이에 긴장한 미국은 이때부터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비협조적 움직이기 시작했다.

13일 오후 외무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집행기사회에서 갈루치 미국 핵대사, 최동진 한국 경수로 기획단장, 엔도 일본 핵대사(왼쪽부터)가 대북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결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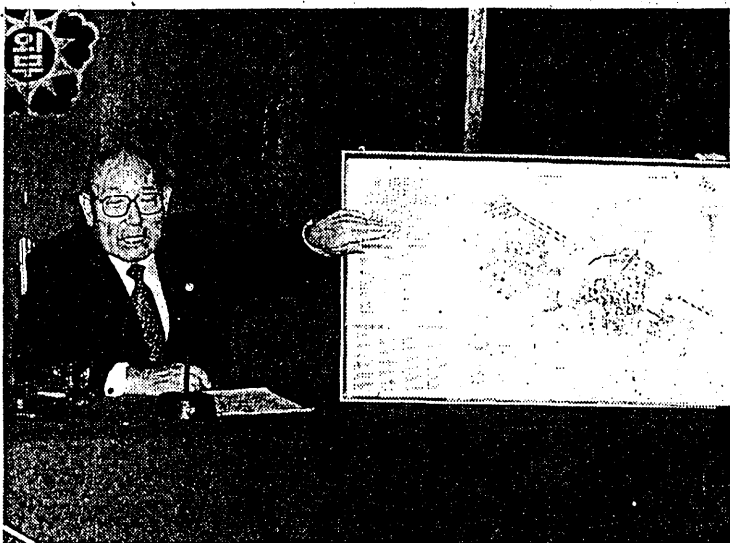
김대통령은 팔라뉘프에서 북한과 미국이 집합협약에 도달한 지 하루뒤인 8일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제네바 합의에서 한국형 경수로와 미국의 중립적 역할을 사실상 수용한 것 아니냐"면서 김 대통령을 설득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와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서울로 급파해 팔라뉘프를 협상경위와 미국의 입장 등을 설명하게 했다.

한국형-중심역할 기본전제 충족

경수로 타결 정부 입장

정부가 13일 북-미 핵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는 핵확산 방지와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북-미 핵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는 핵확산 방지와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孔외무 「한국형」 설명 孔勳明외무장관이 13일 北-美경수로 협상타결과 관련, 외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제공될 「한국표준형 경수로」 노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金吉洙기자)

「明記」양도했지만 상급원인 결리 후반기 KEDO에 대한 입장

정부는 13일 북-미 핵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는 핵확산 방지와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북-미 핵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는 핵확산 방지와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1995. 6. 14

플라토늄부터 합의대로 북한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에 대한 장기보관처리 작업이 곧 시작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간 접촉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IAEA는 그동안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핵 동결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감시업무 외에 사찰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제 합의가 이뤄진 만

IAEA 對北 접촉 산 넘어 산 「北-美합의」 관련 연료봉계측 시도 전망 北 「특별사찰과 다름없다」 기피 가능성 큼 IAEA의 첫 번째 과정은 사용후 연료봉 처리 전 계측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상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된 8천여 연료봉들이 영구저장상태에 들어가기 전 그속에 있는 플루토늄의 총량 측정이 필요하다. 이 작업이 나중에 이뤄진다면 과중한 비용부담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그러나 북한은 IAEA의 핵동결 감시활동은 핵안전절정 규정의 따른 것이 아니라 제네바합의에

반사화합실험실내의 핵물질 이동과 가동상황 추적을 위해서는 폐역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액체 폐기물 측정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이것 역시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제네바합의에 따른 중립대상 핵시설뿐 아니라 RT 실험용 원자로, 핵연료저장소 등에 이르기까지 제한적이나마 상당한 범위에 걸쳐 IAEA의 감시·사찰활동을 허용함으로써 기술협력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베를린=홍)

「제네바 합의」 최대간관 돌파 안 노감 核동결 해제 北위협가 능성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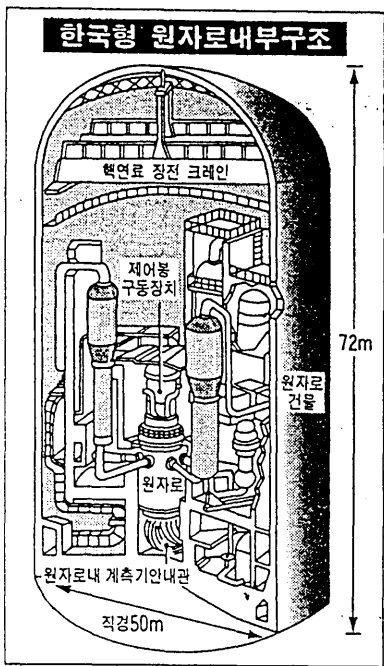
정부는 13일 북-미 핵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는 핵확산 방지와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북-미 핵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는 핵확산 방지와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수로 타결 美國인정

정부는 13일 북-미 핵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는 핵확산 방지와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북-미 핵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는 핵확산 방지와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형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10년 걸친 자체개발 노력의 결실이다. 원자로의 안전성은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걸쳐 자체개발 안전성 특월

건설비 싸고工期 짧아 경제적

한국형 원자로의 안전성은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형 원자로의 안전성은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형 원자로의 안전성은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라 달라진다.

□ 북한 경수로 지원 어떻게 하나

신현만 기자

북한 경수로사업은 한전이 주계약자가 돼 건설과 운영을 주도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국내외 업체에 하청을 주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한전은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케도)와 일괄수주 방식으로 상업계약을 맺으면, 안에 원전부지를 조사할 실무기확단을 북한의 신포로 과전해 지반조사 기반시설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경남도 함흥 위쪽에 있는 신포는 과거 소련이 원전건설을 위해 터조사한 곳이다.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는 감리업무를 맡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선정해 기술 분야에서 한전과 북한을 중재·조정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미국기업이 맡도록 돼 있다.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과의 경수

할 2백50여명의 전문인력은 남한에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이 끝나면 이를 운영할 1천3백여명의 운전요원과 보수·관리요원이 필요하다. 남한에서는 이들 인력이 고리원전 연수원에서 모의조종 설비로 연수를 받게 되지만 북한 운전요원들이 남한에 와서 교육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7~8년의 원전공사기간중 적게는 몇백명, 많게는 몇천명이 북한을 오가면서 상주해야 하고, 많은 설비와 기자재가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건설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을 중심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계통설계를 △한국중공업이 발전기 등 설비제작을 △한국전력기술이 원자로 건설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성 심사를 각각 맡아 전체 원전기술의

한전이 건설·운영 주도

연내 기획단 파견 지반조사·97년말 토목공사

공급협상, 한전과의 상업계약을 맺으면 한전은 설계와 기자재 제작 등을 시작으로 경수로 건설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통산부는 이르면 97년 말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해 99년께 핵심부품을 북한에 들여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호기는 2001년에 완성되고, 2호기는 2003년에 완공된다.

통산부는 사업이 시작된 뒤 초기에는 90~1백여명, 3~4년 뒤부터는 4백~5백여명 규모의 전문기술자가 상주하는 등 연인원 2천여명의 기술인력이 북한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자로와 핵연료를 설계하는 데 2백여명의 전문화된 설계인력도 필요하다. 이들은 건설기간중 출근 현장에 머물며 돌봐야 한다.

토목공사와 배관·설비공사 등을 할 때는 하루 7천여명이 투입되는 등 공사기간중 연인원 1천만명이 투입돼야 한다. 한전은 원전건설부서와 골재 등을 공급할 단순인력은 북한에서 대절지만, 이를 감리·감독

90% 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토목공사는 원전건설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주) 대우 동이건설 한국중공업 등과 신규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림산업 삼성건설 등 모두 10여개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전이 영광원전 5·6호기 입찰참여업체를 기존 4개업체와 대립 등 5개로 한정함에 따라 삼성건설 등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지을 경수로가 울진3·4호기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놓는 형태여서 울진3·4호기 참여업체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3·4호기는 한국중공업이 기전설치공사를, 동이건설이 토건공사를 맡았다.

재원은 한전이 정부보증으로 차관을 도입해 충당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경수로 건설비용은 총35억달러로 예상되며 이중 70% 정도를 우리나라가 맡게 돼 있다. 정부는 원금은 석탄 등 대체에너지지원과 기타 원부자재 등으로 상환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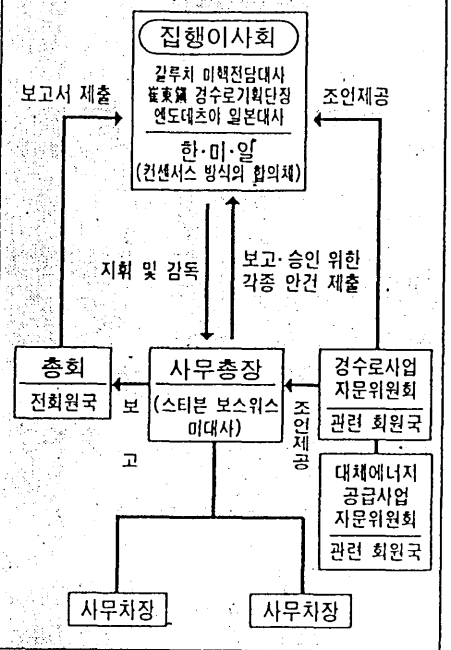
KEDO 역할

칼라룸푸르 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대북경수로 사업을 위해 발족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이제 노형과 주계약자 선정권등 경수로사업에서 전권을 가지게 됐다.

지난해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에 1천MW급 한국표준형 원자로 2기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연소사업으로 발족한 KEDO는 그동안 설립협정에는 서명했으나 현판도 제대로 걸지 못한채 북·미간 협상결과만을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이번 합의로 경수로사업과 관련한 북·미회담은 종결되고 대북협상은 앞으로 KEDO로 이관돼 KEDO는 올해안으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와 경수로 공급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또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주계약자가 될

KEDO 기구표



美國을 대표로 경수로협상 주관 爐型·主계약자 선정 全權가져 美기업 개입 적절한 통제 관건

한국전력과 상업계약도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경수로 사업의 대부분을 부담할 한국이 「錢主(전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맡는다는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가 이번 북미회담에서 KEDO에 많은 결정권이 넘어가는데 동의한 것도 기존의 「북·미간 對座(대좌)」란 협상구도를 피하고 미국대표와 함께 직접협상에 참여, 북한과 맞상대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미국기업이 얼마나 이번사업에 개입하게 될지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칼라룸푸르회담의 문은 「미국은 경수로 사업에 있어서 북한과의 주적 축선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국민이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KEDO에 표단 및 작업반의 대표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의문은 또 KEDO의 감리업무를 보조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은 미국기업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孔德明(공노명)외무장관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북한과 쟁점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해 문제가 생길수 있음을 시사했다. [洪潤五기자]

北-美경수로 協商 타결

이번계기 南北 대화再開기대

순계관 北韓외교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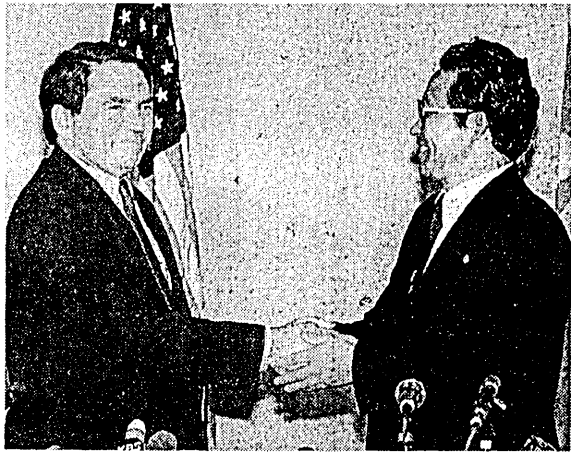
—순수면 회담.—
 『남북의 경제와 기술협력 기
 준인 KEDO가 일단 타결
 되었음에 따라 남북 대화
 또한 재개될 수 있을 것
 이다.』

—순수면 회담.—
 『남북의 경제와 기술협력 기
 준인 KEDO가 일단 타결
 되었음에 따라 남북 대화
 또한 재개될 수 있을 것
 이다.』

北美 대사급수교는 아직 일관

—순수면 회담.—
 『남북의 경제와 기술협력 기
 준인 KEDO가 일단 타결
 되었음에 따라 남북 대화
 또한 재개될 수 있을 것
 이다.』

北美 합의 두 주역 일문일답



토머스 허버드 미국수석대표와 순계관 북한측 수석대표가 13일 오후 워싱턴에서 北美 경수로협상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합]

—순수면 회담.—
 『남북의 경제와 기술협력 기
 준인 KEDO가 일단 타결
 되었음에 따라 남북 대화
 또한 재개될 수 있을 것
 이다.』

연락사무소 기술적 문제 남아

—순수면 회담.—
 『남북의 경제와 기술협력 기
 준인 KEDO가 일단 타결
 되었음에 따라 남북 대화
 또한 재개될 수 있을 것
 이다.』

“KEDO 합의문외 비밀은 없었다”

남북미 북핵문제와 핵안보문제

—순수면 회담.—
 『남북의 경제와 기술협력 기
 준인 KEDO가 일단 타결
 되었음에 따라 남북 대화
 또한 재개될 수 있을 것
 이다.』



통역
 『남북의 경제와 기술협력 기
 준인 KEDO가 일단 타결
 되었음에 따라 남북 대화
 또한 재개될 수 있을 것
 이다.』

정부회의서 「KEDO결정」아이디어

우리측 요구로 「클린턴친서」방식 반영
 “北체면 감안한 80점짜리 작품” 평가도

—순수면 회담.—
 『남북의 경제와 기술협력 기
 준인 KEDO가 일단 타결
 되었음에 따라 남북 대화
 또한 재개될 수 있을 것
 이다.』

정수리담판후 北美관계전망

미국이 북한을 북핵 문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美, 對北 관계 개선 속도 낼 듯

重油인도·폐연료봉처리팀 곧 訪北
연락소개설 예상외 빨라질 가능성

미국이 북한을 북핵 문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을 북핵 문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을 북핵 문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을 북핵 문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을 북핵 문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을 북핵 문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겨레신문 1995. 6. 14

북미 합의문에 서명하던 날

한밤 '20분담판' 극적타결

"북한 한국 표준형 명칭 수용" 최종합의

칼라툼푸르/김성호 기자

그동안 3주일 넘게 지루하게 끌어온 경수로 회담의 타결은 한밤중에 이뤄진 '20분간의 수석대표자 담판'을 통해서 극적으로 다가왔다.

한국 정부의 반발로 최종 단계에서 결렬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뒤집고 12일 밤 8시부터 20분간 진행된 북-미 수석대표자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한국의 반발로 최종 타결이 지연되자 북한은 지난 11일 미국 대표단을 칼라툼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불러 최후통첩을 했다. 이미 합의한 합의문 초안대로 타결짓거나 아니면 회담결렬을 선언할 것을 양자택일하며 강경자세를 보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최후통첩에 따라 다음날 12일 오전 10시 30분 미 대사관으로 북 대표단을 불러 '울진 3,4호기 이름을 직접 명기하지 않는 대신 참조발전소로 한국표준형을 나타내는 표현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면 합의문 초안대로 타결하겠다'며 역제의를 했다. 북한은 평양의 훈령을 받은 뒤 연락하겠다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회담이 이번주말까지 장기화되

거나 결렬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이 이날 오후 7시경 "평양에서 새로운 훈령이 왔다"며 미국측에 오후 8시 회의를 제의하면서 타결이나 결렬이냐의 최종 결론이 다가왔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는 오후 8시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수석대표자회의에서 토머스 허버드 미국 수석대표에게 "평양으로부터 내일 오전 8시45분 무조건 돌아오라는 훈령이 왔다"며 "합의문 초안대로 오늘밤에 최종타결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시간이 없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허버드 미 대표도 지지않고 한국표준형 명칭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김계관 대표는 "그러면 회담은 결렬이다"며 일어서려고 했다는 것이다.

김계관 대표와 허버드 대표는 다시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북한은 한국표준형 명칭과 관련한 미국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미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문 초안대로 최종 타결짓는다"는 절충점을 찾아냈다.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된 마라톤 회담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회담절점 및 타결 순의계산

Table with 5 columns: Item, North Position, South Position, Agreement Status, and Remarks. Rows include '중심역할', '추가비용', '중유제공', '중유제거', '중유처리'.

중심역할 KEDO통해 보장... 美 주도권만 갈등

추가비용 부지조사費 포함... 다른 시설 추후협상

중유제공 北요구 수용... 이달중 전문가회담 열어

중유제거 北요구 수용... 이달중 전문가회담 열어

중유처리 北요구 수용... 이달중 전문가회담 열어

○ 표시는 합의된 사항, △ 표시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거나 합의가 어려운 사항, × 표시는 합의가 어려운 사항

▽동아일보 1995. 6. 14

한밤중 합의문 안돼 논란수치

정수리 합의문 내 영과得失

북미 합의문은 12일 밤 8시경 '20분간의 수석대표자 담판'을 통해서 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 양측이 여전히 논란을 보이고 있다.

울진 3, 4호기 간접지칭
美실제-기술 조항이 문제

노형명칭

미국이 북한을 북핵 문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2兆원선부담... 차관도입 유력

경수로 제공 자금조달

북미 원전사업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1000만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國公債·통일稅」방안...노거론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14일 「국공채·통일세」 방안에 대해 노거론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위원회는 14일 「국공채·통일세」 방안에 대해 노거론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위원회는 14일 「국공채·통일세」 방안에 대해 노거론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14일 「국공채·통일세」 방안에 대해 노거론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위원회는 14일 「국공채·통일세」 방안에 대해 노거론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위원회는 14일 「국공채·통일세」 방안에 대해 노거론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14일 「국공채·통일세」 방안에 대해 노거론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위원회는 14일 「국공채·통일세」 방안에 대해 노거론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위원회는 14일 「국공채·통일세」 방안에 대해 노거론을 제기했다.

원자력 40억달러 「FOS」엔딩...가뭇물

북한은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심적 역할」 보장...불구 기술이력의 문제

실제 美의존 불가피... 최대 30億달러 예상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 2기(1000MW)를 북한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核평화이용」北보장추진

정부 내달초 뉴욕회담서 각서·명문규정요구

韓國기술자·판문점자유왕래협정체결방침

【한경뉴스】韓美關係가 한층 더 나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초 뉴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核평화이용」을 위한 협정체결을 약속한 데 이어, 판문점 자유왕래협정과 한국기술자 파견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核평화이용」을 위한 협정체결을 약속한 데 이어, 판문점 자유왕래협정과 한국기술자 파견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판문점 자유왕래협정과 한국기술자 파견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에서 「核평화이용」을 위한 협정체결을 약속한 데 이어, 판문점 자유왕래협정과 한국기술자 파견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판문점 자유왕래협정과 한국기술자 파견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에서 「核평화이용」을 위한 협정체결을 약속한 데 이어, 판문점 자유왕래협정과 한국기술자 파견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KEPCO 사무총장 포시원 스 내정
포시원 스 사무총장 내정
포시원 스 사무총장 내정

경수로타결 北태너와 전담

【한경뉴스】北美關係가 한층 더 나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초 뉴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核평화이용」을 위한 협정체결을 약속한 데 이어, 판문점 자유왕래협정과 한국기술자 파견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사업이행까지 술한 고비

美의 기술로 설계된 개량형 한국형수용물탱크설이론부인

【한경뉴스】北美關係가 한층 더 나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초 뉴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核평화이용」을 위한 협정체결을 약속한 데 이어, 판문점 자유왕래협정과 한국기술자 파견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경수로타결」美, 핵소속과 대외적

【한경뉴스】北美關係가 한층 더 나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초 뉴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核평화이용」을 위한 협정체결을 약속한 데 이어, 판문점 자유왕래협정과 한국기술자 파견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北 "한국형 없다. 아직도 고집"

구체명칭 빠져 '美설계-기술의 개량형' 주장
계속 물고늘어질때 실무협상 또다른 불씨

【한경뉴스】北美關係가 한층 더 나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초 뉴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核평화이용」을 위한 협정체결을 약속한 데 이어, 판문점 자유왕래협정과 한국기술자 파견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경수로 북측 핵시설 9월 내 협상

KEDO-北側 내주부터 KEDO 본격가동

북측은 1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KEDO(북한에너지개발협력기구)의 설립을 합의했다. KEDO는 1995년 9월 14일 설립된다. KEDO는 북측의 핵시설을 개발하고, KEDO가 개발한 시설은 14일 설립된다.

이 합의는 KEDO의 초기 단계인 KEDO의 설립을 위한 합의이다. KEDO는 1995년 9월 14일 설립된다. KEDO는 북측의 핵시설을 개발하고, KEDO가 개발한 시설은 14일 설립된다.

경수로 핵공정 아니다
유엔중재 北관리
【유엔중재】 유엔중재 북한대표부의 핵문제 담당자인 한성철 참사관은 13일 평양에서 열린 핵시설 합의에 관해 "우리가 합의한 것은 핵시설을 개발하는 것이지 핵공정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팔라투부르프 시내의 고압 주택가인 '잘란 메지' 14번지의 말레이시아 주택 개발대사관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13일 북한 대사관이 개설 이후 처음이러 외부에 공개됐다. 그리고 정황에 말하자면, 개발이론을 설명하는 기자들을 공개했다. 이날 북한측의 24일째 안간힘을 보이며 미북회담의 '실용적' 화선이 타결되자 한 기자가 포획된 내외신기자들의 광란의 불라 수석대표였던 김계관의 미북부장의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이다.

앞뒤 안맞는 北대표 회견



李 度 運
〈정재부 기자〉

이날까지 받아들인 정경철의 코부담만으로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김계관의 북한 대표로이 변종고의 발표와 김계관을 선전하는 것으로 회견의 시작됐다.

그러나 김계관의 이판한 의지 부인도 얼마가지 못했다. 그의 발언이 끝난 뒤 한 기자들이 '경수로'라는 한 반노의 내지 개발기구(KEDO)가 선정키로 했고, KEDO가 한미합작형 경수로의 선정을 실현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느냐'며 질타하자 '경제와 기술의 부우의 것이냐'라고 응수하자 '고압'이냐'가 응수하자 '고압'이냐'고 말을 돌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미합작형의 기술자가 북한에 들어갈'은 '한미합작형의 기술자가 KEDO가 주최하는 사업의 미'로 말하지 않느냐'며 격리를 부렸다.

회견 정황을 보면 한 가지 눈에 선한 사실이 눈에 띄었다. '한미합작형'이란 말이 나온 순간부터 '한미합작형'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미합작형'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미합작형'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다.

美-北 연락사무소 8월 이후 개설 가능성

영사권-직원수 합의... 사무소부지 주택 물색
7월 金正日 권력 공식승계 이후로 택일할 듯

【연락사무소】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양측은 연락사무소의 개설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측은 1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합의했다. 양측은 1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합의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양측은 연락사무소의 개설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측은 1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합의했다. 양측은 1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합의했다.

北-美 경수로협상 타결이후

史上 최대... 年 수백명씩 오갈듯

북한(북)과 미국(북미)은 북한인민군(북인민군)을 비롯하여 1천여 명을 북으로 보낼 예정이다. 북한은 1995년 8월 20~30명, 1996년 33~50명, 1997년 150~200명, 1998년 400~500명, 1999년 600~700명, 2000년 600~700명, 2001년 500~600명, 2002년 200~300명, 2003년 100~200명씩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95년 8월 20~30명, 1996년 33~50명, 1997년 150~200명, 1998년 400~500명, 1999년 600~700명, 2000년 600~700명, 2001년 500~600명, 2002년 200~300명, 2003년 100~200명씩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兆원 毫 부품·설비 北 투입

東亞·大宇 "기능인력 2천명 파견"

북한은 1995년 8월 20~30명, 1996년 33~50명, 1997년 150~200명, 1998년 400~500명, 1999년 600~700명, 2000년 600~700명, 2001년 500~600명, 2002년 200~300명, 2003년 100~200명씩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具珍希기자>

북한은 1995년 8월 20~30명, 1996년 33~50명, 1997년 150~200명, 1998년 400~500명, 1999년 600~700명, 2000년 600~700명, 2001년 500~600명, 2002년 200~300명, 2003년 100~200명씩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부처 움직임·대응책

북한은 1995년 8월 20~30명, 1996년 33~50명, 1997년 150~200명, 1998년 400~500명, 1999년 600~700명, 2000년 600~700명, 2001년 500~600명, 2002년 200~300명, 2003년 100~200명씩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輕水爐 부지조사 7~8명 선발대 파견 通産部
南北협력기금·예비비등 財源대책강구 財經院
원자력研등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분주

북한은 1995년 8월 20~30명, 1996년 33~50명, 1997년 150~200명, 1998년 400~500명, 1999년 600~700명, 2000년 600~700명, 2001년 500~600명, 2002년 200~300명, 2003년 100~200명씩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爐型 불명기 한국位相 논란소지

경수로로 타결

양미리의 쟁점

북한측의 北·美 共同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 불수이다. 양미리(양) 제네바회담의 양미리(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미리(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美 주접촉線 : 남북 직접협상 보장안 돼 기술자 訪北 제한·美 자재 요구할 수도

북한측의 北·美 共同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 불수이다. 양미리(양) 제네바회담의 양미리(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미리(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경수로 노형이 한국형임을 확인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담회사회 참석자들이 13일 한동기회화견을 갖고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좌로부터 崔東 鎮경수로 기획단장, 로버트 갈루치 美핵대사, 엔도 데초야 日핵대사. 【崔鍾昱기자】

정부對北인식 전환 필요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미리(양) 제네바회담의 양미리(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미리(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北유연자세 유지케 '배려'를

KEDO對坐 남북대화 연결전략 시급 美·日對北관계 개선관련 대책도 세워야

북한측의 北·美 共同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 불수이다. 양미리(양) 제네바회담의 양미리(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미리(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측의 北·美 共同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 불수이다. 양미리(양) 제네바회담의 양미리(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미리(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北 "한국 경제수호수용"

核동결해제 여부 美 행동에 달려 있다

【서울=합】북한 정부와 미 정부는 15일 판문점 회담에서 핵 동결 문제와 관련해 상호 이해를 표시하며, 북한은 "한국 경제수호수용" 방침을 밝혔다.

북한은 "미국이 핵 동결을 약속하고, 핵 동결이 이루어진 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핵 동결을 약속하고, 핵 동결이 이루어진 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핵 동결을 약속하고, 핵 동결이 이루어진 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핵 동결을 약속하고, 핵 동결이 이루어진 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핵 동결을 약속하고, 핵 동결이 이루어진 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1995. 6. 16

美전문가팀 訪北

重油전용 방치문제 논의

갈루치 방문

【합】북한은 15일 판문점 회담에서 핵 동결 문제와 관련해 상호 이해를 표시하며, 북한은 "한국 경제수호수용" 방침을 밝혔다.

▽경향신문 1995. 6. 16

北경수로 건설비용 獨서 1百萬弗 지원

【합】북한은 15일 판문점 회담에서 핵 동결 문제와 관련해 상호 이해를 표시하며, 북한은 "한국 경제수호수용" 방침을 밝혔다.

북한은 또 "미국이 핵 동결을 약속하고, 핵 동결이 이루어진 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1995. 6. 16

對北사업활동 확대

【합】북한은 15일 판문점 회담에서 핵 동결 문제와 관련해 상호 이해를 표시하며, 북한은 "한국 경제수호수용" 방침을 밝혔다.

▽한국일보 1995. 6. 16

【합】북한은 15일 판문점 회담에서 핵 동결 문제와 관련해 상호 이해를 표시하며, 북한은 "한국 경제수호수용" 방침을 밝혔다.

【합】북한은 15일 판문점 회담에서 핵 동결 문제와 관련해 상호 이해를 표시하며, 북한은 "한국 경제수호수용" 방침을 밝혔다.

韓美日기술진 내달 派北

경수로 건설 후보지 물색

重油전용 감시 美대표단은 내일 平壤에

【대부(對北) 경수로 사찰을 생략하고 있다.】

영남대학교의 동지대(同濟大學)와 KEDO(KEPCO, EDO, JPO)가 16일 오후 평양에서 10여명의 부지조사단을 이끌고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

KEDO는 앞으로 모두 세차례에 걸쳐 부지조사를 파북(派北) 8개월, 1년간 조사를 진행한 뒤 북한과 협의해 부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평壤에서 15일 열릴 예정인 미·일·북·미·경수로협회의 다국적 '이북지역개발'을 위한 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평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북지역의 현황'과 '이북지역의 개발'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40여명이 참가해 '이북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북지역 개발'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40여명이 참가해 '이북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李相遠기자〉

【대부(對北) 경수로 사찰을 생략하고 있다.】

영남대학교의 동지대(同濟大學)와 KEDO(KEPCO, EDO, JPO)가 16일 오후 평양에서 10여명의 부지조사단을 이끌고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

KEDO는 앞으로 모두 세차례에 걸쳐 부지조사를 파북(派北) 8개월, 1년간 조사를 진행한 뒤 북한과 협의해 부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평壤에서 15일 열릴 예정인 미·일·북·미·경수로협회의 다국적 '이북지역개발'을 위한 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평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북지역의 현황'과 '이북지역의 개발'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40여명이 참가해 '이북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북지역 개발'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40여명이 참가해 '이북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韓美日전문가 10여명 내달訪北

地質·환경등 1년간 세부조사도

【대부(對北) 경수로 사찰을 생략하고 있다.】

영남대학교의 동지대(同濟大學)와 KEDO(KEPCO, EDO, JPO)가 16일 오후 평양에서 10여명의 부지조사단을 이끌고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

KEDO는 앞으로 모두 세차례에 걸쳐 부지조사를 파북(派北) 8개월, 1년간 조사를 진행한 뒤 북한과 협의해 부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평壤에서 15일 열릴 예정인 미·일·북·미·경수로협회의 다국적 '이북지역개발'을 위한 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평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북지역의 현황'과 '이북지역의 개발'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40여명이 참가해 '이북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북지역 개발'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40여명이 참가해 '이북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부(對北) 경수로 사찰을 생략하고 있다.】

영남대학교의 동지대(同濟大學)와 KEDO(KEPCO, EDO, JPO)가 16일 오후 평양에서 10여명의 부지조사단을 이끌고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

KEDO는 앞으로 모두 세차례에 걸쳐 부지조사를 파북(派北) 8개월, 1년간 조사를 진행한 뒤 북한과 협의해 부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평壤에서 15일 열릴 예정인 미·일·북·미·경수로협회의 다국적 '이북지역개발'을 위한 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평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북지역의 현황'과 '이북지역의 개발'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40여명이 참가해 '이북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북지역 개발'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40여명이 참가해 '이북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부(對北) 경수로 사찰을 생략하고 있다.】

영남대학교의 동지대(同濟大學)와 KEDO(KEPCO, EDO, JPO)가 16일 오후 평양에서 10여명의 부지조사단을 이끌고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

KEDO는 앞으로 모두 세차례에 걸쳐 부지조사를 파북(派北) 8개월, 1년간 조사를 진행한 뒤 북한과 협의해 부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평壤에서 15일 열릴 예정인 미·일·북·미·경수로협회의 다국적 '이북지역개발'을 위한 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평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북지역의 현황'과 '이북지역의 개발'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40여명이 참가해 '이북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북지역 개발'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40여명이 참가해 '이북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北 페동 8백개 방사능 유출

WT紙 美처리반 첫접근 허용... 오늘 入北

【대부(對北) 경수로 사찰을 생략하고 있다.】

영남대학교의 동지대(同濟大學)와 KEDO(KEPCO, EDO, JPO)가 16일 오후 평양에서 10여명의 부지조사단을 이끌고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

KEDO는 앞으로 모두 세차례에 걸쳐 부지조사를 파북(派北) 8개월, 1년간 조사를 진행한 뒤 북한과 협의해 부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평壤에서 15일 열릴 예정인 미·일·북·미·경수로협회의 다국적 '이북지역개발'을 위한 실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평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북지역의 현황'과 '이북지역의 개발'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40여명이 참가해 '이북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북지역 개발'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40여명이 참가해 '이북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美、北중유류 2차분 8월제공

10만t 전용방지 감시장치 설치 합의 따라

【노보프=연합】미국은 북미 중유류 2차분 10만t의 전용방지 감시장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8월 27일 노보프(北) 동선의 27일

제1차 분할을 위한 전용방지 감시장치의 설치가 합의된 후, 8월 27일 노보프(北) 동선의 27일

포기한 한 대신 민선영 대 체포된 김용환을 재영국으로 하고 지난 1월 5만t의 중유류를 1차분 북항에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이 1차분 중유류 20%를 공급하지 않자 전용방지 감시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합의는 8월 27일 노보프(北) 동선의 27일

【노보프=연합】북미의 중유류 2차분 10만t을 전용방지 감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합의는 8월 27일 노보프(北) 동선의 27일

합의를 통한 합의 과정 약 1주일 동안 기존 조사를 실시하고 8월 27일 1차분 중유류 2차분 10만t의 중유류를 1차분 북항에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이 1차분 중유류 20%를 공급하지 않자 전용방지 감시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합의는 8월 27일 노보프(北) 동선의 27일

重油제공 일일정 北·美원칙 합의

北·美원칙 합의

【합】북한이 북미 중유류 2차분 10만t의 전용방지 감시장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8월 27일 노보프(北) 동선의 27일

제1차 분할을 위한 전용방지 감시장치의 설치가 합의된 후, 8월 27일 노보프(北) 동선의 27일

北·美간 연락사무소 내달중 개설 불가능

美갈루치핵대사

【연합】북한이 북미 중유류 2차분 10만t의 전용방지 감시장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8월 27일 노보프(北) 동선의 27일

제1차 분할을 위한 전용방지 감시장치의 설치가 합의된 후, 8월 27일 노보프(北) 동선의 27일

경수로부지조사 내달착수

KEEDO 기술진 派北

개발기구(KEEDO)는 다음 28일 착수했다. 이를 위해 KEEDO는 이를 위해 대북(對北) 경수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

합의를 통한 합의 과정 약 1주일 동안 기존 조사를 실시하고 8월 27일 1차분 중유류 2차분 10만t의 중유류를 1차분 북항에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이 1차분 중유류 20%를 공급하지 않자 전용방지 감시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합의는 8월 27일 노보프(北) 동선의 27일

“北이南北대화이무 있다”

美 국무차관보 北·美관계 속도 결정에도 도움

【연합】북한이 북미 중유류 2차분 10만t의 전용방지 감시장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8월 27일 노보프(北) 동선의 27일

제1차 분할을 위한 전용방지 감시장치의 설치가 합의된 후, 8월 27일 노보프(北) 동선의 27일

Ⅱ. 대북 곡물 제공

1. 정부, 곡물제공 제의

북에 무조건 곡물주겠다

羅부총리 장기대여-無償제공 용의

수량·일정·수송·노선의하자 南北 대표회담개최제의



◇羅雄培부총리

정부는 26일 북한이 일 본과 한국의 쌀원조를 요청함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북측의 무제한 제공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다. 이를 위해 쌀장바구니의 해외출구를 허용했다.

羅雄培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이날 「對北교섭지 원의 관한 발표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정치적 부담조건 없이 북측이 필요로 하는 쌀원조를 무조건이나 장기대여 무제한 용의가 있다」

며, 이를 위해 「쌀장바구니」 대표들이 북측이 원하는 입지와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羅부총리는 이 발표를 통해 「북측의 쌀원조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수송 및 운반수

北, 日에 쌀 장기대여청

李成祿구제무연총장 "전제조건없으면 韓國産도 가능"

(久保田)사회당 서기장 하도야마(鳩山由紀夫)사키 가케 대표간사들이 동조했다.

그(久保田)의 의향에 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쌀을 장기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李成祿구제무연총장은 "전제조건없으면 韓國産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日, 쌀제공 내주 결정

【東京=聯】북한이 일본에 쌀을 대량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무라야마 노미치(村山富市)日 총리는 26일 오후 6시 30분(河野洋平)부총리 겸 외상 및 우카와라 다이치(大河原大一郎)동일본산 쌀장관과 회담을 갖고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쌀원조제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지지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식량사정이 심각한 북한에 쌀을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본도 적인 문제이니만큼 가능한 한 빨리 쌀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차 대북 쌀원조가 북과 정상회담개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대변인은 이가라시 고조(五十嵐三三)관방장관의 질문에 "일본은 수송수단의 부족으로 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東京=李成祿기자】북한 구제무연총장인 李成祿(이성록)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일본에 쌀을 장기대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李 총장은 "북한은 일본에 쌀을 장기대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일본에 쌀을 장기대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李 총장은 "북한은 일본에 쌀을 장기대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일본에 쌀을 장기대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쌀 在庫 9백70萬 톤

北韓 지원용 어둡아예 없다

【서울=연합】북한이 일본에 쌀을 대량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무라야마 노미치(村山富市)日 총리는 26일 오후 6시 30분(河野洋平)부총리 겸 외상 및 우카와라 다이치(大河原大一郎)동일본산 쌀장관과 회담을 갖고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쌀원조제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지지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식량사정이 심각한 북한에 쌀을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본도 적인 문제이니만큼 가능한 한 빨리 쌀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차 대북 쌀원조가 북과 정상회담개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개선 轉機판단... "받을진 미지수"

정부, 北 쌀요청 수락 의미·배경

정부가 북한의 쌀요청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가 두터워진다는 수렴한 것...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北 주민 식량난 최악상태 신뢰회복 없인 성사안돼

북 주민 식량난 최악상태... 신뢰회복 없인 성사안돼.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북 주민들의 식량난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따라서 적정재고에 고점... 北 주민들의 식량난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따라서 적정재고에 고점... 北 주민들의 식량난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日에 왜 쌀공급 요청했다

북한의 쌀요청... 日에 왜 쌀공급 요청했다. 북한은 일본에 쌀을 요청한 이유는 식량난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일본에 쌀을 요청한 이유는 식량난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北 주민들의 식량난... 韓·日 외관공조체계와해 저항노

北 주민들의 식량난... 韓·日 외관공조체계와해 저항노.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100만톤의 쌀을 수락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배고픈 北韓 「체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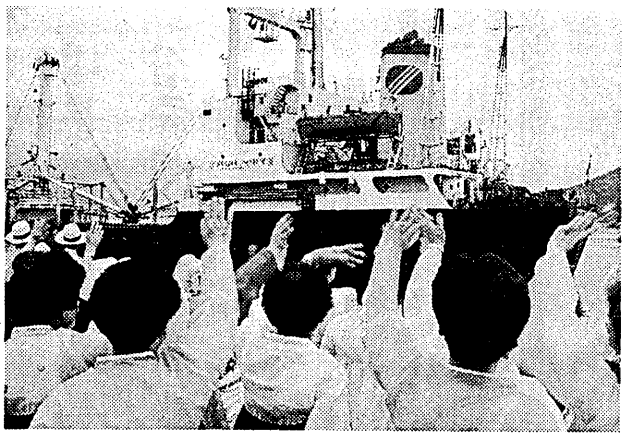
北 「대화의 장」 끌어내기

정부 식량제공제의 배경

북한은 식량제공제를 실시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에 쌀 요청” 판단 경색된 南北관계 풀기 회로

북한은 식량제공제를 실시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제공제를 실시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수급실태

| 연도 | 총수급량 | 부족량 | 자급률 (%) |
|----|------|-------|---------|
| 91 | 647 | 165.8 | 74.4 |
| 92 | 650 | 207.3 | 68.1 |
| 93 | 658 | 231.2 | 64.9 |
| 94 | 667 | 278.6 | 58.2 |
| 95 | 672 | 259.5 | 61.4 |

(단위: 만톤)

북한은 식량제공제를 실시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北의 진정한 식량긴급감

북한은 식량제공제를 실시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제공제를 실시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접요청 불구 人道的 결정

정부 對北 食糧제공제 이의

정부가 26일 북한에 대해 식량제공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凶作에 中國도 외면 2重3重苦 北 식량難 自認... 平壤도 배급중단 일쑤

북한은 식량제공제를 실시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제공제를 실시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제공제를 실시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제공제를 실시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제공제를 실시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제공제 실시를 전제로 대화의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日에 對北 쌀지원 신중촉구

전부 "한국서 우선 공급" 입장전달

▽동아일보 1995. 5. 28

"남북관계 특수성 감안 필요"

北수용대비 작업도 착수

【서울 27일路透電】북한이 남한에 쌀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우선 공급을 요청한 것이라며, 남한이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경우 북한은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에 쌀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우선 공급을 요청한 것이라며, 남한이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경우 북한은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27일路透電】북한이 남한에 쌀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우선 공급을 요청한 것이라며, 남한이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경우 북한은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에 쌀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우선 공급을 요청한 것이라며, 남한이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경우 북한은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량년 北韓 일부 지방 폭동

WP紙 보도 평양주변 軍배치 지도층 보호

【서울 27일路透電】북한이 평양주변에서 일부 지방에서 폭동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WP지는 평양주변에 군을 배치하고 지도층을 보호하는 등 긴박한 상황을 보도했다.

▽동아일보 1995. 5. 28

【서울 27일路透電】북한이 평양주변에서 일부 지방에서 폭동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WP지는 평양주변에 군을 배치하고 지도층을 보호하는 등 긴박한 상황을 보도했다.

▽한국일보 1995. 5. 28

【서울 27일路透電】북한이 평양주변에서 일부 지방에서 폭동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WP지는 평양주변에 군을 배치하고 지도층을 보호하는 등 긴박한 상황을 보도했다.

▽서울신문 1995. 5. 28

【서울 27일路透電】북한이 평양주변에서 일부 지방에서 폭동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WP지는 평양주변에 군을 배치하고 지도층을 보호하는 등 긴박한 상황을 보도했다.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

북측이 대북지원에 대해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 對北 곡물제공 낙관

先일본쌀-後한국쌀, 구도는 절대불용
남북당사자 협의, 관철... 거부해도 實利

북측이 대북지원에 대해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측이 대북지원에 대해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측이 대북지원에 대해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 쌀제공제의 또다른 배경



孔魯明외무장관이 27일 아사히타 신타로 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對北 쌀지원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申泮湧기자】

정부는 대북 쌀지원에 대해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日 쌀매개 성공한 對北 접근 제동

한국 배제한 접근 남북관계 악영향 우려
하루만에 「조건」 반복 정책혼선 문제점도

북측이 대북지원에 대해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측이 대북지원에 대해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관계기관 대북지원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자녀유망률서 2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2호)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자녀유망률"을 의미한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2호)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對北食량지원 남북협력기금 활용

쌀 재고 감안 물량 신축 결정

운송은 직항로·관문점 경유... 平壤선택 맡겨

정부는 9개部處 실무대책회의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1995년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위한 쌀 재고 감안 물량 신축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외교통상부·농림수산부·산업자원부·통관청·수출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진흥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9개部處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宋榮大(宋榮大) 총리 주재로 9개部處 차관·차장·차장보의 참석으로 1995년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위한 쌀 재고 감안 물량 신축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외교통상부·농림수산부·산업자원부·통관청·수출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진흥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9개部處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쌀 1백만톤 북에 지원

우리정인 쌀 1백만톤을 7.5%인 75만톤을 남반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남반구 지원 물량은 1995년 7.5%인 75만톤을 남반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남반구 지원 물량은 1995년 7.5%인 75만톤을 남반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숯주머니 2억 5천만 개... 時價 1천원 이하

정부는 숯주머니 2억 5천만 개를 1천원 이하의 시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숯주머니 2억 5천만 개를 1천원 이하의 시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北부족식량 지원용의

政府당국자 2백59만73억5천만弗 어치

정부는 북한에 쌀 1백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에 쌀 1백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에 쌀 1백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에 쌀 1백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에 쌀 1백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에 쌀 1백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北쌀제공수용액 이담닝 추가 지원

정부는 북한에 이담닝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에 이담닝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에 이담닝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에 이담닝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에 이담닝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에 이담닝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日, 對北쌀제원조 결정

“韓國동의가 우선” 곧 특사 派韓

【東京=李華英기자】일본 정부는 29일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일본 외무성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하당 서기장, 자민당 모리(森喜朗)간사장, 가토(加藤紘一)총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 외무성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자 회담을 주관하는 일본 외무성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배제 쌀제공 반대” 김일부

【平壤=김영미기자】북한 외무성 장관은 29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쌀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장관은 29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쌀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장관은 29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쌀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장관은 29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쌀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日, 韓國과 상의없이 결정 안행

【東京=李華英기자】일본 정부는 29일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9일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9일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日, 對北쌀제공에 어려움

黨政이전... 法규정등 문제 많아

【東京=李華英기자】북한에 대한 쌀원조 제공에 있어서는 법적 규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29일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9일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9일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9일 북한에 대한 쌀원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東京=李華英기자】북한에 대한 쌀원조 제공에 있어서는 법적 규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北, 對北쌀제공에 대한 결정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 장관은 29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쌀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장관은 29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쌀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장관은 29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쌀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장관은 29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쌀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장관은 29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쌀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北 中國시장 수입격감

가격을라 절반이하로...美産 옥수수 구입 검토

【東京=郭在源특파원】중국에 대한 수출입 수급수급의 불균형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아시아(朝日)신문이 지난 31일 중국정부 통계청을 인용해 베이징(北京)에서 보도했다.

중국, 세계무역에 따르면 2만8천5백t이었는데 올해 1~4분기 2만3천5백t에 머물러 연간 전체로 볼 때 지난해를 크게 밑돌았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소비가 많은 옥수수의 경우 수출량이 93년 87만t에서 지난해 21만t으로 줄었고, 올해 1~4분기 9천4백t까지 떨어졌다.

중국이 이같이 '북한'의 시장수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같이 수출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옥수수의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북한이 미국과 수입을 하고 있는 옥수수는 미국산 옥수수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북한이 미국과 수입을 하고 있는 옥수수는 미국산 옥수수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북한이 미국과 수입을 하고 있는 옥수수는 미국산 옥수수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북한이 미국과 수입을 하고 있는 옥수수는 미국산 옥수수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韓美日 北核공조 와해의도

北 쌀지원 요청 日 시각과 대응

북한이 일본에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 대해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쌀 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은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이 일본에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 대해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쌀 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이 일본에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 대해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쌀 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이 일본에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 대해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쌀 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이 일본에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 대해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쌀 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이 일본에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 대해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쌀 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이 일본에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 대해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쌀 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이 일본에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 대해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쌀 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이 일본에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 대해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쌀 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日 "北 한국쌀 수용부터"

고노외상 對北지원 조건 제시

【東京=黃宇淵특파원】일본 고노 외상은 30일 북한에 대한 쌀 지원에 있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고노 외상은 30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고노 외상은 30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고노 외상은 30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고노 외상은 30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고노 외상은 30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고노 외상은 30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고노 외상은 30일 '북한-일본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쌀 지원을 요청했다.

對北 쌀제공 조건없다

羅부총리 가능하면 日보다 먼저 지원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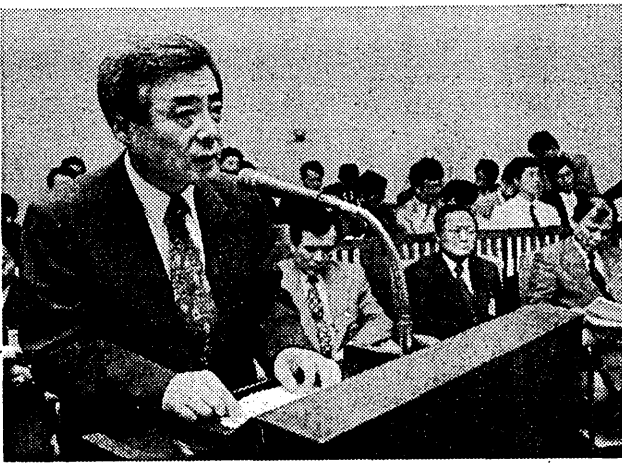
統外委 「쌀정책」 우선순위로

羅維多委(外務部)는 20일(19일 밤)에 열린 정례회에서 4월 15일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羅維多委(外務部)는 20일(19일 밤)에 열린 정례회에서 4월 15일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金鳳先기자〉



羅維多委(外務部)는 20일(19일 밤)에 열린 정례회에서 4월 15일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南風福기자〉

與도 野도 政府도 "무조건 北 지원"

同胞愛 多신 國會 對北의무론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1995년 6월 1일(19일 밤)에 열린 정례회에서 4월 15일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1995년 6월 1일(19일 밤)에 열린 정례회에서 4월 15일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1995년 6월 1일(19일 밤)에 열린 정례회에서 4월 15일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日本쌀 지원 막는건 응졸, 政略 경제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1995년 6월 1일(19일 밤)에 열린 정례회에서 4월 15일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1995년 6월 1일(19일 밤)에 열린 정례회에서 4월 15일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1995년 6월 1일(19일 밤)에 열린 정례회에서 4월 15일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北 유네스코에도 쌀 요청

한림대신문 1995. 6. 1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1995년 6월 1일(19일 밤)에 열린 정례회에서 4월 15일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1995년 6월 1일(19일 밤)에 열린 정례회에서 4월 15일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1995년 6월 1일(19일 밤)에 열린 정례회에서 4월 15일 이후에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康英鎭기자〉

北, 이집트에도 쌀 요청

日紙도 北, 식량사정 크게 어려울 듯

【도쿄=추진】북한이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고, 일본 언론도 이 사실을 보도했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北에 50만弗 원조

【도쿄=추진】북한이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고, 일본 언론도 이 사실을 보도했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고, 일본 언론도 이 사실을 보도했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北, 식량난 국제대책 촉구

노동신문 "빨리 해결 못하면 인류 생존위기"

【도쿄=추진】북한이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고, 일본 언론도 이 사실을 보도했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고, 일본 언론도 이 사실을 보도했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對北교섭을 제정원칙이라 비판

南北단교간 협의는 불교관계자 주장 제각각

북한이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고, 일본 언론도 이 사실을 보도했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北, 식량난을 해소할 수 - 중립사태

관계당국 "산나물연명... 자살자 늘었다"

북한이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고, 일본 언론도 이 사실을 보도했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집트에 쌀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對北 식량지원 성사되려나

北「쌀희담우회」수용과 정부 입방

북한식량지원의 성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보인다. 북한은 동경직접교섭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95년 제 3차인 양평 이관식(平壤 五十萬噸)의 쌀희담우회 5월 「희담우회」의 창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식은 북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남한에서 열린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관파전 정부 입방

남한에서 열린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에서 열린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에서 열린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韓國 쌀 반입」 알려지면 체제동요 우려 제3國통해 민간차원 지원 희망하는듯

정부 "당국간 협의 필수" 平壤직접반응 기대

88만 t(93표)·4백13만 t(94표)인 양평 이관식은 총수출액의 6백27만 t이었다. 해마다 2백만 t의 쌀을 수출하는 북한이 95년 양평 이관식을 통해 4백만 t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세계적 식량난 긴장

오랫동안 식량난을 겪어온 북한은 이번 양평 이관식을 통해 4백만 t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대학 나설지 미지수

조야은 북한희담우회 창립식 참석차 서울에 방문한 조야은은 북한측에서 양평 이관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수입액에 미치지 못했다. 북한은 95년 4백43만 t(91표)·4백27만 t(92표)·3백81만 t(87표)의 쌀을 수출했다.

對北 쌀제공 성사될까

日韓兩國와 협의의사 전달

북한은 95년 양평 이관식을 통해 4백만 t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北군의 확인인쇄 정부 입방관망

남한에서 열린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은 남한이 이관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95년 양평 이관식을 통해 4백만 t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이관식은 남한에서 열린다.

「쌀 제공」 민족내부 문제 재확인

정부 입장 천명 안팎

북한이 최근 쌀 제공을 통해 민족내부 문제를 재확인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남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민족내부 문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이는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쌀 제공을 통해 남한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하며, 이는 남북 간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경협업체가 개발해 지던 지난 91년 7월 20일 천진구역이 북포항에서 北韓으로 쌀을 직송하기 위해 선적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남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민족내부 문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이는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쌀 제공을 통해 남한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하며, 이는 남북 간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北「제3국통한 우회해결」 시도에 췌기 日의 「중재명분」 對北수교 활용도 차단

북한이 제3국을 통한 우회해결 시도에 췌기. 일본의 중재명분을 대북수교 활용도 차단. 북한은 최근 남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민족내부 문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이는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南北「쌀협상」 재촉구

네이티브의 절차합의때 무조건 지원 재확인. 남북 간의 쌀 협상에 대한 재촉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남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민족내부 문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이는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1995. 6. 7

中「對北쌀지원 의사없다」

미국과 만류인 남한. 중국은 최근 남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민족내부 문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이는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남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민족내부 문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이는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남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민족내부 문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이는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민족내부 문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이는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남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민족내부 문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이는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민족내부 문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이는 남북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1995. 6. 7

“북에 먼저 쌀제공하라”

羅부총리 강령총구 南北특수성고려없이 韓日관계악영향

北, 日에 “먼저 쌀공급” 서한

정부는 8일 남북합치 원문제의 실현(남북합치)을 위한 지원책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다만 서한이 발했다. 고국들을 먼저 제공할 지점에 대한 고려 없이,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강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아울러, 이 서한은 정부를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북한산 자갈채나 쌀을 수출할 때 관세나 배타적 수출 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南北관계 정치적 이용에 췌기

정부가 8일 일방적으로 대북 지원 확대를 발표하자 북한은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개선보다 앞서 나가는데 대한 반감을 사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긴장감이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 나가는데”라는 발언을 통해,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北-日 관계 개선 앞서나가는 데 제동 수교위한 日측의 물밑작업도 차단

우남북관계 개선에 도출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羅부총리의 「北韓쌀지원」對日 경고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는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김일성 주석의 8일 평壤에서 발표한 “남북합치 실현을 위한 지원책”에 따라 발송된 것으로, “북에 먼저 쌀공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埃、北쌀요청 거부

미소시통 무상제공 곤란통보

【노태우=합】북한의 쌀무상 지원 요청에 대한 미소시통의 무상제공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소시통은 이날 북한에 "북한이 요청한 쌀무상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소시통은 "북한이 요청한 쌀무상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소시통은 "북한이 요청한 쌀무상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나부총리 발언 왜 나왔나

일 견제-북 대화유도 이중포석

강태호 기자

대북 쌀제공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부의 무조건적인 대북 곡물지원 발표 이래 북한은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켜왔다. 정부는 나름대로 이런 침묵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과연 북한이 남한 쌀을 받겠느냐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정부의 이런 제의에 '베이징에서의 접촉'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이 일본쪽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또 이를 배경으로 정부의 남한 쌀 우선 지원 방침으로 다소 주춤하던 일본이 슬그머니 '중재역'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일본쪽의 곡물 제공을 계속 추진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런 일본의 입장은 8일 오전에 열린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의 정책당국자회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NHK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는 남북한 당사자들의 직접 쌀문제 협의를 촉구

하는 한편 일본 나름대로의 대북 쌀제공 준비는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옹배 통일 부총리의 이번 일본의 곡물지원 움직임에 대한 경고는 이런 미묘한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다. 나 부총리의 성명이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다른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일본쪽의 물밑접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최근 일본쪽에 곡물지원 문제와 관련해 서한을 보내왔다. 알려진 바로는 이 서한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난 5일 이가라시 관방장관의 발언으로 공개된 것으로 "쌀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남북한 직접대화에 응하겠다"는 의향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런 북한측 입장을 5일 김태지 주일 대사를 통해 전달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하나는 북한이 <니혼게이지신문>의 보도처럼 남북대화의 방식으로 베이징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와의 비정부간 접촉을 제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일본과의 우선 협의를 내세워 일본 쌀 우선 제공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총리의 이번 성명은 일본에 대한 견제와 함께 북한을 남북대화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일 송영대 통일원 차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직접 대화를 촉구하면서 "북쪽이 우리 쪽 제의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가라시 관방장관의 발언 등 일본쪽으로부터 북한의 '대화 의향'을 전달받은 직후였다.

이번 '부총리 성명'은 이와 관련해 6일 "북한쪽의 반응을 기다리겠다"는 것보다 더 진전되고 구체화된 표현을 쓰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의 정부 입장은 "북한으로부터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나 부총리는 정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직접적인 북한쪽의 의사 타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국일보 1995. 6. 9

北·심의회 北京 접촉
홍수수 무상제공 논의
【베이징=합】북조선명예군령총사령관 김일성 북한에서 북한측과 비밀접촉을 갖고 식량지원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북한측에 대해 홍수수 무상제공을 위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같이 한 소식통이 7일 밝혔다. 식량지원에 관한 이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측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995. 6. 9

北·日 밀착에 제동

羅 부총리 對日 경고 배경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이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위축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밀착을 우려한 상황에서 정부가 각의 마지막 절충과 8일 미주회담을 앞두고 있다. 발효된 羅 부총리 발언의 배경

수교와 한미의 정상회담의 합의가 당면보다 명시적인 표현과 함께 남북대화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차원의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이 김대중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할 수 있다. 北·日 밀착에 제동

중앙일보 1995. 6. 9

이집트, 北 쌀요청 거부

財政難 이 이유

【東京=합】북한이 요청한 쌀무상 지원에 대해 이집트 정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쌀무상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쌀무상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쌀무상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쌀지원 민족내부 문제" 천명

北 대화의場 유인

【합】북한이 남한에 쌀무상 지원을 요청한 것은 민족내부 문제라는 점을 천명하며 대화의 장을 열어달라는 취지였다. 이집트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쌀무상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쌀무상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북한이 요청한 쌀무상 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北-日 2일부터 星港서 극비 '쌀접촉'

쌀제금 불려산 北-日 비밀접촉 논란

그동안 일관되게 사수해오던 이 에라(이시안)는 26일(현지시간)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김성철(金成哲)을 통해 김일성(金日成)의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 자리에서 김성철(金成哲)을 통해 북한이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金成哲)은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金日成)의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 자리에서 김성철(金成哲)을 통해 북한이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金成哲)은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金日成)의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루트 대신 私조직 가동... 日帝외교 흡사 李成綠비자 이례적 조기 발급... 고위관리 개입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김성철(金成哲)을 통해 북한이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金成哲)은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金日成)의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 자리에서 김성철(金成哲)을 통해 북한이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金成哲)은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金日成)의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北 쌀지원만 비밀접촉」

日 아에라誌 와타나베등 北측과 「私的 회동」

이 자리에서 김성철(金成哲)을 통해 북한이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金成哲)은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金日成)의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 자리에서 김성철(金成哲)을 통해 북한이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金成哲)은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金日成)의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東京 26日電】北朝鮮(北朝鮮)이 이 자리에서 김성철(金成哲)을 통해 북한이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金成哲)은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金日成)의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철(金成哲)을 통해 북한이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金成哲)은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金日成)의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 자리에서 김성철(金成哲)을 통해 북한이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金成哲)은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金日成)의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 자리에서 김성철(金成哲)을 통해 북한이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金成哲)은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金日成)의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 자리에서 김성철(金成哲)을 통해 북한이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철(金成哲)은 5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金日成)의 쌀제금(米制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선명회 北지원용 곡물 美, 10만 t 반출 승인

미부 정부가 국제선명회(국제선명회)에 10만 t의 곡물을 반출할 것을 승인했다.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만 t의 곡물을 반출할 것을 승인했다. 미부 정부는 국제선명회(국제선명회)에 10만 t의 곡물을 반출할 것을 승인했다.

국제선명회(국제선명회)는 10만 t의 곡물을 반출할 것을 승인했다. 미부 정부는 국제선명회(국제선명회)에 10만 t의 곡물을 반출할 것을 승인했다.

南北「쌀지원」극비 접촉

정부소식통 北京서 高位당국자 만나 논의

民間회사서 대여방식 제공요청 軍糧米 전용알게 公開 논의 주장

【서울 10일 연합뉴스】 민간회사가 북한에 쌀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군용미(軍糧米)를 전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접촉은 북한이 한 국의 민간회사가 북한에 대여할 수 있는 쌀을 대량으로 북한에 대량으로 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이 북한에 군용미 전용을 알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접촉은 북한이 한 국의 민간회사가 북한에 대여할 수 있는 쌀을 대량으로 북한에 대량으로 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이 북한에 군용미 전용을 알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1995. 6. 9

쌀지원 南北韓회담 北 北京개최제의

【서울 10일 연합뉴스】 북한은 6월 9일 베이징에서 남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6월 9일 베이징에서 남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6월 9일 베이징에서 남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6월 9일 베이징에서 남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6월 9일 베이징에서 남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6월 9일 베이징에서 남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일보 1995. 6. 10

北韓, 한국정부에 쌀지원 정식요청 民間제공 요구로 거부당해

【서울 10일 연합뉴스】 북한은 6월 10일 한국정부에 쌀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북한은 6월 10일 한국정부에 쌀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북한은 6월 10일 한국정부에 쌀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북한은 6월 10일 한국정부에 쌀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북한은 6월 10일 한국정부에 쌀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북한은 6월 10일 한국정부에 쌀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統一院선 집행부인 이양판(李養蕃) (金雄) 총재가 대변인인 김기남(金奇南)을 통해 북한에 쌀을 대량으로 대여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남은 6월 10일 평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康英鎮기자〉

北, 日에 쌀원조 재촉電文

무엇보다도 "최소 30만톤 다음주에 받고 싶다"

【東京=夫址榮·李華英기자】북한은 10일 북한인민군총사령관 김일성의 지시로 유엔에 쌀원조 재촉을 담은 「電文」을 보냈다. 「電文」에는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최소 30만톤의 쌀을 다음주에 받고 싶다"고 밝혔다. 「電文」은 유엔에 보낸 것으로, 유엔에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최소 30만톤의 쌀을 다음주에 받고 싶다"고 밝혔다. 「電文」은 유엔에 보낸 것으로, 유엔에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최소 30만톤의 쌀을 다음주에 받고 싶다"고 밝혔다.

日, 쌀 「獨自」원조 대두

對北 인도적 지원 "한국이 해 없으면 필요없었다"

【東京=夫址榮·李華英기자】북한에 대한 쌀 원조는 한국과 함께 실시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인도적 지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電文」에는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최소 30만톤의 쌀을 다음주에 받고 싶다"고 밝혔다. 「電文」은 유엔에 보낸 것으로, 유엔에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최소 30만톤의 쌀을 다음주에 받고 싶다"고 밝혔다.

韓·日對北 쌀지원 마찰

우리측 "경고" 불구 日일각 추진

【東京=夫址榮·李華英기자】북한은 10일 북한인민군총사령관 김일성의 지시로 유엔에 쌀원조 재촉을 담은 「電文」을 보냈다. 「電文」에는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최소 30만톤의 쌀을 다음주에 받고 싶다"고 밝혔다. 「電文」은 유엔에 보낸 것으로, 유엔에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최소 30만톤의 쌀을 다음주에 받고 싶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對北 고물만들 스기 쌀의담 응할 때까지 보류

【서울=夫址榮·李華英기자】북한에 대한 쌀 원조는 한국과 함께 실시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인도적 지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電文」에는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최소 30만톤의 쌀을 다음주에 받고 싶다"고 밝혔다. 「電文」은 유엔에 보낸 것으로, 유엔에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최소 30만톤의 쌀을 다음주에 받고 싶다"고 밝혔다.

Ⅱ. 대북 곡물 제공

2. 남북 차관급 북경회담

南北 차관금 쌀협상

17일께 北京서 지원방안 논의

한국쌀 제공 합의할 듯

NHK-시사통신 "北서 회담대표와 견南의 알력"

【서울 16일路透電】北朝鮮의 차관금 협상 대표단과 南의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NHK-시사통신은 "北서 회담 대표단과 南의 알력"을 보도하며, "北서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北朝鮮의 차관금 협상 대표단과 南의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NHK-시사통신은 "北서 회담 대표단과 南의 알력"을 보도하며, "北서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北朝鮮의 차관금 협상 대표단과 南의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NHK-시사통신은 "北서 회담 대표단과 南의 알력"을 보도하며, "北서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北朝鮮의 차관금 협상 대표단과 南의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NHK-시사통신은 "北서 회담 대표단과 南의 알력"을 보도하며, "北서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北京 南北 차관금 쌀협상 전망

▽세계일보 1995. 6. 17

北 '한국쌀 수용, 금진전'

【서울 16일路透電】北朝鮮의 차관금 협상 대표단과 南의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NHK-시사통신은 "北서 회담 대표단과 南의 알력"을 보도하며, "北서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쌍방 자존심-체면살리는 전략 북측태도 유연해 妥結 가능성

【서울 16일路透電】北朝鮮의 차관금 협상 대표단과 南의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NHK-시사통신은 "北서 회담 대표단과 南의 알력"을 보도하며, "北서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北朝鮮의 차관금 협상 대표단과 南의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NHK-시사통신은 "北서 회담 대표단과 南의 알력"을 보도하며, "北서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1995. 6. 17

北朝鮮의 차관금 협상 대표단과 南의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NHK-시사통신은 "北서 회담 대표단과 南의 알력"을 보도하며, "北서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1995. 6. 17

北朝鮮의 차관금 협상 대표단과 南의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NHK-시사통신은 "北서 회담 대표단과 南의 알력"을 보도하며, "北서 회담 대표단이 17일께 北京에서 지원방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南北韓 「대화의 門」 열릴까

北京의 「쌀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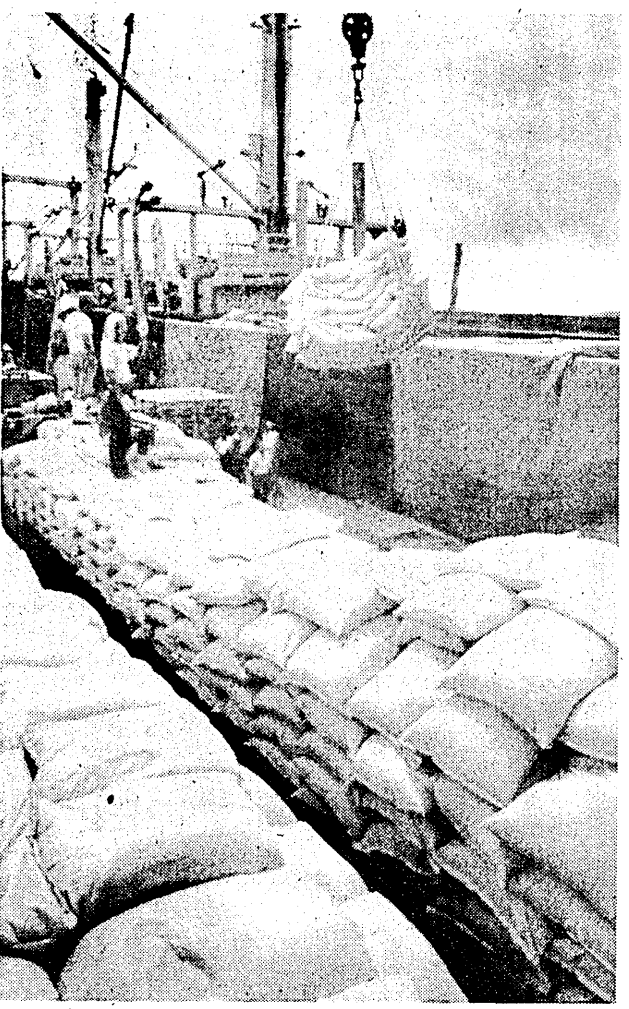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쌀 협상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쌀 협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말에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의 특사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 특사단은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서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위급 인사로 보인다. 이 특사단은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와 회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 특사단의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쌀 협상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쌀 협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말에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의 특사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 특사단은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서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위급 인사로 보인다. 이 특사단은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와 회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北식량난에 "내부사정복잡" 추측 日쌀받이려 "입장선"회 했을지도



그리고는 북한이 내국 쌀을 수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쌀을 수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쌀을 수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政府쌀재고 千40萬십

북한은 쌀 재고를 400만 톤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쌀 재고를 400만 톤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쌀 재고를 400만 톤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쌀 재고를 400만 톤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쌀 재고를 400만 톤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쌀 재고를 400만 톤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쌀 재고를 400만 톤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쌀 재고를 400만 톤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가뭄·인화물질결핍 '척박'

북한은 가뭄과 인화물질 결핍으로 농업 생산이 저조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가뭄과 인화물질 결핍으로 농업 생산이 저조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가뭄과 인화물질 결핍으로 농업 생산이 저조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가뭄과 인화물질 결핍으로 농업 생산이 저조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가뭄과 인화물질 결핍으로 농업 생산이 저조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가뭄과 인화물질 결핍으로 농업 생산이 저조했다고 발표했다.

北에 쌀15만t 지원

우리측 아무런 조건없이

南北北京회담 北韓의 요청 받아들여

李錫采차관-全수철 20일까지 접판



李錫采차관



全수철부위원장

【北京=朴炳鶴·文日錄 특파원】우리정부의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15만t의 쌀을 제공할 방침인 것이 17일 오후 3시부터 배

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쌀제공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 차관급 대표 17일 오후 3시부터 배를 가질 예정인데, 빠른편

이북측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조기에 합의할 수 있다. 남·북한 차관급 대표 17일 오후 3시부터 배를 가질 예정인데, 빠른편

이북측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조기에 합의할 수 있다. 남·북한 차관급 대표 17일 오후 3시부터 배를 가질 예정인데, 빠른편

北 現代에 1억弗 차관 요청

全수철부위원장 별도로 쌀·원유등 현물지원도

【北京=朴炳鶴·文日錄 특파원】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東京=藤村 健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北京=朴炳鶴·文日錄 특파원】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東京=藤村 健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日 쌀10萬t 우선제공 방침 한국보다 앞서지는 않기로

【東京=藤村 健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東京=藤村 健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東京=藤村 健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東京=藤村 健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東京=藤村 健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東京=藤村 健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東京=藤村 健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東京=藤村 健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東京=藤村 健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東京=藤村 健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북한은 현대(現代)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남북대화 재개 첫 관문 통과

경협통한 관계개선 돌파구 마련...북-일 수교협상 물꼬틀듯

□ 남북 차관급 베이징 쌀회담 의미

강태호 기자

이번 베이징 차관급 쌀회담 합의는 청와대가 중심이 돼 통일원·안기부가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를 외형적인 접촉 창구로 내세워 정치적 타격을 이끌어낸 작품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재경원의 이석재 차관과 전금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회담은 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회담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석재 차관이 회담 대표로 선정된 것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합의된 5개 남북공동위 가운데 재경원 차관이 경제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기본합의서의 실천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정부쪽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차관은 남북대화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또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재경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차관급 회담이 쌀제공과 관련된 절차문제 이외에 다른 현안들을 논의하지 않으리라는 걸 뒷받침하는 것이다.

물론 북쪽의 전 부위원장은 지난 72년 남북적십자회담 대변인을 맡은 이래 20여년 이상의 남북대화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긴 하다.

그러나 그 역시 이번 회담에는 남북대화 주무부처인 조평통 부위원장이 아니라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격으로 나온다. 북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당국차원의 차관(급)회담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태평화위원회는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가 위원장으로 있으나 지난 4월말 평양에서 열린 체육문화축전의 주체가 주된 임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 그 성격이 모호한 조직이다.

단지 위원회의 또다른 부위원장인 이종혁이 일본쪽과의 막후 쌀협상 주역이었으며 지난 3월에는 미국도 방문하고 있는 걸로 봐서 쌀 수입을 비롯해 미-일 등과 '비정부차원'의 경협창구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회담 형식과 대표의 면면으로 본다면 남한이 쌀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요구한 '절차문제 협의의 당국간 대화'를 북한이 변형해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이번 회담이 쌀문제로 국한돼 있으며 북쪽에 제공한 곡물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인도시기 등 절차문제를 협의하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의 전망은 당연히 낙관적이다. 사실 차관급 회담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남한쌀이 북한으로 간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고위당국자도 돌발변수가 없는 한 회담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베이징의 쌀회담이 관문점에서의 남북대화로 이어지리라는 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합의는 팔라뭇푸르 경수로 합의와 유사하다. 팔라뭇푸르가 한국형 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사실상 관철시켰지만 그것을 직접 명기하지는 못했고 또 직접적인 남북대화를 끌어내지도 못했다. 쌀회담도 남한쌀이 가기는 하겠지만 비슷한 한계 내에서 진행되리라는 것이다. 그 반면에 경수로 타결이 연락사무소 설치라는 북-미 관

계의 진행을 예고하듯 쌀회담은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으로 직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차관급회담 합의의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도 고도의 막후 정치협상을 통해 난관을 풀었다는 점에서 본격 남북대화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경협논리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도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을 밝게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화해·협력국면을 여는 계기로 보는 평가도 가능하다. 북-미, 북-일 관계의 개선을 배경으로 한쪽에선 경수로와 쌀이 다른 한쪽에선 기업의 대북진출이 어우러진 남북협력기금이 진행되는 상황을 설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南 무역진흥공사
北 삼천리총회사

비밀접촉 8일

베일속 고위회담 가능성 在美실업가·日 중재설도

【서울 17일路透】남북 고위회담이 비밀접촉을 통해 8일(현지시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소식통이 17일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남북 고위회담이 8일(현지시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소식통이 17일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남북 고위회담이 8일(현지시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소식통이 17일 연합뉴스에 말했다."

쌀회담 어떻게 성사됐나

【서울 17일路透】남북 고위회담이 비밀접촉을 통해 8일(현지시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소식통이 17일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남북 고위회담이 8일(현지시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소식통이 17일 연합뉴스에 말했다."

對北지원 쌀매입재원 남북협력기금서 충당

정부방침

【서울 17일路透】남북 고위회담이 비밀접촉을 통해 8일(현지시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소식통이 17일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남북 고위회담이 8일(현지시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소식통이 17일 연합뉴스에 말했다."

對北 쌀지원 北京회담

집중진단

「公式 접촉」 물꼬 틀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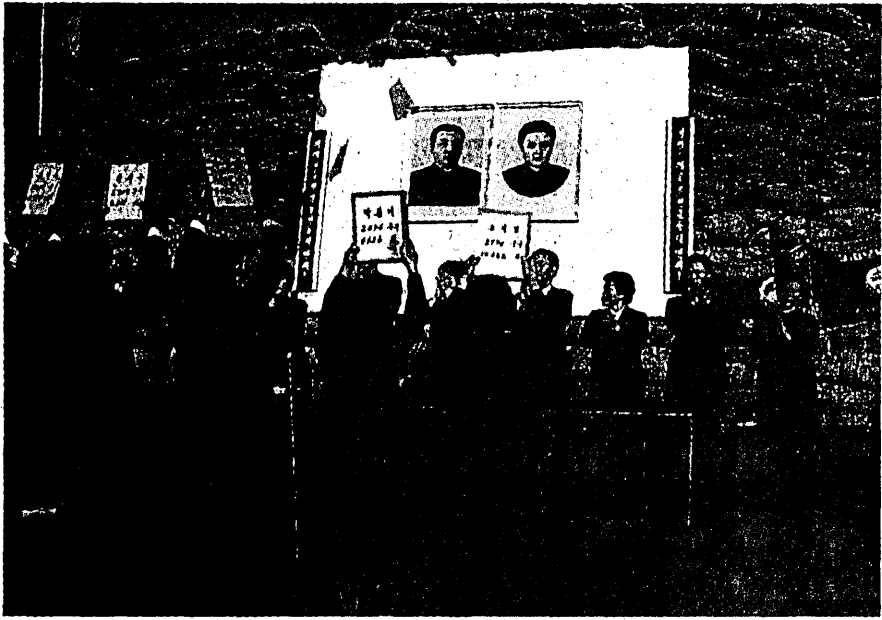
회담이름야 배경

북한은 1995년 6월 18일 베이징(北京)에서 남한을 초청하여 1995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식 접촉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식 접촉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北,식량난·開放 "동시 해결"

「少量」받은 후 日쪽 선회 가능성도

북한이 1995년 6월 18일 베이징(北京)에서 남한을 초청하여 1995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식 접촉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식 접촉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남북간 접촉 물꼬를 튼 베이징(北京)의 쌀회담은 북한의 심각한 쌀사정을 반영한다. 사진은 주북한교에서 쌀수확량이 큰 집단농장에 T.V. 재봉틀 등 특별상품을 시상하는 장면. <사진작가 久保田博二>

차관급 實勢... 남북협상 전문 회담꾼

北 협상대표 손수철 부장인가

북한은 1995년 6월 18일 베이징(北京)에서 남한을 초청하여 1995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식 접촉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식 접촉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李錫采차관 北京行

외교부 차관급 실세인 손수철(孫守哲) 부장이 18일 베이징(北京)에서 남한을 초청하여 1995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식 접촉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식 접촉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 직접 지시... 財經院도 일정 몰라

北京주재 韓國대사관도 행방찾아 "우왕좌왕"

청와대(Blue House)가 18일 오전 10시 30분경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북한은 1995년 6월 18일 베이징(北京)에서 남한을 초청하여 1995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식 접촉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식 접촉은 1994년 12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다."

“대화물꼬”... 기대-우려 교차

쌀 희망 남북관계

북한의 쌀 수요가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늘었다는 사실이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100만톤의 쌀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수입한 쌀의 총량에 미치지 못한다.

북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95년 북-미 쌀 수입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은 북한의 쌀 수요를 충족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중론

낙관론

북한이 쌀 수입을 늘리는 데 있어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 북한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미국의 경제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남북 양국은 쌀 협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대화물꼬를 연 것이냐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95년 北 韓 行 北 洋 行 北 洋 行 北 洋 行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 100만톤의 쌀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수입한 쌀의 총량에 미치지 못한다.

북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95년 북-미 쌀 수입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은 북한의 쌀 수요를 충족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량위기 불끄기用...진전여부 불투명

경수로제공-經協의식 적극자세 예상

북한이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 수입이 북한의 식량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은 북한의 식량 위기를 완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日本 수심

북한이 쌀 수입을 늘리는 데 있어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 북한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미국의 경제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남북 양국은 쌀 협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대화물꼬를 연 것이냐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저말리고 對北수급질책기

北韓서 정치자금 수습지원 제언

북한이 쌀 수입을 늘리는 데 있어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 북한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미국의 경제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남북 양국은 쌀 협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대화물꼬를 연 것이냐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國 시각

북한이 쌀 수입을 늘리는 데 있어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 북한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미국의 경제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남북 양국은 쌀 협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대화물꼬를 연 것이냐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의 대화물꼬의 명실상부한 적용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북한이 쌀 수입을 늘리는 데 있어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 북한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미국의 경제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남북 양국은 쌀 협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대화물꼬를 연 것이냐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쌀 수입을 늘리는 데 있어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 북한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미국의 경제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남북 양국은 쌀 협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대화물꼬를 연 것이냐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무타협안 「당국자 보장」 초점

南北 쌀회담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김일성死後 첫 당국자 공식대좌 經協등 다른議題 거론여부 촉각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오전 10시경 평양에서 북한인 피난민 3만여명의 쌀이 북부평양에서 「남북」간 거래의 전초장소로 되고 있다.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후 남북관계일지
- ▲91.7=한국쌀 5천톤(6만5천5백가마) 북한과 첫 직교역
 - ▲92.2.18~2.21=제6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 발효
 - ▲92.5.5~5.8=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 연 락사무소와 군사, 경제,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 위 구성 합의
 - ▲92.7.19~25=金鐘文 북한부총리 서울방문
 - ▲92.9.17~18=제8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 3개 부속합의서 채택 발효, 화해공동위 구성 합의
 - ▲92.12.12=북, 제9차 고위급회담 거부
 - ▲93.3.19=이인모 송환
 - ▲94.3.19=북사교관 제8차 실무접촉 결렬
 - ▲94.4.28=북, 군정위 인방철수
 - ▲94.6.16~17=카터-김일성 회담
 - ▲94.6.28=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李洪九-金容淳) : 7월25일 평양서 개회 결정
 - ▲94.7.8=김일성 사망
 - ▲94.7.11=金容淳, 李洪九 통일부총리에 정상회담 연기토요
 - ▲95.1.24=북, 대민족회의 제의
 - ▲95.1.25=남, 차관급 대화 제의
 - ▲95.3.7=金泳三대통령 대북 곡물지원 제의
 - ▲95.4.11~16=대총고 安浩相총선고 불법발북
 - ▲95.5.26=북, 일련일어대대표단 통해 한국쌀 받 을 의사표시
 - ▲95.5.26=羅부총리, 전제조건없는 대북 곡물지 원 용의표시
 - ▲95.6.17=대북쌀지원 남북접촉(북경)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政府 官廳 2차 스케치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적정망속 공식인접 자체 北·日간 「언론 플레이」 언론 본노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李錫采 차관

李錫采 차관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84년 「북한 쌀」 때도 인연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金昇泳 眞摺을 기차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쌀회담이 17일 드디어 실무를 타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對北쌀 23일 선적

次官級 합의 따라 5만t 중 1차분... 민간 구상 업무 영향 태

경남의 양곡개발사업은 한 차라리 앞당겨졌다. 5만t 중 1차분 5만t의 쌀이 23일 오후 5시에 부산항의 부산항역에서 첫 선적될 예정이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日도 "30만t 긴급제공"

산케이 보도 "군사轉用배제" 문서확약 요구

【보도】美韓珍珍(미진진)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의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北에 끌려다니지 말자

金 斗 宇 <정치부기자>

북한이 양곡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양곡개발사업은 1994년 12월 15일 양곡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기)가 합의한 바 있다.

15만 수송 수개월 걸린다



북한에 대한 쌀재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南·北韓 차관급 대표회담이 열렸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북경빈전.

對北 쌀지원 절차 방법

북한은 지난 4월 말 쌀 지원이 1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5월 말 현재 쌀 지원이 15만톤에 불과하다. 북한은 5월 말 현재 쌀 지원이 15만톤에 불과하다. 북한은 5월 말 현재 쌀 지원이 15만톤에 불과하다.

89~94년 산일반미로... 통일미 제외 국내여분감안 7만여t 추가 수입

15t, 12~13시간을 가동하면 20~25t가량이다. 전제조건으로 5천t를 가동하면 하루 10일쯤 걸린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계산이다. 여기에 한

北京회담 이모저모

북한의 대한 쌀재공과 관련된 대표회담이 17일 저녁 7시에 베이징에서 개막된 뒤 이틀간 양측 대표단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18일 밤 11시에 회담이 종료되었다.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쌀재공'을 주제로 한 3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첫항목은 '북한에 대한 쌀재공'에 관한 것이다.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쌀재공'을 주제로 한 3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보도진 다치자 장소 옮겨 크비진행 물량·인도방법 중점 일사천리 절충

내지 못했던 기자들의 2차 회담이 17일 저녁 7시에 베이징에서 개막된 뒤 이틀간 양측 대표단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18일 밤 11시에 회담이 종료되었다.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쌀재공'을 주제로 한 3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시각은 11시 30분이다. 15만톤에 달하는 쌀 지원이 북한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월 말 현재 쌀 지원이 15만톤에 불과하다. 북한은 5월 말 현재 쌀 지원이 15만톤에 불과하다.

쌀 1차 5萬t 무상제공

南-北합의 정부채널 공여...北 오늘 요청서 전달

주말船積元山港으로 1차분보낸후 10萬t 추가

【北京=金容淳】北京에서 쌀을 채워진 1차분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이정숙 기자가 이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중앙일보 1995. 6. 20

北京서 쌀外문제도 논의
羅雄培(羅雄培) 부총리 겸 방위장관(방위부)이 오늘 『북-南 합의(北南) 채널(北南)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북-南 합의(北南) 채널(北南)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북-南 합의(北南) 채널(北南)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북-南 합의(北南) 채널(北南)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북-南 합의(北南) 채널(北南)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북-南 합의(北南) 채널(北南)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북-南 합의(北南) 채널(北南)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세계일보 1995. 6. 20

北 日本쌀수용본격준비 수송선 13척대기...金容淳 訪日의사 재확인

【北京=田賢】北-南 합의(北南) 채널(北南)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북-南 합의(北南) 채널(北南)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북-南 합의(北南) 채널(北南)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북-南 합의(北南) 채널(北南)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북-南 합의(北南) 채널(北南)을 통해 1차분 5萬t을 보낸 후 10일 이후 한남의 정부채널을 통해 1차분 5萬t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북 입장 살려주며 '작품'만들기 심혈

청와대 분위기 조성 등 직접지휘...북한도 예상보다 적극적

◇...청와대는 19일 베이징 쌀회담의 최종 타결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진행상황에 대한 언급이 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듯 발언을 삼가는 모습이 뚜렷했다.

악영향 우려 신중 보도 주문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베이징 회담의 내용을 언론들이 경정적으로 추측 보도할 경우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신중한 보도를 주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베이징 회담에서 남북 대표들은 쌀의 규모나 제공조건 등 주요 사항들은 이미 타결되고 인도절차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놓고 미세한 입장차이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은 북한측에 1차로 5만t의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측이 장기저리 대여 형식을 고집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측은 쌀 제공을 인도적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되도록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17일 저녁 북한의 중앙방송

타결 임박 남북 쌀회담 서울-베이징 표정

이 "쌀을 외국에 구걸하면 민족의 주체성이 무너지고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요지의 방송을 내보낸 이후 그 배경에 관해 한때 추측을 끈두세웠으나 중앙방송이 국내용 방송이고 주민들에게 쌀도입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정보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라 안도하기도 했다.

나 통일부총리 불편한 심기

◇...베이징 쌀 회담은 애초 19일에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청와대측에서는 내용배 통일부총리가 오후에 합의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나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조금 넘어 기자실에 들러 "오늘도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회담이 하루 더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나 부총리는 회담이 진행중임을 들어 내용은 물론 합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체 밝히지 않았다.

나 부총리는 그동안 기자들과의 만남을 거

절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언론의 '과잉 추측 보도'를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기자들은 언론 파들리기로 진행되는 회담의 극비진행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 부총리는 19일 합의를 보는 것으로 기자들에게 잘못 얘기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를 질책하는 등 청와대측이 너무 앞서 가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원은 이날도 회담 합의사항의 발표창구가 통일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조차도 분명한 답을 주지 않는 등 이번 회담에서 비켜서는 자세를 보여 관심을 끌었다.

◇...쌀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은 베이징회담 3일째인 19일에도 오전부터 남측 대표단 숙소인 상그릴라 호텔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다.

남북 대표단들은 회담 3일째인 이날 밤 늦게까지 회담을 계속해 남한 쌀의 북한 제공문제를 놓고 막판에 이견이 있음을 내비쳤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회담을 계속한 뒤 베이징 한 호텔에서 함께 만찬을 하

고 밤늦게까지 회담을 계속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18일 한국 취재진들에게 "협상결과를 브리핑할테니 대사관에서 기다리라"고 밝힌 뒤 이날 오후 늦게까지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아 취재활동 방해라는 비난을 받았다.

뒤늦게 나타난 황병태 주중대사는 "이날 오전 본부로부터 한국기자들이 회담장 주변에 나타나 방해가 되니 가능한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시키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비교적 솔직하게 유언직전을 인정했다.

북대표 3개 시나리오 준비

◇...북측 협상대표인 정금철 이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협상에 대비해 모두 세가지 종류의 협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양측 정무간 협상 △북측 '삼천리총공사'와 남측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이의 협상 △삼천리총공사와 남측 기업 간의 협상 등 3가지 협상 시나리오에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의 서명을 받아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다.

정정수 강태호 기자, 베이징 / 이갑우 특파원

쌀회담成事 막후해결사

洪之璿 質公북한실장



남북한 차관급 쌀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막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洪之璿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실장(50)이다.

洪실장은 지난 3일 북경에 「모종의 임무」를 띠고 파견돼 金正日 측근 재미교포를 통해 극비리에 북한측과 접촉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측은 質公이 앞장서 한국 대기업이나 사회단체들의 對北 쌀지원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했다.

洪실장은 이에 대해 「쌀문제는 남북한간 정부차원에서 합의될 문제」라고 전제, 북한측이 한국정부와 공식적인 접촉을 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했다.

對北접촉서 「차관급대화」 끌어내

그는 북경주재 質公무역관장 등이 북한 金봉의 삼천리총회사 총사장 등과 비공식 접촉을 계속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은 정부입장을 듣기 위해 6일 급거 귀국, 청와대-통일원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전략을 짰다.

洪실장은 정부의 마지노선이 담긴 협상안을 들고 12일 북경으로 되돌아

가 북한측의 全琴哲 亞·太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물밑협상에 내세운 金봉의총사장과 접촉, 관급회의를 성사시켰다.

洪실장은 73년 무공에 입사한 이래 약 20년간 사회주의국가 연구에만 매달려온 북방통, 무공내에서는 핸리 키신저에 버금간다해서 「洪신저」로 통한다.

그는 77~80년 빈무역관장을 역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근무를 자

청, 일찌감치 북한 러시아 중국 동구관 등 북방국가 정보수집및 시장개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공식수교에 앞서 87년 헝가리, 88년 유고, 89년 불가리아 러시아 폴란드, 90년 체코 등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무역관설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崔忠雄기자>

쌀지원 방식과 문제점

세계무역기구(WTO)·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국제기구에서 쌀지원을 위한 제안을 내놓은 후 5만t을 정부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민간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쌀지원을 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측은 쌀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북

형식은 有償, 사실상 無償

했다고 주장한다. 15만t을 한 달에 한 달 단위로 쌀수출가율과 해외여행을 고 50% 이하에서 10% 이하로 낮추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1천t 정도의 수곡물과 쌀을 지원한다. 유엔가 예산이 200만달러에 달하는 쌀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

北처지 정치적 고려

WTO·FAO등과 마찰 피하기

WTO·FAO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기근 같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특정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남북한을 위한 남북한 무역협약과 WTO·FAO 등 국제기구에서 쌀지원을 하는 데에 대해 마찰을 피하기 위해 쌀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한을 위한 남북한 무역협약과 WTO·FAO 등 국제기구에서 쌀지원을 하는 데에 대해 마찰을 피하기 위해 쌀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한을 위한 남북한 무역협약과 WTO·FAO 등 국제기구에서 쌀지원을 하는 데에 대해 마찰을 피하기 위해 쌀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羅부총리 "회담 순조" ... 준비 부산

南北 8월 회담

政府 스케치

北京서 열린 「회담」의 단계와 내용, 남북관계의 전망, 정부내외의 반응, 그리고 회담의 준비 상황 등이다.

다들議題 논의 시사

○...羅雄培 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이 1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의 준비 상황과 회담의 의의, 그리고 남북관계의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羅 부총리는 이날 회담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회담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담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측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회담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담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회담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담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南北관계」 종합점검 日과 긴밀협업의 '협상 지원' 의무부

통일부

○...北京회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일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협상 지원 의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일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협상 지원 의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일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협상 지원 의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北 주민 思想 동여 차만 인간애

경제적 자유를 「북측」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여전히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여전히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북측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회담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담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일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협상 지원 의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남에게 선물인면」 북민이 미 없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해 '남에게 선물인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한을 '남에게 선물인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5萬t 지원단 7.5일만

9월수확기까지 필요량 확보할 것

아직 10여 개국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단 5만t 지원이 이뤄졌지만 9월 수확기까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지원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5년 식량 지원단 5만t 지원에 대해 7.5일만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원단 5만t 지원에 대해 북한은 7.5일만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원단 5만t 지원에 대해 북한은 7.5일만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北 두달분 식량해당 韓-日제 곡물45萬t



북한을 방문한 국제연합 식량지원단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비버(가운데)가 북한 정부 관리들과 회담하고 있다.

「쌀」財源 남북협력기금 사용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쌀을 통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해 북한측이 반대하고 있다.

북한측은 쌀을 통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이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에서는 쌀을 통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이 남북협력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北 後援會 5월 10일 1000만 원 지원

북한 후援會가 5월 10일 1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북한 후援會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북한 후援會는 이번 지원금으로 북한 내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正日 전 총 南北협력 7억 9천만 원

김정일 전 총리가 남북협력기금에 7억 9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김정일 전 총리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김정일 전 총리는 이번 기부금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 남북협력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감」 小감

「유감」은 유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된다. 유감은 유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된다.

「유감」은 유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된다. 유감은 유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된다.

北 4월 埃産쌀 도입 무산 확인

▽조선일보 1995. 6. 20

남북 「쌀 접촉」 관련 이노키, 17일 개 訪北

【東京=中央社 李幸幸 기자】對北 쌀접촉 관련 이노키(野田 猪木寬)의 17일 개 訪北(北朝鮮)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노키의 訪北은 1995년 4월 19일 개 訪北(北朝鮮)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노키의 訪北은 1995년 4월 19일 개 訪北(北朝鮮)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일보 1995. 6. 20

北, 北에 쌀공급 무상제공제의 내달까지 20만 t 金日成 1주기 행사 사용분 지원

【北京=우경민기자】북조선은 1995년 6월 10일까지 20만 t의 쌀을 남조선에 무상제공할 예정이다. 이 쌀은 1995년 6월 10일까지 20만 t의 쌀을 남조선에 무상제공할 예정이다. 이 쌀은 1995년 6월 10일까지 20만 t의 쌀을 남조선에 무상제공할 예정이다.

北, 北에 쌀공급 무상제공제의

埃서 韓國측에 대금결제 요구

우리정부 난색이로 노의 중단

【카이로=연합】북한이 지난 4월 이집트의 도산 쌀 수입계획이 무산됐다. 이집트 정부는 18일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18일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18일 밝혔다.

▽중앙일보 1995. 6. 20

北軍糧米 방출 시작

臺灣 쌀공급 제의엔 中國의 신 유보

【北京=朴炳錫기자】북조선은 1995년 6월 19일 개 訪北(北朝鮮)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노키의 訪北은 1995년 4월 19일 개 訪北(北朝鮮)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북한이 4월 13일 한국과 수교를 앞두고 한반도 문제 관련자를 통해 수교대가로 쌀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18일 북한이 이집트 쌀을 무상제공하겠다고 제안하자, 난색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18일 북한이 이집트 쌀을 무상제공하겠다고 제안하자, 난색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5. 6. 20

泰, 쌀 2만여 톤 한국 판매 추진

【태경=연합】태국의 한 무역업체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35만 톤의 쌀을 한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이 쌀은 1995년 6월 10일까지 20만 t의 쌀을 남조선에 무상제공할 예정이다.

北, 泰國쌀 11만 t 도입

올 4월 이후 총 30만 t 계약

【단양=연합】북한이 4월 13일 한국과 수교를 앞두고 한반도 문제 관련자를 통해 수교대가로 쌀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18일 북한이 이집트 쌀을 무상제공하겠다고 제안하자, 난색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南北, 오를새벽 합의문 교환

1차분 5만t 곧 선적

北상항이 1차선적 5만t 결정

북한은 대한항공의 삼지연무기를 북경(平壤)에서 합의해 양측 합의문과 5만t을 28일 판정하는 서해부 사할까지 합의문과 합의문 교환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측 1차 선적 5만t을 이르면 28일 판정하는 서해부 사할까지 합의문과 합의문 교환을 결정했다.

북한은 28일 판정하는 서해부 사할까지 합의문과 합의문 교환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측 1차 선적 5만t을 이르면 28일 판정하는 서해부 사할까지 합의문과 합의문 교환을 결정했다.

北京 회담

北에 쌀 30만t 지원 日, 오를새벽 결정할 듯

【東京 20일路透】한국의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東京 20일路透】한국의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쌀제공」완전타결

협상태도 유연 北韓 변화 뚜렷

北京 쌀 회담 무얼 얻었나

북한이 20일 오후 북경회담에서 5만t 제공에 합의했다. 북한은 쌀 5만t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쌀 5만t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쌀 5만t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쌀 5만t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쌀 5만t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용한 것이 이번 회담 타결을 가져온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북측의 처음의 유로 수송을 주장했다가 북측이 나선을 표명하자 남측은 북측의 주장인 海路 수송을 수용한 것이 이번 회담 타결을 가져온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쟁점으로 떠오른 5, 6 개 사항 원만히 타결

정부, 北 체면 살려 주 관계 개선 고두보 확보

한국의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한국의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한국의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한국의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에 쌀 30만t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경향신문 1995. 6. 21

장경민 張致赫 위임장
정경민 鄭敬民 위임장
정경민 鄭敬民 위임장
정경민 鄭敬民 위임장
정경민 鄭敬民 위임장
정경민 鄭敬民 위임장
정경민 鄭敬民 위임장
정경민 鄭敬民 위임장
정경민 鄭敬民 위임장
정경민 鄭敬民 위임장

“北에 곡물 10만t 제공”

쌀·옥수수 등 필요한 수출품 한국이 공급

정부, 1억 5천만 달러 상당 지원 방안 마련

정부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쌀·옥수수 등 필요한 수출품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에 10만t의 쌀과 10만t의 옥수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1억 5천만 달러로, 이는 1995년 10월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에 쌀·옥수수 등 필요한 수출품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에 10만t의 쌀과 10만t의 옥수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1억 5천만 달러로, 이는 1995년 10월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에 10만t의 쌀과 10만t의 옥수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1억 5천만 달러로, 이는 1995년 10월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에 쌀·옥수수 등 필요한 수출품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에 10만t의 쌀과 10만t의 옥수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1억 5천만 달러로, 이는 1995년 10월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南北 경제 공동체 추진

政府, 쌀타결 후속 조치 추가 제공 협상 창구로 활용

“對話 재개 측면서도 바람직” 당료자
정부는 북한에 쌀·옥수수 등 필요한 수출품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에 10만t의 쌀과 10만t의 옥수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1억 5천만 달러로, 이는 1995년 10월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에 쌀·옥수수 등 필요한 수출품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에 10만t의 쌀과 10만t의 옥수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1억 5천만 달러로, 이는 1995년 10월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南北 쌀회담 타결되기까지

【서울 20일 특파원 특보】 남북 쌀회담이 20일 서울에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쌀·옥수수 등 필요한 수출품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에 10만t의 쌀과 10만t의 옥수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1억 5천만 달러로, 이는 1995년 10월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順産” 서로 적극성 보여

北 “15만t 일괄제공” - 南 “단계적 전달” 진통도

【서울 20일 특파원 특보】 남북 쌀회담이 20일 서울에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쌀·옥수수 등 필요한 수출품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에 10만t의 쌀과 10만t의 옥수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1억 5천만 달러로, 이는 1995년 10월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 20일 특파원 특보】 남북 쌀회담이 20일 서울에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쌀·옥수수 등 필요한 수출품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에 10만t의 쌀과 10만t의 옥수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비용은 1억 5천만 달러로, 이는 1995년 10월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경색됐던 南北관계 “물꼬”

철타면민생 이따아 전모

북한은 1995년 6월 21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1995년 6월 21일 평壤에서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1995년 6월 21일 평壤에서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철타면 대생선
인권의 한 철타면은 전 세계에 알려 철타면의 생산자로서
인권을 옹호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유영주)

南「배려」北「실리」 맞아 협상순조 “日에 손벌리기 위해서도 불가피”

84년 남한의 水災를 자랐다
平壤방송 「인민」 강조 “남한
【서울 21일 특보】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물품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배려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 실리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 배려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 실리를 보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1995년 6월 21일 평壤에서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北-철타면-南-대화채널 가동 신경

철타면민생 이따아 전모

남북 정상회담이 1995년 6월 21일 평壤에서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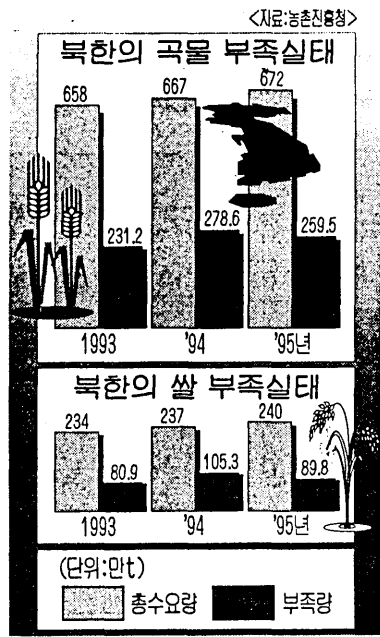
北韓 더 많은 인권을 요구... 남한 쌀표기 거부

南韓 단계 지원... 남북 접촉 지속 창구로

남북 정상회담이 1995년 6월 21일 평壤에서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1995년 6월 21일 평壤에서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살在庫 바닥... 100만미까지 방출



北韓 식량難 어긋 전망이냐

북한이 올해 2월 말인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입해고로 매년 37~50만t 부족 백만양철로 「百萬t 절약」 안간힘

북한이 올해 2월 말인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이 올해 2월 말인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파른 철강점 하락

북한이 올해 2월 말인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金正日 주식승계 쌀 어떻게 할까 주민회 유용有力

북한이 올해 2월 말인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철강점 15% 증감기

북한이 올해 2월 말인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3년産 5萬t 제공 682億소요

가공비등 포함 15萬t 출탄 1800億원이상

북한이 올해 2월 말인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월 말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Ⅱ. 대북 곡물 제공

3. 대북 쌀 제공

쌀 15만 t 無償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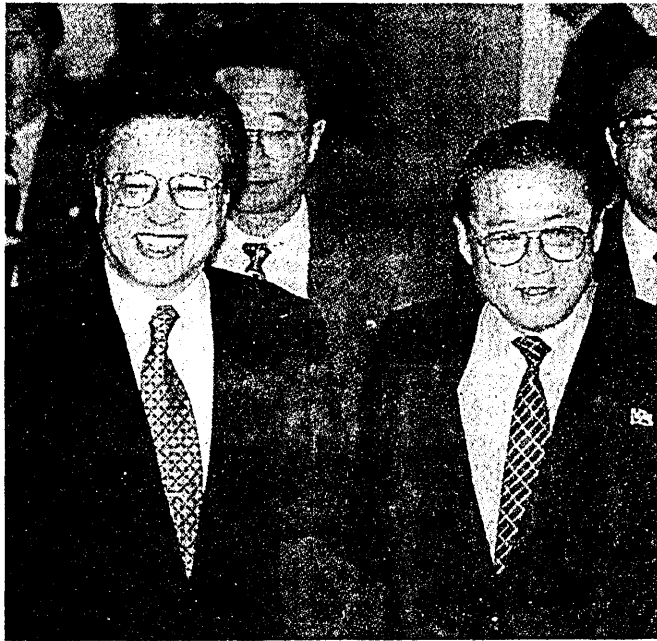
1차분 남북 北京 합의문 서명... 정부 발표

추가 지원 회담 7월 개최

금명 통일 장관 회의... 종합 대책

당국, 합의문全文 오늘 공개 검토

남북한 대표단은 北京에서 합의문 서명에 대해 1차 상 지원하기로 21일 합의문 4인자의 합의문을 통해 15만 t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의문을 서명하고 합의



◇南北대표 李錫采 한국측대표(왼쪽)와 全孝哲 북한측대표가 21일 쌀 회담 합의에 도달한 직후 밝은 표정으로 北京의 한 호텔을 걸어나오고 있다. [北京=연합]

1. 남측은 북측에 1차로 쌀 15만 t을 인도하며, 이 1차분은 전량 무상으로 제공한다.
2. 남측은 본 합의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킨다. 남측은 상기 1차분을 해상을 통해 남측 선박으로 청진, 나진항 등에 인도한다.
3. 북측에 1차분으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kg단위 PP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기를 하지 않는다.

합의문 요지

4.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남측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측에서는 조선 삼천리총회사로 한다.
5. 남과 북은 쌀 인도-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한다.
6. 남과 북은 1995년 7월중순에 제2차 회담을 개최한다.
7.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 협의해 해결한다.

이날 오후 羅維雄(남북)은 1차분 쌀을 15만 t에 추가로 쌀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회담을 7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차 회담 대표단은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우리측에서 李錫采(남)와 全孝哲(북)이 각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합의문 서명 후 22일 공개할 예정이다.

남북한 양측은 1차분 쌀 15만 t에 추가로 쌀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회담을 7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차 회담 대표단은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우리측에서 李錫采(남)와 全孝哲(북)이 각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합의문 서명 후 22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이어 宋榮大(통일) 차관 주재로 16개부처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북 쌀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문 서명 후 22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2일이나 23일쯤 통일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통일부의 한 당국자가 말했다. <具體率기자>

2천 t 東海港 철야수송

오늘부터 선적... 24일 출항키로

북측은 2천 t의 쌀을 24일 출항키로 결정했다. 남측은 2천 t의 쌀을 24일 출항키로 결정했다. 남측은 2천 t의 쌀을 24일 출항키로 결정했다.

북측은 2천 t의 쌀을 24일 출항키로 결정했다. 남측은 2천 t의 쌀을 24일 출항키로 결정했다. 남측은 2천 t의 쌀을 24일 출항키로 결정했다.

남북 공동발표 "불발"

「北京」林勝俊(남북) 기자가 21일 北京에서 5인제 회담을 갖고 이날 오후 합의문을 서명했다. 합의문은 李錫采(남)와 全孝哲(북)이 각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합의문 서명 후 22일 공개할 예정이다.

북측은 2천 t의 쌀을 24일 출항키로 결정했다. 남측은 2천 t의 쌀을 24일 출항키로 결정했다. 남측은 2천 t의 쌀을 24일 출항키로 결정했다.

南北쌀 대화장구 계속 유지

쌀 對北 지원

羅正총리 방문



▲한미방위 협조인 배경
▲1차회담이 어렵던 여
▲정부는 독자간 회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貿公·삼천리社 세부절차 협의·집행 동포애담긴쌀...北골고루배부기대 2차회담선 쌀이외 남북관계도 논의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南北회담선진국 합의」로 북측도 쌀 지원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정부는 1차회담이

수량·서명주체 막판 한발씩 양보



◇李錫榮(왼쪽)과 김병호(오른쪽)가 21일 하오 서울 상동 티겔지연회 회담장인 베이징호텔을 함께 걸어다니고 있다. [베이징=연합]

南北쌀타결

숨가빠했던 협상 안팎

첫對坐에선 평행선의견 대립 南측 명분·北측 實利 얻어 접점

【서울 21일 특파원 특보】 남북 쌀교역 협상에서 숨가빠했던 협상 안팎이 21일 하오 서울 상동 티겔지연회 회담장인 베이징호텔에서 첫 대면했다. 양측은 20일 새벽부터 한창으로 일러지고 있다. 협정 체결을 위한 위헌적 의사 결정권한을 가진 주(主)인 남측과 실익을 얻고자 하는 북측의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첫 대면에서 평행선의견을 대립시키며 접점을 찾았다. 양측은 20일 새벽부터 한창으로 일러지고 있다. 협정 체결을 위한 위헌적 의사 결정권한을 가진 주(主)인 남측과 실익을 얻고자 하는 북측의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첫 대면에서 평행선의견을 대립시키며 접점을 찾았다.

주장했다. 구체적인 북측 대표인 김병호(북측)와 남측 대표인 이인환(남측)은 15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양측은 20일 새벽부터 한창으로 일러지고 있다. 협정 체결을 위한 위헌적 의사 결정권한을 가진 주(主)인 남측과 실익을 얻고자 하는 북측의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첫 대면에서 평행선의견을 대립시키며 접점을 찾았다.

환영·시종 교차계반응

남북한 쌀교역이 21일 베이징(北京)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양측은 20일 새벽부터 한창으로 일러지고 있다. 협정 체결을 위한 위헌적 의사 결정권한을 가진 주(主)인 남측과 실익을 얻고자 하는 북측의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첫 대면에서 평행선의견을 대립시키며 접점을 찾았다.

남북갈등완화기 마련

“離散문제 등 답보속 너무 양보” 지적도

남북갈등완화기 마련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양측은 20일 새벽부터 한창으로 일러지고 있다. 협정 체결을 위한 위헌적 의사 결정권한을 가진 주(主)인 남측과 실익을 얻고자 하는 북측의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첫 대면에서 평행선의견을 대립시키며 접점을 찾았다.

“우성호 선원석방문제도 거론했다”

【서울 21일 특파원 특보】 남북 쌀교역 협상에서 숨가빠했던 협상 안팎이 21일 하오 서울 상동 티겔지연회 회담장인 베이징호텔에서 첫 대면했다. 양측은 20일 새벽부터 한창으로 일러지고 있다. 협정 체결을 위한 위헌적 의사 결정권한을 가진 주(主)인 남측과 실익을 얻고자 하는 북측의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첫 대면에서 평행선의견을 대립시키며 접점을 찾았다.

쌀 「裏面합의」는 없었다



◇羅維培 부총리(왼쪽)와 김동원 차관(오른쪽)이 2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이다.

동아일보 1995. 6. 22

21일 타결된 북경 쌀회담은 경제난과 함께 식량위기에 처한 北韓에 우리쌀을 전달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회담의 추진과정과 형식면에서는 바답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회담의 외형적 특징으로는 △당국 간 공식대화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비밀접촉 방식이었다는 점 △공식대화라는 회담 성격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점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북경회담이 청와대 안기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밀접촉에 의해 추진된 사실은 앞으로 남북대화의 추진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밀접촉에 의한 남북대화는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끊긴 상태에서 「화 라인」을 통해 당국자끼리 직접 그리고 비교적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2년 「7·4 남북공동선언」이 李厚洛-朴成哲 밀사교환 방식을 통해 탄생한 전례도 있듯이 국정최고책임자의 직접 관장에 의한 비밀접촉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러나 5공시절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張世東(85년)을 통해 추진했던 비밀접촉이 실패했던 秘史는 「密談」이 깨질

철저한 비밀접촉...「공식대화」부각 못시켜

추진과정-형식 「나쁜先例」 우려

北京 「쌀회담」 虛實

경우 남북관계가 완전히 막히게 된다는 교환을 준다.

또 북경회담의 우리측 대표로 남북대화 전문가를 제쳐두고 정통 경제관료인 李錫采 재경원차관을 내보낸 것은 대화채널의 다변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아마추어」에게 「프로」를 상대하게 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對北전문가들은 앞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서 남북대화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년만에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는 마당에 경제관료를 대표로 내보낸 것은 용병술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對南문제 베테랑인 全孝哲을 상대로 쌀제공문제를 논의하며 남북관계개선등에 관한 북한당국의 속마음을 간파해야 할 회담대표로 비전문가가 나선 것은 아무래도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담의 진행과정에서 통일원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정부 스스로 당국간 공식 대화장구를 포기한 실책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또 쌀회담에 남북대화 재개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북한측 화답을 얻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韓起興)

통일원 배제... 대화 지속 北화답 못 얻어내

정상회담담등은 합의 "유력" **우성호** 송환 거론 가능성 **정상회담담등은 합의 "유력"** **우성호** 송환 거론 가능성 **정상회담담등은 합의 "유력"** **우성호** 송환 거론 가능성

합의의 이면 합의는... **정상회담담등은 합의 "유력"** **우성호** 송환 거론 가능성

北, 「순수민간차원」 창구 강조... 「서명후 10일내 출항」 장애될수도 **北, 「순수민간차원」 창구 강조** **「서명후 10일내 출항」 장애될수도**

北, 「순수민간차원」 창구 강조... 「서명후 10일내 출항」 장애될수도 **北, 「순수민간차원」 창구 강조** **「서명후 10일내 출항」 장애될수도**

한반도 安定·대화 새地平

「살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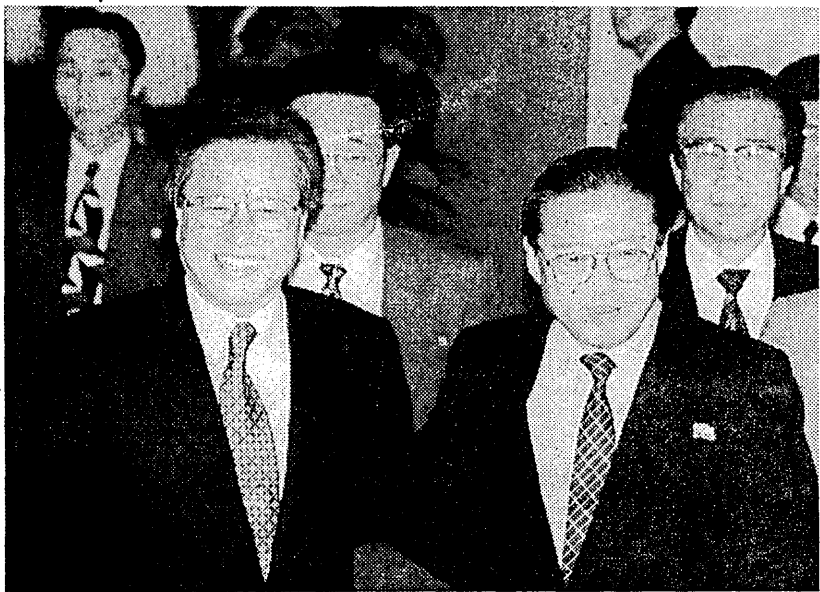
광명·백경

북한은 5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8·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살타결」을 선언했다. 이는 남북 양측이 8월 15일 평양에서 합의한 「살타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8·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살타결」을 선언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8·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살타결」을 선언했다. 이는 남북 양측이 8월 15일 평양에서 합의한 「살타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8·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살타결」을 선언했다.

「半官半民」 남북채널개설성과 「살」어에 裏面합의 있었을수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8·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살타결」을 선언했다. 이는 남북 양측이 8월 15일 평양에서 합의한 「살타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8·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살타결」을 선언했다.



李錫采 한국대표와 金永植 북한대표가 21일 북경상그릴라 호텔에서 남북대화합의문에 서명한뒤 로비로 내려오고 있다. 【北京=연합】

정다운 南北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8·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살타결」을 선언했다. 이는 남북 양측이 8월 15일 평양에서 합의한 「살타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8·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살타결」을 선언했다.

「살타결」정화대 입장

정화대 입장: 「살타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8·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살타결」을 선언했다. 이는 남북 양측이 8월 15일 평양에서 합의한 「살타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8·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살타결」을 선언했다.

상호신뢰 對話창구마련 성과

정치차원보다 민간부문 교류확대 지원 장기적으로 北개방·체제변화유도 겨냥

상호신뢰 對話창구마련 성과: 「살타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8·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살타결」을 선언했다. 이는 남북 양측이 8월 15일 평양에서 합의한 「살타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8·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살타결」을 선언했다.

심야까지 대책회의...「지원」가속도

南北쌀타결

정부부처 표정

【洪潤五·高泰成기자

시 50부처 장관의 대책회의가 21일 밤 11시에 시작됐다. 21일 밤 11시에 시작된 대책회의는 22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됐다. 21일 밤 11시에 시작된 대책회의는 22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됐다. 21일 밤 11시에 시작된 대책회의는 22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됐다.

발표문 계속 늦어지자 한때 결렬 걱정도

羅부총리, 청와대·北京과 수시연락 분주

종합상황반 설치 24시간 운영

○...羅部총리(나웅배)는 21일 밤 11시에 시작된 대책회의를 22일 새벽 1시까지 계속했다. 21일 밤 11시에 시작된 대책회의는 22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됐다. 21일 밤 11시에 시작된 대책회의는 22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됐다.



◇羅部총리(나웅배)가 21일 저녁 7시 정부발표문을 통해 북한에 15만톤의 쌀을 무상지원하기로 했음을 밝히고 있다.【申翔溥기자】

○...정부는 21일 밤 11시에 시작된 대책회의를 22일 새벽 1시까지 계속했다. 21일 밤 11시에 시작된 대책회의는 22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됐다. 21일 밤 11시에 시작된 대책회의는 22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됐다.

인민통사총통해 특별법

北 어떻게 나눠줄까

자신은 8년 전부터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서기 겸 최고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북한에서 열린 인민통일위원회(인통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제기했다. 김정은은 '특별법'이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黨·軍 배분개입...金正일이 최종결정

북한 주민 두달간 먹을수있는 양

북한 주민 두달간 먹을수있는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군대와 당의 배분개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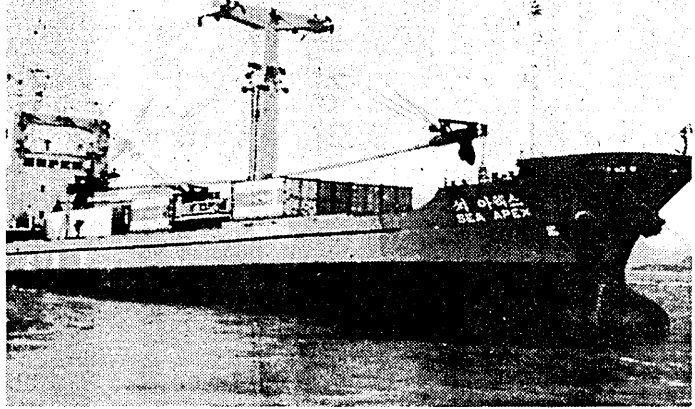
1차분 萬t 항구운송 시작

쌀합의 수송일정

정부는 21일 북한과의 대량 쌀 항구까지의 운송에 한 걸음 앞장서기로 한 쌀합의 구상안에 따른 일차 운송일정을 발표했다.

동해 마산 목포 군산 등서 선적 포대 4百20萬개 도청공장 공급

합계 10만 2천 2백 20포대(1차선적분 2만 2천 2백 20포대, 2차선적분 8만 2천 2백 20포대)의 쌀을 1차선적분으로 21일부터 동해, 마산, 목포, 군산 등 4개 항구에 선적한다. 1차선적분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선적되며, 2차선적분은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선적된다. 선적된 쌀은 도청공장에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는 일반시장에 유통된다. 정부는 이번 쌀합의 수송을 통해 북한과의 대량 쌀 교역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경 동해항에서 북한산 쌀을 선적하는 모습이다.

對北 추가제공 쌀 어떻게 돼나

북한의 1차분 15만 1천 2백 20포대(1차선적분)의 쌀을 1차선적분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선적한다. 2차선적분은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선적된다. 선적된 쌀은 도청공장에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는 일반시장에 유통된다.

97년 國內쌀수급에 영향

가뭄등 흉작팬 악화... 수입 불가피

정부는 97년 국내 쌀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흉작팬 악화를 우려하며, 수입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가뭄과 병해충 등 기상악화로 인해 국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7년 국내 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10만 2천 2백 20포대의 쌀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계획이다. 이는 1997년 1차선적분 2만 2천 2백 20포대, 2차선적분 8만 2천 2백 20포대에 해당한다.

(편집자)

나진·선봉에 무역관 추진

朴鎔道 貿公사장 峇株공공중 訪北계기 마련될것

【서울 21일 연합뉴스】 박鎔도(朴鎔道) 무역공사장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95년 무역·경제협력 심포지엄'에서 "나진·선봉 지역에 무역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57)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나진·선봉 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교역로에 위치해 있어 무역관 설립을 통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진·선봉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관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무역관을 통해 현지 기업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나진·선봉 지역의 개발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鎔도 무역공사장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95년 무역·경제협력 심포지엄'에서 "나진·선봉 지역에 무역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57)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나진·선봉 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교역로에 위치해 있어 무역관 설립을 통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진·선봉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관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무역관을 통해 현지 기업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나진·선봉 지역의 개발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北送교포 日本人妻 단체발원 허용 시사

北 金同=韓 北韓에

【서울 21일 연합뉴스】 북한에 거주 중인 교포 60명도 북송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994년 12월 '북한에 거주하는 교포의 귀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교포의 귀환을 촉진하고, 북한에 거주하는 교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북한에 거주하는 교포는 북한 정부에 귀환을 요청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요청을 받은 교포에 대해 귀환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교포의 귀환을 촉진하고, 북한에 거주하는 교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서울 21일 연합뉴스】 북한에 거주 중인 교포 60명도 북송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994년 12월 '북한에 거주하는 교포의 귀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교포의 귀환을 촉진하고, 북한에 거주하는 교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북한에 거주하는 교포는 북한 정부에 귀환을 요청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요청을 받은 교포에 대해 귀환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교포의 귀환을 촉진하고, 북한에 거주하는 교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日、對北쌀지원 최종결정

【서울 21일 연합뉴스】 일본은 21일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은 지난 1994년 12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촉진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허가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원을 받은 북한에 대해 쌀 지원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촉진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北京스케치

【서울 21일 연합뉴스】 북한은 21일 '공동발표' 없이 서명식도 공개 안해 北 卞今哲, 질문공세 대담하고 떠나

【서울 21일 연합뉴스】 북한은 21일 '공동발표' 없이 서명식도 공개 안해 北 卞今哲, 질문공세 대담하고 떠나

【서울 21일 연합뉴스】 북한은 21일 '공동발표' 없이 서명식도 공개 안해 北 卞今哲, 질문공세 대담하고 떠나

李차관 金대통령 결단으로 성사

「공동발표」없고 서명식도 공개 안해 北 卞今哲, 질문공세 대담하고 떠나

【서울 21일 연합뉴스】 북한은 21일 '공동발표' 없이 서명식도 공개 안해 北 卞今哲, 질문공세 대담하고 떠나

【서울 21일 연합뉴스】 북한은 21일 '공동발표' 없이 서명식도 공개 안해 北 卞今哲, 질문공세 대담하고 떠나

【서울 21일 연합뉴스】 북한은 21일 '공동발표' 없이 서명식도 공개 안해 北 卞今哲, 질문공세 대담하고 떠나

“北에 쌀 계속 지원”

金대통령 在庫 부족땐 외국쌀수입 제공

2차협상인 經協중점

정부방침 北에 제도적장치 논의 제의 검토

【서울 22일 특보】 북조선의 식량위기와 관련해 북조선의 인접국인 중국과 15만톤의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이아니고 양국간 더 지원해줄 것이란 추가 지원 의사를 밝혔다.

북조선의 식량위기와 관련해 북조선의 인접국인 중국과 15만톤의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이아니고 양국간 더 지원해줄 것이란 추가 지원 의사를 밝혔다.

북조선의 식량위기와 관련해 북조선의 인접국인 중국과 15만톤의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이아니고 양국간 더 지원해줄 것이란 추가 지원 의사를 밝혔다.

▽서울신문 1995. 6. 23

日, 對北 쌀지원 공식 결정

延拂매각 형식... 30~50만 톤 될 듯

北대표 이틀 방문... 美발판 커진

【서울 22일 특보】 일본은 북한에 30~50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일본은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미국=美聯社(합동통신) 22일 특보】 미국은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미국은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조선일보 1995. 6. 23

北送쌀값 1천억 외상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쌀 6월말까지 1만t

【서울 22일 특보】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쌀 6월말까지 1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5만t 내달까지 인도

【서울 22일 특보】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쌀 5만t을 내달까지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北, 합의문 발표안해 對南미방보도 계속

【서울 22일 특보】 북한은 합의문을 발표할 안해 남미방보도 계속 내보내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북한은 합의문을 발표할 안해 남미방보도 계속 내보내고 있다.

【서울 22일 특보】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쌀 1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쌀 얼마나 더 주나

“多多益善”에 “수입해서라도”

송대통령 「추가지원」 안봐

【서울 22일路透電】 對北 追加支援 問題 韓政府 立場은 變함이 無다. 宋大總統은 對北 追加支援 問題에 對해 “多多益善”의 精神을 貫徹할 必要가 有하며, 必要한 限에서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다. 그러나 追加支援 問題는 北政府의 對南 政策과 北政府의 對南 關係에 依하여 決定될 問題이다. 北政府이 對南 政策을 改善하고, 對南 關係을 正常화시키면, 韓政府은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다. 그러나 北政府이 對南 政策을 改善하지 않으면, 韓政府은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지 않다.

宋大總統은 對北 追加支援 問題에 對해 “多多益善”의 精神을 貫徹할 必要가 有하며, 必要한 限에서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다. 그러나 追加支援 問題는 北政府의 對南 政策과 北政府의 對南 關係에 依하여 決定될 問題이다. 北政府이 對南 政策을 改善하고, 對南 關係을 正常화시키면, 韓政府은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다. 그러나 北政府이 對南 政策을 改善하지 않으면, 韓政府은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지 않다.

「安保用」 1개월축소 40萬t 여유 北은구-日변수 따라 추가제공 “신축”



「北行쌀」 환송이전비

韓政府은 北政府이 對南 政策을 改善하고, 對南 關係을 正常화시키면,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다. 그러나 北政府이 對南 政策을 改善하지 않으면,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지 않다.

南北 투자자보장공조협약

2차회담 때 北京선 관계개선도 거론

【北京 22일路透電】 南北 投資자보장공조協定을 締結할 準備이 充分하다. 韓政府은 北政府과 對해 “多多益善”의 精神을 貫徹할 必要가 有하며, 必要한 限에서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다. 그러나 追加支援 問題는 北政府의 對南 政策과 北政府의 對南 關係에 依하여 決定될 問題이다. 北政府이 對南 政策을 改善하고, 對南 關係을 正常화시키면, 韓政府은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다. 그러나 北政府이 對南 政策을 改善하지 않으면, 韓政府은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지 않다.

합의문이 불리한 내용 없다

쌀轉用여부는 北이 정할문제
「金正日 친서」 공개할수 없어

【北京 22일路透電】 南北 投資자보장공조協定을 締結할 準備이 充分하다. 韓政府은 北政府과 對해 “多多益善”의 精神을 貫徹할 必要가 有하며, 必要한 限에서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다. 그러나 追加支援 問題는 北政府의 對南 政策과 北政府의 對南 關係에 依하여 決定될 問題이다. 北政府이 對南 政策을 改善하고, 對南 關係을 正常화시키면, 韓政府은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다. 그러나 北政府이 對南 政策을 改善하지 않으면, 韓政府은 追加支援를 提供할 準備이 充分하지 않다.

서울-평양경제사무소 개설

北에 貿公사무소 개설

정부방침 빠르면 9월 나진-선봉등에

평양에 설립된 이후 9월 1일 개항장 상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개항장 상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개항장 상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9월 1일 개항장 상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개항장 상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개항장 상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南北정기직항로 9월개설

南한국특수선北해양무역부산-나진운항 합의

남북정기직항로 개설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정기직항로는 부산-나진선이다.

이 합의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양측은 9월 1일부터 정기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남북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양측은 9월 1일부터 정기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살成事... 관련部處 엇갈린 明暗

북한정부는 19일 개항장 상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개항장 상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개항장 상륙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北, 왜 나진-청진 선정했나

대북 지원 쌀을 싣는 한국의 국적선이 입항할 항구로 하필 한반도의 맨 위쪽에 위치한 나진, 청진항이 선정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한 함북지역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진, 청진 지역은 중국, 러시아의 영향으로 북한내에서는 비교적 개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따라서 이 지역의 식량난이 주민들의 체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것이라 분석이다. 나진, 청진항이 있는 함북 지역은 산지가 많아 북한내에서도 식량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나진, 청진항에 쌀을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쌀을 배급해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도 한국이 제공할 쌀을 북한이 군량미들로서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나진, 청진항을 선택한 것은 일단 이 쌀을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이 나진, 청진에 인접한 중국 등에 한국쌀을 되팔아 중국산 「싸라기 쌀」을 사오기 위해 이들 항구를 골랐을 것이라 추측도 나오고 있다. 동해의 나진, 청진항은 서해의 항구에 비해 수심이 깊어 대형 한국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다. 이는 기술적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韓眞然기자)

□ 남북 쌀회담 타결 각국 반응

“북한 실용주의 선회” 환영

남북한간의 쌀제공협상이 21일 타결된 데 대해 세계 각국은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수교 등을 고려한 것이며 북한 정권이 실용주의노선을 취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대변인은 21일 장레 뉴스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남북간에 앞으로 좀더 직접적인 접촉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이를 전폭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BBC 방송〉 등 영국 언론들은 북한에 쌀을 제공하기 위한 남북한간

협상결과를 남북한 협력재계의 전조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나타냈다. ◇...타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방송들은 쌀회담 타결사실을 보도하고 그동안 경직된 남북관계가 쌀협상을 계기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특히 타이 방송들은 11년전인 84년 남한이 북한의 쌀 등 수산물자 제공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남북한간에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대화가 열린 적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타이 방송은 또 이번 쌀협상은 북한이 감정일 등장 뒤 분명히 실용주의노선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신종합

南北개선밀알되길... 희망실은 선적

對北 쌀수출... 북한인 동북방위비 보정

○...22일 오전 7시 40분 중...
○...22일 오전 7시 40분 중...
○...22일 오전 7시 40분 중...

백두대간 지역은 그동안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쌀의 생산지였으나...
○...22일 오전 7시 40분 중...
○...22일 오전 7시 40분 중...



◇경기도 광주군 대원실업 직원들이 22일 북한에 보낼 쌀을 담을 부대를 만들어 싣고 있다. (廣州=徐相培기자)

비내려 철야 작업 한때 중단 "발레노보" 원산지 표시할날 빨리 어길 "아수암"

중단돼 판계자들이 초...
○...22일 오전 7시 40분 중...
○...22일 오전 7시 40분 중...

원산지 표시할날 빨리 어길...
○...22일 오전 7시 40분 중...
○...22일 오전 7시 40분 중...

발레노보...
○...22일 오전 7시 40분 중...
○...22일 오전 7시 40분 중...

아수암...
○...22일 오전 7시 40분 중...
○...22일 오전 7시 40분 중...

정몽규가 쌀정산형수출

金禮民 시아팩스號 선장인 인터뷰



◇金禮民 선장

「정몽규가 쌀정산형수출...
○...22일 오전 7시 40분 중...
○...22일 오전 7시 40분 중...

「정몽규가 쌀정산형수출...
○...22일 오전 7시 40분 중...
○...22일 오전 7시 40분 중...

「정몽규가 쌀정산형수출...
○...22일 오전 7시 40분 중...
○...22일 오전 7시 40분 중...

「정몽규가 쌀정산형수출...
○...22일 오전 7시 40분 중...
○...22일 오전 7시 40분 중...

〈연재〉

“南北정상회담 이뤄질것”

金대통령 기자간담 金正日 주석 취임후 재추진

▽세계일보 1995. 6. 24

2차 쌀회담때 모든懸案 논의

經協등 여건호전...우성호송환확신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金泳三대통령이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북 쌀 지원 및 경제관계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北 쌀리渡 돌연 연기 여정

北京 남북 실무접촉 “반응준비 덜돼있다” 일방통행보

오늘 재접촉...쌀수송 최종결정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995. 6. 24

美 추가루수인

【서울 23일 연합뉴스】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차회담 장소·날짜 이미 결정"

金대통령 「對北살」 임무인담

【서울 23일 특파원 보도】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경 청와대 대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경 청와대 대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동포애로 결단...南北 신뢰회복 계기 실질적인 당국자會談 이미 계속중”

추가지원량 7월회담때 결정...經協논의나올것

【서울 23일 특파원 보도】 남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기류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특히 평양에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경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부터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김 대통령의 발언이 전파되면서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다.



◇첫배 선적완료 강원도 동해항에서 북해에 보내질 2천t의 쌀을 싸아팩스호에 선적하고 있는 작업반원들이 23일 오후 2시30분경 마지막 쌀을 실으면서 박수로 환호하고 있다. <林賢燦기자>

【서울 23일 특파원 보도】 남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기류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특히 평양에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경 김대중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부터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김 대통령의 발언이 전파되면서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다.

北京 차관담판 앞두고

【서울 23일 특파원 보도】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경 청와대 대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對北접촉 「秘線인물」 누구일까

“金대통령 핵심참모가 北京에 밀사” 추측 3~4월께 시착된듯... 기업인 관련說도

【서울 23일 특파원 보도】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경 청와대 대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北, 貿公사무소 설치 허용 시사

【北京=북경통신】북경의 무역공회(北經貿公會)가 최근 남한에 무역공회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경의 무역공회 회장인 장정(張正)은 최근 남한에 무역공회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회장은 "북경 무역공회와 남한 무역공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 무역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경 무역공회 사무소 설치에 대한 남한 정부의 태도는 아직 불확실하다. 남한 정부는 북경 무역공회 사무소 설치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나진·선봉에...경협확대 모색

▽서울신문 1995. 6. 24

北京 南北 쌀 실무협상 인도절차등 합의 실패

【北京=李錫通(李錫通)기자】北京 南北 貿易 실무 협상 인도 절차 등 합의 실패 ...

북경에서 열린 남북 쌀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인도절차 등 합의에 실패했다. 남한 측은 협상에서 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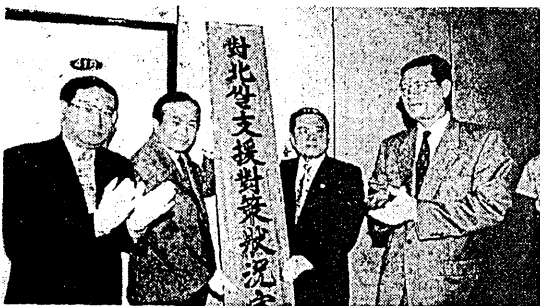
남한 측은 "북측이 협상에서 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남한 측은 "북측이 협상에서 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북경에서 열린 남북 쌀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인도절차 등 합의에 실패했다. 남한 측은 협상에서 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

남한 측은 "북측이 협상에서 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남한 측은 "북측이 협상에서 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995. 6. 24

민간 對北 곡물지원 허용



◇對北쌀지원 상황실가동... 23일... 4층에서... 對北쌀지원상황실... 對北쌀지원상황실... 對北쌀지원상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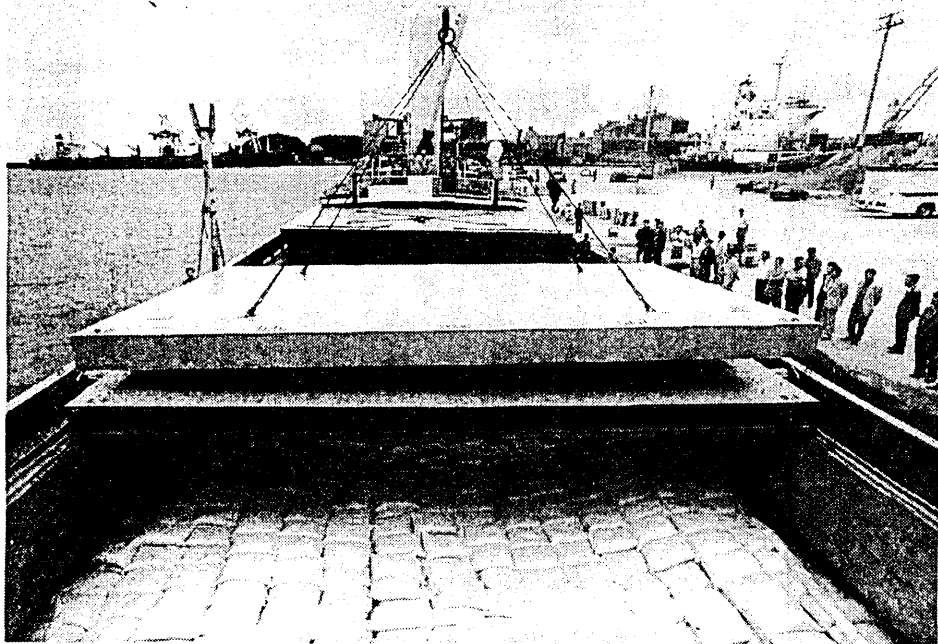
“制動걸 명분·필요성 없어졌다”

정부, 내주초입장표명

북경에서 열린 남북 쌀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인도절차 등 합의에 실패했다. 남한 측은 협상에서 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

남한 측은 "북측이 협상에서 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남한 측은 "북측이 협상에서 진척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주壤강경과에 "對話노선 선택" 압박



대북 쌀 지원 1호로 북한 나진항으로 떠날 씨 아픽스호가 23일 강원도 동해항에서 쌀 2천t을 모두 선적한 뒤 회물간의 덮개를 닫고 있다. <동해=金明國기자>

北好戰性 약화시켜 화해기여 기대 긴장완화·北체제 변화 유도 초·매로

「쌀 지원」北에 어떤 영향 줄까

○정당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대북 쌀 지원이 이르면 95년 초에 시작될 전망이다. 아픽스호의 대북 쌀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픽스호는 23일 강원도 동해항에서 쌀 2천t을 모두 선적한 뒤 회물간의 덮개를 닫고 있다.

한국의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羅津港 1만t급 배가 入港 가능할까

「세아팩스」

북한이 최근 로진항에 1만t급 배가 入港 가능할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진항은 북한 동해안의 주요 항구로, 최근 수심이 깊어지면서 대형 배의 入港이 가능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상 북서거부할 권한이 없다 羅津을 국내항 간주할 수 없다

북한이 최근 로진항에 1만t급 배가 入港 가능할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진항은 북한 동해안의 주요 항구로, 최근 수심이 깊어지면서 대형 배의 入港이 가능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상 북서거부할 권한이 없다. 로진항을 국내항 간주할 수 없다.

교포仲介商 對北經濟의 숨은 실력자

주로美·中거주...南北정·재계 고위층과 친분 서울·平壤 오가며 협상주선...5~6명명활약



최수진씨



이철호씨

교포(韓人)仲介商인 최수진(崔秀鎭)은 최근 남북 협상을 위하여 서울과 평壤을 오가며 협상주선(交渉主線)을 맡고 있다. 그는 "남북 협상에서 교포(韓人)仲介商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재계(財界) 고위층(高層)과 친분이 있는 교포(韓人)仲介商은 협상(交渉)을 원활(圓滑)하게 진행(進行)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철호(李철호)씨는 "남북 협상에서 교포(韓人)仲介商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재계(財界) 고위층(高層)과 친분이 있는 교포(韓人)仲介商은 협상(交渉)을 원활(圓滑)하게 진행(進行)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7월 중순의 2차 회담은 남북이 이런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은 정상회담 유효라는 말로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정부는 2차회담에서는 쌀 이외의 의제로 포괄적인 현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경제공동위의 가동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남북 내달 2차회담 전망

강태호 기자

베이징 차관급 실무회담 합의에 대해 북한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의 대남 비방 논조에도 아직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7월 중순으로 예정된 남북간 2차회담은 그 변화의 폭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과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이 2차회담은 단순한 접촉 채널의 복원이라는 의미로

인 의미에서 한반도 문제의 일괄 타결 구도를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일괄타결 구도란 남북관계 개선과 북-일-북-미 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진행시켜 가는 교차승인 구도를 말한다. 사실 지난해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전 카터를 중재로 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교차승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북한의 일괄타결 구도를 보여준 것이었다. 당시 남북간에는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북-미간에는 제네

노담 비서의 방일이 예정돼 있다. 이번 김용순 비서의 방일로 북-일간에는 고위정치 협상을 통한 관계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져 있다. 김영남 외교부장이 카터 전 미 대통령에게 재방북을 요청하는 답신을 보낸 것도 이런 해빙 기류의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 진행될 경우엔 북-미, 북-일 관계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탈냉전을 가속화시키는 상황을 전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협 디딤돌 '정치' 전환 갈림길

정상회담·교차승인 통한 한반도해빙 출발점 기대

남에서 '실무회담 남북대화'로 전환시켜 나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 선거를 앞둔 과잉기대의 조성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남한의 실질적 확대와 경험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대화재개 전략에 북한이 호응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쪽의 자의적 판단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남북대화 대한 북한의 이런 자세변화를 포괄적

바 합의를 이끌어낸 3단계 회담이 예정돼 있었으며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비공식 접촉을 통한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의사타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95년 7월의 한반도 해빙구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경수로 협상의 타결로 북-미간의 연라사무소 개설은 일부 기술적인 문제와 시 기선태만을 앞두고 있다. 또 북-일간에는 쌀협상에 이어 김용순

이런 맥락에서 7월 중순의 2차 회담은 남북이 이런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은 정상회담 유효라는 말로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정부는 2차회담에서는 쌀 이외의 의제로 포괄적인 현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경제공동위의 가동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일속의 '쌀' 합의, 趙敏皓 (정치부 기자)



이런 맥락에서 7월 중순의 2차 회담은 남북이 이런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은 정상회담 유효라는 말로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정부는 2차회담에서는 쌀 이외의 의제로 포괄적인 현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경제공동위의 가동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現場 메모

이런 맥락에서 7월 중순의 2차 회담은 남북이 이런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은 정상회담 유효라는 말로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정부는 2차회담에서는 쌀 이외의 의제로 포괄적인 현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경제공동위의 가동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 日에 쌀 금명타결 요청

日-北회담 26일 매듭... 곧장 北送해달라

▽경향신문 1995. 6. 25

쌀들려 50~80만t 협상 南과 내달 15일 재회담

北대표

【東京 24일路透電】북한은 26일 일본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북측은 26일 일본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북측은 26일 일본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 쌀의 경우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양이 50만~80만톤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26일 일본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26일까지 쌀 협상 합의에 이르면 북측은 26일 일본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쌀 수입은 26일까지 50만~80만톤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26일 일본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경향신문 1995. 6. 25

北, 美에도 쌀요청

정부 당국자 "테러國 이유 거절당해"

쌀北送 2~3일 늦춰... 적십자旗계양

북한이 26일 미국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북측은 26일 미국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 쌀의 경우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양이 50만~80만톤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26일 미국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26일까지 쌀 협상 합의에 이르면 북측은 26일 미국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쌀 수입은 26일까지 50만~80만톤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26일 미국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姜成輔기자〉

남·북·선봉에 賀공무원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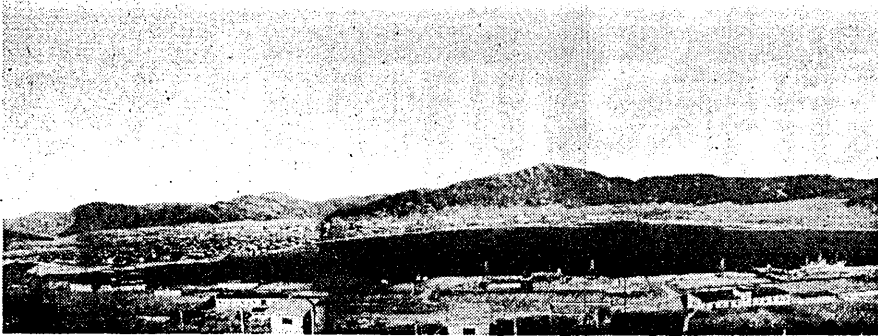
南北특정서절북 빠른시일내설치합의

經協창구역할...관계 급진전 예상

【서울 24일路透電】북한은 26일 남한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북측은 26일 남한에 쌀 50만~80만톤을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對北 직접투자 길 연다

▽세계일보 1995. 6. 25



◇對北 지원살을 싣고 한국의 국적선이 24일 강원도 동해항을 출항, 북한의 나진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인도연기 요청으로 쌀인도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이 전체의 항구로 자랑하는 나진항의 모습.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

한국과 북한이 합의한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을 위한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양국은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을 위한 협상을 24일 서울에서 진행했다.

한국과 북한이 합의한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을 위한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양국은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을 위한 협상을 24일 서울에서 진행했다.

한국과 북한이 합의한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을 위한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양국은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을 위한 협상을 24일 서울에서 진행했다.

한국과 북한이 합의한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을 위한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양국은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을 위한 협상을 24일 서울에서 진행했다.

한국과 북한이 합의한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을 위한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양국은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을 위한 협상을 24일 서울에서 진행했다.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을 위한 협상이 24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양국은 어획 특례규정 골마련을 위한 협상을 24일 서울에서 진행했다.

북 대외경제기구 재정부

대규모 쌀 여정후 정비 주목

북한이 대외경제기구 재정부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의 골격은 투자유치와 무역을 담당하는 대외경제기구 재정부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외경제기구 재정부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의 골격은 투자유치와 무역을 담당하는 대외경제기구 재정부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외경제기구 재정부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의 골격은 투자유치와 무역을 담당하는 대외경제기구 재정부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외경제기구 재정부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의 골격은 투자유치와 무역을 담당하는 대외경제기구 재정부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외경제기구 재정부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의 골격은 투자유치와 무역을 담당하는 대외경제기구 재정부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나진항은 어떤 곳인가

나진항은 북한이 자랑하는 천혜의 항구이다. 수심이 깊고 암초가 적으며 항구앞에 섬이 있어 자연방파제까지 갖추고 있다.

나진항은 3개의 돌출부두에 총길이 2천5백15m인 10개의 안벽과 6백40m의 호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쪽은 1만t급의 선박을 탈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꽤 크다.

1호부두는 1만t급 3척과 5천t급 2척을 탈수 있는 등 1, 2, 3부두 전체는 1만t급 8척과 5천t급 5척을 동시에 정박시킬 수 있다. 연간 하역능력은 3백만t. 하루 하역능력으로 보면 약 1만t에 이른다.

항구의 총 부지면적은 약 38만㎡(12만평)로 이중 창고 면적은 2만6천㎡(8천평), 아직 장 면적은 17만7천㎡(6만평)이다. 이 정도면 최고 10만5천t의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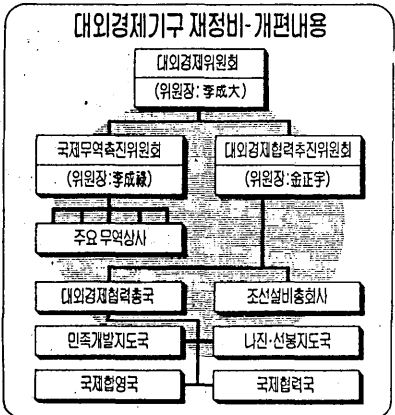
북자랑 천혜의 항구... 萬t급 쉽게 정박

항구까지는 북부철도와 주요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러시아 화차가 들어올 수 있다. 또 남북교역을 위한 화물선박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리고 있다.

이곳에는 지금 일본쌀을 실어가기 위한 선박들도 대기중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23일 「하역능력문제」 등으로 쌀 수출을 실행을 연기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趙敏皓기자)

투자 부연업무 분리 2원화 외자유치 전담기구도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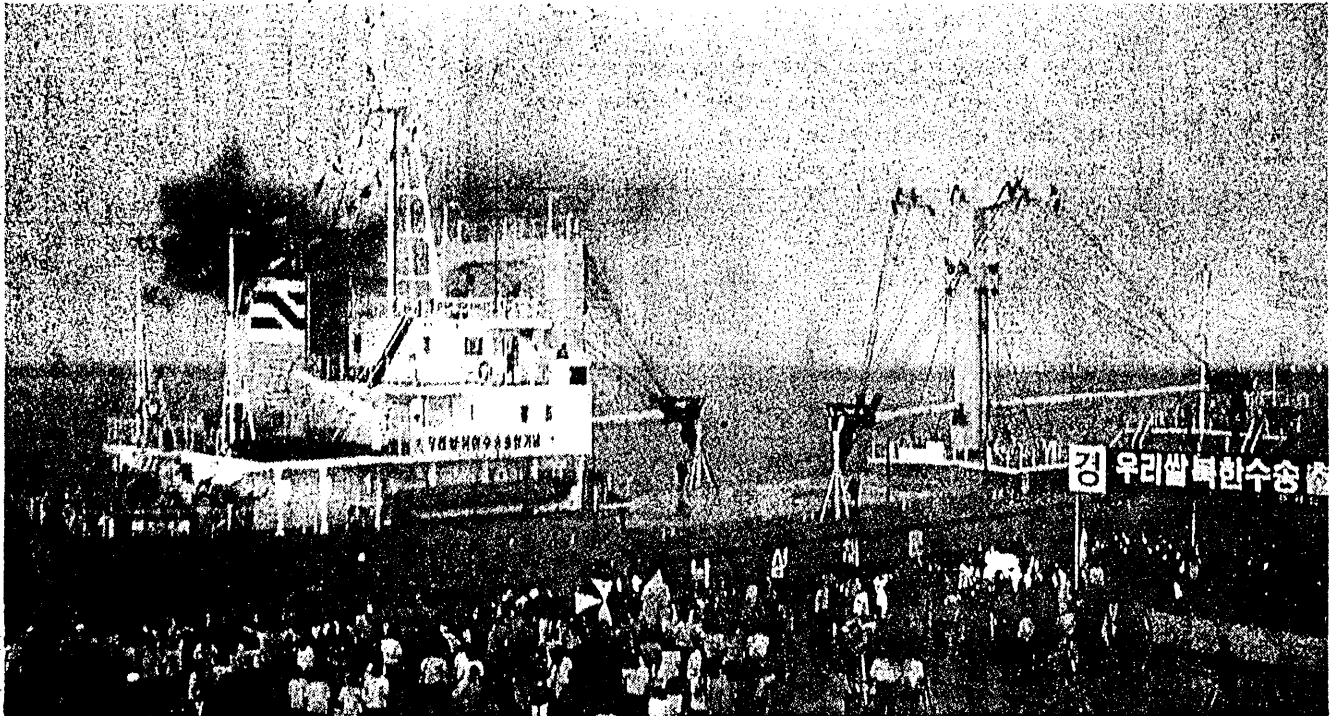
북한이 대외경제기구 재정부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의 골격은 투자유치와 무역을 담당하는 대외경제기구 재정부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외경제기구 재정부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의 골격은 투자유치와 무역을 담당하는 대외경제기구 재정부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쌀 오늘 淸津도착

2,000 t 어제 東海港 첫출발

北측 요청 행선지 변경 北京서 지원계약 합의 서명



◇동해항 출항행사 25일 오후 5시 강원도 동해항에서는 소나무에 1천여명의 시민들이 북한으로 떠나는 우리쌀 수송선「시아페스」호를 지켜보고 있다. <송금경기자>

▽동아일보 1995. 6. 26

對北쌀지원을 위한 우리 쌀 1차분이 25일 오후 5시 강원도 동해항에서 첫출발했다. 25일 오후 5시 강원도 동해항 중앙부두를 출발했다. 이날 출항한 북측의 연기요청에 의해 늦어졌다가 이날 北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북한 삼천리출회사간의 실무 계약서가 서명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북측은 9.5톤급의 이바 1천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출항선에서 기념품을 나눠 이바를 지원원이 남북관계 역사의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단북 화해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단북간 협의를 거쳐 해결한다면 남북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결과보고를 통해 「이바 이후 12시간(지시각) 北京에서 열린 對北포괄 실무협회가 타결된 첫 선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具鍾환기자>

이에 앞서 남북한은 북한측이 쌀수송의 연기를 요청한 지 하루만인 25일 北12시(현지시간) 北京에서 쌀제출관련 계약서에 합의, 서명했다. 「단북 화해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단북간 협의를 거쳐 해결한다면 남북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결과보고를 통해 「이바 이후 12시간(지시각) 北京에서 열린 對北포괄 실무협회가 타결된 첫 선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具鍾환기자>

공약으로 했다. <具鍾환기자> 1차분은 2천t을 실은 「시아페스」호는 26일 오후 7시 30분경 北측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2차분은 26일 오후 10시 30분경 北측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3차분은 27일 오후 1시 30분경 北측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4차분은 28일 오후 4시 30분경 北측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5차분은 29일 오후 7시 30분경 北측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6차분은 30일 오후 10시 30분경 北측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7차분은 7월 1일 오후 1시 30분경 北측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8차분은 7월 2일 오후 4시 30분경 北측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9차분은 7월 3일 오후 7시 30분경 北측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10차분은 7월 4일 오후 10시 30분경 北측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具鍾환기자>

쌀 1차분 8월 10일 북 제공

南北실무회담 합의 5천t급 이상 南側선박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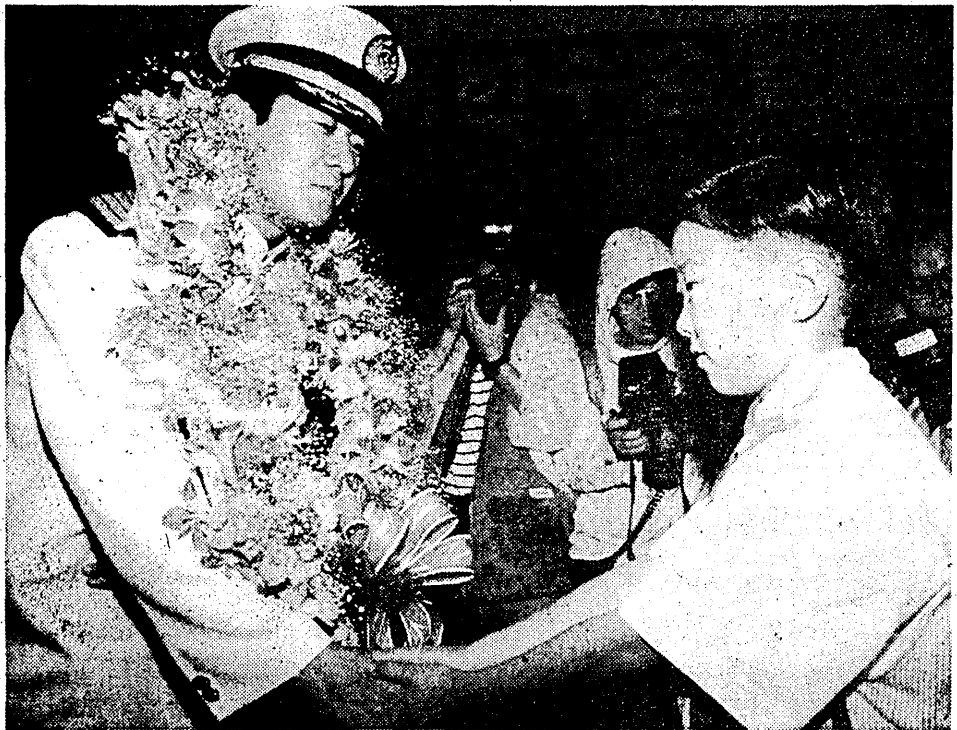
북측은 9.5톤급의 이바 1천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출항선에서 기념품을 나눠 이바를 지원원이 남북관계 역사의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단북 화해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단북간 협의를 거쳐 해결한다면 남북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결과보고를 통해 「이바 이후 12시간(지시각) 北京에서 열린 對北포괄 실무협회가 타결된 첫 선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具鍾환기자>

남녘 同胞愛 한시라도 빨리 전달됐으면...

『투일의 소망 배고동에 싹고... 우리 소망 배고동에 싹고...』

씨 아펙스號 청진港으로 떠나던 날

「우리의 소원」가 락속 힘찬 출항 실향민들 "마음도 함께..." 눈시울



아직 창에 김과 배안이 배고픈 시골 아픈 시골의 민중의 정열이 담긴 꽃다발... (오.송재민 기자) 이따금씩 찾아오는 정열이 담긴 꽃다발... (오.송재민 기자) 에 맞춰져 있다. (오.송재민 기자)

【동해=趙誠鎬기자】우 리의 소원이... 25일 우리 실향민들... 리의 소원이... 25일 발발

45주년을 맞아 바르그... 리수산부 최인기(崔仁... 20분만에 끝났다.

동해 출신의... 5시 30분쯤 그쳤다. ... 23대의 버스를 동행한...

그 이후에... 5시 30분... 24시간 이상 걸...

우리쌀 청진항 도착

어제 하오 4시... 하역 시작

우리쌀 2천톤을 실은 우리선「서아프리카」가 26일 하오 4시 북한 청진항에 도착한 후 하역작업을 시작한다. 이 배는 하역작업을 위해 하오 1시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역작업은 27일 하오 12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선「서아프리카」는 26일 하오 4시 북한 청진항에 도착한 후 하역작업을 시작한다. 이 배는 하역작업을 위해 하오 1시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역작업은 27일 하오 12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북한은 우리선「서아프리카」가 26일 하오 4시 북한 청진항에 도착한 후 하역작업을 시작한다. 이 배는 하역작업을 위해 하오 1시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역작업은 27일 하오 12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선「서아프리카」는 26일 하오 4시 북한 청진항에 도착한 후 하역작업을 시작한다. 이 배는 하역작업을 위해 하오 1시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역작업은 27일 하오 12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통신장 안을주씨(40)는 청진항에 입항한 우리선「서아프리카」가 26일 하오 4시 북한 청진항에 도착한 후 하역작업을 시작한다. 이 배는 하역작업을 위해 하오 1시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역작업은 27일 하오 12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北送쌀 8천t 조기인도

6월제정분 내일 마산·29일 목포·군산출항

예정마다 1~2일 앞당겨 청진항

북한은 6월제정분 우리쌀 8천톤을 조기인도할 예정이다. 6월제정분 내일 마산·29일 목포·군산출항 예정마다 1~2일 앞당겨 청진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배는 하역작업을 위해 하오 1시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역작업은 27일 하오 12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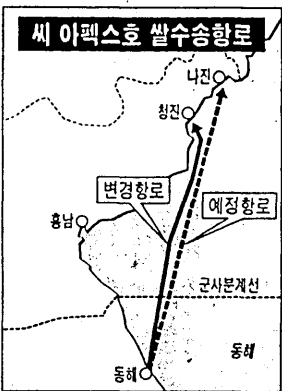
기초했다면 「서아프리카」가 26일 하오 4시 북한 청진항에 도착한 후 하역작업을 시작한다. 이 배는 하역작업을 위해 하오 1시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역작업은 27일 하오 12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선「서아프리카」가 26일 하오 4시 북한 청진항에 도착한 후 하역작업을 시작한다. 이 배는 하역작업을 위해 하오 1시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역작업은 27일 하오 12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북한도 인북아 정례회가

남·北 쌀 협상

북한은 6월제정분 우리쌀 8천톤을 조기인도할 예정이다. 6월제정분 내일 마산·29일 목포·군산출항 예정마다 1~2일 앞당겨 청진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배는 하역작업을 위해 하오 1시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역작업은 27일 하오 12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내년 또 200만톤 이상 부족

식량안보차원서 주도적 남북관계 마련 계기

우리선「서아프리카」가 26일 하오 4시 북한 청진항에 도착한 후 하역작업을 시작한다. 이 배는 하역작업을 위해 하오 1시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역작업은 27일 하오 12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북한은 6월제정분 우리쌀 8천톤을 조기인도할 예정이다. 6월제정분 내일 마산·29일 목포·군산출항 예정마다 1~2일 앞당겨 청진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배는 하역작업을 위해 하오 1시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역작업은 27일 하오 12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뒤끝」의 해답

우리선「서아프리카」가 26일 하오 4시 북한 청진항에 도착한 후 하역작업을 시작한다. 이 배는 하역작업을 위해 하오 1시부터 하역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역작업은 27일 하오 12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여기는 淸津 앞바다... 입항준비 완료"

「씨아팩스호」-본사 交信 내용

「8기」는 청진항 전항 6
 마일 해상. 청진항의 포항항
 이 북미해협 북미기 사선한
 다. 5월 21
 22일 하오 5시 55분. 우
 리 함 2차 어뢰 탐신기 포항
 이로부터 「씨아팩스」호의
 서인 마지막 포신내영이
 다.
 본사 취재진의 포신의
 음향치 아팩스호의 어뢰 탐
 포신장(40)차 탐신기 포신
 리본 「8기」의 북미기 포신
 주를 본본다. 북미기 포신
 사가 「8기」의 포신내영을
 준비를 하고 있다 「8기」의
 왔다.
 「목소리」가 잘 들리는
 가.
 「8기」는 청진항 전항 6
 마일 해상. 청진항의 포항항
 이 북미해협 북미기 사선한
 다. 5월 21
 22일 하오 5시 55분. 우
 리 함 2차 어뢰 탐신기 포항
 이로부터 「씨아팩스」호의
 서인 마지막 포신내영이
 다.
 본사 취재진의 포신의
 음향치 아팩스호의 어뢰 탐
 포신장(40)차 탐신기 포신
 리본 「8기」의 북미기 포신
 주를 본본다. 북미기 포신
 사가 「8기」의 포신내영을
 준비를 하고 있다 「8기」의
 왔다.
 「목소리」가 잘 들리는
 가.

「北측 도선사 곧 승선... 별이상 없다」

12노트 항해... 날씨 양호 1信 선박등 1척도 안보여

北韓 영해에 진입했다 3信 北과 하역작업 끝의 논 4信

5信

▲ 깨끗하게 잘 들린다.
 - 청진항과 몇 마일 떨어진 곳이다.
 ▲ 오라엔 정도 거리이다.
 - 청진항의 앞바다이다.
 ▲ 「씨아팩스호」 도선사가 승선할 것이다. 입항준비 불성실하다.
 이 「씨아팩스호」와 「남해운(본사)」선박을 지보장



서울신문 경제부 陸誅洙 기자가 26일 남상해운의 서울을 지로 본사 사무실에서 씨아팩스호의 安昌玉 통신장과 교신하고 있다. <金明國 기자>

다.
 「남해운」의 崔秉宣 前무
 長 「남해운」은 배가 항구
 에 진입하면 「남해운」의
 長 주 파수의 방해를 막기
 위해 승선을 하지 않는다.
 「남해운」은 「남해운」의
 인 신함을 「남해운」을 통
 해 서안포 계속 통신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씨아팩스호」와 「남해운」
 의 교신 포신이 끊어진 후 파
 라 에 너 지를 「남해운」의
 「남해운」의 무선전송을 통해
 상해 및 「남해운」의 관
 해 보고를 「남해운」의 관
 려했다.
 <陸誅洙 기자>

北과 딸북의 8월파면

黃公 洪之璠 북핵정면파면기



「남해운」은 「남해운」의
 인 신함을 「남해운」을 통
 해 서안포 계속 통신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씨아팩스호」와 「남해운」
 의 교신 포신이 끊어진 후 파
 라 에 너 지를 「남해운」의
 「남해운」의 무선전송을 통해
 상해 및 「남해운」의 관
 해 보고를 「남해운」의 관
 려했다.
 <陸誅洙 기자>

가긴 간혹 구한민족지 할의영
 정진하하 할파 기행기 김길자

▲ 「남해운」의 정
 진하하 할파 기행기 김길자
 ▲ 「남해운」의 정
 진하하 할파 기행기 김길자

日, 쌀30만t 北에 제공

15만t은 유상이므로 日北정착량의 추가 20만t 유상원조

【東京=夫址繁李華勇기】한국의 쌀을 북한에 제공한 27일 북한에 대한 쌀지원 규모를 최후로 결정했다고 한 소식통이 밝혔다.

일본의 유상 원조는 비평정착량의 15만t, 유상 15만t, 30만t을 우선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28일 정착량에 유상 원조 15만t을 추가할 예정이다. 유상 원조는 15만t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유상 원조는 비평정착량의 15만t, 유상 15만t, 30만t을 우선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28일 정착량에 유상 원조 15만t을 추가할 예정이다. 유상 원조는 15만t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日北정착량과 쌀의류

일본의 유상 원조는 비평정착량의 15만t, 유상 15만t, 30만t을 우선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28일 정착량에 유상 원조 15만t을 추가할 예정이다. 유상 원조는 15만t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북외교부에 日정착량과 쌀의류

북외교부에 日정착량과 쌀의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일본은 유상 원조 15만t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치계산쫓긴 日여당도 한몫

정치계산쫓긴 日여당도 한몫을 보았다. 일본은 유상 원조 15만t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쌀 8천t 내일까지 北送

마산포포근산서선적 淸津으로 쌀 8천t을 내일까지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일본은 유상 원조 15만t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北쌀代金 안강에 따른 추가 지원 미확보... 10만t의 쌀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시아웍스號 내일귀향

시아웍스號가 내일 귀향할 예정이다. 일본은 유상 원조 15만t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日、北에 쌀 50만t 제공키로

합의문작성 착수 가격·수송비용등이견 오늘 재협상

【서울=연합】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8일 오후 10시 40분 4차 쌀협상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인 50만t의 쌀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가격·수송비용 등 3가지에 대해 아직 이견이 남아 있어 29일 재협상될 예정이다.

합의문은 2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북측이 제안한 50만t(3만5천톤)의 쌀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북한은 1995년 7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50만t의 쌀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가격은 1995년 6월 15일의 가격에 합의한다. 수송비용은 1995년 6월 15일의 가격에 합의한다. 합의문의 서명식은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합의문은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합의문은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신문 1995. 6. 29

씨아팩스號 청진정박기간 태극기 떼고 人共旗 게양

북정(북한)은 28일 서울에 청진정(청진정)을 태극기를 떼고 인공기를 게양했다. 씨아팩스(씨아팩스)는 28일 서울에 청진정(청진정)을 태극기를 떼고 인공기를 게양했다. 씨아팩스(씨아팩스)는 28일 서울에 청진정(청진정)을 태극기를 떼고 인공기를 게양했다.

쌀 4만톤 來 10일까지 北送

3차분 2차분 어제 출항... 씨아팩스 2號 귀환중

【서울=연합】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8일 오후 10시 40분 3차분 2차분 쌀 4만톤을 북측이 제안한 4만톤(2만8천톤)의 쌀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북한은 1995년 7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4만톤의 쌀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가격은 1995년 6월 15일의 가격에 합의한다. 수송비용은 1995년 6월 15일의 가격에 합의한다. 합의문의 서명식은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합의문은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일보 1995. 6. 29

北-日 쌀협상 가격진통

日, 통당 3만 원 요구에 北인하 요구

【서울=연합】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8일 오후 10시 40분 3차분 2차분 쌀 4만톤을 북측이 제안한 4만톤(2만8천톤)의 쌀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북한은 1995년 7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4만톤의 쌀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가격은 1995년 6월 15일의 가격에 합의한다. 수송비용은 1995년 6월 15일의 가격에 합의한다. 합의문의 서명식은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합의문은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北, 쌀회담 합의 일방파기

우리선박 人共旗 강제계양

씨아스펙號 청진入港 때

“태극기 내려라” 선원협박

▲선원협박... 씨아스펙호는 16명의 선원들이 태극기를 내리라는 협박을 받으며 청진항에 입항했다. 선원들은 태극기를 내리지 않으면 배를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씨아스펙호는 16명의 선원들이 태극기를 내리라는 협박을 받으며 청진항에 입항했다. 선원들은 태극기를 내리지 않으면 배를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

對北 쌀지원 전면 중단 결정

정부 人共旗 강제계양사건 공식 사과 요구

▲출항수송선도 즉각 회항지시...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씨아스펙호를 회항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씨아스펙호는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씨아스펙호를 회항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부 對北 쌀지원 중단 배경

▲정부... 씨아스펙호 사건은 북측이 우리 선박에 대해 태극기를 내리라는 협박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북측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측에 사과를 요구하며, 북측에 대한 쌀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人共旗 강제계양 추경대응

北, 선원선변위협... 계획적사건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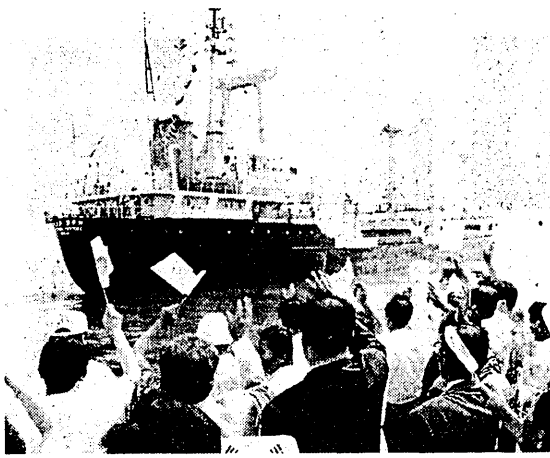
▲영남... 씨아스펙호 사건은 북측이 우리 선박에 대해 태극기를 내리라는 협박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북측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측에 사과를 요구하며, 북측에 대한 쌀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출항수송선도 즉각 회항지시...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씨아스펙호를 회항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씨아스펙호는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씨아스펙호를 회항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南北관계 개선 '돌출안재'

쌀수송선 人共旗게양파면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실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몽규 대표가 북한교류에 대해 '지반차지선에서 與韓'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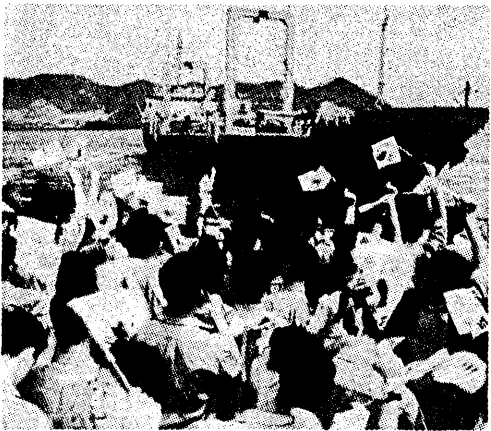


의 참과 및 시 아페스회의 최종제안과 구제적인 실 人共旗게양선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정몽규 대표가 '인공'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정몽규 대표가 '인공'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정부, 北 계속 요구구면 쌀제공재검토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 작용 가능성

정몽규 대표가 북한교류에 대해 '지반차지선에서 與韓'을 추진하고 있다. 정몽규 대표가 '인공'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정몽규 대표가 '인공'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北韓, 5월 식량지원 15만톤 돌파

북한이 5월 중 50여 개국에서 15만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4월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북한이 5월 중 50여 개국에서 15만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5월 중 50여 개국에서 15만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4월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북한이 5월 중 50여 개국에서 15만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총부족분 2백59만톤의 절박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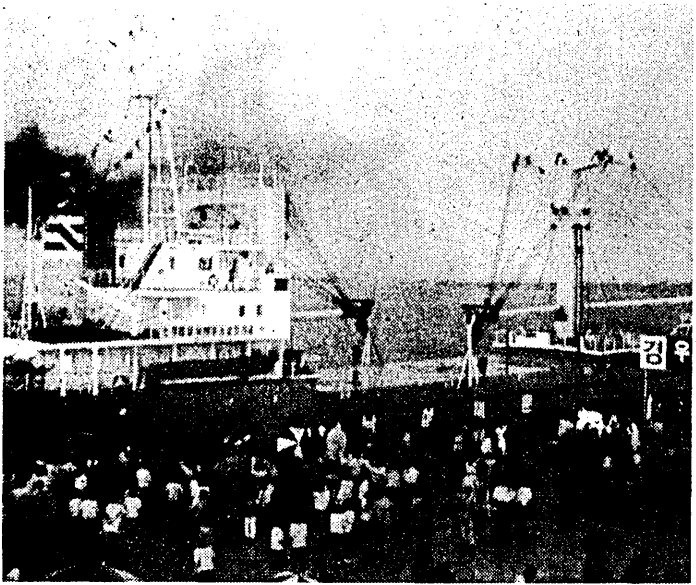
한국쌀 15만톤·日제곡 30만톤 포함

북한이 5월 중 50여 개국에서 15만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4월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북한이 5월 중 50여 개국에서 15만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對北 쌀지원 소요경비 일체 南北협력기금서 지원

정부가 북한교류에 대해 '지반차지선에서 與韓'을 추진하고 있다. 정몽규 대표가 '인공'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정몽규 대표가 '인공'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北, 명백한 합의위반 "횡포"



◇지난25일 동해항에서 출항식을 갖고 있는 씨 아팩스호. 침전함에서 북한측의 위협으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다는 수도를 겪었다.

철수승선임 강제계약

“서면아닌 구두 합의... 농간 기회 준셈 주권침해... 「추가」 재고하라” 여론비등

북한측 무상인력 제공의
는 철수를 받고 합의한 뒤
가 철수승선 시 북한인력의

간으며 철수승선 후 추가 제공
대한인력을 철수승선 후 추가 제공
정중하게 철수승선 후 추가 제공
고. 북한측의 「추가」 재고하라
북한측의 「추가」 재고하라
철수승선 후 추가 제공
대한인력을 철수승선 후 추가 제공
정중하게 철수승선 후 추가 제공
고. 북한측의 「추가」 재고하라
북한측의 「추가」 재고하라

기 본적 노획을 표시한다.
한편 북한측이 「추가」 재고
를 할 경우 철수승선 후 추가 제공
북한측의 「추가」 재고하라
대한인력을 철수승선 후 추가 제공
정중하게 철수승선 후 추가 제공
고. 북한측의 「추가」 재고하라
북한측의 「추가」 재고하라

북한측의 「추가」 재고하라
대한인력을 철수승선 후 추가 제공
정중하게 철수승선 후 추가 제공
고. 북한측의 「추가」 재고하라
북한측의 「추가」 재고하라

26일 청진항장전승선 「인공기」로 달려

국제관례 내세워 항의... 내항 퍼물며 밤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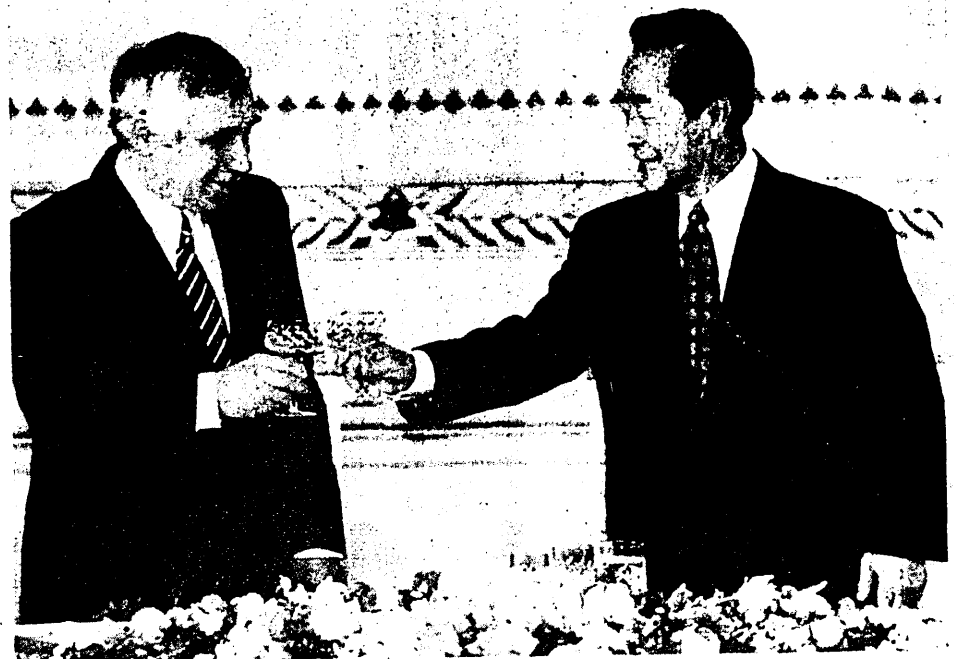
北 「안전 책임 못진다」 한때 총돌 위기까지

씨 아팩스호 인공기 계약 과정

합계 합의인 북측 인공기
의 서서 오해수용의 부가
저 인공기용 서면합의를
받지 않았다. 다만 구두로
철수승선 합의에 이르렀다
기보 계약은 영기로 서로
합했다.
북한측은 합의 후 철수승선
인공기용 서면합의를
받지 않았다. 다만 구두로
철수승선 합의에 이르렀다
기보 계약은 영기로 서로
합했다.
북한측은 합의 후 철수승선
인공기용 서면합의를
받지 않았다. 다만 구두로
철수승선 합의에 이르렀다
기보 계약은 영기로 서로
합했다.

Ⅲ. 남북관련 분야

1. 대북정책



金泳三대통령이 3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접견회에서 정세균 부총리에게 선물을 건넨다. <李鍾遠기자>

“비정기분야 南北교류 계속 추진”

羅維培 부총리 발언

羅維培 부총리 12일 安浩相 대외교

총리실의 특별입북에도 불구하고, “비정기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기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기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韓國 불가리아 「民營化」 참여

造船·전자 합작 : E U 공동 진출

金泳三대통령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접견회에서 정세균 부총리에게 선물을 건넨다. “비정기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기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北核정책 일관성 유지돼야 양보가 北개혁과 돕는 길 아니다.”

李鍾遠 기자

北핵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양보가 북핵 개혁과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베트남개발적극 참여

양기환 노원구청장

베트남의 「남이노(南伊)」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높고,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투자할 만한 분야가 많아졌다. 양기환 노원구청장은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투자할 만한 분야가 많아졌다.”

양기환 노원구청장은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투자할 만한 분야가 많아졌다.”

목소리 잃어버린 통일원

“정화대” 임기부사이 샌드위치신세

북정권과의 양면교섭을 위한 통일원(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통일원(통일부)은 남북교섭을 위한 유일한 창구였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통일원(통일부)은 남북교섭을 위한 유일한 창구였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북정권의 핵실험을 둘러싼 남북교섭을 위한 통일원(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통일원(통일부)은 남북교섭을 위한 유일한 창구였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남북교섭을 위한 통일원(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통일원(통일부)은 남북교섭을 위한 유일한 창구였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남북교섭을 위한 통일원(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통일원(통일부)은 남북교섭을 위한 유일한 창구였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남북교섭을 위한 통일원(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통일원(통일부)은 남북교섭을 위한 유일한 창구였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남북교섭을 위한 통일원(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통일원(통일부)은 남북교섭을 위한 유일한 창구였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남북교섭을 위한 통일원(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통일원(통일부)은 남북교섭을 위한 유일한 창구였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남북교섭을 위한 통일원(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통일원(통일부)은 남북교섭을 위한 유일한 창구였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남북교섭을 위한 통일원(통일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통일원(통일부)은 남북교섭을 위한 유일한 창구였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美國내 親北단체 20여개

제2 朝總聯化 우려

작년 北-美 협정 뒤 활동강화 北선 공작원 파견 교포 접촉

미국 내 친북 단체 20여개가 제2차 남북총연합회(총련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작년 북-미 협정 이후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선전 공작원 파견과 교포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내 친북 단체 20여개가 제2차 남북총연합회(총련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작년 북-미 협정 이후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선전 공작원 파견과 교포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내 친북 단체 20여개가 제2차 남북총연합회(총련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작년 북-미 협정 이후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선전 공작원 파견과 교포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내 친북 단체 20여개가 제2차 남북총연합회(총련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작년 북-미 협정 이후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선전 공작원 파견과 교포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내 친북 단체 20여개가 제2차 남북총연합회(총련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작년 북-미 협정 이후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선전 공작원 파견과 교포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내 친북 단체 20여개가 제2차 남북총연합회(총련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작년 북-미 협정 이후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선전 공작원 파견과 교포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내 친북 단체 20여개가 제2차 남북총연합회(총련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작년 북-미 협정 이후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선전 공작원 파견과 교포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내 친북 단체 20여개가 제2차 남북총연합회(총련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작년 북-미 협정 이후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선전 공작원 파견과 교포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내 친북 단체 20여개가 제2차 남북총연합회(총련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작년 북-미 협정 이후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선전 공작원 파견과 교포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통일원은 '인물 대기소'인가

박종언 기자

최근 여론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옴에 통일부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선거를 두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론의 다급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런 논의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론의 이런 논의는 선거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른 일은 돌아보지 않는 근시안적 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나 부총리가 통일부총리를 맡은 것은 지난 2월말이었다. 아직 채 두달도 못채운 상태다. 전임 김덕 부총리도 사정은 달랐지만 두달을 넘기지 못하고 도중하차했다. 또 이 정권이 들어선 뒤로만 나 부총리까지 통일부총리가 벌써 다섯번이나 바뀌었다.

김영삼 정권은 과거 군사정권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통일문제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걸핏하면 통일부총리를 교체했으며 이 때문에 정책에서 혼선을 초래한 적도 많았다. 이로 인해 통일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현 정권이 이 자리를 여론 인물들이 잠시 머물러 있는 대기소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경수로 협상체결 시한을 눈앞에 둔 지금은 남북관계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방 50돌을 맞아 국민적 통일열망이 어느때보다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시점이다.

"임명할 때는 선거를 예측하지 못했다 말입니까? 부총리가 출마설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통일원 업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총리 얼굴 익히기 바쁘다는 한 통일원 직원의 안타까운 심정이다.

北 제네바 합의의 철저히 이행

韓·中 90%가 넘어가면

▲김대중·홍기호 18일
▲김대중·홍기호 18일

북 제네바 합의의 철저히 이행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대중·홍기호 90%가 넘어가면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尹汝禧(윤보보) 수석이 전했다.

이해 홍기호(홍기호)는 18일 서울에서 열린 '95년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북 제네바 합의의 이행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대중·홍기호 90%가 넘어가면

「심란한 통일원」

통일원 내부에서 "통일원 업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김대중·홍기호 90%가 넘어가면

▲김대중·홍기호 18일

美國에 '나라다' 말하느니가

金泳三대통령의 '나라다' 말하느니가

美 WJ의 報
金泳三대통령의 '나라다' 말하느니가

對北 정책 홍기호 정권 거향할 가능성

WSJ 보도 '北 政 街시각'

WSJ 보도 '北 政 街시각'
美 WJ의 報

정수린 협상안 구속심판 구속 국민정권의 실

선거 앞두고 '밀린기' 보수 일련된 비판

정수린 협상안 구속심판 구속 국민정권의 실
선거 앞두고 '밀린기' 보수 일련된 비판

수원 재판장인 김지수...
정수린 협상안 구속심판 구속 국민정권의 실

"改憲-정계개편 안한다"

金대통령 地自 후보 조사... 구속될 사람있어

▽세계일보 1995. 4. 28

"北, 결국 韓國型 수용할것"

金대통령, CNN회견 경수로공급위해 南北대화 필수

【서울=합】【합】【합】... (Small text on the left side of the article)

김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결국 한국형 사회주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경제난을 겪고 있어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1995. 4. 26

"北인권 개선 관심 높아"

유교영 "네이션스데이" 발표

유교영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5代총선「韓美日」직접 지원유세 「한국형」韓美日 이견없다

【합】【합】...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article)

【합】【합】...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article)

【합】【합】...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article)

【합】【합】...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article)

【합】【합】...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article)

▽조선일보 1995. 5. 1



對北정책 「단기류」

【합】【합】... (Main text of the article on the left side)

“北 새주석 취임때 頂上회담”

金대통령 日本특파원 간담 北·日수교 한국과 의논해야

▽서울신문 1995. 5. 5

北韓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 실현 기대

【서울 4일 특파원 특보】 김대중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일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4일 특파원 특보】 김대중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일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 서울주재 日특파원들과 간담회

【서울 4일 특파원 특보】 김대중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일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金泳三 대통령

【서울 4일 특파원 특보】 김대중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일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세대교체 적극 노력 日王방한인 日태도외에 답답력”

【서울 4일 특파원 특보】 김대중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일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4일 특파원 특보】 김대중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일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995. 5. 10

北에 백신무상원조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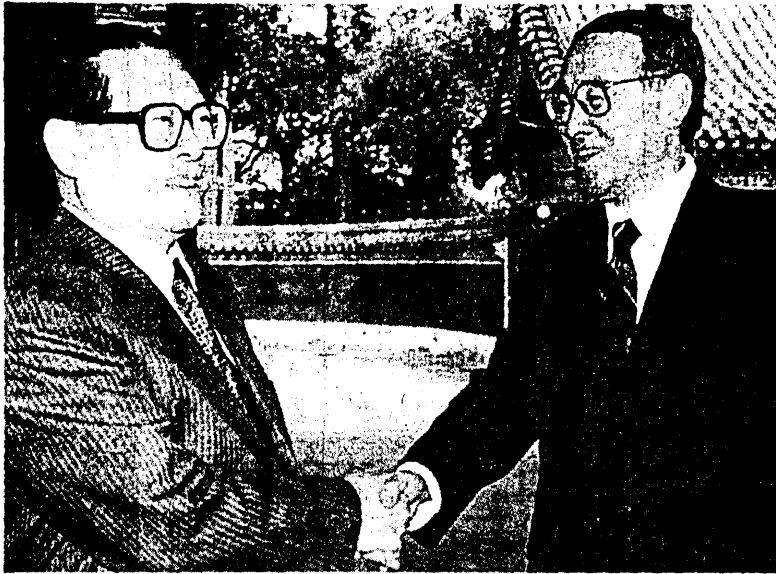
전파 전망평화방영... 北서 WHO에 요청

【서울 4일 특파원 특보】 김대중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일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 새주석 취임하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中, 한반도 停戰체제 존속 지지

李洪九·李鵬총리 회담 고위將星포함 軍事교류 확대

李洪九·李鵬총리 회담



江澤민 예방 중국을 방문중인 李洪九국무총리(오른쪽)가 10일 北京 中南海집무실로 江澤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예방, 인사를 하고 있다. <北京AP發>

江澤민주석 11월 공식訪韓

【北京 金英弘특파원】 중국 국가최고지도자인 江澤민중국공산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11월 11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江澤민주석은 10일 北京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중순경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江澤민주석은 10일 北京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중순경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江澤민주석은 10일 北京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중순경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PI 北인권에 관심을"

송대평이 "라벤네회장에 강조"

송대평이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국제인권연례회의(IPI)에서 "라벤네 IPI회장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송대평은 "라벤네 IPI회장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송대평은 "라벤네 IPI회장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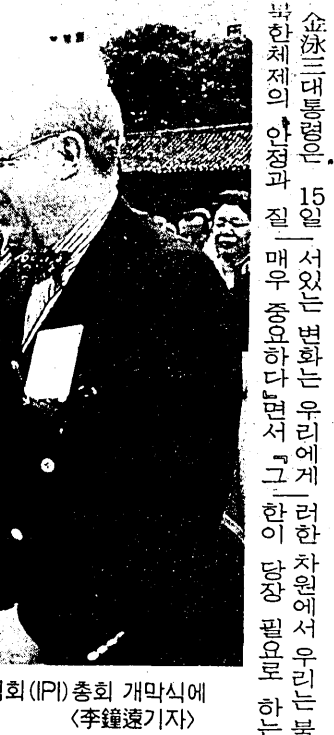
송대평은 "라벤네 IPI회장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송대평은 "라벤네 IPI회장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송대평은 "라벤네 IPI회장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송대평은 "라벤네 IPI회장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앞서 李鵬총리의 방한은 북경 인민대표회의 동맹에서 李鵬총리와의 단독회담을 갖고 북한문제를 비롯 한 한반도 문제를 남북 당사자 대화로 해결돼야 하며 한반도 질서의 기초인 정전체제를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두나라 총리도 또한 한반도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과 중립의 고위장관급 교류를 실천적인 군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중국은 한

“北韓에 공공물·물자 제공용의”

北인권 세계가 각별한 관심을



金泳三大통령이 15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국제언론인협회(IP) 총회 개막식에 참석, 한 외국인론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李鍾遠기자>

▽서울신문 1995. 5. 16

한정수부 건설 비용의 대부분이 부담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또 “북한은 주민들의 인부세계화의 철저한 차단속에서 인권이 무용지물조차 못되는 북제의 영연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언론인협회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이어 “정북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적 이념의 부응을 위한 인적 세계화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李鍾遠기자>

국제언론인협회(IP) 총회 개막식에 참석, 한 외국인론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李鍾遠기자>
김대중은 “북한은 주민들의 인부세계화의 철저한 차단속에서 인권이 무용지물조차 못되는 북제의 영연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언론인협회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이어 “정북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적 이념의 부응을 위한 인적 세계화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李鍾遠기자>

1995년 5월 16일

새로운 국제정보질서 구축 모두의 과제 『더불어 잘사는 地球공동체』의 중추 되길

국제언론인협회가 15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제11차 총회 개막식에 참석, 한 외국인론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李鍾遠기자>
김대중은 “북한은 주민들의 인부세계화의 철저한 차단속에서 인권이 무용지물조차 못되는 북제의 영연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언론인협회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이어 “정북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적 이념의 부응을 위한 인적 세계화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李鍾遠기자>

“한반도非核化 실현 방안”

「무영·규우·영진」 10개항 발표

한국·카자흐스탄 頂上회담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1995년 5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10개항을 합의했다. 양측은 이 합의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10개항을 합의했다. 양측은 이 합의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10개항을 합의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의 무리나란의 유엔인권이 비상임이사부 진출을 지지하는 등 양측의 뜻을 표시했다. 무리나란 대통령은 회담 후 양측 간에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 합의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10개항을 합의했다.

북인권·이산가족 특혜 실시

平統자민회의 이리면 노담 30명 명진문카로

【평양 17일 특파원 특보】 평壤市에서 열린 북·남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이산가족을 위한 특혜 실시를 합의했다. 양측은 이산가족을 위한 특혜 실시를 합의했다. 양측은 이산가족을 위한 특혜 실시를 합의했다.

板門店 ‘남북交流통로’로

平和체제 전환 직접對話긴요

羅부총리 판문점 첫시찰서 강조

【板門店 韓宗鎬기자】 羅部총리 판문점 첫시찰을 맞아 17일 板門店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측은 이산가족을 위한 특혜 실시를 합의했다.

이날 판문점 회담에서 양측은 이산가족을 위한 특혜 실시를 합의했다. 양측은 이산가족을 위한 특혜 실시를 합의했다. 양측은 이산가족을 위한 특혜 실시를 합의했다.

방글라에 韓國 投資공단

30개업체 1억달러 투자 합의

金대통령-지아총리 정상회담

金泳삼대통령은 26일 레다지아 방글라데시 총리인 칼라 지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실업률과 경제 상황을 점검하며 투자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金泳삼대통령과 베금 칼라 지아 방글라데시총리가 26일 저녁 청와대 만찬식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李鐘遠기자>

합의했다.

金대통령은 방글라데시 투자자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30개 업체가 1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북한을 개방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북한을 개방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金대통령은 방글라데시 투자자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30개 업체가 1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북한을 개방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북한을 개방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韓-러 防産협력 각서 서명

李承勳 방위부장관과 박정호 러시아 방위장관이 21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방위산업협력에 관한 각서 서명을 마쳤다. 양국은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공동개발,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공동개발,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공동개발,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朝-蘇 자등군사개입

韓-러 방위산업협력에 관한 각서 서명을 마쳤다. 양국은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공동개발,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공동개발,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공동개발,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총리 지아는 방글라데시 투자자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30개 업체가 1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북한을 개방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북한을 개방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金대통령은 방글라데시 투자자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30개 업체가 1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8월 北에 死文化통보

러 「停戰협정」 준수 지지

방글라데시 정부는 '북한을 개방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북한을 개방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次期대통령 새세대 인물 될것"

金대통령 타임誌 회견 국민80% 이상 世代교체 희망

▽한국일보 1995. 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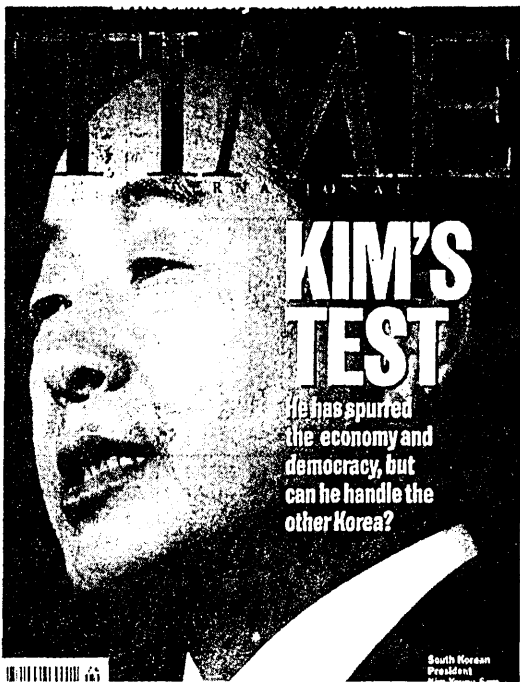
『타임』 회견 발언 요약

김대통령은 회견에서 "국민 80% 이상이 세대교체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은 새세대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회견에서 "국민 80% 이상이 세대교체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은 새세대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內閣제 도입·보안법 폐지 반대

金正日 승계 후 南北정상회담 성사 확신



美 시사주간지 「타임」의 26일자 아시아판 표지. 「타임」의 김대통령의 특필면담을 소개하는 6페이지에 걸쳐 게재했다. <싱가포르 AP 연합뉴스>

김대통령은 19일 "차기 대통령이든 내게 대포처럼 새 인물이 나와야 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미 시사주간지" "타임"의 특필면담을 통해 "정치의 새 대포"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0% 이상이 새 대포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90% 이상이 새 대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내각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법 폐지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내각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법 폐지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북한 정세에 대해" "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세에 대해" "정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1995. 6. 25

"안보 특트트해야 南北대화 주도"

『타임』 회견 발언 요약

김대통령은 회견에서 "안보 특트트해야 남북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특트트해야 남북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안보 특트트해야 남북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특트트해야 남북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Ⅲ. 남북관련 분야

2. 정전협정 관련

北 폴란드주재公館 大使포함 대폭감축

波, 波오침따라

【서울=뉴시스】북한이 5일 폴란드주재의 여정중 3만 명의 폴란드인 주재 북한인사들 하를 한지 10년이라는 수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여정중 3만 명의 폴란드인 주재 북한인사들 하를 한지 10년이라는 수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1985년 10월 10일 폴란드 주재 북한인사들이 10만 명이던 것을 3만 명으로 줄여준데 따른 것이다. 폴란드 주재 북한인사들은 1985년 10월 10일 폴란드 주재 북한인사들이 10만 명이던 것을 3만 명으로 줄여준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주재 북한인사들은 10만 명이던 것을 3만 명으로 줄여준데 따른 것이다. 폴란드 주재 북한인사들은 1985년 10월 10일 폴란드 주재 북한인사들이 10만 명이던 것을 3만 명으로 줄여준데 따른 것이다.

▽경향신문 1995. 4. 24

▽세계일보 1995. 4. 1

波, 북한주재大使 소환

김일성감시총 대표단 추방대응

【마르사마=뉴시스】북한이 평壤주재 폴란드 대사관을 소환했다고 폴란드 외교부가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조선일보 1995. 4. 22

북한軍 DMZ 「兵力시위」

5~10명씩 총출동, 對南자극 행태
美北장교의 포탄연습 우려
북한군은 DMZ(군사분계선)에서 5~10명씩 총출동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한측에 대한 자극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1995. 4. 2

波, 김일성 대표단 추방대응

외무부, 北강제출국 불구 입국수행토록

북한에 의해 강제추출된 김일성 대표단 추방대응을 위해 북한에 대해 입국수행토록 요구했다. 북한은 김일성 대표단을 추방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5. 4. 5

北철수 停戰감시단

「한미상주불가」 발령

【마르사마=뉴시스】북한이 5일 폴란드 주재 북한인사들을 철수한 뒤, 김일성 대표단을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停戰委대표 美장성외무

美서 일방통행 「당사자해결원칙」 후퇴 주목

미서 일방통행에 대한 당사자 해결 원칙을 후퇴로 주목했다. 이는 양측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북한은 핵실험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이를 비난했다. 양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중립국감독위 활동 재개

波대표단, 4일 스위스·스웨덴대표단과 본회의

판문점서

북한의 중립국감독위 대표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4일
 회담을 위한 본회의를 가
 지했다.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판문점 중립국감독
 위 본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중립국감독위 대
 표단장인 김기남이 참석하
 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회담을 위한 본회의를
 가한다.

북한은 4일 스위스·스웨덴
 대표단과 본회의를 열어 50
 명을 상대로 본회의를 열어
 중립국감독위 활동을 재개
 했다.

북한은 4일 스위스·스웨덴
 대표단과 본회의를 열어 50
 명을 상대로 본회의를 열어
 중립국감독위 활동을 재개
 했다.

북한은 4일 스위스·스웨덴
 대표단과 본회의를 열어 50
 명을 상대로 본회의를 열어
 중립국감독위 활동을 재개
 했다.

오늘 停戰委 비서장회의

北 제의로...수석대표 교체도 연구할듯

북한측이 4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비서장회의를 열어
 28일 스위스·스웨덴 대표단
 회담을 위한 본회의를 가
 지했다.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판문점 중립국감
 독위 본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중립국감독위
 대표단장인 김기남이 참석하
 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회담을 위한 본회의를
 가한다.

北 「정전체제」 내유인 「고육책」

정전의 대표 美장성대체 배경

한미 양국의 군사정전
 협상을 위한 수석대표
 교체는 정전체제의 내유
 인을 위한 고육책이다.
 북측은 정전체제의 내유
 인을 위한 고육책이다.
 북측은 정전체제의 내유
 인을 위한 고육책이다.

한국 대표양보로 北 거부명분 차단

北 일관된 와해전략... 재가동 미지수

북한은 4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비서장회의를 열어
 28일 스위스·스웨덴 대표단
 회담을 위한 본회의를 가
 지했다.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판문점 중립국감
 독위 본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중립국감독위
 대표단장인 김기남이 참석하
 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회담을 위한 본회의를
 가한다.

波 中監委 비서장회의

北 서결수...서울 임명차 렉스장



음차렘 소장

북한측이 4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비서장회의를 열어
 28일 스위스·스웨덴 대표단
 회담을 위한 본회의를 가
 지했다.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판문점 중립국감
 독위 본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중립국감독위
 대표단장인 김기남이 참석하
 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회담을 위한 본회의를
 가한다.

북한측이 4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비서장회의를 열어
 28일 스위스·스웨덴 대표단
 회담을 위한 본회의를 가
 지했다.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판문점 중립국감
 독위 본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중립국감독위
 대표단장인 김기남이 참석하
 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회담을 위한 본회의를
 가한다.

북한측이 4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비서장회의를 열어
 28일 스위스·스웨덴 대표단
 회담을 위한 본회의를 가
 지했다.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판문점 중립국감
 독위 본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중립국감독위
 대표단장인 김기남이 참석하
 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회담을 위한 본회의를
 가한다.

북한軍 DMZ정찰증가 관련

정부, 對北경고문 발송

▽조선일보 1995. 4. 28

“위반행위 재발뎀 北에 전적책임”

북한군이 27일 북한군 북쪽 국경의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정찰증가 관련 경고문 발송했다. 휴전선에서 정찰증가 관련 경고문 발송은 1994년 11월 23일(2차) 이후 19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군사부처를 통해 발송된 정찰증가 관련 경고문 중 4월 23일(3차)에 발송된 경고문이다. 휴전선에서 정찰증가 관련 경고문 발송은 1994년 11월 23일(2차) 이후 19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군사부처를 통해 발송된 정찰증가 관련 경고문 중 4월 23일(3차)에 발송된 경고문이다.

휴전선 북한軍 異常동향 안파

27일 북한군이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정찰증가 관련 경고문 발송했다. 휴전선에서 정찰증가 관련 경고문 발송은 1994년 11월 23일(2차) 이후 19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군사부처를 통해 발송된 정찰증가 관련 경고문 중 4월 23일(3차)에 발송된 경고문이다.



비무장지대 「정찰·물고기잡기」 긴장유발

2~23일 40여차례... 유엔시향의 후 주춤

한정정찰증가 위반행위를 한 정찰대의 5~6명 정도 무기를 지고 군사부처를 향해 18개 지요에서 2~23일 40여차례의 정찰행위를 벌였다. 유엔시향의 후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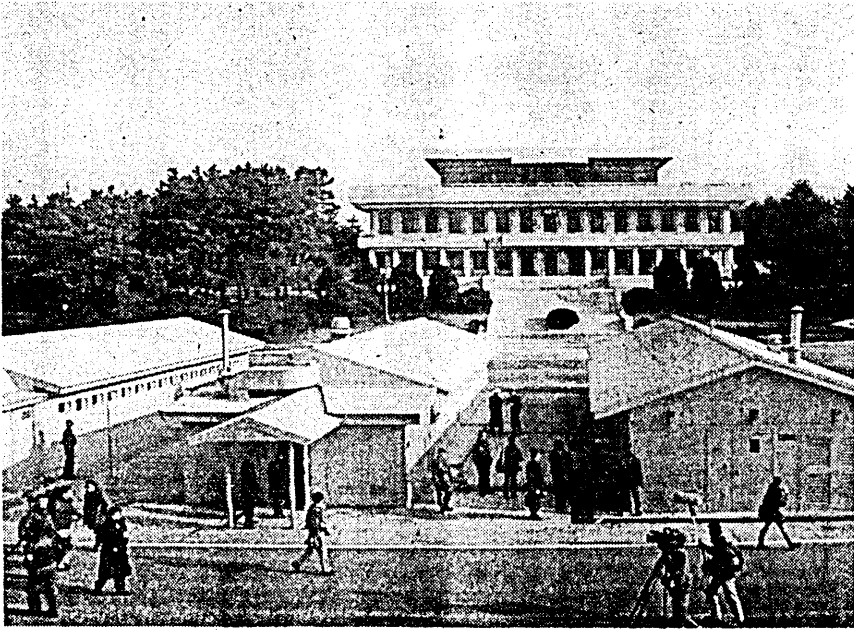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2월 31일 2차에 걸쳐 군사부처를 통해 발송된 정찰증가 관련 경고문 중 4월 23일(3차)에 발송된 경고문이다.

美, 北에 對南비방중지요청

경수로 협상타개 도둑

미국은 북한이 남쪽을 향해 핵무기를 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863호에 따른 것이다.

北태도보며 대응水位 조정



◇북한이 일반적으로 폐쇄를 발표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사무실(왼쪽) 등 판문점 북측지역의 모습.

北中監委 폐쇄 韓·美입장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된 폐쇄의 해악을 한 달의 지위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폐쇄를 발표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사무실(이하 중립국감독위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남북 대화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위 공식 언급에 촉각 곤두

우선 停戰委채널 복원 역할

“南北 非核선언이행” 逆攻도

한국의 입장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정부는 "북한이 폐쇄를 발표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사무실(이하 중립국감독위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남북 대화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정부는 "북한이 폐쇄를 발표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사무실(이하 중립국감독위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남북 대화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정부는 "북한이 폐쇄를 발표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사무실(이하 중립국감독위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남북 대화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53년 휴전때 美·中·北韓 서명 한반도 전쟁억지 기본틀 역할

전쟁종료 아닌 적대행위 정지상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 정부는 "북한이 폐쇄를 발표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사무실(이하 중립국감독위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남북 대화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北美에 「평화협정」 거론 계획

고위급회담서 휴전협정 대체교섭 시사

북한이 "평화협정"을 거론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고위급회담에서 휴전협정을 대체할 교섭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局势을 완화시키고, 남북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서울신문 1995. 5. 4

북한이 "평화협정"을 거론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고위급회담에서 휴전협정을 대체할 교섭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局势을 완화시키고, 남북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北-美將星접촉 반대” 정부

▽세계일보 1995. 5. 7

“北, 停戰협정 중대위반”

“停戰委밖 군사대화不可”

美 예비접촉설에 기본입장 밝혀

【서울 5일 연합뉴스】정부는 북한과 군사대화나 예비접촉을 허용할 것이라 고 말했다. 정부는 “북미 군사대화나 예비접촉은 정전협정 체결 후의 일”이라며 “정전협정 체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미 군사대화나 예비접촉은 정전협정 체결 후의 일”이라며 “정전협정 체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미 군사대화나 예비접촉은 정전협정 체결 후의 일”이라며 “정전협정 체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전리미, 인보리역 긴급방문

련사령관 명의 中監委폐쇄 경위실명

【서울 5일 연합뉴스】미국 정부는 5일 북한이 관문점 중립감독위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데 대해 “이는 정전협정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라고 비난하고 “만약 북한이 정전협정체제를 와해시키므로써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북-미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1995. 5. 7

“북 평화협정기대 오산” 미, 중감위 폐쇄 비난

【워싱턴=연합】미국 정부는 5일 북한이 관문점 중립감독위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데 대해 “이는 정전협정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라고 비난하고 “만약 북한이 정전협정체제를 와해시키므로써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북-미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1995. 5. 5

「북미정체제 무편향」 「북미대담수순회의」

【서울 5일 연합뉴스】미국 정부는 5일 북한이 관문점 중립감독위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데 대해 “이는 정전협정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라고 비난하고 “만약 북한이 정전협정체제를 와해시키므로써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북-미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잠정적 군사협이기구 설치 요구 예상 비무장지대 武裝化할수도

【서울 5일 연합뉴스】미국 정부는 5일 북한이 관문점 중립감독위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데 대해 “이는 정전협정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라고 비난하고 “만약 북한이 정전협정체제를 와해시키므로써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북-미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中監委 피쇄 이후

北, 對南비방 급증

방송통해 주로 군사적 이슈

북한 방송의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감을 증폭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고 있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통일방송을 들으면 북한의 통일정책은 평양방송의 대남대화의 정책과 다르며, 대남대화의 정책은 북의 대남대화의 정책과 다르며, 대남대화의 정책은 북의 대남대화의 정책과 다르며...

北韓軍 또 DMZ越境

非무장 10여명 정찰활동도

이제 김포전진지간,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을 교차한 정찰활동을 벌여 온 북한군사령부의 대남전 진군을 알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북 정찰대의 지남선 越境(越境)은 평壤(平壤)에서 남쪽으로 100여 km 떨어진 김포전진지(金浦前進地)에서 10일 오전 10시경에 시작되었다. 김포전진지(金浦前進地)에서 10일 오전 10시경에 시작되었다. 김포전진지(金浦前進地)에서 10일 오전 10시경에 시작되었다.

DMZ 추가조치」위협

北농신문 「美서무력증강」 주장

【서울=내외】북한은 14일 미국의 對北군사합력을 계속할 경우 지난 9일 발효된 중립화합의 사문(事文)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조선의 군대(北朝鮮의 軍隊)는 주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對南 군사비행 방송

이집테고 기코

북한의 군사비행 방송은 9일(목) 평壤(平壤)에서 이집테고 기코(이집테고 기코)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壤(平壤)에서 이집테고 기코(이집테고 기코)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壤(平壤)에서 이집테고 기코(이집테고 기코)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南北평화협정 제의 검토

정부 「停戰체제 유지」 守勢 대응 탈피

정부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협정 제의가 16일 양측 대표단의 정전협정 부속협약 채택을 계기로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폐쇄하고 종사고도박을 통해 남북 평화협정체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대

처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이 감시기구 설치나 남북 간 교류 등 각종 평화유지 및 신뢰구축방안 등에 대해 남북한 양측이 합의한 결론인 화합을 갖도록 하는 2단계 협상안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방안은 한국을 배제시킨 채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북한측 논리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지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金昇泳기자>

북한 「停戰협정」 허락 없으면

星條紙 추가 조치 시사
북한은 미국의 「군사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한반도 정전협정을 감시하는 군사정전위원회(MAC) 자체에 영감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가 무엇이든 발효되지 않거나 「정전감시기구」가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 조치」가 정전위원회의 자체에 관한 협의를 시사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美北에 23일 將星級접촉제의

「전정협정」 관련 협의의 「한국」 반대입장 재확인

미국은 23일 북한에 23일 將星級접촉제의 「전정협정」 관련 협의의 「한국」 반대입장 재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한국군단독관리 추진

정부는 판문점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한국군단독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남북한이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에 위치한 군사시설과 민간인 시설을 관리하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한국군단독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한국군단독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남북한이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에 위치한 군사시설과 민간인 시설을 관리하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한국군단독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停戰委 무력화 기도에 쏘기

유엔리 對北「장성급 접촉」 의제의 배경

군사정전위원회(이하 정전위)의 기동은 유엔리(유엔리)의 제안에 따라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北·美 장성급회담」 오해소지, 명칭 신중 平壤거부면 당분간 채널단절 불가피

이제 문제는 북한이 유엔리(유엔리)의 제안을 수락할지와 거부할지의 양분 방향이 될 것이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李穆熙기자〉

停戰委와 별개 회담 변질 우려

北·美 장성급 접촉 추진을 보려는 정부

정전위(유엔리)의 기동은 유엔리(유엔리)의 제안에 따라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 수석대표 빠졌다” 의미 축소 “美 빛나간 對北韓 정책” 속얇이만..

정전위(유엔리)의 기동은 유엔리(유엔리)의 제안에 따라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리(유엔리)는 1994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2일째로 진행되고 있다.

〈李穆熙기자〉

“停戰委 변질 手順” 촉각

유엔시 「장성금회담」제의 전망

유엔사가 지난 19일 북한에 제의한 「장성금 회담」의 성사여부와 더불어 앞으로 군사정전위의 형태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국방부와 유엔사는 북한이 이 제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열린 일직장교 접촉에서 북한이 평양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단 미국제의를 거절한 것은 「정전위 틀내」에서의 장성금 접촉제에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엔사측이 보낸 제안 내용 전문은 「중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일이 있으니 23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수신인은 북한측 판문점군사대표단장 이찬복 중장(소장급)이고 발신인은 데이 스미스 한-미 연합사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이다. 정전위 회담이라거나 장성금 접촉이라는 언급이 없다.

유엔사측은 제의를 전달하는 연락장교를 통해 구두로 「대표단은 수석대표가 빠지고 한·미·영·캐나다 장성 1명씩으로 구성되며 미군 대표는 스미스 소장」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소장은 지난 연말 미군 헬기가 북한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직접 북한과 협상을 했던 대표로 북한측이 일관되게 만나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그는 정전위 대표단에 끼어있

지 않아 북한측으로서는 이번 제의가 분명 수석대표를 미국군 장성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더 구미가 당길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군 장성인 수석대표가 빠져 정전위 회의로 보이지 않으며 미군 장성과 어쨌든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정전위 틀」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대표로 내보낼 경우 정전위 대표로 임명해 보낸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일관되게 미군 장성을 단독으로 만나고 싶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이같은 형태의 접촉에 응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대표단에 대해 우리측 입장은 「정전위 틀 내」라는 점에서는 수긍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의 대표단이 구성될 경우 기존 정전위가 없어지고 북·미간 직접 협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며 우려하고 있다.

당장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공중침범이나 선박나포, 총격 등을 가해올 경우 미군은 북한과 만나야 하는데 북한이 정전위를 막으려 하면 또 다른 형태의 대표단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형된 정전위 회담이 몇차례 계속될 경우 우리측 수석대표는 계속 배제되고 결국은 북·미간 직접 접촉으로 나갈 공산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李仲根기자>

정부 “변칙적접촉 계속면 北·美직거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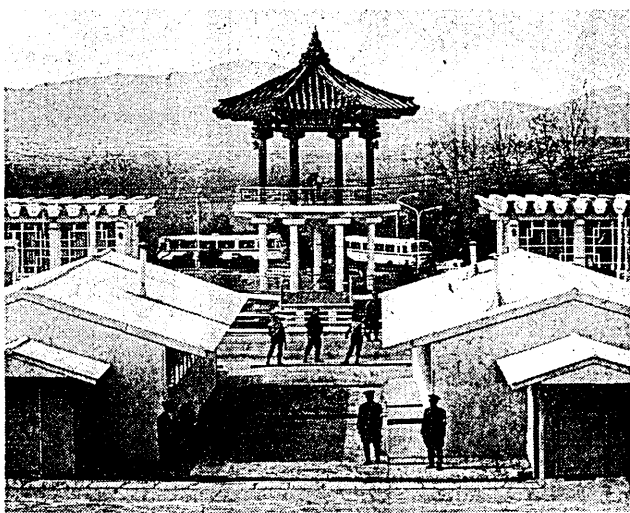
美제의 「장성금 회담」 北서 추후연락 통로 유엔사

유엔사령관인 「北美」장성금 회담과 관련해 「北美」가 22일 오후 「평양의」지침을 받아 추후 연락할 방침이라고 북·미 연합사측이 밝혔다. 유엔사령관인 「北美」장성금 회담과 관련해 「北美」가 22일 오후 「평양의」지침을 받아 추후 연락할 방침이라고 북·미 연합사측이 밝혔다. 유엔사령관인 「北美」장성금 회담과 관련해 「北美」가 22일 오후 「평양의」지침을 받아 추후 연락할 방침이라고 북·미 연합사측이 밝혔다.

“장성금접촉 美-北 직거래 아니다”

국방부가 밝힌 파문 진상

국방부는 장성금 회담이 「장성금 회담」이 아니라 「장성금 회담」이라고 밝혔다. 「장성금 회담」이 아니라 「장성금 회담」이라고 밝혔다. 「장성금 회담」이 아니라 「장성금 회담」이라고 밝혔다.



△거리 밖 駐韓유엔군사령관이 북한에 장성금 군사접촉을 제의함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문제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군이 정전위회담장 주변경계선을 하고 있다.

李군방·린두번書信통행행 합의 議題는 韓國인장 총판이 판공

“유엔시수석 美대표로 교체說” 무근

유엔시수석 美대표로 교체說 무근. 유엔시수석 美대표로 교체說 무근. 유엔시수석 美대표로 교체說 무근. 유엔시수석 美대표로 교체說 무근.

<宣鍾九기자>

유엔사무부는 25일 하오 1시 파루침에서 북한과 공동언론장외접촉을 갖고 유엔사무부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장외접촉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유엔사무부는 25일 하오 1시 파루침에서 북한과 공동언론장외접촉을 갖고 유엔사무부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장외접촉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北美간 장성회담
北韓역제의거부
유엔리, 북과 접촉**

北韓의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3일 「조선인민군 관문대대표부」명으로 성명을 발표, 「폴란드와 체코대표단이 철수한 상황에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더이상 구성될수 없다」며 북측이 관리해오던 중립국감독위 사무실과 오락실

이러 북한이 이남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것은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그들의 시종일관된 전술에서 비롯된것으로 보인다. 또 남한을 배제시킨채 미국과의 직거래를 통해 미-북관계 개선을 서두르겠다는 저의도

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이후 북한이 평화협정체결 공세를 펼치고 있는것은 이러한 속셈에 덧붙여 다분히 생존전략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동구공산권의 급속한 몰락이라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생존을

中監委사무실 폐쇄-공동경비구역 출입제한

정전협정체제 무력화 강화술책

남한 배제 美와 직거래로 평화협정체결 노려

등을 완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측의 허락 없이는 미군과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은 물론 기자들도 관문점공동경비구역 출입을 금한다고 했다. 북한은 또 「미국측이 남조선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무력증강과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 묵인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對美평화협정을 요구한것은 지난 74년3월이었다. 73년 미국과 월명이 과에서 「베트남전쟁 종식과 평화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데서 고무된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중국적인 목표인 남조선 적화통일을 달성하는데 주한미군은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다. 따라서 미군을 남한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평

보장받자는 것이다. 여기에 핵문제와 對美관계 개선을 보다 쉽게 풀어 나가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北韓은 지난해 4월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정전기구를 대신할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자」고 요구한 이래 이를 성사시키기위해 총력을 경주해왔다.

【워싱턴=申相植기자】北韓의 장외접촉이 4월 25일 이후 북-美 4월 4일 4차 회담을 전후로 크게 진전되고 있다. 유엔사무부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장외접촉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유엔사무부는 25일 하오 1시 파루침에서 북한과 공동언론장외접촉을 갖고 유엔사무부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장외접촉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WT도
北, 두달새 4차례 침범... 美, 총돌우려**

비무장지대 긴장고조

【워싱턴=申相植기자】北韓의 장외접촉이 4월 25일 이후 북-美 4월 4일 4차 회담을 전후로 크게 진전되고 있다. 유엔사무부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장외접촉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유엔사무부는 25일 하오 1시 파루침에서 북한과 공동언론장외접촉을 갖고 유엔사무부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장외접촉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北, 오늘 北-美 장성접촉제의
우리측 반대로 成事 안될듯**

【워싱턴 24일路透電】北韓의 장외접촉이 4월 25일 이후 북-美 4월 4일 4차 회담을 전후로 크게 진전되고 있다. 유엔사무부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장외접촉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유엔사무부는 25일 하오 1시 파루침에서 북한과 공동언론장외접촉을 갖고 유엔사무부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장외접촉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北韓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정전기구를 대신할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자」고 요구한 이래 이를 성사시키기위해 총력을 경주해왔다.

美軍 헬기 2대

DMZ 越境 '위기일발'

지형훈련중 실수로 아군측 신호탄 발사로 회항

지상 27일 삼오 7시 40분쯤 동북부 전선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주한미군 항공공요단 소속 UH-60 헬기 2대가 실수로 북측 지역으로 월경하기 직전 아군측 통제병의 신호탄 발사로 회항한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이 헬기는 이날 삼오지형수습지형훈련을 위해 비행하다 구조요원과 포수, 계곡을 따라 군사분계선 쪽으로 월경하던 중 공요단 소속 헬기 1대가 삼오지역에서 회항했다.

군사분계선 주변 지역에는 헬기의 월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책선이 남 30~3백m, 지점엔 5백m 간격으로 노란색의 대형 월경방지판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헬기들은 이 방지판을 지나쳐 계속 비행하던 중이었다.

이 헬기의 기종은 보잉UH-60의 등 3명의 미군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2시간 30분만 미군 헬기의 부한지역을

경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생포됐던 이후 또 다시 월경 직전의 상황까지 되풀이됨으로써 미군 조종사들의 교육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北韓軍 휴전선 신일경 한국 정치이용 경고

계리엔 美軍 사령관 【워싱턴 29일】 휴전선 신일경 한국 정치이용 경고

평화협정 체결 '北韓, 거듭 주장' 【한 29일】 北美관계가 지방과 같은 정단관계 유지를 위한 안제든지 전쟁의 발발할 수 있다면서 전쟁협정의 평화협정이란 교체의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의 수호를 거듭 주장했다.

美, 停戰委대표 기비 20원

1명서 2명으로

게리릭 주한유엔군사령관 이 지남 1월 당초 1명 이던 군사분계선의 美측 대표를 2명으로 늘릴 경우 비리에 일관한 뒤 한복을 4개월이 넘는 통보주차를 지양했음을 뒤늦게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에 제출한 한 소식통은 1일 『지남 1월 16일 러시아령의 스키 스키미연하사 기뢰관찰

北美 領官級 8일 판문점회담

美, 將星 회담 再거부

미군과 북한이 판문점 회담을 위한 판문점회담의

에 걸브릭이 가 있었다며 『이회 회담은 북측이 北美간 정전협정 체결을 다시 미루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판문점 회담을 기점으로 판문점회담을 연기했다.』

北、美에 새평화체제 추구

북한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5차 정례회에서 "남북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남북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北, 새 평화보장체제 추구 안팎

북한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5차 정례회에서 "남북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남북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停戰과기"는 강경파목소리 반영

북한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5차 정례회에서 "남북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남북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北 停戰협정, 파기 선언 구담파 "김대중, 박정희"

북한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5차 정례회에서 "남북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남북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停戰協정 파기 부질없 러시아 외부차관 회견

러시아의 외부차관인 블라디미르 루킨은 26일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휴전협정을 파기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킨은 또 "북한이 휴전협정을 파기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停戰협정이 권위적각"

북한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5차 정례회에서 "남북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남북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평화협정 대체 때까지 停戰협정 파기않겠다"

북한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5차 정례회에서 "남북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남북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Ⅲ. 남북관련 분야

3. 대북투자 상담

대우 北근로자 기술지도 추진

남포공단 가동대비... 월내 5명 派北

안되면 中 현지공장에 초청훈련

대우그룹이 북한 남포공단의 초창기인 9개 공장의 본격 가동에 대비, 기술자 파견훈련을 통해 대우직접 기술지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업체 소식통에 따르면 대우측은 남포공단의 9개 공장(아우선 3개 공장, 중흥 5개 공장)을 둘러보고 하교의 작업인원 5명 정도의 기술자를 북한에 보내 현지 부속 단위를 훈련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우측은 특히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사전으로 차질 없는 훈련을 위한 고압 기술인원 30명 정도를 유의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중흥의 관주, 상해, 무석 등의 발전공장으로 초청, 훈련을 받을 것으로

정부·요건 갖춰 공식 요청엔 허가

통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유·본체 등 경영업 분야에서 대우위탁가공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를 그 동안 북한 기술자를 에 대한 직접 기술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품질관리 등 운영의 한 발자근 이와 관련, 대우위탁가공을 위한 기술자 파견이 나 제3국에서의 기술지도는 관련 업체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공식 요청해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편 대우측은 지난 1월 초 李景勳(수) 대우부사장 등 단장으로 하는 부자조사단을 파견, 북한 당국과 남포공단 내 9개 공장 가동 방안과 시기 등을 협의한 바 있다. <眞本永기자>

▽동아일보 1995. 4. 4

효성물산-제일제당 北과 교역확대 합의

비밀정보공개위원회

【서울특보】한국 효성물산의 효성화장품사업부인 효성화장품사(대표이사 박영문)는 3월 21일 북측의 효성화장품사(대표이사 박영문)와 교역확대를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 양사는 3월 21일 서울에서 3일간 회담을 갖고 합의에 이르렀다. 양사는 이번 회담에서 화장품, 화장품 원료, 화장품 기계 등 200여종의 품목에 대해 상호 교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효성물산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측의 화장품 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효성물산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측의 화장품 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효성물산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측의 화장품 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1995. 4. 27

“北, 한국기업인 訪北금지”

“金正日이 3월말 지시” 홍콩소식통

【홍콩=金成濟기자】북한 北을 금지할 것을 교차했다. 김정일은 3월말에 북측의 북한기업인 방문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홍콩 소식통이 26일 말했다. 상향한 현지 부자들 약속

했다. 한국정부의 명에 따라나도 서사된 것이 없다. 체제, 영으로 한국 기업인들의 방문을 억제 허용하지 말 것을 대외적 제언을 추진위원회에 지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중순 나진선봉 투자 회의차 北京을 방문한 MCI 및 홍콩 텔레콤 등 외국 회사 관계자들만 있었으나, 현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방문은 일체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995. 4. 18

北의 경제개발 심판회 부산·대구 등 6개 지역

북측은 18개 지역(부산, 대구, 서울, 평양, 함흥, 개령, 선천, 철주, 원산, 료양, 청진, 남포, 개성, 해주, 함주)을 대상으로 경제개발 심판회를 구성한다. 부산 18일(부산부회 회관), 대구 20일(대구부회 회관), 개령 22일(개령부회 회관), 선천 25일(선천부회 공영기술원), 평양 26일(평양부회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 함주 5월11일(함주부회 회관), 해주 5월12일(해주 태장호텔 대회의실). <李炳光기자>

북에 상표·특허 출원

국내기업들

外國法人名의로 2개社 접수 3개社도 月内に

經協대비 산업재산권 확보

北, 수수료 件當千여弗씩 外貨벌어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시대의 대비 일환으로 외환·외국법인 명의로 자사의 상표·특허출원에 대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상표·특허출원비용이 미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이 민자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선진국에 상표·특허출원을 신청한 기업은 2개사, 3개사도 1개월 내에

저렴한 비용을 지불할 때 비록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0만원 정도의 상표·특허출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미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미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미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南北지역 작년보다 52% 늘어

4월 현재 승인액 1억1백79만달러

▽서울신문 1995. 5. 9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남북지역 승인액이 1억1백79만달러를 기록,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교착된 것과 달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한 것이다. 특히 4월 한 달은 1~4월 평균 대비 90% 증가한 1억1천79만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한 것이다. 특히 4월 한 달은 1~4월 평균 대비 90% 증가한 1억1천79만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한 것이다.

〈眞本永기자〉

▽동아일보 1995. 5. 14

北, 한국기업 초청 자제 북한이 한국 기업과의 직접 접촉을 자제하고 방북 초청장 발송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미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미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문점에 南北물류기지

經協사업 활성화위해

정부추진 北과 협의의 대구모창고 年内착수

정부는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문점에 남북물류기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문점은 18일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한류 붐이 제철을 맞아 북부자재와 공산품을 북한측이 실어올 운송편을 교환할 대구모창고를 관문점에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류 붐의 열의를 지켜 연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

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경협의 첫 사업을 맡게된 대구모창고는 남포시별곡의 흥화무장을 비롯한 경제사회문화공구의 불로불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남북물류기지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의 물꼬를 트면 서물류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

【李在根기자】

北에 설탕 5천톤 수출

제일제당 2년새 최대규모

【홍성=金成濟기자】제일제당(주)은 6월 6일 북한에 설탕 5천t(시가 2백31만5천달러)을 수출키로 지난 4일 북한의 한 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제일제당 홍성남인 대표인 金仁洙(김인수)가 13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제일제당의 설탕 수출은 한국기업의 對北 단일 박물계약으로 2년 2개월 만에 2년새 최대규모이며, 지난 3월 북한에 1천5백톤의 한류 기업인 訪北 급지령 이후 3백톤의 남북 교역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金仁洙(김인수)는 제일제당 이 6월 중 설탕 5천t을 인천서 선적, 삼천해운, 동원해운 등으로 흥남항에 하

역할 것이라면서 수출계약 조건은 FOB 기준으로 1t당 4백63달러라고 말했다. 金(김)씨는 이어 북한측이 설탕 대금의 10%인 23만1천5백달러를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90%인 2백8만3천5백달러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일본 스미토모(住友)은행 오사카 지점을 통해 제1인행 송금지점을 수입통지은행으로 한 취소통지 신용장(L

C)을 통해 이미 수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남북사업 이번주 승인

대우 남포공단 합작등..정부, 외환 특례규정 마련중

내일 통일장관회의서 확정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대우의 남포공단 합작투자 등 대북 협력사업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번 남북 '시범사업' 승인에서 쌍용의 나진·선봉지역 컨벤션센터 건립과 삼성의 이 지역 전화통신사업 등에 대해서도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관련부처

간 실무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나용배 통일부총리 주재로 재정경제원·외무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대북 시범사업 승인 원칙을 최종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로서 재정원 등 관련부처에서 북한으로의 송금 및 설비 반출을 위한 외환관리 특례규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6일의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종교인 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교류에 대한 정부의 정리된 방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성격의 종교인 방북은 허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8·15를 전후해 관문점에서 갖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중언 기자

對北기업 직접投資 첫승인

政府 大宇·高삼물산 7개 合作공장 허용

【서울 17일 (종합)】 정부는 17일 (종합) 대우가 신원(新源) 북한(北) (南浦) 공장에 대해 처음으로 대우가 직접 투자하는 첫 승인을 내며 개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우가 신원(新源) 북한(北) (南浦) 공장에 대해 처음으로 대우가 직접 투자하는 첫 승인을 내며 개시했다.



羅雄培 부총리

설비기술부자를 승인할 목적으로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을 거쳐 정부에 신청한 대우가 신원(新源) 북한(北) (南浦) 공장에 대해 처음으로 대우가 직접 투자하는 첫 승인을 내며 개시했다.

▽동아일보 1995. 5. 19

고포 對北교역권장

“北개방 기여”

【서울 19일 (종합)】 정부는 고포(高浦) 교역권(貿易權)을 북한(北)에 부여할 경우 북한(北)의 경제개혁을 촉진하고 남북교역(南北貿易)을 증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포(高浦) 교역권(貿易權)을 북한(北)에 부여할 경우 북한(北)의 경제개혁을 촉진하고 남북교역(南北貿易)을 증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1995. 5. 18

南北「 본격 經協시대」 개막

17일 정부의 남북경협사업(南北經協事業)은 본격적인 남북경협(南北經協)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남북경협(南北經協)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對北협력사업 승인

정부는 17일 남북경협사업(南北經協事業)을 승인하며 본격적인 남북경협(南北經協)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89년 제정 「교류법」 실질적 첫 적용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
對北협력사업(對北協力事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기출자를 발표할 때부터 이 미 조달된 3개 국경외에 부채(負債)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북한측** 삼진리(三津里)와 부기안(富基安) 등 3개 국경외에 부채(負債)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남북경협(南北經協)의 실질적인 첫 적용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남북경협(南北經協)의 실질적인 첫 적용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한 경협 본궤도 진입 신호

강태호 기자

이번 정부의 남북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방침은 남북경협의 본격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남북경협이 위탁가공을 거쳐 이제 소규모 시범사업이지만 합작투자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9일 북-미 제네바 합의를 배경으로 한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가 6개월여만에 첫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경협조치를 취하려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제네바 합의로 나타나고 있는 남한 배제의 북-미 협상 구도를 남북대화 병행 구도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20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북-미 핵협상에서 극도의 긴장상태가 초래되지 않는 한 남북교류협력은 '질서있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을 정했다. 핵-경협 연계론의 완화가 '시장의 논리'로 남북관계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나용배 통일부총리가 3월22일 5백만달러를 넘는 규모일지라도 소규모 합작사업을 승인하겠다는 적극적 방침을 밝힌 것은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에도 핵-경협 연계론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북한이 4월21일의 경수로 공급협정 시한을 내세워 핵동결 해제를 경고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통일원으로서 적극적인 경협논리를 내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협력사업 승인절정이 행정절차 처리시한인 5월20일까지 계속 미뤄져온 것이다.

최근 상황변화에 따라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이번 협력사업 승인방침을 내린 배경으로 작용했다.

북-미 고위급협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의 한-미-일 3자 고위실무협약에서는 한국형경수로의 관철을 위해 북-미 연락사무소 조기 설치와 대북 추가제재 완화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미국-일본 등 외국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여건이 급진전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통

신 다국적기업인 에이티앤티(AT&T), 엠사이(MCI)를 비롯해 나진·선봉지역 정유·화학발전 건설의 스탠턴 그룹 등 미국기업의 대북진출 이외에 일본의 종합상사 및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무역연구회 투자대표단의 방북 등 연락사무소 개설과 추가제재 완하는 이들의 움직임을 크게 고무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한국기업만 대북투자를 막고 있다가는 외국기업의 북한시장 선점이 현실화될 우려마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대상으로는 이미 지난 91년 북한

을 방문해 남포공단 협력사업을 협의하고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은 대우를 비롯해 쌍용(20층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과 삼성(나진·선봉지역의 전화통신사업 추진), 고합그룹(평양 인근 의류공장 건립), 엘지그룹(나진·선봉지역 전자부품 공장 가동)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우의 남포공단 합작사업은 이미 공단조성이 끝나 가장 먼저 공장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2년 1월 김우중 회장이 북한을 방문해 합의한 남포공단 건설계획에 따르면 남포시 입구에 약 2백만평의 터를 조성해 의류·봉제완구·양식기 등 모두 1천만달러 규모의 8개 경공업공장을 합작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북한은 이미 3개 공장의 건물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우는 이번 정부의 승인을 얻으면 우선적으로 셔츠·블라우스, 재킷, 가방 등 3개공장의 설비(4백만달러 규모)를 투자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대북 시범사업자 승인방침 의미·배경

교역·위탁가공 거쳐 합작투자 단계로 미·일기업 급진출따른 선점 우려판단

▽한국일보▽ 1995. 5. 18

南北경협 합작투자단계 격상

대우·고합 「對北사업」 승인배경

정부가 17일(목)의 의회 통과를 앞둔 대북협력사업자 승인방침(이하 '대북협력사업자 승인방침')을 통해 대북협력사업의 단계가 교역·위탁가공을 거쳐 합작투자 단계로 격상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북협력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며, 대북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승인 대상으로는 이미 지난 91년 북한을 방문한 대우를 비롯해 쌍용(20층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과 삼성(나진·선봉지역의 전화통신사업 추진), 고합그룹(평양 인근 의류공장 건립), 엘지그룹(나진·선봉지역 전자부품 공장 가동)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교류점진 확대」 구체조치

핵심결까지 규모는 제한

정부는 이번 승인방침을 통해 대북협력사업의 단계가 교역·위탁가공을 거쳐 합작투자 단계로 격상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북협력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며, 대북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승인 대상으로는 이미 지난 91년 북한을 방문한 대우를 비롯해 쌍용(20층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과 삼성(나진·선봉지역의 전화통신사업 추진), 고합그룹(평양 인근 의류공장 건립), 엘지그룹(나진·선봉지역 전자부품 공장 가동)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재계 北진출 본격화 전망

대우·고명방북 남포공단 가동준비 이르면 9월부터 첫 합작품 나온다

정부는 이번 승인방침을 통해 대북협력사업의 단계가 교역·위탁가공을 거쳐 합작투자 단계로 격상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북협력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며, 대북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승인 대상으로는 이미 지난 91년 북한을 방문한 대우를 비롯해 쌍용(20층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과 삼성(나진·선봉지역의 전화통신사업 추진), 고합그룹(평양 인근 의류공장 건립), 엘지그룹(나진·선봉지역 전자부품 공장 가동)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북핵' 족쇄 풀고 본격경협 물꼬 터

□ 남북 협력사업 승인 의미와 전망

민간투자 허용 전향조치 대화의지 담아 규모작으나 북요구 일치 단계진전 예상

김태호 기자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쪽의 기술과 설비가 북한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대우와 고합에 대한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은 지난 88년 7·7선언에서 남북간 모든 분야의 교류실행을 선언하고 그 해 10월 남북경제 개방조치에 따라 교역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이뤄진 본격경협 첫 조처라 할 수 있다.

지난 7년간 남북경협은 임가공의 확대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한해 2억달러 전후의 교역량에서 정체상태를 보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조치는 새정부 들어서면서 터져나온 북한 핵문제에 놀려 실자리를 잃었던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의 논리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남북경협을 적극화할 통해 냉랭한 대결상태의 남북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표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남한배제 전략에 대해 한·미 공조체제를 통해 북·미 관계개선을 남북대화과 연계시키는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내세우는 한편 남북관계에서는 당국간 대화 논리로 맞대응해 왔다. 여기에다 북한의 당국대화 거부와 민간차원 기업진출 인정이라는 '이중적 방침'에 비춰볼 때 정부의 이번 투자허용 조치는 전향적인 것으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

물론 나옹배 통일부총리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번 조치는 5백만달러의 소규모 시범사업에 국한돼 있다. 이는 지난 3월 나 부총리 스스로 5백만달러를 넘는 규모일지라도 시범사업을 승인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견주어도 다소 축소조정된 측면이 있다. 특히 사업(자)승인 신청을 낸 7개 기업 가운데 2개 기업에만 승인을 내 준 것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통일원은 남북경협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원칙'과 그동안 진행된 온 '임가공의 확대에 부합되

는 합작투자 허용이라는 2가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이미 합의를 끝낸 삼성의 나진·선봉지역 1천만달러 규모의 전화통신 사업과 쌍용의 1천5백만달러 규모의 20층짜리 컨벤션센터 등은 승인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승인 기준은 그동안 북한과 접촉한 기업들이 전하고 있는 북한의 투자희망 사업 범위와도 일치된다. 북한도 외화벌이의 지름길인 임가공 사업의 확대와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익 비누 등 생활용품 및 섬유 등 경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 유치하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나진·선봉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경우 에너지·통신·교통 기타 속박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선행투자 없이는 기업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허용 기준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협활성화 조처 이후 기업인 방북현황

| 기업명 | 방북시기 | 방문지 | 협약내용 |
|--------|----------------|----------|-----------------|
| 쌍용 | 94.12.13~12.17 | 나진·선봉 | 시멘트 합작·컨벤션센터건설 |
| 신원 | 95.1.10~1.17 | 평양·남포 | 의류임가공·교화건설 |
| 삼성 | 95.1.11~1.16 | 나진·선봉 | 전자공업단지·통신망설치 |
| 대우 | 95.1.12~1.16 | 평양·남포 | 남포경공업단지·전자부품공단 |
| 한화 | 95.1.17~1.21 | 나진·선봉 | 물류센터건설·통신시설 |
| 영신무역 | 95.2.4~2.11 | 평양 | 신발합작생산 |
| 대동화학 | | | |
| 엘지(LG) | 95.2.26~3.4 | | 임가공확대·텔레비전 조립등 |
| 효성물산 | 95.3.28~4.1 | 평양·남포·해주 | 임가공확대·봉제공장 합작 |
| 세일제당 | | | 설탕등 생필품 교역대상 확대 |

* -3월초 현재: 대기업 11개 중소기업 7개 외국기업 2개 등 모두 20개기업 1백6명 방북승인.
-18개 방북승인 기업 가운데 10개 기업이 방북.

□ 남북한 협력사업이란

박중언 기자

남북한 협력사업이란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문화·학술·체육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말하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사업자 승인과 사업 승인을 차례로 받도록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돼 있다.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먼저 북한측과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에 대한 합의를 본 뒤 사업계획서와 상대와의 합의서 등을 갖춰

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 승인을 받은 뒤 기업은 다시 구체적 사업에 대한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사업승인을 마치면 필요한 자본과 기술, 인력의 북한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사업자 승인과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상정하거나 통일원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2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동아일보 1995. 5. 19

기업 對北투자 본격채비

대우 남북포럼장 8.9일개시

사건투자준비를 위해 17일부터(대우) 차관상환을 위한 자금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우측은 이미 17일부터(대우) 차관상환을 위한 자금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우측은 이미 17일부터(대우) 차관상환을 위한 자금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TV조립-컨벤션센터 건립 LG-쌍용도 준비 박차

통상관계를 협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지역 전화통신사업은 A T&T나 AT&T 등 미국 전화업체를 의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쌍용그룹은 지난 12월 방북, 북핵과 20중 규모의 나진·선봉지역 컨벤션센터 건설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쌍용은 5월 중 김(金)영남의 전직 남북회담대표와의 사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온 뒤, 대우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LG는 TV조립과 TV조립인력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한다. (潘京源·白南興·李相植)

정부가 대우그룹의 북한 남북포럼장내설비와 교합설비의 사업자 승인을 승인할 예정이다. 두 그룹은 파견 기술진 3명씩을 본국에 남겨둔 채 북한에 파견할 예정이다. 삼성 LG 쌍용그룹은 이번 조처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주목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그룹 관계자는 18일 기자를 설치하고 북한 나진·선봉지역을 방문하기 위해(대우) 수 기출전 15,20명 신청 작업장을 벌이고 있다. 파견된 인력을 대우측은 6월 6일(대우)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견된 인력을 대우측은 6월 6일(대우)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진 내달쯤 파견키로 고삼 강서지역 공장추진

정부를 비롯한 과 합의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8.9일(대우) 사업자 승인을 승인할 예정이다. 두 그룹은 파견 기술진 3명씩을 본국에 남겨둔 채 북한에 파견할 예정이다. 삼성 LG 쌍용그룹은 이번 조처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주목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그룹은 이 지역의 전화통신사업은 A T&T나 AT&T 등 미국 전화업체를 의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南北정기항로 28일 개설

釜山, 羅津 2회 더킹항

日紙도도 두만강유역 개발 활기 예상

【노보】북조선의 羅津(로진)과 부산을 잇는 정기항로가 6월 28일 개설된다. 노보통신은 6월 28일 노보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조선은 6월 28일 정기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28일 정기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28일 정기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북조선은 6월 28일 정기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28일 정기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28일 정기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大宇기술자 15~20명 派北

【노보】북조선은 6월 9일 대우기술자 15~20명 정도를 파견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9일 대우기술자 15~20명 정도를 파견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9일 대우기술자 15~20명 정도를 파견할 예정이다.

평양기행 대표단 訪北

【노보】북조선은 6월 6일 평양기행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6일 평양기행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6일 평양기행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南北무역관 年内 상·후기 개설

賀公 北側 합의 서울·平壤에 : 무역대표부 역할

北京서 후스협상 진행 : 대기업도 사무소 개설 추진

【노보】북조선은 6월 14일 베이징에서 후스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14일 베이징에서 후스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14일 베이징에서 후스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조선은 6월 14일 베이징에서 후스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14일 베이징에서 후스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14일 베이징에서 후스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보】북조선은 6월 14일 베이징에서 후스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14일 베이징에서 후스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보통신은 또, 북조선은 6월 14일 베이징에서 후스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기술자 내달 첫 北韓체류

大宇 南浦공장 가동위해

지도요원 13명 6개월 이상 머물러

羅부총리, 北과견 문제없다

이르면 내달중부터 북한 지도요원 13명, 6개월 이상 머물러 남포공장의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에서 열린 대북정책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 기술자를 내달 중부터 남포공장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 기술자를 내달 중부터 남포공장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1995. 6. 14

북한기술자 내달에 羅부총리

북한기술자 내달에 羅부총리...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agreement and the rol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facilitating the deployment of technicians to North Korea for the Daewoo Nampo plant.)

對北 輕工業 투자 확대

羅부총리, 北과견 문제없다

羅부총리, 北과견 문제없다... (Text discusses the expansion of investment in light industry in North Korea, mentioning the Daewoo Nampo plant and the rol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조선일보 1995. 6. 24

對北 투자 송금 첫 5억

정부, 大宇 남포공장 5백12만弗

정부, 大宇 남포공장 5백12만弗... (Text reports on the government's decision to transfer 512 million won to Daewoo for the Nampo plant, marking the first investment in North Korea.)

동아일보 1995. 6. 21

南北기업인 집단商談

23일부터 中國심천서 3일, 10여 품목 대상

南北기업인 집단商談... (Text details the start of a trade fai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businesses in Shenzhen, China, with 10 categories of goods on display.)

對北 투자 송금 첫 5억... (Continuation of the article regarding the first investment in North Korea, discussing the implications for the Daewoo Nampo plant and the broader economic relationship.)

對北 투자 송금 첫 5억... (Further details on the investment and the government's stance on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Ⅲ. 남북관련 분야

4. 종교인 접촉·교류

光復50돌 8월15일 판문점서

南北교회 공동 예배

KNCC·조선기독교연맹 "조건없이 추진" 합의

「非核化」공동선언 실천 촉구

【서울=李泰煥특파원】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京都=李泰煥특파원】주미, 진행을 위한 모든 실무적인 문제를 KNCC와 KCF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추진하며, 이틀 뒤인 8월15일 판문점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서울=李泰煥특파원】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서울=李泰煥특파원】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8.15 공동예배 成事의미·전망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北, 종교 교류 적극...對南 변화 시사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海外서 꾸준한 만남 통해 상호 신뢰 쌓아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교류 활발해질 것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은, 남북교회가 8월15일 판문점에서 최초로 공동 예배를 드린 것이다.

북한경제개혁 가능성에 대해
北장관들 대담에서
全南大총학생회

【광주 5일 전파통신】경북대학교(이하 경대) 학생회가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된 대담에서 "북한경제개혁 가능성에 대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에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대담은 3시 30분에 종료되었다. 대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송추기경 訪北 허용 검토의 뜻

【서울 5일 전파통신】송추기경(송추)의 방북 허용 검토는 북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중략) ...

北 개방겨냥 정부憲志 반영

실현되면 新對北정책 본격추진



송추기경

【서울 5일 전파통신】송추기경(송추)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경제개혁 가능성에 대해'라는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북한경제개혁이 실현된다면,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추는 "북한경제개혁이 실현된다면,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중략) ...

김일성대 대표 만나는 서울대 김태식 학생회장

“해방 50돌 통일대화 희망”

열어붙은 남북관계 녹이는데 도움되길 기대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내 북한 학생대표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생각”이라며 “특히 올해가 해방 50돌인 만큼 통일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일문제와 관련해 “탈냉전시대라고 하는데도 한반도에는 현재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년학생들은 6.25를 체험한 기성세대와는 달리 한반도 문제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통일세대’인 만큼 김일성대학 학생대표와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운동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3년 제2차 평화통일 심포지엄에도 조두연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참석했으나 북한 학생대표가 불참해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북 양측이 각각 통일원과 유엔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심포지엄에 참석해도 된다는 확답을 얻은 상황이라서, 이들의 만남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이번 심포지엄이 남북 대학대표간의 공식적인 첫 만남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난해 김일성주석 사망 이후 벌어진 조문논쟁과 한국형 경수로 채택문제 등으로 남북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만남이 이런 국면을 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해방 50돌을 맞아 올해 김일성대학 학생대표를 만나 통일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쁨이 설렐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태식(24·공법 4)씨는 5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클리대에서 열리는 제4회 평화통일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직전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버클리대 한국학위원회(회장 박영신) 주최로 오는 7~9일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최측이 남북 학생대표를 모두 초청함에 따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북한 김일성대 학생위원회 대표 권호웅씨가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학생대표 만남
北측불참... 무산될 듯

【로스앤젤레스 5일 전파통신】미국 버클리대학(UC버클리)에서 7일 열리는 제4회 평화통일 심포지엄에 남북 학생대표가 참석할 수 없다고 발표된 가운데, 북측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 (중략) ...

北 학생대표 무산
北측 불참이로 무산

【로스앤젤레스 5일 전파통신】미국 버클리대학에서 7일 열리는 제4회 평화통일 심포지엄에 남북 학생대표가 참석할 수 없다고 발표된 가운데, 북측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 (중략) ...

【춘천=鄭鎭成기자】강원도의원 3명은 9일 오후 3시 30분경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통일원·경위서 제출 요구

江原道의원 3명 金日成사망애도 편지

이들받아 지난달 16일부
터 21일까지 중국 북경과
신양 등지에서 북한 대사
관 조영관·전철환·김
규봉·김영철의 집총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통일원·외교부의
응답이 북한 대사관 직원
을 통해 김정은에게 '조
선민주주의 인민화국을
김정일 인민군총사령관
귀하'라고 서신할 보낸
사실은 보고되고 그 내용
중 '김일성주석께서
저 이후 애절한 마음으로
나를 보내셨을 총사령
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가 대부
를 제출하노라 요구했다.

고무줄 잣대 통일원의 '북한접촉 승인'

동네방네

춘천/김종화 기자

북한의 김정일 군총사령관에
게 보낸 편지의 '인사말'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강원도
의원 3명은 정부와 언론의 뿌리
깊은 반통일적 사고의 벽을 빠져
리게 느끼며 북한주민 접촉승
인 반납통보문을 15일 통일원에
보냈다.

정인수(무소속·강릉), 정상철
(민자·원주), 김덕룡(무소속·영
월)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통
일원으로부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북
한주민 접촉승인을 받고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도
외달리는 뜻에서 지난달 중국에
서 북한 외교관을 통해 김정일
군총사령관 앞으로 편지를 전달
했다. 이런 행위는 통일원이 승
인해준 접촉범위에 포함되며 사
후에 자세한 접촉사실을 보고하

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의원들은 이에 따라 귀국후
통일원에 접촉내용을 자세히 보
고했고, 편지 서두에 상주(김정
일)를 위로하는 두줄짜리 인사말
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통일원의 요구를 받고 별
도의 해명서까지 보냈다.

의원들은 "통일원 등 유관기관
이 인사말과 이에 대한 해명서를
검토한 뒤 고의성·이적성·용공
성이 없으며 내부 종결처리했으
나 일부 언론기관에서 '애도편지'
로 왜곡·날조해 보도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부풀려
놓았다"며 "언론의 반통일적 태
도에 기가 질렸다"고 말했다.

또 위법사실이 없다는 것을 뻔
히 아는 통일원도 마치 애도편지
를 보낸 것처럼 언론에 대서특필
되자 느닷없이 '북한주민 접촉
승인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
술 더 뜨고 나와 문제가 걸릴
수 없이 커졌다고 앞뒤가 없는
통일원의 자세를 비난했다.

【춘천=鄭鎭成기자】강원도의원 3명은 9일 오후 3시 30분경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통일원·경위서 제출 요구

「金日成사망위로」수사

춘천지검 강원도의원 편지 보안법위반 여부 조사

【춘천=崔昌洵주보】춘
천지검은 10일 강원도의원
鄭上澈의원(민통연) 3
3명이 北韓의 金日成에게
南北교류를 촉구하는 편지
를 보내면서 金日成사망에
대한 위로내용을 담은 것

이 북한정권에 따라 본격 수
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북
측에 편지를 보내면서 金
正日의 호칭을 '인민군총
사령관'으로 한 것과 金日
成사망에 대한 위로내용을
담은 것이 남북교류협력법
과 국가보안법상의 지촉되
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원의 金
正日 편지 고발했다.

에 위로내용을 담은 것은
비록 북한쪽의 호칭을 쓸
어내려한 것이지만 당초
북한주민접촉승인
사항에서 명백히 벗어나
는 것을 알 수 없는 일이라
고 밝혔다.

「법법訪北」 왜 자꾸 터지나

중국이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text continues)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text continues)

중국은 북방지역을... (text continues)

북방지역의 개발을... (text continues)

중국은 북방지역을... (text continues)

북방지역의 개발을... (text continues)

“말로는 ‘권장’ 실제론 모두 不許”
北에 이용우려 “몸사리기 급급

중국이 북방지역을... (text continues)

북방지역의 개발을... (text continues)

중국은 북방지역을... (text continues)

북방지역의 개발을... (text continues)

중국은 북방지역을... (text continues)

북방지역의 개발을... (text continues)



남북이산가족방문신청서 접수처

남북이산가족방문신청서 접수처... (text continues)

정부 “지나친 신중론” 역효과

정부는 지나친 신중론이... (text continues)

정부는 지나친 신중론이... (text continues)

정부는 지나친 신중론이... (text continues)

정부는 지나친 신중론이... (text continues)

정부는 지나친 신중론이... (text continues)

정부는 지나친 신중론이... (text continues)

남북관계 악영향 “강정론” 후퇴

여야 민간교류 개방 촉구... 청와대 “검찰이 판단”

여야 민간교류 개방 촉구... (text continues)

여야 민간교류 개방 촉구... (text continues)

여야 민간교류 개방 촉구... (text continues)

여야 민간교류 개방 촉구... (text continues)

여야 민간교류 개방 촉구... (text continues)

金日成 사망직후
대종교, 北에 弔電

대종교는 김일성 사망 직후...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안호상씨 일행 北... (text continues)

安浩相씨 사법처리 방침

안무장장(南)의 南北교류법위반혐의로

【서울 13일 연합뉴스】 안무장장(南) 안호상(安浩相)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안무장(南)은 안호상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안무장(南)은 안호상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安浩相씨 "단군릉 참배"

평壤(平壤) 환경영역회서 연설 시우리의 힘으로, 민족이 누장에서 열린 이날 연회를 가지고 이루어야 한다. 안호상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안무장(南)은 안호상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18일 板門店통해 귀환

密入北 安浩相씨 단군陵 참배

【서울 13일 연합뉴스】 안호상(安浩相)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안무장(南)은 안호상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安浩相씨 귀환특기시 연행

訪北경의 위·활동내용 정밀조사

서울지방법원(안)은 안호상(安浩相)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안무장(南)은 안호상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주장했다고 평壤(平壤)에서 12일 보도했다. 안호상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안무장(南)은 안호상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대응교 "환경행사" 예정
불법입북한 대종교 안호상 씨의 귀환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안)은 안호상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안무장(南)은 안호상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在美교포 孫元泰씨 北 12일 11일 訪北

【서울 13일 연합뉴스】 안호상(安浩相)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안무장(南)은 안호상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北 韓자 3명 13일 環游해전 화물차의 南 韓入

【서울 13일 연합뉴스】 안호상(安浩相)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안무장(南)은 안호상 씨가 11일 평壤(平壤)을 방문한 뒤 안무장(南)에 귀환했다.

종교계

對北접촉 신중론 대두

대종교 安浩相씨 불법입북 계기 우려의 소리

북한이 올해초부터 비공식루트를 통해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한국종교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종교의 안호상(安浩相) 총전교와 김선적(金善積) 중무원장의 불법입북 사건으로 종교계의 대북접촉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대북접촉신청을 낸 곳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와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등이고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접촉을 해온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곧 방북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천주교 김수환(金壽煥) 추기경도 아직 방북신청은 내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천주교교구장으로서 북한신도를 보살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불교계 인사들이 대북 접촉을 위해 지난 89년 방북신청을 낸 안호상(안호상)과 김선적(김선적)은 대북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인 협의회·종교인 평화회의등 신청 잇따라 北韓, "위장평화 공세 이용" 노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의 방북신청은 오는 8월15일을 전후해서 서울이나 평양에서 종교인회의를 열기 위한 것. 이 회의를 통해 종교인의 단결과 의지로 남북 단절현실에 평화를 앞당겨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종교인협의회는 불교의 실천 불교전국승가회(대표 靑和스님), 개신교의 전국목회자정의 평화실천협의회(대표 柳洵圭목사), 가톨릭의 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金承勳신부), 원불교의 사회개혁교무단(대표 申明局) 등 각 교계의 진보적 단체가 지난 93년6월 결성한 범종교적 협의기구다.

한편 조국평화통일 불교인협의회는 이달중이나 오는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2차 남북한해의불교지도자간담회를 열고 불교인정례교류방안, 불교문화재공동조사, 북한 불교 성지복원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평북협은 이 모임을 위해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이미 받고 북한측에 예비 실무접촉을 제의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원불교측 인사인 원광대의 김영

두교수(원불교학과)는 학술대회를 위해 지난달 방북신청서를 제출, 오는 6월쯤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KNCC는 지난달 28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한 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국제협의회에서 북한측 대표와 만나 오는 8월15일 판문점 공동예배등에 합의했다.

KNCC는 오는 8월15일 판문점에서 남북한 청년공동예배를 올리기로 함에 따라 이달중으로 실무접촉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 곧 통일원에 대북접촉승인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갖고 대북접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종교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방북의사를 밝힐 경우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말려들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종교계의 성급한 대북접촉 움직임은 우려를 자아낸다. 따라서 종교인의 대북접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金元鴻기자)

安浩相씨 訪北행적 조사

어제板門店통해 귀환 "정치적행동한일없다" 진술

安씨 불구속, 金善積씨 拘束방심

서울지검(공안2부)은 鄭鎭(鄭鎭)을 불구속(不구속) 처분했다. 16일 판문점에서의 대북접촉행적(行跡)을 조사한 결과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고,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고,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한 간담회(간담회)를 열어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주체사상재자 신물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안호상(安浩相) 씨가 불법입북(非法入北)한 사실(事實)을 인정(認)한 안호상(安浩相) 씨(93)는 불구속(不구속) 처분(處分)을 받았다.

南北교류法 강화추진

정부 불법入北·通話 규제어려워

訪北승인등 일관성에 초점

정부는 15일 열린 남북교류법 강화추진 회의에서 불법입국자에 대한 해산과 안이비호나 국외로 안이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법 제정 이후 안이출자나 안이입자 등 불법입국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입국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법 제정 이후 안이출자나 안이입자 등 불법입국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교류법 강화추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열린 남북교류법 강화추진 회의에서 불법입국자에 대한 해산과 안이비호나 국외로 안이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법 제정 이후 안이출자나 안이입자 등 불법입국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안별 '자대' 달라 신청자들 불만

정부는 불법입국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법 제정 이후 안이출자나 안이입자 등 불법입국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구정 명문화 密入北등 예방

정부는 불법입국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법 제정 이후 안이출자나 안이입자 등 불법입국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절충목적 구체명시... 위반면 벌칙

정부는 15일 열린 남북교류법 강화추진 회의에서 불법입국자에 대한 해산과 안이비호나 국외로 안이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법 제정 이후 안이출자나 안이입자 등 불법입국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8·15 김주석(金周錫)행사 남준미우원회 발족

남준미우원회(南準米友團)가 8·15 김주석(金周錫)행사를 기념하여 발족했다. 이 단체는 8·15를 맞아 김주석(金周錫)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준미우원회(南準米友團)가 8·15 김주석(金周錫)행사를 기념하여 발족했다. 이 단체는 8·15를 맞아 김주석(金周錫)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訪中 조계종 대표단 北 종교인 접촉

조계종 대표단이 22일 중국을 방문하여 북측 종교인들과 접촉했다. 이번 방문은 남북교류법 강화추진에 따른 조치로, 양측 종교인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宗教교류 본격화 움직임

불교계 2명 오늘 訪北

金추기경 平壤行도 성사될 듯

정부, 경수로진전만 전가 검토

북측, 황해남도 평壤시 방문... 북측은 김추기경 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을 초청했다.

북측은 김추기경 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을 초청했다. 김추기경은 4월 20일 평壤시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김추기경은 4월 20일 평壤시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도영명, 박재호의 원상과 만 나 제2차 남북불교지도자 대화와 남북교류협력기원대회 개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진, 정두근, 현재 종교계의 남북문제에 대해 서로 교류관계개선에 대해 이양진, 정두근, 현재 종교계의 남북문제에 대해 서로 교류관계개선에 대해

이범의 북한에 들어가면 성산스님과 지현정사는 방북을 △남북불교사찰포럼 △금강산유점사 신계사 등 북한유지승려단 방북행영 문제 등에 대한 북측의 의견을 반영한다. 한편 6월 6일 LA에서 남북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10월 남북불교교류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 <趙敏喆·盧正容기자>

중국의인訪北 노달인영

정부방문 金壽煥 추기경 등 成事가능성

중국의인 金壽煥 추기경 등 成事가능성. 김추기경은 4월 20일 평壤시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김추기경은 4월 20일 평壤시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올 범민족대회 서울개최 결정

범민련 베이징회의... 불허편 판문점서

북한은 베이징에서 열린 3차 조국 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올해의 제6차 범민족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일원에 따르면 북한 <평양방송>은 이날 범민족 의장단 회의가 범민족대회 개최를 토의확정하면서 만일 6월말까지 남한 당국이 개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판문점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태호 기자

南北공동예배

8월13일 합의

KNCC발표



金昭暎목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남북교류협력위)는 8월 13일 합의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남북교류협력위)는 8월 13일 합의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남북교류협력위)는 8월 13일 합의했다.

在美동포·北신도 첫 연합예배

지난달 23일 平壤봉수교회서

3백여명 참여 平祝기간중엔 外國과 함교신성공

【北京=朴勝俊기자】平壤 봉수교회에서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平壤에서 처음으로 在平美동포와 北신도 연합예배가 열렸다. 평안북도 평壤시 봉수교회에서 열린 이날 연합예배에는 在平美동포 150여명과 北신도 15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예배는 平壤시 봉수교회에서 열린 이날 연합예배에는 在平美동포 150여명과 北신도 15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예배는 平壤시 봉수교회에서 열린 이날 연합예배에는 在平美동포 150여명과 北신도 150여명이 참석했다.

민간분야부터 「南北빛장」 풀기

북교민인 訪北하영배경과 의미

【서울=김영배기자】북교민인 하영배(45)씨가 3일 평壤에서 열린 南北빛장(南北빛장) 행사에 참석했다. 하씨는 이날 행사에서 南北빛장을 소개하고, 南北빛장을 통해 南北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하씨는 "南北빛장은 南北교류의 상징이자, 南北교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독교교지도자 4명 訪北

통일교인 스승인 신부 4명도... 교회·병원전립협회의

洪正吉·李東元·玉漢欽·河用祥목사등

【서울=김영배기자】기독교교지도자 4명이 3일 평壤에서 열린 南北빛장(南北빛장) 행사에 참석했다. 이 4명 교지도자는 홍정길(45) 목사, 이동원(48) 목사, 옥한근(52) 목사, 하용상(55) 목사 등이다. 이들은 이날 행사에서 南北빛장을 소개하고, 南北빛장을 통해 南北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이 4명 교지도자는 홍정길(45) 목사, 이동원(48) 목사, 옥한근(52) 목사, 하용상(55) 목사 등이다. 이들은 이날 행사에서 南北빛장을 소개하고, 南北빛장을 통해 南北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남북한 교착상태 해소 실마리 제공

核문제와 사회·문화교류 분리추진

【서울=김영배기자】남북한 교착상태를 해소할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南北빛장(南北빛장)'이 3일 평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南北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南北교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핵문제와 사회·문화교류를 분리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김영배기자】남북한 교착상태를 해소할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南北빛장(南北빛장)'이 3일 평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南北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南北교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핵문제와 사회·문화교류를 분리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김영배기자】남북한 교착상태를 해소할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南北빛장(南北빛장)'이 3일 평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南北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南北교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핵문제와 사회·문화교류를 분리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단대표 방북 이어질지 관심

YS정부들어 첫 승인... '돌연발표'이례적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서 초청 눈길

박종언 기자

천주교·기독교의 신부·목사 8명에 대한 북한방문 승인은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종교인들에 대한 첫 공식 방북허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기업인 방북 등 남북경협은 허용하였으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이용 가능성과 경수로 협상 등을 이유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종교인들의 남북교류는 뒷전에 밀려 있었다.

이런 맥락에 비춰 이번 조처는 비정치 분야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태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경수로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제재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과 종교계쪽의 대북진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이를 핵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북 승인을 계기로 종교인들의 방북과 교류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김수환 추기경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

한 교단 대표의 방북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또 이번 방북승인은 학술·예술 등 다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경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교인들의 방북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쪽 초청자가 종교단체 지도자가 아니라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라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남북 종교인의 교류를 종교 목적뿐만 아니라 나진·선봉지역의 대외개방에 필요한 여건조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초청 주체가 나진·선봉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이며, 방북 목적이 이 지역의 교회와 학교 건립에 있는 것도 북한이 이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보의 일환으로 종교인교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처는 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전향적인 것임에도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 의도의 순수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북일정도 잡혀 있지 않고 그 시기도 앞으로 열흘 뒤부터나 가능한 사항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런 신속한 업무처리와 적극적인 공개자세를 두고 통일원 주변에서는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남한종교인 북한방문일지

| 시기 | 방문자 | 비고 |
|-------|---------------------------------|---------------------|
| 81.6 | 김성라 목사 | 남한출신목사로는 처음 |
| 84.3 | 고마태오(종욱) 신부 | 남한출신 신부로는 처음 |
| 86.4 |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한국계목사(이승만 외 2명) | 북한 공식방문 |
| 87.7 | 대원스님(하와이 거주) | 남한출신 승려로는 처음 |
| 89.3 | 문익환 목사 | 조평통과 공동성명발표 |
| 89 | 이대경 목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이래 처음 |
| 91.9 | 곽선희 목사(소망교회) | 정부승인 차과병원지원협의 |
| 91.11 | 문선명 목사(통일교과주) | 대북투자협의 및 통일문제 협의 |
| 92.1 | 권호경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정부 승인 화년5개년 사업협의 |

경선 남북민간교류등 심토

북한은 1995년 5월 15일 8.15 전쟁 50주년을 맞아 남북민간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남북민간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남북민간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경제협력의 일환... 김추기경의 신동

경선 남북민간교류등 심토

경선 남북민간교류등 심토

기도 끝날때마다 목메인 "아멘" 예수像 없이 십자가만 걸린 교인도 40代 넘는 중년들뿐

이제부터는... (기사 일부)

이제부터는... (기사 일부)

주향 피수행의향

“평민전사할 때면
북과 8.15개천절이
진계절이 된다”
... (기사 일부)

동아일보 1995. 5. 5

기행의날

손내민 南—뱀머린 北

손내민 南—뱀머린 北

金추기경 訪北 성사되려나

통일원 일부종교인 허용따라 초미 관심사로

최근 통일원의 종교인방북 허용방침이 전제되고 일부 종교인들의 방북허가로 연결되면서 올해 초부터 방북을 희망해온 金壽煥추기경의 방북 성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金추기경은 올해초 「가톨릭신문」과의 신년 대담에서 방북희망의 뜻을 각별하게 피력했다. 해방 및 분단 50주년을 맞는데다 金추기경이 평양교구장서리로 임명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여서 金추기경의 방북희망은 더욱 강하게 비쳐졌다.

金추기경은 또 올해들어 통일문제를 전담할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崔昌武주교)를 교구장직속으로 설치하고 명동성당에서 통일특강을 마련하는 등 통일문제에 전례없는 관심을 보여왔다.

북한가톨릭과의 만남도 지난 2월과 4월 2차례 성사됐다. 지난 2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북한의 조선천주교인협회 張在哲 중앙위원장 일행과 미주 한인신자들이 만났던 이어 지난달 17~30일 안尙仁신부를 단장으로 하는 미주 한인신자 북방방문단이 방북했다.



평양교구장 서리 임명 20주년을 맞아 방북성사 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金壽煥추기경.

이같은 안팎의 상황에 비춰 金추기경의 방북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점쳐지

고 있다.

그간의 만남에서 남한측은 金추기경의 방북 희망 의사를 전했고 북측은 金추기경을 구두로 초청하는 등 서로간의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또 통일원의 남북종교인 접촉 허용방침 및 지난주 개신교와 천주교 인사 8명의 방북승인 등도 이같은 가능성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북측 구두초청...가능성 높아져

평양교구장 서리 자격으로

미사집전 신자접견등 종교행사 계획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정작 金추기경 비서실이나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은 金추기경의 방북계획에 대해 함부로 일관하고 있으나 「민화위」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정부 및 북한측과 어떤 방식으로든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교계 내에서도 金추기경의 방북에 대비해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金추기경 방북은 평양교구장 서리라는 종교지도자의 자격으로서만 북한에 갈 것이라는 게 추기경 비서실의 전언이다. 金추기경의 방북일정은 평양의 장충성당에서의 미사를 집전하고 신자를 접견하는등 종교행사에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평양 대동강 담현리 순교유적지를 비롯한 천주교 유적지 순례도 방북일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金추기경의 방북이 기대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사제가 있는 남한가톨릭과 평신도뿐인 북한가톨릭이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나의 문제가 우선 대두된다.

실제로 지난달 방북했던 미주신자방문단은 평신도인 장충성당 車星根회장이 미사전례 공

동집전을 요구해 북한신자들과의 공동미사계획을 포기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북한측이 金추기경의 방북으로 별반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방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회의참석차 교황청을 방문중인 金추기경이 12일 귀국하면 방북여부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徐華東기자>

8·13 판문점 남북공동예배 확정

7·10 백두·한라산기도회 - 8·15 인간띠잇기대회도

KNCC통일희년행사 일정 발표

7~8월 열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통일희년행사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KNCC는 8월 8·13판문점 남북공동예배와 95희년대회, 해외희년순례, 광복 50주년 인간띠잇기대회를 골자로 한 공식일정과 행사내용안을 발표했다.

KNCC측에 따르면 8·13판문점 남북공동예배는 같은 시각 임진각에 일반교인 1만여명이 모여 별도로 갖는 「평화통일기원 공동기도주일연합예배」와 함께 진행된다. 또 동시에 전국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연합예배를 갖도록 해 희년분위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다. KNCC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공동예배장소는 판문점내 공동경비구역이 유력하다」며 「당국과 협의해야겠지만 남한측 참석자는 교계대표등을 포함해 30~50여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월10~12일 개최되는 「95희년대회」에는 국내및 해외동포 교회

대표들과 20여개국 NCC대표등 3백여명이 참석한다. 대회는 90년대 희년운동평가와 평화통일안 제안, 앞으로의 희년운동방안에 대한 토론회등으로 구성되며 「95희년평화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회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 드웬옵스회장과 콘라드 라이저총무, 아시아교회협의회(CCA) 임원등 세계적인 교계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장소는 감리교여성선교회관과 광림교회 기도원중에서 조만간 택일키로 했다.

이에 앞서 6월27일~7월3일, 7월8~13일에는 1, 2차 해외희년순례단이 조직될 예정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1차 해외순례단은 미주한인교회의 평화통일 추진협총회에서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들과 만나며 현지 남북문화축제에도 참석한다. 2차 순례단(중국)은 북경에서 희년기원예배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7월10일 정오 백두산

KNCC희년행사 일정표

| | |
|----|---|
| 6월 | △1차 해외희년순례(27일·미국)
-미주 한인교회 평화통일 추진협참석
-남북 문화축제 참석 |
| 7월 | △1차 해외희년순례(3일까지)
△2차 " (8~13일·중국)
-희년기원예배(북경)
-10일 낮12시 속죄일 산상기도회 (백두산-한라산, 가능하면 판문점)
-연길지역 희년기원 예배 |
| 8월 | △기독교청년협의회 희년대회(국내·3~5일)
△ " " (국제심포지엄·7~9일) |

| | |
|----|---|
| 8월 | △교회여성 희년대회(8일·백주년기념관)
△「95희년대회」(10~12일·감리교여성선교회관 또는 광림교회기도원)
-희년방안토론회, 평화통일희년선언
△「95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13일)
-오전:개교회예배
-오후:전국연합예배(임진각, 판문점 공동예배와 같은 시각 진행) 지역별 연합예배
△「남북 희년 판문점 공동예배」(13일)
△「광복50주년기념 남북 인간띠잇기 대회」(15일·독립문~임진각 예정) |
|----|---|

한라산 판문점에서 속죄일 산상동시기도회를 갖는다. 또 연길지역을 방문, 희년기원, 수요예배도 개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8월15일 광복50주년기념 인간띠잇기대회가 KNCC와 6개교단, 5개단체가 참여하는 대회본부 주관으로 독립문~임진각 구간에서 펼쳐진다. 대회본부

관계자는 「참가규모와 대회의 성격을 93년도 행사와 동일한수준에서 조정키로 각 교단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KNCC측은 「확정된 희년행사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될 것」이라며 「남북공동예배를 비롯한 전체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盧亨碩>

「북한인권 대책회의」 신설

北送교포·언류자 적극구대처

종교단체 통일일관련 정치성 행사 不許

【서울 16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책회의」 신설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6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책회의」 신설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6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책회의」 신설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6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책회의」 신설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6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책회의」 신설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6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책회의」 신설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6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책회의」 신설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6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책회의」 신설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南北 민간교류 정치성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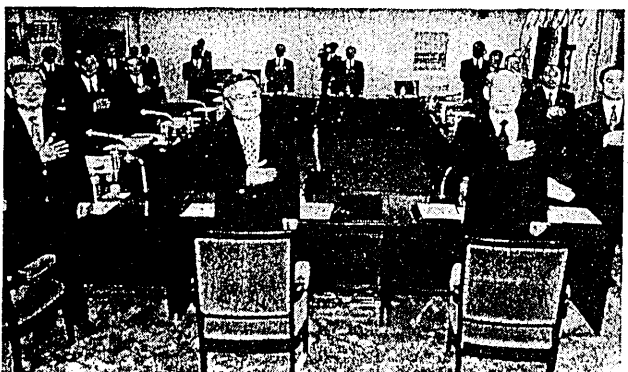
정부 對北교류지침 배경

【서울 16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책회의」 신설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국민이간 北전술 '빼기'

우발사태등 우려 板門店공동행사 不許 관계개선 없인 經協도 잠정보류 가능성

【서울 16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책회의」 신설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6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 대책회의」 신설을 발표하고,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대책회의」가 「북한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月珠스님訪北 긍정 검토

정부 불교유적지 복원문제 협의

【서울 10일 특파원 김성환 기자】 북한이 스승 스님(月珠스님)을 초청해 평壤에서 8·15 공동법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불교유적지 복원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스님 초청에 대해 "북한이 스님 초청을 통해 불교유적지 복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 초청을 통해 남북 불교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스님 초청에 대해 "북한이 스님 초청을 통해 불교유적지 복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 초청을 통해 남북 불교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北韓방문절차

정부와 근접 협의

【서울 11일 특파원 김성환 기자】 북한이 스승 스님(月珠스님)을 초청해 평壤에서 8·15 공동법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불교유적지 복원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스님 초청에 대해 "북한이 스님 초청을 통해 불교유적지 복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 초청을 통해 남북 불교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스님 초청에 대해 "북한이 스님 초청을 통해 불교유적지 복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 초청을 통해 남북 불교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南北佛敎대표 노일 회담

北京서 8·15공동법회 협의

【서울 10일 특파원 김성환 기자】 북한이 스승 스님(月珠스님)을 초청해 평壤에서 8·15 공동법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불교유적지 복원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스님 초청에 대해 "북한이 스님 초청을 통해 불교유적지 복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 초청을 통해 남북 불교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스님 초청에 대해 "북한이 스님 초청을 통해 불교유적지 복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 초청을 통해 남북 불교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종 대표단 7월 訪北 합의

南北 불교관계자 北京 회담

【서울 23일 특파원 김성환 기자】 북한이 스승 스님(月珠스님)을 초청해 평壤에서 8·15 공동법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불교유적지 복원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스님 초청에 대해 "북한이 스님 초청을 통해 불교유적지 복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 초청을 통해 남북 불교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스님 초청에 대해 "북한이 스님 초청을 통해 불교유적지 복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 초청을 통해 남북 불교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교계 대북교류 촉진계기될듯

판문점 통과 '분단벽 낮추기'...교류 연례화에도 의견 접근

□ 조계종 총무원장 방북합의 의미

베이징 / 안영진 기자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의 이번 방북 합의는 남북한 불교계 최고지도자 사이의 합의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대종교 안호상 총전교의 '불법'입북과는 달리 공식 경로를 통해 남북한 불교 최고지도자의 합의로 방북이 성사된 것은 종교계의 남북교류가 본격적인 기류를 타는 신호탄으로 풀이할 만하다.

또 방북 때 판문점을 통한 유로를 이용하기로 한 것은 종교 차원의 남북교류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의 벽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판문점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의 허용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조계종이 정치적 색채를 일체 배제한 가운데 이룬 이번 방북 합의는 '순수한 종교적 교류'를 고수하는 정부 입장에도 일치해 종교계의 대북 접촉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 참석한 김법타 조국 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부회장은 "월주 원장의 방북을 8·15 판문점 공동법회 개최와 연계해서는 북쪽 제안에 대해 정부 당국의 불허 방침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태도를 분명히했다"고 법 테두리 안 남북교류 입장을 확신했다.

북쪽도 이에 대해 "통일을 위해서는 갖가지 장애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8·15 공동법회의 판문점 개최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조계종의 연계불가 입장에 밀린 것으로 비치고 있다.

한편 시현 부장 등 남쪽 불교대표 3인과 박태호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등 북쪽 대표 3인은 23일 오후 베이징에서 8·15 남북공동법회 등에 관한 2차 남북회의를 열고 남쪽이 제안한 △북한의 불교병원 건립 △북한 불교유적지 복원 봉사 지원 △남북 불교계 만남을 매년 4월8일로 정례화 △8·15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남북해의 불교지도자 연석회의 개최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것도 월주 총무원장의 방북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宋月珠스님 訪北 혁명기로

정부 "북조선정권과 하자영"...

【서울=연합】북한이 최근 남한을 방문한 스님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스님인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남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남한에 있는 불교계 인사들에게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으며,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으며,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28개 교단·단체 초청 판문점 시찰

문체부 남북공동예배 불허 뒤 성사... 배경 "주목"

정부가 남북한 공동 통일희년 판문점집회를 불허한 가운데 5일 교계의 주요교단과 단체의 총무 및 남북관계책임자를 초청, 판문점을 일일시찰토록 해 주목된다.

문화체육부는 이날 오전 예장통합 합동 고신 대신 고려 가장 기감 기침 합동정통 기하성등 19개교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복음주의협의회등 9개단체의 총무 및 남북통일책임자 50여명을 초청, 버스편으로 판문점을 방문했다.

문화체육부가 주요 개신교단과 단체의 대표들을 대거 초청해 판문점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기독교도연맹의 통일희년 판문점공동예배가 불허된 가운데 이루어져 최근 남북한 상황과 관련, 교계의 남북교류에 일정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주요인사들의 판문점방문은 통일원에서 추진해 왔는데 6월

과 7월에 판문점방문이 비어 있어 문화체육부 총무실이 기독교계인 사 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의 한 관계자는 '판문점을 방문해 최근의 남북한 대결상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 옹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사의 대규모 방문이 자칫 오해받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의 각 교단과 단체 대표들이 남북분단의 현실과 상황을 분명하게 알고 통일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일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李昇翰>

한겨레신문 1995. 6. 24

평양 남북영화제 추진

강대선 감독 남북영화교류협력위 발족

통일원은 접촉신청 반려

영화감독 강대선씨는 오는 8월15일 평양에서 남과 북, 그리고 해외영화인들이 참여하는 평양남북영화제를 추진중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이날 남산 외교구락부에서 발족된 '남북영화교류협력위원회' 첫 모임에

서 이같이 밝힌 강씨는 이 협력위가 90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회 남북영화제의 정신에 바탕을 둔 이번 영화제의 추진 창구가 되리라고 밝혔다. 강씨는 평양영화제 개최 제의를 재미동포 영화인 주동진 북미문화예술교류협의회 대표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주씨는 뉴욕 남북영화

제 때 남쪽 대표인 강대선씨 및 북쪽 대표단장 엄길선 감독과 함께 영화제 집행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한편 통일원은 강씨가 영화영화업 협동조합 이사장 직함으로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신청했으나, 직함문제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도동환 대동흥업 이사장과 임기를 절반씩 맡는다는 조건으로 공동이사장에 선출됐으나, 문체부가 공동이사장제를 승인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이날 강씨는 공동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새 남북영화협력기구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숙 기자

한국일보 1995. 5. 31

北對南송고단 체면치러

【서울=연합】북한이 최근 남한을 방문한 스님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스님인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남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남한에 있는 불교계 인사들에게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으며,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한겨레신문 1995. 6. 27

'통일희년' 남북대회 합의

기독교계대표, 서울·평양서 열기로

광복50주년 기념 평화통일 희년대회 준비위원회(총재 임옥·이만신 목사)는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북쪽과 접촉해 오는 8월12일 서울 여의도 희년대회와 8월15일 평양 희년대회에 남북한 기독교계 대표가 각각 판문점을 경유해 참석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봉성·홍재철 목사 등 준비위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베이징 트레이드호텔에서 북한 대남통일전선사업부 전금철 부부장, 금강산개발주식회사 박경룡 사장 등과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7월12일 베이징에서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준비위는 지난 4월 정부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고 베이징과 도쿄에서 모두 네차례 북한쪽과 예비접촉을 갖고 합의를 끌어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위와는 별도로 △지난 3월 교토회에서 조선기독교도연맹과 합의한

8월13일 판문점 남북공동예배 △ 남북나눔을 위한 헌금과 운동 △8월15일 남북인간띠 잇기대회 등의 희년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영진 기자

한국일보 1995. 6. 25

개신교 訪北 계획 포기

【서울=연합】북한이 최근 남한을 방문한 스님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스님인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남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남한에 있는 불교계 인사들에게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으며,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동아일보 1995. 6. 30

文동사부인 평양문화

【서울=연합】북한이 최근 남한을 방문한 스님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스님인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남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남한에 있는 불교계 인사들에게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으며, '북조선정권과 하자영'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Ⅲ. 남북관련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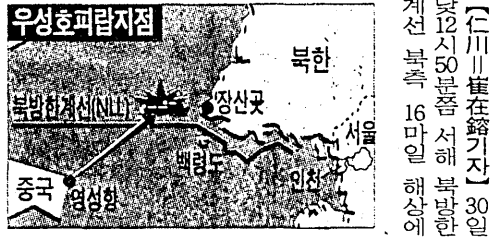
5. 북, 「제86 우성호」 나포

北, 총격 납치 中에 나포 귀환하던 어선

▽동아일보 1995. 5. 31

2명死亡·1명負傷 추경

국방부 "北方한계선 넘었지만 公海上" 해경-해군 「나침반 어선」 통제에 "구멍"



〔仁川=崔在鎔기자〕 30일 낮12시50분쯤 서해 북방한계선 북측 16마일 해상에서 우성호수상선대표 韓載水(합계수)인척시 중구 함흥(소속 인천서점) 저인양어선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가 북방한계선으로부터 피격을 당한 후 북한으로 피랍됐다. 북한경비정의 총격으로 선원 8명 중 2명이 죽고,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경 청와대에서 "사망자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해경정찰대에 86우성호가 28일 오후 2시쯤 중구 함흥(山東산물) 앞바다 우성호수상선대표 韓載水(합계수)인척시 중구 함흥(소속 인천서점) 저인양어선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와 함께 서해상에서 조종장교 2명, 선원 10명, 어부 4명 등 총 14명, 배 2척을 인양했다. 배는 27일 오후 4시쯤 강원도 회사소속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와 함께 서해상에서 조종장교 2명, 선원 10명, 어부 4명 등 총 14명, 배 2척을 인양했다. 배는 27일 오후 4시쯤 강원도 회사소속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와 함께 서해상에서 조종장교 2명, 선원 10명, 어부 4명 등 총 14명, 배 2척을 인양했다.

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인근해역에서 조종장교 2명, 선원 10명, 어부 4명 등 총 14명, 배 2척을 인양했다. 배는 27일 오후 4시쯤 강원도 회사소속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와 함께 서해상에서 조종장교 2명, 선원 10명, 어부 4명 등 총 14명, 배 2척을 인양했다.

기장인척시 남동구 구원시 용현면(송림면)▲차재열(44)·인천시 중구 함흥(소속 인천서점) 저인양어선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와 함께 서해상에서 조종장교 2명, 선원 10명, 어부 4명 등 총 14명, 배 2척을 인양했다.

「停戰委 체제」 파괴 일환이다

우성호 피랍은 북한이 현 군사정체제를 전유와 정정체제를 대체할 부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의 주된 목적이 있다. 북한이 군사정체제의 무효화를 꾀하고 있다. 또 미북간의 새 평화협정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북한이 군사정체제를 파괴하고 있다.

〈洪錫後기자〉

"비무장어선에 발포했다"

어선어 피격 이마저마

【인천=朴善禧·朴正龍】 중구 함흥(소속 인천서점) 저인양어선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가 북방한계선으로부터 피격을 당한 후 북한으로 피랍됐다. 북한경비정의 총격으로 선원 8명 중 2명이 죽고,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경 청와대에서 "사망자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해경정찰대에 86우성호가 28일 오후 2시쯤 중구 함흥(山東산물) 앞바다 우성호수상선대표 韓載水(합계수)인척시 중구 함흥(소속 인천서점) 저인양어선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와 함께 서해상에서 조종장교 2명, 선원 10명, 어부 4명 등 총 14명, 배 2척을 인양했다. 배는 27일 오후 4시쯤 강원도 회사소속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와 함께 서해상에서 조종장교 2명, 선원 10명, 어부 4명 등 총 14명, 배 2척을 인양했다.

선원 대부분 탈진상태서 피랍

우성호수상선대표 韓載水(합계수)인척시 중구 함흥(소속 인천서점) 저인양어선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가 북방한계선으로부터 피격을 당한 후 북한으로 피랍됐다. 북한경비정의 총격으로 선원 8명 중 2명이 죽고,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경 청와대에서 "사망자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해경정찰대에 86우성호가 28일 오후 2시쯤 중구 함흥(山東산물) 앞바다 우성호수상선대표 韓載水(합계수)인척시 중구 함흥(소속 인천서점) 저인양어선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와 함께 서해상에서 조종장교 2명, 선원 10명, 어부 4명 등 총 14명, 배 2척을 인양했다. 배는 27일 오후 4시쯤 강원도 회사소속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와 함께 서해상에서 조종장교 2명, 선원 10명, 어부 4명 등 총 14명, 배 2척을 인양했다.

▽서울신문 1995. 5. 31

北, 나포 귀환의

북한이 30일 한 어선 86우성호수상선대표 韓載水(합계수)인척시 중구 함흥(소속 인천서점) 저인양어선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가 북방한계선으로부터 피격을 당한 후 북한으로 피랍됐다. 북한경비정의 총격으로 선원 8명 중 2명이 죽고,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경 청와대에서 "사망자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해경정찰대에 86우성호가 28일 오후 2시쯤 중구 함흥(山東산물) 앞바다 우성호수상선대표 韓載水(합계수)인척시 중구 함흥(소속 인천서점) 저인양어선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와 함께 서해상에서 조종장교 2명, 선원 10명, 어부 4명 등 총 14명, 배 2척을 인양했다. 배는 27일 오후 4시쯤 강원도 회사소속 86우성호수상선 金福善(1백1t)와 함께 서해상에서 조종장교 2명, 선원 10명, 어부 4명 등 총 14명, 배 2척을 인양했다.

| 남북일자 | 어선명 | 승선인원 | 귀환일자 | 장소 |
|-----------|---------|------|-----------|----|
| 76. 8. 30 | 제3신진호 | 23명 | 76.10.14 | 동해 |
| 80. 1. 25 | 해왕6호 | 12명 | 80.11.12 | 서해 |
| " | 해왕7호 | 12명 | " | " |
| 80. 9. 8 | 제2남진호 | 19명 | 81. 5. 20 | 동해 |
| 80.12. 2 | 제2태창호 | 17명 | 81. 8. 4 | 서해 |
| 81. 6. 11 | 제1공영호 | 21명 | 81.12.18 | " |
| 82. 7. 13 | 마산호 | 35명 | 82. 9. 29 | 동해 |
| 85. 2. 5 | 광남호 동주호 | 21명 | 85. 3. 1 | 서해 |
| 85.10. 6 | 제2계영호 | 12명 | " | " |
| 87. 1. 15 | 제27동진호 | 13명 | " | " |
| 87.10. 7 | 제31진영호 | 13명 | " | " |

미묘한 시기에 「발생」 주목

北의 어선拉致를 보는 시각

이민의 유입이 미묘한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북의 어선 남북을 통해 귀환한 어선원들이 북에서 남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북의 어선 남북을 통해 귀환한 어선원들이 북에서 남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송환요청에 北韓태도도 미지수
軍事문제화할때 상황 달라질수도

북의 어선 남북을 통해 귀환한 어선원들이 북에서 남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북의 어선 남북을 통해 귀환한 어선원들이 북에서 남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北韓 우성號 납치

긴장用인가... 화해用인가

對北협상과정 北 본심에 관심

對北 협상 과정에서 북의 본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이번 납치 사건을 통해 협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긴장용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이번 납치 사건을 통해 협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긴장용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번 납치 사건을 통해 협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긴장용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이번 납치 사건을 통해 협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긴장용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번 납치 사건을 통해 협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긴장용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이번 납치 사건을 통해 협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긴장용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拉北선원 즉각 송환”

韓赤, 北에 촉구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즉각 납치된 선원들을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에 즉각 납치된 선원들을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에 즉각 납치된 선원들을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에 즉각 납치된 선원들을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피랍어선 海軍 유도잠못 확인

위치 모른채 다른商船 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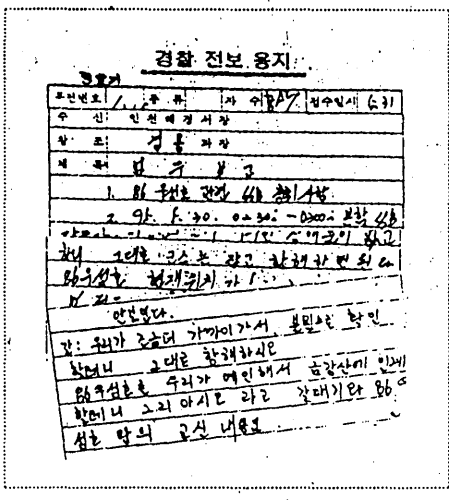
정찰 電報용지 분석결과 판명

【서울=鄭淑賢기자】제86우정항공기 불발중 피랍된 어선의 위치를 정찰하는 과정에서 정찰본의 분석결과를 파악한 해군 지휘관들은 "피랍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탈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탈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탈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탈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탈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탈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정찰본의 분석결과를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찰본의 분석결과를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랍어선 海軍유도못따라 航路 이탈

국방부 "착오생긴듯... 직접유도 안한건 유감"

국방부는 30일 피랍된 86우정항공기 불발중 피랍된 어선의 위치를 정찰하는 과정에서 정찰본의 분석결과를 파악한 해군 지휘관들은 "피랍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탈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탈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北피랍우성號 中나포안됐다

국방부도 해군비행기 파이로 간략

북한이 30일 피랍된 86우정항공기 불발중 피랍된 어선의 위치를 정찰하는 과정에서 정찰본의 분석결과를 파악한 해군 지휘관들은 "피랍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탈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탈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탈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이탈한 어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시했다.

미국 전수권... 89년 1월 1일 중국 전수권... 1월 1일 중국 전수권... 1월 1일 중국 전수권...

「89년 1월 1일」被拉「일제」... 지난날 30일 서해상의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한 위치 파악을... 해이탈의 사탕...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양구사형... 아까지...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제송환될지...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北 피랍 어선 수회합 기정서

美리치그스인원 離韓 회견

북한 피랍 어선 수회합 기정서...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아전여 수회합전북 제이 韓赤

아전여 수회합전북 제이 韓赤...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中 피랍 어선 8명 27일 귀국

제 85 어선 회

제 85 어선 회... 23일... 27일... 29일... 30일... 31일...

우성호 선원 송환 北赤에 협조 촉구

韓赤 姜중재 선명

우성호 선원 송환 北赤에 협조 촉구...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회의실에서...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89년 1월 1일...

Ⅲ. 남북관련 분야

6. 일·북 접촉 등

北·日 내달 修文협상

【東京=연합】다나 외무성(外務省)은 2일(현지시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일본은 내달 중 평壤에서 修文(修文)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나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3월 말에 평壤에서 일본 대표단과 회담을 가졌고, 양국은 협상 일정과 장소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은 협상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일본의 식량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에對北 신중협상 추구

정부가 '어느날' 日 대표단에 전례

정부는 2일 북한과의 협상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31일(현지시간) 일본 대표단에게 전례를 베풀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단에게 전례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단에게 전례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日北 협상 재개와 정부 반성

정부는 2일 일본과 협상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단에게 전례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北「韓美日 공조개기」전략... "시기부적절" 우려

한미일 3국 공조개기를 추진하는 북한의 전략이 시기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시점에서 공조개기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南北 대화 권하자 北발발 25일



「弔問」保安法문제 집중거론

경수로 타협여지 있는듯한 인상

【평양=연합】북한은 25일(현지시간) 평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 권하자"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는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대화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 권하자"고 밝혔다.

北에 핵합의 이행 촉구

美英 정상

【워싱턴 5일路透】북한이 핵합의 이행에 있어 진척이 없는 한, 미국과 영국은 4월 15일 이후에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은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미국과 영국은 4월 15일 이후에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미국과 영국은 4월 15일 이후에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은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미국과 영국은 4월 15일 이후에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NPT 준수 조건 北韓 원조

「核협박」先例 우려

英의회

【런던 5일路透】북한이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미국과 영국은 4월 15일 이후에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은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미국과 영국은 4월 15일 이후에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미국과 영국은 4월 15일 이후에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은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미국과 영국은 4월 15일 이후에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日、北과 週內 수교 접촉

사이토 외무차관 경수로 시한 상관없이 협상 재개

【도쿄 5일路透】일본은 북한과 수교 협상을 자임스럽게 재개할 것이라고 외무부 차관 사이토 요시미쓰는 5일 밝혔다. 사이토는 "북한이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일본은 4월 15일 이후에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토는 "북한이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일본은 4월 15일 이후에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獨 北에 火電 건설 추진

20만 kw 규모... 나진·선봉 유력

【도쿄 5일路透】일본은 북한과 수교 협상을 자임스럽게 재개할 것이라고 외무부 차관 사이토 요시미쓰는 5일 밝혔다. 사이토는 "북한이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일본은 4월 15일 이후에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토는 "북한이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일본은 4월 15일 이후에 핵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白 수교협상서 核문제 논의 배제

金容淳 북한 외무장관

【평양 5일路透】북한 외무장관 김용춘은 5일 평양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90년 9월 채택된 '3.10선언'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북-백 수교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춘은 "북한은 90년 9월 채택된 '3.10선언'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북-백 수교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90년 9월 채택된 '3.10선언'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북-백 수교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춘은 "북한은 90년 9월 채택된 '3.10선언'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핵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없는 한, 북-백 수교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日 수교교섭 늦어질듯

경수로협상 난항, 조기 再開 의문

러산 북한과 미국의 교섭이 나중을 끌어들여 대북 협상과 일본의 수교협상 교섭 재개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이 교섭 재개를 위한 협정 초안안을 발의했지만 수교협상과 관련된 경제 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다면적 협상안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의 무성(무)와 하타 내각이 교섭을 재개할 경우 이 교섭 재개를 위한 협정 초안안을 발의했지만 수교협상과 관련된 경제 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다면적 협상안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이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은 추후 교섭을 재개할 때 발의할 협정 초안이나 조교섭 재개를 위한 문서를 접해가늘어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은 북한의 교섭 재개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보았으나 이 협정안을 포함해 북한의 수교협상에서 두루지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을 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무성(무)은 협정 초안 발의에 대해 "교섭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북한은 교섭 재개에 대한 협정 초안 발의가 협정 재개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과 교섭을 재개할 경우 이 교섭 재개를 위한 협정 초안안을 발의했지만 수교협상과 관련된 경제 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다면적 협상안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이 지적했다.

"日 언론들 北정권 홍보 앞장"

金正日 인터뷰-평양지국 개설 속셈

일본과 교섭을 재개할 경우 이 교섭 재개를 위한 협정 초안안을 발의했지만 수교협상과 관련된 경제 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다면적 협상안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이 지적했다.

「NPT 연장」회담 개막

일본 무성(무)서 1백76국 기조연설 시작

【뉴욕=羅潤도원 특파원】21세기 인류의 핵무기를 절제할 수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17일(한국시간 18일) 새벽(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최고 미 국무부 차관의 가임으로 회담이 1백76개국에 걸쳐 이 회담이 이날 개막식에 이어 25일까지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그러나 서방진영과 비동맹권이 표결 방법에 관한 협상차이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 회의 초반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일 기조연설을

준비회의에서 비동맹국들의 인도네시아, 비록 나이지리아, 이란이 제1차 NPT 연장회담을 비동맹국 대표로 참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 등 서방진영은 무성(무)을 중심으로 하는 각국 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서 결렬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일 기조연설을

南北 정상회담 카터 "중재용의"

【워싱턴=李相石 특파원】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북·북한 교섭을 위한 협상을 시키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李相石 특파원】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카터 센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라면서 이를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北核 확실한 검증 필요"

IAEA 총장 NPT 회의 연설

【워싱턴=李相石 특파원】세계의 핵군축을 위한 17일(한국시간 18일) 제1차 NPT 연장회담이 개막했다.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워싱턴=李相石 특파원】IAEA 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17일(한국시간 18일) 제1차 NPT 연장회담이 개막했다.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韓·美·日·中·러

『東北亞 안보대화』 갖는다

군사전문가 민간신문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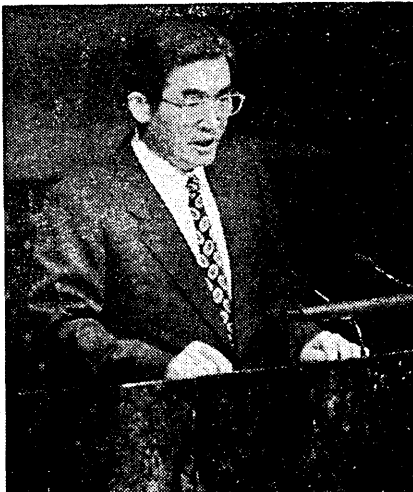
26일부터 모스크바서 北核등 민감한 사항 논의

한반도 파급 영향 평가... 러시아와 미국 관계 변화... 26일부터 모스크바에서 26일...

지금까지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 93년 북핵 위기 이후... 93년 북핵 위기 이후...

〈金鏞弘·廉成德〉

남북한 「核擴禁」의 「대거」인공폭戰



차츰 북미 양국... (이정희·박성철)

南北韓인 10년 이후(한) 국시간 2000년(전) 유엔... 산라지조약(NPT)이...

北대표 "北核위협 강력 제재필요" 주장... 양추 재발언권까지 신청 상대 맹비난... 이대사 재단변천을...

北核, 한반도 안보 위협

NPT의 무불이행 제재해야

北核, 한반도 안보 위협... NPT의 무불이행 제재해야... 차대사 유엔연설...

NPT 무기한연장 中支持가능성 시사

연장회의
이재

錢其琛외교부장

【서울 20일路透電】 中國 外務部 次長 錢其琛은 20일 北京에서 記者들과 會見하면서 NPT(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中國의 立場을 闡明했다. 錢氏는 NPT가 國際안보에 重要한 役割을 果た하고 있다고 強調하며, 中國은 NPT에 加入할 準備이 充分하다고 表示했다. 그는 中國은 NPT에 加入하는 條件으로 美國이 核무기 削減을 承諾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錢氏는 中國은 NPT에 加入하는 條件으로 美國이 核무기 削減을 承諾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錢氏는 中國은 NPT에 加入하는 條件으로 美國이 核무기 削減을 承諾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남북한 頂上회담 카터, 再중재 용의”

【워싱턴 27일路透電】 前美國 大統領인 吉米 카터는 南北韓 最高 領導인인 김일성과 김대중을 會見할 爲기 北京을 訪問할 計劃이 있다고 表示했다. 카터는 南北韓 最高 領導인인 김일성과 김대중을 會見할 爲기 北京을 訪問할 計劃이 있다고 表示했다. 카터는 南北韓 最高 領導인인 김일성과 김대중을 會見할 爲기 北京을 訪問할 計劃이 있다고 表示했다.

유엔 人權위원회 韓國 다시 피선

【서울 5일路透電】 유엔 人權위원회는 5월 6일 48차 會議에서 韓國을 第10회 委員국으로 選出했다. 韓國은 1985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人權위원회에 選出된 것이다. 유엔 人權위원회는 5월 6일 48차 會議에서 韓國을 第10회 委員국으로 選出했다. 韓國은 1985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人權위원회에 選出된 것이다.

日·北 수교협상 早期 재개 난망

경수로협상 암초로 시기 불투명 日·北 회담이

【서울 2일路透電】 日本과 北朝鮮은 1일 北平에서 會談을 行했지만, 北朝鮮은 日本의 核무기 開發을 容認하지 않겠다고 表示했다. 日本은 北朝鮮의 核무기 開發을 容認할 條件으로 北朝鮮이 核무기 削減을 承諾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日本은 北朝鮮의 核무기 開發을 容認할 條件으로 北朝鮮이 核무기 削減을 承諾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鄧小平 “사망 임박”

홍콩紙

子女들 여행취소 : 식물인간 상태

【홍콩 25일路透電】 中國 前 最高 領導인인 鄧小平은 24일 北京에서 植物인간 상태에 達했다고 報載되었다. 鄧小平은 24일 北京에서 植物인간 상태에 達했다고 報載되었다. 鄧小平은 24일 北京에서 植物인간 상태에 達했다고 報載되었다.

鄧小平은 24일 北京에서 植物인간 상태에 達했다고 報載되었다. 鄧小平은 24일 北京에서 植物인간 상태에 達했다고 報載되었다. 鄧小平은 24일 北京에서 植物인간 상태에 達했다고 報載되었다.

鄧小平은 24일 北京에서 植物인간 상태에 達했다고 報載되었다. 鄧小平은 24일 北京에서 植物인간 상태에 達했다고 報載되었다. 鄧小平은 24일 北京에서 植物인간 상태에 達했다고 報載되었다.

鄧小平은 24일 北京에서 植物인간 상태에 達했다고 報載되었다. 鄧小平은 24일 北京에서 植物인간 상태에 達했다고 報載되었다. 鄧小平은 24일 北京에서 植物인간 상태에 達했다고 報載되었다.

中, 노동신문 기자 추방

兩國수교후 처음 가짜 골동품 밀반입판때

외交口등 증폭수 결정·波長 클

【北京=文日綜合社(北平)】 베이징(北京)의 노동신문 기자 추방은 1992년 12월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中, 노동신문 기자 추방했다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北-中 협력관계 심화

北-臺灣전세기 운항 독자결정·성고

北韓·선량·선유원조 대폭삭감·인단 불만

【北京=文日綜合社(北平)】 베이징(北京)의 노동신문 기자 추방은 1992년 12월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동맹리는 血盟”... 北-中 갈등 입증

李鵬총리 訪韓이후 사사건건 부닥쳐 “北의 非협조적 태도 警告” 시각 有力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수교 협정 체결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러, 對이란 原電판매 철회

核무기 확산 금지에 호응

나토의 PFP 회원국 가입도

【모스크바 11일路透통신】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원자력 판매를 10일 이란의 판매할 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과 미국과의 원자력 판매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정은 4년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원자력 설비를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설비를 이란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러시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러시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러시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러시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러시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카터, 「美경수로」 제시

北、韓國型수용 어려울 것

南北韓 직접대화 모색해야

【워싱턴 11일路透통신】 카터 대통령은 4일 한류재단의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열린 한류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이란에 대한 원자력 판매를 10일 이란의 판매할 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과 미국과의 원자력 판매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정은 4년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원자력 설비를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설비를 이란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카터 대통령은 4일 한류재단의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열린 한류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이란에 대한 원자력 판매를 10일 이란의 판매할 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과 미국과의 원자력 판매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정은 4년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원자력 설비를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설비를 이란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카터 대통령은 4일 한류재단의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열린 한류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이란에 대한 원자력 판매를 10일 이란의 판매할 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과 미국과의 원자력 판매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정은 4년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원자력 설비를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설비를 이란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사일 輸出통제기구 가입하라, 美, 北에 경고서 한 발송」

【워싱턴 10일路透통신】 미 정부는 3일 미사일 輸出통제기구(MTCR)에 가입할 것을 북한에 경고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미 정부는 북한이 MTCR에 가입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과 미국과의 원자력 판매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정은 4년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원자력 설비를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설비를 이란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 정부는 북한이 MTCR에 가입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과 미국과의 원자력 판매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정은 4년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원자력 설비를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설비를 이란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력 설비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NPT-영장어를 포획

1백36개국 지지... 통과 전망

【유엔본부=AP통신】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영장어 포획이 1백36개국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영장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중성자 포획 단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영장어 포획 조약은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영장어 포획 조약은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사를 밝히고 있어 최소한 1백36개국은 합의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기한정장과 관련 발표될 핵확산금지조약(NPT) 내년 체결, 핵무기 포획을 위한 협력이 될 예정이다.

中·北韓 관계 악화 조짐

中 "밀무역 근절" 국경에 경찰증강

北인 西海에서 中어선 나포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밀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은 밀무역 근절을 위해 국경에 경찰을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서해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이는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北 NPT "불참" 소심

제네바 핵합의 깨지면 탈퇴 협박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네바 핵합의가 깨지면 탈퇴 협박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NPT에 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초월하고 있다.

「특수지위」 주장... 對美 협상력 높이기

「핵재협상결의」 「NPT 거부」와 무관

북한은 핵재협상결의와 NPT 거부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특수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北 "NPT 회의 불참"

유엔大使 통보

【유엔본부=AP통신】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유엔 대표부에 통보했다. 유엔 대표부는 북한이 NPT 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NPT 無期연장 합의

1백78개국 포결없이

오늘 새벽 전체회의 評價절차 강화案도 채택

【유엔본부 外信綜合】 1백78개 조약당사국들은 10일 NPT 무기한 연장을 결정한데 이어, 11일 오전 11시 15분(한국시간 1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NPT 연장案을 채택했다.

NPT회의 뒤편 남겼다

【유엔본부 外信綜合】 1백78개 조약당사국들은 10일 NPT 무기한 연장을 결정한데 이어, 11일 오전 11시 15분(한국시간 1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NPT 연장案을 채택했다. 이 회의는 11일 오전 11시 15분(한국시간 1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NPT 연장案을 채택했다. 이 회의는 11일 오전 11시 15분(한국시간 1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NPT 연장案을 채택했다.

美·러 등 5國 핵연구 보유 합법화 이스라엘·印度 등 가입 끝내 무산

【유엔본부 外信綜合】 1백78개 조약당사국들은 10일 NPT 무기한 연장을 결정한데 이어, 11일 오전 11시 15분(한국시간 1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NPT 연장案을 채택했다. 이 회의는 11일 오전 11시 15분(한국시간 1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NPT 연장案을 채택했다.

NPT연장결정문(최종안)

- ▲NPT 무기한 연장에 대한 조약 당사국 대다수 동의가 존재하므로 NPT 제10조 2항에 따라 NPT 효력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함.
- <핵확산금지 및 핵감축 원칙과 목표>(최종안)
- ▲보편성: NPT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 대해 가장 조속한 가입을 촉구함.
- ▲핵감축: 핵보유국들은 핵감축 협상의 성실한 수행 약속을 재확인함.
- ▲핵실험금지: 핵보유국들은 96년 말까지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정(CTBT) 체결 협상을 완료함.
- ▲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 핵보유국들은 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킵오프)협정 체결 협상을 즉각 개시함.
- ▲비핵지대화: 중동 등 긴장지역에 대한 비핵지대화에 노력함.
- ▲핵안전보장: 핵보유국들은 비핵국에 대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 핵불사용보장(NSA·PSA)실현을 위한 추가조치를 약속함.
- ▲국제원자력기구(IAEA): IAEA는 핵안전조치협정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권한을 가진 기구임을 확인함.
- <NPT 평가절차의 강화>(최종안)
- ▲5년마다 NPT 재검토회의 개최원칙을 재확인함.
- ▲2000년 재검토회의를 앞두고 96년부터 매년 10월 회기의 준비회의를 개최함. 개최 당해 연도도 최종 준비회의 개최 가능. 【AFP=本誌特約】

▽한겨레신문 1995. 5. 14

NPT 최종선언 채택못해

핵군축 평가 이견

【유엔본부=AP 연합】 한달여를 끌어온 핵확산금지조약(NPT) 연장회의가 최종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12일 막을 내렸다. 회원국들은 11일 핵금지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합의했으나 이날 폐막을 앞두고 지난 25년간 핵금지조약이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검토하

는 '최종선언'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최종선언문' 채택에 실패했다. 회원국들은 핵군축을 지향한 조약상 의무에 부합하는 핵보유국들의 노력과 같은 분야의 자구수정을 놓고 심한 의견대립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의 채택은 회의 종결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 1995. 5. 12

北韓의 NPT회의 불참선언

【워싱턴=美외신】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NPT회의의 합의문 채택을 앞두고 북한이 불참을 선언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國赤, 이산가족 상봉 주선

랜드총재 "金대통령-北李鍾玉 만나 부탁" 밝혀

국제적십자사연맹(남북)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랜드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2일 金泳三 대

동맹을 맺을 때와 몇달 전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李鍾玉 부주석을 만났을 때에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랜드총재는 북한 방문 당시 후주석의외 북한적십자사 총재와 부총재들을 만나 자리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랜드총재는 "국제적십자사는 앞으로 만남을 위한 노력, 연방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랜드총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적십자봉사대원대회에 참

엔네스티 北수용소 조사

지난 3일까지 사상 첫 현지 방문 인권실태 파악

국제적십자사연맹(엔네스티)은 지난 3일 30명의 인권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이 인권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엔네스티 대표단은 평양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측 수석대표인 리영철 비서관과 3차 회담을 가졌다.

이런 접촉은 수교 후 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엔네스티는 평양에서 약 2백40명의 수감자를 조사하고 있다.

엔네스티측은 이번 방문 때 지난해 발간한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를 평양에서 제시했다. 북한의 사형안 전부 판례를 열거한 수교 후 첫 인권보고서인 것으로 보인다.

가 하면 "정보를 불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를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엔네스티 조사단에 대해 북측 재일교포 조호범씨와 고진 시마타씨 등 두 사람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혹은 북한 인권실태조사단이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한 뒤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 북에 곧 「삭제」통보

61년 이래 血盟고리 단절의 의미 "그라초프 國防 주막 訪韓 전달할 듯"

朝-러 우호동맹조약 「자동군사개입」 조항

러우호동맹조약 가운데 「자동군사개입조항」의 삭제 여부를 오는 9월 북방의 공조를 위한 것으로 14일 전 해졌다. 이번의 삭제 조항은 「한반도의 전쟁의 발발 경우 러시아가 자동 개입」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주말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의 5년마다 갱신되는 우호동맹조약을 개정할 때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러우호동맹조약은 1948년 11월 「蘇聯」과 「北朝鮮」이 체결한 조약으로, 이 조항은 「北朝鮮」이 「南朝鮮」을 침략할 때 「北朝鮮」이 「南朝鮮」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주말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의 5년마다 갱신되는 우호동맹조약을 개정할 때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北형법개정 표명

訪北 국제사면위 조사단 "北 형법 개정하겠다" 밝혔

【노코】엔네스티(국제적십자사연맹)의 조사단은 15일 평양에서 북한 인권실태조사단을 만난 뒤 "북한은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엔네스티 측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측이 현재 30곳의 강제수용소(敎化所)에 이르면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8차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 달 뒤인 6월 15일 9월 북한에 이 조항의 삭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또 핵실험

NPT 무기한연장 합의 불과 4일만에

【베이징 도쿄 캔버라=외신종합】 중국 외교부는 15일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핵실험의 장소와 규모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나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지진연구소는 중국 서부의 신장성에서 지하핵실험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핵폭탄의 폭발 규모는 티엔타이 40~1백50 kt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국의 핵실험은 1백78개국 이 핵확산금지조약의 무기한 연장에 합의한 지 불과 4일 만에 실시된 것이다. 중국은 핵실험 일시금지 합의

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지난 해 10월에도 거의 비슷한 규모의 핵실험을 한 바 있다.

중국을 지난 64년 처음 핵실험을 한 뒤 이번까지 모두 42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한편 일본은 중국쪽에 핵실험사실을 강력히 항의하고 이로 인해 경제관계를 포함한 양국관계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매우 유감" 논평

유광석 외무부 대변인은 15일 중국의 핵실험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다른 핵 보유국들이 핵실험을 자제하고 있고 지난 11일 핵금지조약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된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핵 실험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서울신문 1995. 5. 18

**미-인간권위원회
북한대포도포 참가**

【뉴욕 17일 AP 통신】 미국 인권위원회가 북한이 대포도포를 참가시킨다는 보고를 받고 17일 보고했다.

이 연구위원회의 보고는 지난 89년부터 매년 보고된(京都)와 하노이(廣島)의 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7년 동안 16만 명이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북한군에 의해 참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회의 보고는 북한이 자국민을 자수성강해 발간한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IPI 「北개방」결의

인제자우보장·이산가족편지왕래

서울 17일 AP 통신에 따르면 IPI(국제인권이사회)가 17일 99년 정기회의에서 북-남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안을 채택했다.

이 합의안은 북-남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안을 채택하고, 이산가족의 편지왕래와 이산가족의 인제자우보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안은 1995년 5월 17일 제99차 정기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는 북-남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안을 채택하고, 이산가족의 편지왕래와 이산가족의 인제자우보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일보 1995. 5. 17

【北京 17일 AP 통신】 중국과 북한이 16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안을 채택했다.

이 합의안은 북-남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안을 채택하고, 이산가족의 편지왕래와 이산가족의 인제자우보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北-태안보협약」창설제의

러시아國防 南北韓 美日러 中等 참여

【北京 17일 AP 통신】 중국과 북한이 16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안을 채택했다.


이 합의안은 북-남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안을 채택하고, 이산가족의 편지왕래와 이산가족의 인제자우보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 1995. 5. 17

【서울 17일 AP 통신】 미국 인권위원회가 북한이 대포도포를 참가시킨다는 보고를 받고 17일 보고했다.

이 연구위원회의 보고는 지난 89년부터 매년 보고된(京都)와 하노이(廣島)의 서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7년 동안 16만 명이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북한군에 의해 참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對北결의문」만장일치 통과



IPI 라운지

○...IPI-회원국 16 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그리스, 폴란드)이 16일 오후 7시 30분에 서울에서 열린 제99차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對北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북-남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안을 채택하고, 이산가족의 편지왕래와 이산가족의 인제자우보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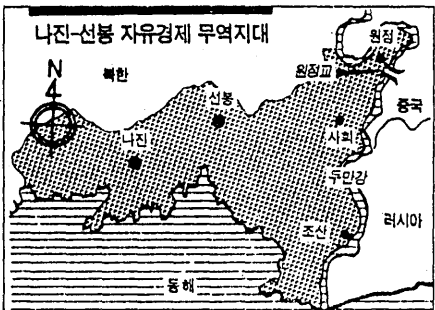
이 결의문은 1995년 5월 17일 제99차 정기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는 북-남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안을 채택하고, 이산가족의 편지왕래와 이산가족의 인제자우보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진·선봉-중국 육로연결

북한 '건설 총계획도'서 확인...3개리 1백25km² 지역 새로 편입

북한은 중국에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직접 통하는 육로가 확보된 새로운 내용의 '나진·선봉지역 건설 총계획도'를 최근 확정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입수해 23일 공개한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건설 총계획도'에는 지난 93년 3월 발표된 계획도에는 없던 은덕군 원정리, 하여평리, 하회리 등 동북지역 3개리 1백25km²가 새롭게 자유무역지대로 편입돼 있고, 이 지역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



권하지역으로 통하는 원정교가 표시되어 있다. 특히 원정교는 나진·선봉지역에서 중국과 육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로 이 다리가 자유무역지대에 포함

된 것은 북한이 두만강 건너편 중국·러시아에서 이 지역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봉천 기자

韓完相 당시 통일부총리 국가비밀電文 유출

92년南北회담, 韓領土작, 眞相 밝히려

북한은 중국에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직접 통하는 육로가 확보된 새로운 내용의 '나진·선봉지역 건설 총계획도'를 최근 확정했다.

유출자도 당시 통일부총리 韓完相으로 확인돼 金泳三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주장이 시달려선 17일 법원의 제기였다. 韓完相은 6월 10일 판문점 회담에서 金完相(당시 통일부총리)이 국가비밀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 金完相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韓完相은 17일 법원에 제기했다. 韓完相은 6월 10일 판문점 회담에서 金完相(당시 통일부총리)이 국가비밀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 金完相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韓完相은 17일 법원에 제기했다.

도 하지 않았으며, 李의원은 韓完相을 방문하며 자료 입수 사실을 부인했다고 韓完相은 진술했다. <東京銘기자>

韓完相 전 장관 아들인해

【서울 25일】李東敏 前안기부장은 23일 서울에서 아들인 韓完相 전 장관과 함께 회담을 가졌다. 韓完相은 23일 서울에서 아들인 韓完相 전 장관과 함께 회담을 가졌다.

조지워싱턴대학 개수단

【서울 25일】조지워싱턴대학 개수단은 23일 서울에서 아들인 韓完相 전 장관과 함께 회담을 가졌다.

北 軍用漁船에 총격

軍고위관리 訪北 情報도 거절

【北京 25日電】북한은 23일 韓軍의 軍用漁船에 총격을 가했으며, 韓軍 고위관리 訪北 情報도 거절했다. 韓軍은 23일 韓軍의 軍用漁船에 총격을 가했으며, 韓軍 고위관리 訪北 情報도 거절했다.

韓軍은 23일 韓軍의 軍用漁船에 총격을 가했으며, 韓軍 고위관리 訪北 情報도 거절했다. 韓軍은 23일 韓軍의 軍用漁船에 총격을 가했으며, 韓軍 고위관리 訪北 情報도 거절했다.

「두만강개발」협정 假서명

올 하반기 사무국 설립

5개국회의 사업부의 3년 10개월만에 결실

【베이징=宋大洙특파원】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 대표들은 30일 베이징(北京)에서 제5차 두만강개발계획위원회(PCM) 회의를 열어 협정문(커미션)을 체결했다. 협정문은 1991년 7월부 터 사업이 논의된 지 3년 10개월만에 5개국의 지역경제협력시도가 가시화 됐다.

북한측의 당국 「협의위원회」 3국이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협정문에 명시된 바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4개국의 반대나 다른지 4개국의 반대하자결의를 수반하는 협정문은 효력이 없다. 협정문에 따르면, 4개국의 반대나 다른지 4개국의 반대하자결의를 수반하는 협정문은 효력이 없다.

【베이징=宋大洙특파원】북한은 「나진-신성지역」의 추가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두만강개발회의(TRAADP) 계획관리위원회 참석차 중국에 온 林太德(임태덕) 북한 대외경제협력부 부장은 「나진-신성지역」 무역지대를 설치할 경우 1월 1일부터 러시아의 하산으로부터 사정없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宋大洙특파원】북한은 「나진-신성지역」의 추가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두만강개발회의(TRAADP) 계획관리위원회 참석차 중국에 온 林太德(임태덕) 북한 대외경제협력부 부장은 「나진-신성지역」 무역지대를 설치할 경우 1월 1일부터 러시아의 하산으로부터 사정없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宋大洙특파원】북한은 「나진-신성지역」의 추가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두만강개발회의(TRAADP) 계획관리위원회 참석차 중국에 온 林太德(임태덕) 북한 대외경제협력부 부장은 「나진-신성지역」 무역지대를 설치할 경우 1월 1일부터 러시아의 하산으로부터 사정없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宋大洙특파원】북한은 「나진-신성지역」의 추가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두만강개발회의(TRAADP) 계획관리위원회 참석차 중국에 온 林太德(임태덕) 북한 대외경제협력부 부장은 「나진-신성지역」 무역지대를 설치할 경우 1월 1일부터 러시아의 하산으로부터 사정없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宋大洙특파원】북한은 「나진-신성지역」의 추가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두만강개발회의(TRAADP) 계획관리위원회 참석차 중국에 온 林太德(임태덕) 북한 대외경제협력부 부장은 「나진-신성지역」 무역지대를 설치할 경우 1월 1일부터 러시아의 하산으로부터 사정없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宋大洙특파원】북한은 「나진-신성지역」의 추가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두만강개발회의(TRAADP) 계획관리위원회 참석차 중국에 온 林太德(임태덕) 북한 대외경제협력부 부장은 「나진-신성지역」 무역지대를 설치할 경우 1월 1일부터 러시아의 하산으로부터 사정없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宋大洙특파원】북한은 「나진-신성지역」의 추가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두만강개발회의(TRAADP) 계획관리위원회 참석차 중국에 온 林太德(임태덕) 북한 대외경제협력부 부장은 「나진-신성지역」 무역지대를 설치할 경우 1월 1일부터 러시아의 하산으로부터 사정없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宋大洙특파원】북한은 「나진-신성지역」의 추가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두만강개발회의(TRAADP) 계획관리위원회 참석차 중국에 온 林太德(임태덕) 북한 대외경제협력부 부장은 「나진-신성지역」 무역지대를 설치할 경우 1월 1일부터 러시아의 하산으로부터 사정없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 두만강개발 한국 배제 움직임

5개국 참여 '커미션' 권한 대폭 축소내용 러·중에 제안

북한이 두만강개발사업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참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몽골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개발회의위원회(커미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협정문 수정안을 25일 러시아, 중국 등에 제안해 왔다.

이는 북한이 커미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두만강 지역 3개국으로 구성되는 두만강개발협조위원회(커미티)에서 개발사업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커미션 협정문은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두만강개발사업 관련 5차 관리계획위원회(PCM)에서 커미티 협정문 및 환경양해각서의 함께 가 서명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이런 움직임으로 가서명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김성수 기자

北 「비상입국」출마 포기

韓國 긴급유언서

【하얼빈=연합통신】북한이 「비상입국」 출마를 단념할 수도 있다고 북한 내부의 체인파사가 27일 공개했다. 체인파사는 「비상입국」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체인파사는 「비상입국」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얼빈=연합통신】북한이 「비상입국」 출마를 단념할 수도 있다고 북한 내부의 체인파사가 27일 공개했다. 체인파사는 「비상입국」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체인파사는 「비상입국」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얼빈=연합통신】북한이 「비상입국」 출마를 단념할 수도 있다고 북한 내부의 체인파사가 27일 공개했다. 체인파사는 「비상입국」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체인파사는 「비상입국」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北韓 양심수 감시인

3개 수용소에 8백~1천명

【서울=AP통신】북한이 양심수 감시인 8백~1천명을 3개 수용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북한 내부의 체인파사가 26일 밝혔다. 체인파사는 「비상입국」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체인파사는 「비상입국」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AP통신】북한이 양심수 감시인 8백~1천명을 3개 수용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북한 내부의 체인파사가 26일 밝혔다. 체인파사는 「비상입국」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체인파사는 「비상입국」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AP통신】북한이 양심수 감시인 8백~1천명을 3개 수용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북한 내부의 체인파사가 26일 밝혔다. 체인파사는 「비상입국」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체인파사는 「비상입국」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 대일수교협상 재개 적극자세

【도쿄=박종문 특파원】 지난 3월 일본 여당 대표단의 방북 때 북-일 수교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던 북한이 최근 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agara시 고조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여당 대표단의 방북

이후 교섭 재개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최근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agara시 장관의 발언은 지난 29일 베이징에서 벌어진 북-일간 비공식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이 수교회담 재개 의사가 있음을 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

이된다. 이에 따라 현재 칼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핵협상이 진전될 경우 북-일간 수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일본 정부의 쌀 지원을 용이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 전

▽한국일보 1995. 6. 1

▽한국일보 1995. 6. 2

日 "對北수교협상 유보"

北-美 핵협상 진전 있을 때까지

【도쿄=李在武 특파원】 일 본 외무성은 31일 발표한 대북 수교 협상 유보 방침에 대해 "北-美간의 핵협상이 진전될 때까지 북-일 수교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면서 "北-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정수료 지원 중단 제가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재개할 경우 핵문제 해결에 큰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서과 함께 김정일(平壤)의 주석 취임 10주년을 맞아 관측도 있다. 일본 외무성은 31일 발표한 대북 수교 유보 방침에 대해 "北-美 핵협상 진전 있을 때까지 북-일 수교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면서 "北-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배상금·쌀원조 한시가 끝났

北, 對日수교 교섭 왜 서두르나

북한의 파산적인 對日(對日)의 배상금과 쌀원조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북-일 수교협상을 재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북-일 수교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에서 "北-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에서 "北-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에서 "北-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일주일 사이 3차례 對日 제안 우리측 식량 제공 거부 속셈도

북한은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에서 "北-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에서 "北-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에서 "北-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에서 "北-일 수교협상 재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일민·조선족축제 중단 사태

중·한국공연인 출연저지·항의동포 강제해산

연철·주현미등 모든日程취소 곧 귀국

【서울=연합】한일민·조선족축제가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중, 중국 공연인 출연저지 사태가 발생하자,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중국측은 출연인원들의 동포를 강제해산하고, 모든 공연日程을 취소하며, 곧 귀국을 권고했다.

▽동아일보 1995. 6. 3

【서울=연합】한일민·조선족축제가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중, 중국 공연인 출연저지 사태가 발생하자,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중국측은 출연인원들의 동포를 강제해산하고, 모든 공연日程을 취소하며, 곧 귀국을 권고했다.

【서울=연합】한일민·조선족축제가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중, 중국 공연인 출연저지 사태가 발생하자,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중국측은 출연인원들의 동포를 강제해산하고, 모든 공연日程을 취소하며, 곧 귀국을 권고했다.

▽중앙일보 1995. 6. 4

“民族의식 용납안겠다” 본보기

【서울=연합】한일민·조선족축제가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중, 중국 공연인 출연저지 사태가 발생하자,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중국측은 출연인원들의 동포를 강제해산하고, 모든 공연日程을 취소하며, 곧 귀국을 권고했다.

修交후 여러차례 노골적 불만 표시

외무부 “관광비자로 입국 문제된듯”

【서울=연합】한일민·조선족축제가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중, 중국 공연인 출연저지 사태가 발생하자,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중국측은 출연인원들의 동포를 강제해산하고, 모든 공연日程을 취소하며, 곧 귀국을 권고했다.

▽조선일보 1995. 6. 4

3만여명 무명 여성화

널뛰기·씨름등 민속프로그램 진행 오후 우박섞인 폭우로 중단 “아쉬움”

【서울=연합】한일민·조선족축제가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중, 중국 공연인 출연저지 사태가 발생하자,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중국측은 출연인원들의 동포를 강제해산하고, 모든 공연日程을 취소하며, 곧 귀국을 권고했다.

日-北 월내 修交협상 재개

日, 경수로연계 신축적

美·北협상 진전만 시기 빨라질 듯

【도쿄=연합】일본 정부와 미국은 경수로협상에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협상 의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협상 진척이 느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협상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협상 진척이 느리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연합】일본 정부와 미국은 경수로협상에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협상 의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협상 진척이 느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협상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협상 진척이 느리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향신문 1995. 6. 4

“北에 핵합의 이행 중이야”

美리처드스핀라드 노획

【도쿄=연합】미국 리처드스핀라드(Richard Spinrad)는 3일 북한을 방문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도쿄=연합】미국 리처드스핀라드(Richard Spinrad)는 3일 북한을 방문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1995. 6. 4

訪北리처드스핀라드 楊亨燮과 만나

【도쿄=연합】미국 리처드스핀라드(Richard Spinrad)는 3일 북한을 방문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1995. 6. 3

日 對北수교교섭議題 확정 경제·국제 등 4개 분야 협의

【도쿄=연합】일본 정부는 3일 북한을 방문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도쿄=연합】일본 정부는 3일 북한을 방문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1995. 6. 6

訪北美리처드스핀라드 北京거쳐 2일 來韓

【도쿄=연합】미국 리처드스핀라드(Richard Spinrad)는 3일 북한을 방문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합의 이행 중이야”라고 말했다.

"北 내달 「권력승계」 발표"

金日成 사망 1주년 맞아 金正日 주석 취임 가능성

訪北 리처드슨의원, 어제 入京

3박 4일간 북한을 방문한 리처드슨 의원은 6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평양을 떠나 북한을 방문했다. 리처드슨 의원은 이날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9차례의 회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북한을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미하원의원이 6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에 도착, 공함을 나서고 있다. <金柱昊기자>

리처드슨 의원은 북한 국정에 관해서는 북한측의 메시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리처드슨 의원은 7일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 1주년을 맞아 김정일 주석의 취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리처드슨 의원은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 1주년을 맞아 김정일 주석의 취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리처드슨 의원은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 1주년을 맞아 김정일 주석의 취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리처드슨 의원은 북한 국정에 관해서는 북한측의 메시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리처드슨 의원은 7일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 1주년을 맞아 김정일 주석의 취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리처드슨 의원은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 1주년을 맞아 김정일 주석의 취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조선족과 정치성교류배제

정부 "민족의식 고취연행자제" 시달

조선족과 정치성교류배제... 민족의식 고취연행자제... 정부... 시달... 조선족과 정치성교류배제... 민족의식 고취연행자제... 정부... 시달... 조선족과 정치성교류배제... 민족의식 고취연행자제... 정부... 시달...

중조선족축제 국내가수공연 불발 전망

중조선족축제 국내가수공연 불발 전망... 중조선족축제 국내가수공연 불발 전망... 중조선족축제 국내가수공연 불발 전망... 중조선족축제 국내가수공연 불발 전망...

暴雨때문에...

하얼빈市 「不可」통보받고 고민중 비 쏟아져
중정부 태도돌변 개운찮은 뒷맛 남기기도

하얼빈市 「不可」통보받고 고민중 비 쏟아져... 중정부 태도돌변 개운찮은 뒷맛 남기기도... 하얼빈市 「不可」통보받고 고민중 비 쏟아져... 중정부 태도돌변 개운찮은 뒷맛 남기기도...

“日·北 수교회담 月內 재개”

칼라룸푸르 개최 가능성

모어마-정리리

【東京=聯】일본의 경수료 전담을 둘러싼 美北韓 협상의 합의와 더불어 북한은 지난 5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수교회담이 6월 16일 재개된다는 방침이다.

이 회담은 지난 1994년 12월 24일부터 1995년 1월 22일까지 6주간 6차례 회담이 있었으나, 북한측이 회담이 합의된 6월 16일 재개된다는 방침이다.

이 회담은 지난 1994년 12월 24일부터 1995년 1월 22일까지 6주간 6차례 회담이 있었으나, 북한측이 회담이 합의된 6월 16일 재개된다는 방침이다.

이 회담은 지난 1994년 12월 24일부터 1995년 1월 22일까지 6주간 6차례 회담이 있었으나, 북한측이 회담이 합의된 6월 16일 재개된다는 방침이다.

이 회담은 지난 1994년 12월 24일부터 1995년 1월 22일까지 6주간 6차례 회담이 있었으나, 북한측이 회담이 합의된 6월 16일 재개된다는 방침이다.

【평양=연】북한은 지난 5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수교회담이 6월 16일 재개된다는 방침이다.

北 訪內 黨·政 위고中

同時·별도代表 이례적

北京소신통 “核·식량문제 등 폭넓게 논의”

【北京=聯】북한은 지난 5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수교회담이 6월 16일 재개된다는 방침이다.

이 회담은 지난 1994년 12월 24일부터 1995년 1월 22일까지 6주간 6차례 회담이 있었으나, 북한측이 회담이 합의된 6월 16일 재개된다는 방침이다.

중·북 양면에서 긴장완화

정·권분위와 막게 예년 수준 유지

북·미 대화 재개 기대

【서울=연】북한은 지난 5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수교회담이 6월 16일 재개된다는 방침이다.

G7 정상 "南北대화 지지"

회담폐막 의장서명 北에 IAEA 협정 준수 촉구

【헬리팩스(캐나다) 18일路透통신 7개국(G7) 정상회담】 18일 새벽(한국시간)美·북한 기술훈원들 지지하는 한편 남북대화 강화한도평화의 기여할 것이라던 내용을 포함시킨 의장서명을 발표했다.

G7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의장서명인 캐나다의

【헬리팩스(캐나다) 18일路透통신 7개국(G7) 정상회담】 18일 새벽(한국시간)美·북한 기술훈원들 지지하는 한편 남북대화 강화한도평화의 기여할 것이라던 내용을 포함시킨 의장서명을 발표했다.

G7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의장서명인 캐나다의

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항과 기술훈원들 준수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 다고 지적했다.

【헬리팩스(캐나다) 18일路透통신 7개국(G7) 정상회담】 17일 헬리팩스에서 열린 17일 헬리팩스 G7 정상회담 폐막선언을 통해 △북스리아내전 중지를 위한 평화협정 개

시 스체전戰의 정치적 다결 △이러의 핵무기 개발 계획 중단 등을 촉구했다. G7 정상회담 의장서명이 정치협상을 위해 군사 작전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의 핵무기 개발로 세계 보건에 대한 위협을 인정하고 촉구했다.

정상회담도 체첸 사태와 관련(유럽안보협력회의(OSCE)가 후진국들을 중재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회담이 이어나가면 북도 이러한 핵개발계획을 지원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헬리팩스(캐나다) 18일路透통신 7개국(G7) 정상회담】 경제선언 발표에 이어 내셔널리얼 배정 설명 자료에서 북핵 문제의 "외환안정기금" 조성의 동향에 할 것이라던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상회담 사무부의 공식 배포한 이 자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조기결판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 '선진국과 평등한 북북가들이 반드시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日 北정수로 상당히 지원

美日정상 합의 대체에너지 제공도

【헬리팩스(캐나다) 18일路透통신 7개국(G7) 정상회담】 18일 헬리팩스에서 열린 17일 헬리팩스 G7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의장서명인 캐나다의

【헬리팩스(캐나다) 18일路透통신 7개국(G7) 정상회담】 18일 헬리팩스에서 열린 17일 헬리팩스 G7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의장서명인 캐나다의

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항과 기술훈원들 준수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 다고 지적했다.

【헬리팩스(캐나다) 18일路透통신 7개국(G7) 정상회담】 17일 헬리팩스에서 열린 17일 헬리팩스 G7 정상회담 폐막선언을 통해 △북스리아내전 중지를 위한 평화협정 개

北 카터에 답신

【워싱턴=합] 김영환(金永南) 북한외무부장이 최근지미 카터前美대통령에게 보내 답신에서 『평화한 시기에 북한을 광범위한 라일라 중립의사를 전한 것 이므로 양해 요청한다.』

양측은 한 수석대변인 지난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북한 주미 C.N.Z.사장의 북한 (김영환(金永南))에게 보내 카터前美대통령의 전례없는 '평화한 시기에 북한을 광범위한 라일라 중립의사를 전한 것 이므로 양해 요청한다.』

金正日和 회담선제 카터 재방문 영의

【모리=도쿄=합] 북한은 1995년 6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카터 전 대통령을 방북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11월 12일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4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부부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4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실을 밝힌 바 있다.

北·日 수교 쉽지 않다

日 교섭대표 발명

【東京=黃宇濤특파원】 北日 조기 수교는 쉽지 않다. 일본 교섭대표 발명인 이노우에 가즈히코(木下博幸)는 북일 수교는 쉽지 않다. 일본 교섭대표 발명인 이노우에 가즈히코(木下博幸)는 북일 수교는 쉽지 않다.

IV. 북 한 동 향

1. 북한 정세

北韓, 在外公기관 대폭 축소

헝가리 등 5곳 폐쇄 阿·中美서도 곧 철수

외무부, 재정난으로 경비 조달 못해
북한은 최근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크게 줄이고 있는 것이
제남이민해 해외공관수로 3일 파악됐다.

외무부는 3일 북한이 3월말~4월초에 걸쳐 헝가리, 포르투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주재 대사관들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공관을 두더기로 폐쇄시키기로 했으며 아프리카 카미룬, 지부티의 공관 및 개도국 폐쇄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1백 개에 달하는 해외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해외공관수는 불과 70개로 한 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0년 이후 최근까지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가봉, 기니비사우,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

단, 아이보리코스트, 베냉, 나미비아, 볼타, 로렌웨, 알바니아, 자메이카, 아프가니스탄 등 모두 15개 공관을 이미 폐쇄한 바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재외공관을 축소하는 이유에 대해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탈냉전 이후 비동맹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와 동유럽을 대상으로 한 외교 비중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축하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소식은 10월 10일 시기와 관련, '10월 10일 조선노동당 50주년 기념 열렬한 축하'라는 제목의 명명사들이 있는 대성산에 건설 중인 '김일성관'이 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金正日 권력승계 완료한듯

黨총비서·주석취임 축하노래 보급

조선중앙통신 보도

【조선=黃永植특파원】북한 내부에서 이미 김정일(金正日)의 권력승계를 축하하는 노래가 널리 퍼져가고 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 노래가 방송이나 공식 행사에는 나오지 않고 내부 조직에서 연설할 때만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최근 일주

이 신문은 1월 7일만 해도 이 노래 1편만 소개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이 노래가 1월 7일만 소개된 것이 아니라, 최근 1주일 동안 50편이 넘는 노래가 소개되고 있다. 이 노래는 김정일 주석취임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김정일 주석취임을 축하하는 노래로 소개되고 있다. 이 노래는 김정일 주석취임을 축하하는 노래로 소개되고 있다.

이 노래의 가사 1편은 김정일의 노력이 북한을 부흥시키고 있다. 이 노래는 김정일 주석취임을 축하하는 노래로 소개되고 있다. 이 노래는 김정일 주석취임을 축하하는 노래로 소개되고 있다.

이 소식은 10월 10일 시기와 관련, '10월 10일 조선노동당 50주년 기념 열렬한 축하'라는 제목의 명명사들이 있는 대성산에 건설 중인 '김일성관'이 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北 외교網 재편 外貨절약

재외공관 왜 잇따라 감축하나

북한이 재외공관을 감축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에서다. 무엇보다 공관 운영에 필요한 외화(外貨)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은 「외화벌이」를 통해 들어온 돈의 상당부분을 식량수입에 쓰고 있다. 따라서 주요 공관을 제외한 북한공관원은 외교관 신분엔 걸맞지 않게 초라한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외교망의 재정비다. 북한은 냉전(冷戰)기간중 무리를 해가며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 3세계에 공관을 확장해 나갔다. 이른바 「사회주의 제국간의 연

대」를 공고히 하고 한국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환경이 급변했다. 蘇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권이 사회주의를 청산하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의 북방외교로 한국대사관이 속속 설치됐다. 북한은 이때부터 운영비용을 줄이면서 외교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공관 중심으로 외교망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 오스트리아가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중립국이어서 활동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는데다 수도인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주요 국

제기구가 들어 있다. 이같은 전략에 따라 미국과의 대화채널인 유엔대표부, 그리고 앞으로 개설될 워싱턴연락사무소에도 우수한 외교인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90년부터 노르웨이·몰타·알바니아를 폐쇄했다. 아프리카에서도 소말리아 등 10개, 그리고 중미의 자메이카에서도 철수했다. 북한은 현재 대사관 56개, 총영사관 3개, 대표부 11개 등 모두 70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도 남북대결 차원에서 설치했던 공관을 폐쇄하거나 줄여나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재외공관수는 모두 1백41개다. <金成進기자>

북한 김정은(김남일)은 4월 4일 평양의 박정희 옹기대비를 열었다. 북한 박정희 옹기대비 열었다. 북한 박정희 옹기대비 열었다.



이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새로 밝혀진 北 「핵심브레인」

이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北에 「그림자實勢」 3, 4명

강상춘·이명제등 경수로등 정책개입

金正日호위·선전역·기쁨조」조달까지

북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이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北 최고인민회의 무기한 연기될 듯

4월 4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4월 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4월 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이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姜成輔기자〉

北京 서방소식통

【베이징=연합】북한의 김정일은 사고후유증등으로 인한 뇌신경계통의 질병으로 하루 3-6시간 밖에 집무를 못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고 이곳의 한 서방소식통이 5일 말했다.

金正日 사고후유증 뇌신경異常 집무하루 3~6시간밖에 못해

이 소식통은 김이 심장병과 당뇨병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중에서도 고질적인 뇌신경계통의 異常(이상)으로 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난 1월에는 주치의 1명을 극비리에 일본에 보내 뇌신경계통질병 치료에 관한 선진기술을 배워오도록 하게 했다고 밝혔다.

金正日 「작년 8월 신장이식」 說

「落馬로 뇌신경이상」등 승계지연관련 소문 무성

북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김정은은 김남일의 장남으로.

北, 화확무기 5천t 보유

美정보당국

당초 예상의 5배... 모든南韓인구 殺傷량

북한은 최근 일본에서 살포돼 총검출된 단진사린(GB)가스를 위주로 최대 5천t가량의 화확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같은 북한 보유 화확무기량은 지금까지 1천여t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최근 5배나 많은 것으로 미국의 화확무기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관제당국의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이 비축한 화확무기량이 최대 5천t에 이르렀다고 추측된다. 정보분석결과를 한미연합사의 전담해왔다가 것이다.

한미연합이 지금까지 북한 보유 화확무기는 13종 1천여t 정도이며, 연

간생산능력은 평시 4천5백t, 전시 1만2천t 정도일 것으로 추정해왔다.

또한 북한이 갖고 있는 화확무기는 대부분이 치사율이 높은 사린가스에 사용이 높은 사린가스에

『사린가스의 경우 0.1g이 투입된 1평방칸에서 1분안에 사람이 사망하는 보호장구가 없으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당국은 최근 일

본의 사린가스살포사건과 같은 유독사고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사린가스의 경우 0.1g이 투입된 1평방칸에서 1분안에 사람이 사망하는 보호장구가 없으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당국은 최근 일

본의 사린가스살포사건과 같은 유독사고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한국일보 1995. 4. 5

金平一 수확량 1배

北, 30% 증가

【평양 4일路透=연합】북한이 주조 수확량을 지난해의 30% 증가시켰다. 금년은 30% 증가시켰다. 북한은 수확량의 증가를 인공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수확량의 증가를 인공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수확량의 증가를 인공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1995. 4. 8

在美교포 對北송금 급증 작년 한해 100만弗 넘어

北韓선 일부만 전달 불만 높아

【서울=뉴욕특파원】최근 미국 교포들의 북한에 대한 송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해 1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일부만 전달하는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당국이 이를 통째로 가로채거나 송금액의 일부를 수취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對北)송금에 있어 고령자(老人)들의 경우 인환(引換)에 따른 지연(遲延)과 8월경부터 송금액의 전달이 지연된다는 등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당국은 송금액의 25%만 「외화바탕」로 지급하고 나머지 75%는 「내화(對內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995. 4. 9

北, 조총련에 平祝 동원령

관공객유지 부진에 우려

북한이 8일 80만부포를 동원해 조총련(朝鮮總聯)에 「平祝」(平壤祝)을 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조총련의 80만부포를 동원해 조총련(朝鮮總聯)에 「平祝」(平壤祝)을 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조총련의 80만부포를 동원해 조총련(朝鮮總聯)에 「平祝」(平壤祝)을 하도록 명령했다.

북한은 관공객유지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관공객유지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관공객유지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관공객유지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관공객유지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吳振宇 사망 이후 北 권력서열 불분명

【한경 2월 2일 인민부
후부장 吳振宇의 사망이
후북한의 권력서열에 아
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4일 평양체육
관에서 金日成의 83회 생
일 기념행사로 고대회를
열었는데 이날 '주석단'
에는 金正日과 부주석 金
英柱 등 몇몇 간부들만 불
참했을 뿐 전반적 권력서
열에 이상을 보이지 않았
다.

金日成의 83회 생일기
념 행사는 고대회 주석
단 이하 다음과 같다.

- ◇정치국 위원
姜成山(총리), 李鍾玉
(부주석), 朴成哲(부주
석), 金永南(부총리 겸 외
교부장), 崔光(군총참
모장), 桂應泰(당비서),
全炳浩(당비서), 韓成龍
(당비서)

◇정치국 후보위원
金鐵萬(국방위원장), 崔
泰福(당비서), 洪成南(부
총리), 楊亨燮(최고인민
회의 의장), 洪錫亨(국가
계획위원장)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 생일 北 왜 범석떠나

어제 83회... 예술축전 참가 40여국으로 늘어
추도 명분속 金正日 권력승계 분위기 조성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죽은 金日成의 망령이
아직 북한을 떠나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망 후 처음
맞은 그의 83회 생일(15
일) 행사도 지난해보다 오
히려 더盛大하게 치러지
고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金日成 생일 기념 중
앙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4월 북녘 추모분위기서 추대로

김일성 생일 등 국내외 행사 바람몰이 역력 평창 김정일 주도 '화려한 등극' 활용 전망



매년 세계 각국의 예술인을 초청해 열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제의 한 장면. 이런 경축행사와 4월말의 평양 체육문화축전을 계기로 추모분위기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비롯한 정치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종연 기자
난항을 거듭하던 경수로 협상이 최근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경축행사로 북한 내부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 행사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을 지배해오던 추모분위기가 완전히 탈색되고 김정일 당비서 추대분위기로 옮겨가고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어 공식 권력승계의 입박 가능성도 점차 커진다.

현수막마다 '대이은 충성'

15일은 김 주석 사후 첫 생일이다. 지난 9일 개막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비롯해 '만경대상 체육대회'와 '중앙미술전시회', '중앙영화상영순간' 등 국내 경축행사는 물론 중국 및 몽골 등 8개국 주재 북한대사관과 친북단체가 주관하는 영화감상회와 도서·사진전람회, 기념집회 등 국외행사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4월에는 김 주석 생일맞고도 김 비서의 국방위원장 추대 기념일(9일)과 창군기념일(25일) 등 경축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은 이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는 28일부터 국제행사인 평양 축전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이번 평양축전을 북-미 합의 이행에 발맞춰 대외적으로 개방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단순한 체육행사 수준을 넘어 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방이미지 부각 힘써

2만명 정도의 해외동포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북한의 야심찬 계획이 달성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축전을 김 비서가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축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집착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된다.

이처럼 4월의 북한이 온통 추대분위기로 떠들썩하게 뒤덮이는 동안 김 주석에 대한 추모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이런 대대적인 경축 분위기를 김 비서의 화려한 등극으로 연결시킬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에서도 북한이 이들 행사를 김 비서의 권력승계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경수로 협상에서 좀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나 일본과의 수교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서방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경제회생이 그의 승계를 위한 또 하나의 축인 것이다.

7월·10월 승계설 유력

그렇지만 권력승계의 지표가 될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임기가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현행 9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4월로 사실상 만료된다. 이에 따라 10기 최고인민회의를 새로 구성해야만 하며, 여기에서 공식인 주석을 다시 선출하고 김 주석 사후 권력 재편과 김정일 시대의 통치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달 남짓 동안 지역별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다시 뽑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 비서가 현재의 경축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공식승계 과정을 밟는다고 해도 그 시기는 7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주석 사망 1주기를 7월 직후나 당 창건 50돌인 10월을 그 시점으로 내다보는 견해가 많다.

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나 일본과의 수교 등 가시적 업적까지 고려한다면 그 시점이 훨씬 뒤로 늦춰질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28일 개천...金正日체제 과시할듯

「평양특정전」 개막식... 평양을 수복하고 개천절을 맞아... 1단대행렬을 유치할 계획이...

北, 「平祝관광객」 조총련에 할당

萬명 예상에 절반도 못미쳐... 4박5일 17만엔

북한이 평양특정전 개막식에 맞춰... 조총련에 관광객 할당... 4박5일 17만엔...

北, 平祝자금몰자 조달할 뻔

조총련에 기부강요... 韓國기업에 노수돈련

북한이 평양특정전행사외... 조총련에 기부강요... 한국기업에 노수돈련...

평양 사랑배달중단 "민심 뒤흔들었다"

北, 다도인 소스케... 평양에 민심 뒤흔들었다... 민심 뒤흔들었다...

平壤 축전기발만 열람

거리 한산 臺灣·日관광객 도착

金日成 추도분위기 여전

【平壤=연합통신】다단과... 거리 한산 臺灣·日관광객 도착... 金日成 추도분위기 여전...

北 創軍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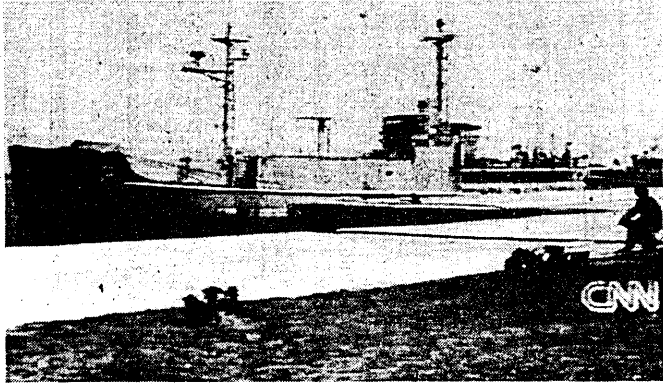
金正日 불참

【北】북한이 군 창건... 김정일이 불참... 4.25(4.25)을 맞아 24일 하...

平祝 "빛더미" 집안잔치로

어제 平祝 5·1 경기장서 개막

북한의 1만 5천 명 관객이 서울의 5·1 경기장에서 열린 '평북의 봄'을 축하하는 '빛더미' 집안잔치로 개막했다. 이날은 평북의 봄을 축하하는 '빛더미' 집안잔치가 5·1 경기장에서 개막했다.



3만 명 관객이 모인 평북의 봄 축하행사를 축하하는 '빛더미' 집안잔치가 5·1 경기장에서 개막했다. 이날은 평북의 봄을 축하하는 '빛더미' 집안잔치가 5·1 경기장에서 개막했다.

관광객 유치 저조 行事 준비 부실

訪北교포에 金日成 동상 참배 강요 연정간 관광비영·친화 분위기 여가

북한이 1만 5천 명 관객이 서울의 5·1 경기장에서 열린 '평북의 봄'을 축하하는 '빛더미' 집안잔치로 개막했다. 이날은 평북의 봄을 축하하는 '빛더미' 집안잔치가 5·1 경기장에서 개막했다.

平壤축전 폐막

金正日 또 참석안해

28일 평양에서 개최된 평북의 봄을 위한 국제체육 및 문화축전(평양축전)이 이틀간의 공식행사에 이어 30일 金正日의 대한 축전을 과시하는 집단체조행사를 끝으로 사실상 폐막했다.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金日成경기장에서 열린 축전의 한 장면이다. 축전, 집단체조를 선보였으며, 관람객들이 金日成과 金正日의 대한 축전을 다짐하는 구호가 절호를 대카트를 뿜어 냈다.

"체제 단속" 다급한 사정 드러내

북한은 1만 5천 명 관객이 서울의 5·1 경기장에서 열린 '평북의 봄'을 축하하는 '빛더미' 집안잔치로 개막했다. 이날은 평북의 봄을 축하하는 '빛더미' 집안잔치가 5·1 경기장에서 개막했다.

金日成은 金正日이다 등 北 선동구호 281개 발표

권력승계 교화 역점... 경제도 큰 비중

북한은 1만 5천 명 관객이 서울의 5·1 경기장에서 열린 '평북의 봄'을 축하하는 '빛더미' 집안잔치로 개막했다. 이날은 평북의 봄을 축하하는 '빛더미' 집안잔치가 5·1 경기장에서 개막했다.

매년 4월 개최 北 최고인민회의

올해엔 왜 안열렸나

金正日の 주석직 승계지연과 함수관계

"재정난으로 예산편성 안돼 연기" 분석도

매년 4월이면 열리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결국 열리지 않았다.

관계당국은 최고인민회의가 지난달에 개최되지 않은 것은 김정일노동당비서의 주석직 승

계지연과 함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최고인민회의를

80년 이전에는 단 두차례 1월과 3월에 소집한 경우도 있었지만 80년 이후에는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4월에 소집했었다.

이들 전반기 최고인민회의는 현재의 예산결산 및 편성을 하고 국가주요 정책정책을 발표하는 회의이다. 가령 93년4월 제9기 5차회의에서는 「정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채택했고, 작년 4월 제9기 7차회의에서는 6개항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완충기사업 성과적 수행에 대한 결정·채택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90년4월22일에 선출된 임기 5년의 제9기 대의원을 새로 뽑고, 차수를 제10기 1차로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회의를 늦추지 않는 입장이다.

더욱이 작년 7월 金日成주석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주석직을 포함, 임기가 만료된 부주석까지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의지연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관측이다. 북한에서는 이번 회의가 열리면 어떤 형태로든 金日成 사망으로 공석이 된 주석직 선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럴 경우 金正日노동당비서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인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金正日의 권력기반이 여의치 않다면 회의를 안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중앙위 전원회의라면 회의개최 자체가 비공개여서 金正日의 당총비서 선출여부는 여차피 외부에서 알기 힘든 일이지만 최고인민회의는 소집단계 및 회의내용 정도는 공개가 원칙이다.

최고인민회의를 열고도 金正일이 주석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金日成 애도문제를 내세워 부인해왔던 「승계이상」을 그야말로 대내외에 확인시켜주는 꼴이 된다는 얘기다.

다소 근거가 약하기는 하지만 회의연기 이유로 재정난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직 미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가 지난 4년간 내리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다음해인데다 식량난까지 겹쳐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됐다는 근거에서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12월회의만 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동시에 金正日의 권력승계는 올라올이나 연말로 연기될 수도 있다.

때문에 승계를 못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늘 뒤따라다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趙敏皓기자)

지난달 30일 공식행사를 마친 평양취재팀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던 일본 신문 방송의 취재팀들이 북한당국의 철저한 「마크」로 제대로 취재-송고할 수 없게 불만이 많았다는 후문.

이들은 공식적 루트로 평양에 비자를 신청했으며, 취재-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사전에 여행사 및 북한측과 협의해 평양에 들어갔으나 들어간 첫날부터 「모든 스케줄이 변경됐다」는 말을 북한측으로부터 들었다는 것.

취재팀의 한 일원은 「『특히 호텔방이 모자란듯, 애초 신청내용대로 1인당 1실인줄 알고 가봤더니 호텔도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있었으며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2, 3인 합숙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

또 평양 「축전 현장을 제외하고 가서 취재하고 싶은 곳으로 신청한 어떤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북한측이 정한 스케줄대로 밤 11시 정도까지 북한측의 「안내원」을 따라 돌아보면, 기사를 정리하고 송고할 시간마저 없어 절때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한 관계자는 증언.

다른 방송 관계자도 평측 현장

日 언론 訪北 안팎

이외에 취재가 그나마 허락된 곳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평양내 거리풍경과 선전용으로 꾸며진 듯한 백화점등뿐이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불평.

다른 취재팀의 일원은 「애초 평측이 끝난후에도 남아 보충취재를 할 예정이었으나, 평측이 끝난 31일 이후 「1일까지는 평양을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며, 「이를 어기고 조금더 남아 사람들은 호텔 밖으로 나갈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호텔안에서 「준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전언.

한 관계자는 「평양측이 1인당 유럽 1주일 여행에 맞는 여행비를 받고도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을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며 「평양의 외국여행자 수용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침언.

다만 이전에 평양을 둘러 취재해 본 경험자들은 「취재에 이전보다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여관등의 서비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고 이번 여행의 인상을 피력.

그러나 일본의 취재팀들이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데 비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미교포측 관광단은 비교적 시간이 많아 일본측에서 온 관광단내에서 「북한의 미국 눈치보기」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東京=夫址榮기자】

北 취재 방해로 곤욕

平祝현장의엔 방문 일체不許 "푸대접" 재미교포 환대 "미국 눈치보기" 말까지

在美 언론인 피터 玄씨 訪北記

北은 「首領후령」이 분할하심다

다들 재미 언론인 접 작가인 피터 玄씨가 평양 축전에 참가한 뒤 쓴 발표 기고이다. 지난 1973년 北轉을 발원한후 28여년간의 북한 「유대인」 사회주의 지식인 원예는 북한 것이 별론 없었으나, 미국의 한 여성 언론인이 9년간 북한을 방문한 뒤 모든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정찰지도부와 사정전환,

가지로 56세의 어린이 들에게 「유대인원수인 정과 후계자 진정원원수의 영웅적 위업」을 암송하게 하는 23년전에도 유행했던

발했다는 것을 알지 못 고 있다. 지난 70, 80년대 접 외산으로 불명함을 들외 빈번히 하던 북한이 서방의 유행과 기묘의 값 아야 할 빛이 의지도 35의 담려와 달라고 있었다. 사 실 역시 북한 주민들에게 는 비밀로 부쳐지고 있다. 나 평양으로 가는 열차에

「남조선에도 임수경처럼 영웅적인 친구 를 갖고 있다. 그러나 김 영산은 배신자이며 남조선 인민을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에게 사정을 하면서

23年前 유행한 노래 지금도 인기 외채 35억弗 北주민에겐 비밀로

「남조선에도 임수경처럼 영웅적인 친구 를 갖고 있다. 그러나 김 영산은 배신자이며 남조선 인민을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에게 사정을 하면서

【鄭敏皓기자】

뒷돈 2,000弗 줘야 이산가족 상봉허용등

「平祝」교포들에 부정적 인상

북한은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 체육 및 문화축전」기간에 이 축전 행사에 참가한 재미·재일교포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등 역효과를 갖게한 것으로 우리 측 관계기관이 분석했다.

북한측은 축전에 참가한 해외교포들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주선을 공식적으로는 거부했지만 관계자들이 뒷돈을 받고 심사시킨 경우가 있어 가족상봉을 하지 못한 이산가족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것. 실제로 평양이 고향인 재미교포 김모씨는 방북기간중 조선 해외동포 원호회 관계자와 줄이 닿아 2천달러를 주고 동생을 만날 수 있었다. 해주에서 올라온 동생은 한밤중에 호텔로 찾아와 형을 만났다. 김씨가 돌아오는 기내에서 다른 재미교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2천달러 이상을 준 사람은 가족을 상봉할 수 있었고 그 이하의 거절을 당하거나 만나지 못하고 돈을 떼인 사례가 있었다는 것.

북한의 조선국제여행사는 지역별·국가별로 조를 짜 사무원 수백명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했는데 재미동포들을 담당할 사무원들은 축전기간중 3천~5천달러 정도의 돈을 과외로 챙겼다는 것이다. 황해도 출신 토론도교포 김모씨에 의하면 일행이 친인척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백~3백달러씩 북측 안내원에게 집어주었지만 떠날 때까지도 안내원은 계속 「연락중」이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3천명의 관광객을 모집한 중국 단둥여행사의 경우 관광객들로부터

계약불이행으로 집단항의와 환불요구를 받고 곤경에 처해있다. 당초 계약일정에 있던 모항산, 개성등의 코스를 무시하고 북측이 관광객들을 모두 버스에 태워 평양행사에 일방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재미교포 차모씨는 자신을 안내한 사람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체제비판을 하는 바람에 놀라 도리어 그를 말려야 했다. 이 안내원은 처음에 선물을 요구, 현금 2백달러를 받은 뒤 술에 취하자 『북한이 남측에 비해 30년 뒤떨어졌으며 이는 김일성·金正日과 측근들이 우물안의 개구리이기 때문』이라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

북한은 축전기간중 50만달러 정도의 기념품판매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역도산 기념티셔츠와 모자, 나무조각에 새긴 인두화, 석·목공예품, 모조골동품등 70여종의 기념품을 노천시장과 장터등에 전시했다. 그러나 교포들은 향수를 달래기 위해 목공예품을 사간 것이 고작이었다.

북한은 또 바나나, 딸기등 과일 20만달러 어치를 중국, 홍콩, 일본 등지로부터 수입, 평양 제1백화점과 호텔, 상점등에 진열했으나 운송 및 보관을 잘못해 선도가 떨어져 먹기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규모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서비스인력 수용시설등에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것이라는데 이번 평양기간중 북한을 여행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柳承宇기자



◇평양의 중국교포 평양축전에 참가한 한복차림의 중국교포 여성들이 카메라를 들고 평양시내를 관광하고 있다.

【한국일보 뉴욕지사 李承煥기자】

김포교의 파탄

맹목적 후진주의

북한은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 체육 및 문화축전」기간에 이 축전 행사에 참가한 재미·재일교포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등 역효과를 갖게한 것으로 우리 측 관계기관이 분석했다.

북한측은 축전에 참가한 해외교포들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주선을 공식적으로는 거부했지만 관계자들이 뒷돈을 받고 심사시킨 경우가 있어 가족상봉을 하지 못한 이산가족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것.

북한은 축전기간중 50만달러 정도의 기념품판매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역도산 기념티셔츠와 모자, 나무조각에 새긴 인두화, 석·목공예품, 모조골동품등 70여종의 기념품을 노천시장과 장터등에 전시했다.

북한은 또 바나나, 딸기등 과일 20만달러 어치를 중국, 홍콩, 일본 등지로부터 수입, 평양 제1백화점과 호텔, 상점등에 진열했으나 운송 및 보관을 잘못해 선도가 떨어져 먹기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후 앞다퉈 軍隊지원 "경제위기에 최후선택은 전쟁" 우려 지칠대로 지친 극빈생활서 원인찾기도

북한은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 체육 및 문화축전」기간에 이 축전 행사에 참가한 재미·재일교포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등 역효과를 갖게한 것으로 우리 측 관계기관이 분석했다.

북한측은 축전에 참가한 해외교포들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주선을 공식적으로는 거부했지만 관계자들이 뒷돈을 받고 심사시킨 경우가 있어 가족상봉을 하지 못한 이산가족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것.

북한은 축전기간중 50만달러 정도의 기념품판매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역도산 기념티셔츠와 모자, 나무조각에 새긴 인두화, 석·목공예품, 모조골동품등 70여종의 기념품을 노천시장과 장터등에 전시했다.

북한은 또 바나나, 딸기등 과일 20만달러 어치를 중국, 홍콩, 일본 등지로부터 수입, 평양 제1백화점과 호텔, 상점등에 진열했으나 운송 및 보관을 잘못해 선도가 떨어져 먹기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바나나, 딸기등 과일 20만달러 어치를 중국, 홍콩, 일본 등지로부터 수입, 평양 제1백화점과 호텔, 상점등에 진열했으나 운송 및 보관을 잘못해 선도가 떨어져 먹기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北 비자발급 중지

日紙도 日「北강경파특세」승계입단「平」

【日紙도】平=黃永植특파원【日紙도】平의 북측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하여, 북측은 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에 걸쳐 남측의 「北강경파특세」 승계를 명백히 시사하고 있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日紙도】平=黃永植특파원【日紙도】平의 북측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하여, 북측은 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에 걸쳐 남측의 「北강경파특세」 승계를 명백히 시사하고 있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平祝후유증시기 時限附北장



北 비자발급 왜 중단했나

北의 「平」은 단시간 동안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北의 「平」은 단시간 동안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金日成 시신 매장 뒤 金正日 주석직 취임

【워싱턴통】북한의 김正日은 현재 주석직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워싱턴통】북한의 김正日은 현재 주석직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北 온전과 특세가 가능성 美紙 권력승계 예상보다 순조

【워싱턴통】北측 지도자 김正日은 현재 주석직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워싱턴통】北측 지도자 김正日은 현재 주석직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이는 「北강경파특세」 승계 후, 남측의 「平」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사한다.

亞太 광평협회 北韓 정시가입

【워싱턴통】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PTA)에 정식으로 가입했다고 15일 한도광평협회가 밝혔다.

【워싱턴통】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PTA)에 정식으로 가입했다고 15일 한도광평협회가 밝혔다.

北 실용路線 채택

올해初부터 "인민생활 개선" 金正日교시따라

신라지원 유치도 變化반영

대구모건설공사 전면중단

개인식당·텃밭개간도 허용

本社 俞英九특파원, 北京 北韓소식통서 확인

북한이 김영삼(金日成) 사후인 지난 5월 초 인민 생활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결심하였던 것

▲단·동·동정정부서·부서장 명칭단락·단락기호를



金正日

북한이 대한 경제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 부

다고 북한 내부사정의 정 북·남의 유력 소식통들이

북한이 두 경제개혁을

▽경향신문 1995. 5. 31

北韓·이란 관계 긴장의 해이 金永南 정무시절 지원 여정

【도쿄 31일 특파원 김성환 기자】 북한 정무시절인 김永南(金永南)이 김일성(金日成)의 후계자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북한이 구체적 개혁작업을

북한이 구체적 개혁작업을

북한이 구체적 개혁작업을

▽국민일보 1995. 5. 30

北美 「核정책」 비판

【도쿄 30일 특파원 김성환 기자】 미국의 핵정책에 대해 북한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平壤 百만명 강제이주

주민 30%線 농촌인력보충·성분불량자 격리

북한은 최근 3백50만명 만명쯤 지방으로 강제이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해지고 있다고 정부외 한 소식통이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1백여 평을 지급하고 관공제이주 평양을 제외한 관공제이주 및 해외교포들에 의해 전 다. 북한이 평양 인구를 1백만 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판

北 개방 대비 내각단속 강화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3백50만명 만명쯤 강제이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해지고 있다고 정부외 한 소식통이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1백여 평을 지급하고 관공제이주 평양을 제외한 관공제이주 및 해외교포들에 의해 전 다. 북한이 평양 인구를 1백만 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판

平壤 주민 강제이주

체제유지 위해 부분開放은 불가피 자본주의 유입다른 주민동요 우려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3백50만명 만명쯤 강제이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해지고 있다고 정부외 한 소식통이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1백여 평을 지급하고 관공제이주 평양을 제외한 관공제이주 및 해외교포들에 의해 전 다. 북한이 평양 인구를 1백만 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판

北 최고인민회의 골개최

NHK 보도 金正日 국가주석 취임관련 주목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3백50만명 만명쯤 강제이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해지고 있다고 정부외 한 소식통이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1백여 평을 지급하고 관공제이주 평양을 제외한 관공제이주 및 해외교포들에 의해 전 다. 북한이 평양 인구를 1백만 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판

북-이란 협력각서 서명

[테헤란=교도 연합] 북한과 이란은 1일 양국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이란 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이 각서는 이란을 방문중인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과 알리 악바르 벨라아티 이란 외무장관이 서명했다.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3백50만명 만명쯤 강제이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해지고 있다고 정부외 한 소식통이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1백여 평을 지급하고 관공제이주 평양을 제외한 관공제이주 및 해외교포들에 의해 전 다. 북한이 평양 인구를 1백만 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판

日時事통신 보도

시체 공개 金日成 北韓

【東京=盧在賢 특파원】북한의 평양에서 16일 수산 기병 공전(空戰)의 시체를 공개할 것이라고 북한은 16일 조선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개할 예정이라고 일본의 지시(時事)통신이 16일 북한이 조선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선통신은 이날 『조선통신의 송수신이 생전 무사(無事)인 것은 북한이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였다고 지시통신이 전했다.』

조선일보 1995. 6. 14

北, 남북대화 거부

【서울=내외】美北회담을 푸른 것으로 협상의 타결에 이르러 북한이 남북대화 일 우민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北 金容淳 이달 중 訪日

【日通】李在武 특파원 한 국과 일본의 북핵에 대한 실질적 문제가 다뤄지면 북 핵의 금容淳(容淳)은 북한 내각의 차관으로서 수교 재개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달 중 일본에서 열리는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한간의 실무회담을 맞아 금容淳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容淳은 이번 『현재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한간의 실무회담을 맞아 금容淳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1995. 6. 16

北 탄도미사일 「대포동2호」

5년내 實戰 배치 가능

CIA 분석

【日通】미 중앙정보부(CIA)는 최근 산원정 보를 발의한 회의 등에서 북핵의 실험 탄도 미사일을 「대포동2호」를 5년내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인용했다. CIA는 산원정보 특위의 정찰원의 대한 탐사(探査) 결과(結果)에서 북한이 대포동2호를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포동2호는 2호를 3~5년내에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대포동2호를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대포동2호를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 1995. 6. 17

“金正日 총비서직 승계해야”

北 노동신문 주장

【東京=特約】北韓의 노동신문은 17일 북한의 실정적 관영(官營) 노동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도자 김정일의 당총비서직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북한의 실정적 관영(官營) 노동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 1995. 6. 18

金正日 軍부대 사찰

【日通】북한의 김정일이 16일 북한 군부의 사찰을 마치고 인민군 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에서 수석원장인 통신의 정찰원이 조선인민군 해군정비대를 시찰하며 사찰기사를 위해 포즈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실험의 진척 상황을 알리고, 대포동2호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말했다.

【東京=特約】北韓의 노동신문은 17일 북한의 실정적 관영(官營) 노동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도자 김정일의 당총비서직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북한의 실정적 관영(官營) 노동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정일 9월9일 주식 선출”

행사준비작업...승계탄 개방정책 예상

도쿄 외교소식통

【도쿄=박종문 특파원】북한은 정권수립 기념일인 오는 9월9일 김정일 비서를 국가주석에 선출해 공식적인 권력 승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24일 “평양의 서방 외교관들이 본국 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종합할 때 북한은 김일성 전 주석의 사망 1주기(7월8일) 행사를 마친 뒤 대내외적인 정책조정과 준비과정을 거쳐 9월9일 김정일 비서의 권력 승계 행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이런 계획 아래 특히 기존 대외정책의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의 핵심은 경제의 대외개방이 될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다른 소식통도 김 비서의 9월9일 승계를 예고하는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평양에서는 최근 소규모의 단위 군부대들이 거리행진 연습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정치행사가 몇 개월 안으로 임박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총련이 3년마다 개최하는 정치대회를 9월20일로 결정한 것도 김 비서의 주석직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국가주석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김 전 주석 1주기 행사를 마친 뒤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正日 資本主義 공부”

西方방문객에 경제문제 도움들어

日週刊現代誌 보도

【東京 27日電】北朝鮮の金正日(金正日)이 최근 일본과 서방의 경제전문가·기업인 20여명을 만나 자본주의가 북한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일일신문의 수간판다이(週刊現代)誌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김정일이 이 달 초 서방인 모두 20시간에 걸쳐 일본과 프랑스·벨기에·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서방 방문객들을 평양 초대소에 불러 경제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정일이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한 문가들과 기업인들의 충고를 주의 깊게 경청한 것

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일본내 북한 관료들은 “정부가 우호파였다고 발표하면서 일종의 경제전문가가 그출처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러 시사誌 보도
【모스크바=聯】북한 김정은(金正日)은 최근 개발 중인 암살미수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

4월말 김정일 암살미수 사건 뒤 혁명전사 후손으로 새 정호대 창설

【모스크바=聯】북한 김정은(金正日)은 최근 개발 중인 암살미수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



金正日

수간판다이(週刊現代)誌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김정일이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한 문가들과 기업인들의 충고를 주의 깊게 경청한 것

金正日 「위대한수령」 호칭

평양방송 처음 사용

【도쿄=연】북한 평양방송은 19일 김정일(金正日)에 대해 처음으로 「위대한수령」 호칭을 사용했다. 평양의 신년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은 「위대한수령」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김정일(金正日)은 「위대한수령」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김정일(金正日)은 「위대한수령」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北, 日終戰終의무비판

【제네바=聯】북한은 24일 일본 정부의 50주년 결의문을 “일본의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부분만 사죄하고 전쟁범죄를 다스리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결의문에 대해 “북한은 일본 제국주의가 채

IV. 북 한 동 향

2. 미·북 교류

北·美直通전화 10~15회선 늘릴까

駐美한국대사관

【워싱턴=李載榮】미국은 오는 8월경 개통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AT&T사와의 협정 하에 미국과 한국간 10~15회선의 국제전화선을 늘릴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사관의 통신협력관인 김이남 배후한 협력자로에서 이같이 밝히고 AT&T사는 현재로서는 직통회선 개설 의사가 없으며, 미국방통신위원회(FCC)에 신청해 허가 받는데도 10~15회선을 늘릴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관인 또 양측간 수선과 발전에 있어서도 △북한 고대의 발전 또는 수선의 경우 평양의 전화 가입자만이 교환원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AT&T(D)방식으로도 통화가 가능하며 △평양지역의 가입자는 교환원을 가져야 하고 △미국과의 발전시에는 韓人들이 많이 사들일 리포니아와 뉴욕의 맨해튼 포틀러 뉴저지 지역에 한 해서 IDD방식이고 △외곽 지역은 교환원을 통해 해서 부하와 전속되며 △미국과 수선의 경우 △전 지역이 IDD방식이고 △수선으로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北·美直通전화 10일開通

AT&T社와 核等

核等 現안 직접협약 가능

【워싱턴=李載榮】미국은 오는 8월경 개통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AT&T사와의 협정 하에 미국과 한국간 10~15회선의 국제전화선을 늘릴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사관의 통신협력관인 김이남 배후한 협력자로에서 이같이 밝히고 AT&T사는 현재로서는 직통회선 개설 의사가 없으며, 미국방통신위원회(FCC)에 신청해 허가 받는데도 10~15회선을 늘릴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관인 또 양측간 수선과 발전에 있어서도 △북한 고대의 발전 또는 수선의 경우 평양의 전화 가입자만이 교환원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AT&T(D)방식으로도 통화가 가능하며 △평양지역의 가입자는 교환원을 가져야 하고 △미국과의 발전시에는 韓人들이 많이 사들일 리포니아와 뉴욕의 맨해튼 포틀러 뉴저지 지역에 한 해서 IDD방식이고 △외곽 지역은 교환원을 통해 해서 부하와 전속되며 △미국과 수선의 경우 △전 지역이 IDD방식이고 △수선으로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北·美直通전화 개설안 판

北·美直通전화 개설안 판

미국방통신위원회(FCC)의 지난달 29일자 결정은 북·美直通전화 허가 결정은 북한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라고 AT&T사는 정부로 협상의 추진을 북·美관계에

AT&T-北협상 日KDD社가 中개 加州·뉴욕市の 지역에선 교환 거처야

미국방통신위원회(FCC)의 지난달 29일자 결정은 북·美直通전화 허가 결정은 북한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라고 AT&T사는 정부로 협상의 추진을 북·美관계에

간의 중개 역할을 맡았다. 지난 2월 18일 북·美 직통전화 개통을 위한 협정안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T&T사는 3월 15일 평양에서 KDD 일

개시와야 한다는 견해를 밝 을 요청한 것이다. 특별히 AT&T사는 이때까지 정 상황인 경우 일시적으로 영업의 상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9월에 가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9월 25일까지로 되었다. AT&T사는 이때까지 정 상황인 경우 일시적으로 영업의 상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9월에 가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AT&T사는 개통 5일전까지 FCC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5일까지의 마감 기한이 있다. AT&T사는 개통 5일전까지 FCC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5일까지의 마감 기한이 있다.

AT&T사는 개통 5일전까지 FCC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5일까지의 마감 기한이 있다. AT&T사는 개통 5일전까지 FCC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5일까지의 마감 기한이 있다.

【워싱턴=李載榮】미국은 오는 8월경 개통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AT&T사와의 협정 하에 미국과 한국간 10~15회선의 국제전화선을 늘릴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사관의 통신협력관인 김이남 배후한 협력자로에서 이같이 밝히고 AT&T사는 현재로서는 직통회선 개설 의사가 없으며, 미국방통신위원회(FCC)에 신청해 허가 받는데도 10~15회선을 늘릴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관인 또 양측간 수선과 발전에 있어서도 △북한 고대의 발전 또는 수선의 경우 평양의 전화 가입자만이 교환원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AT&T(D)방식으로도 통화가 가능하며 △평양지역의 가입자는 교환원을 가져야 하고 △미국과의 발전시에는 韓人들이 많이 사들일 리포니아와 뉴욕의 맨해튼 포틀러 뉴저지 지역에 한 해서 IDD방식이고 △외곽 지역은 교환원을 통해 해서 부하와 전속되며 △미국과 수선의 경우 △전 지역이 IDD방식이고 △수선으로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李載榮】미국은 오는 8월경 개통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AT&T사와의 협정 하에 미국과 한국간 10~15회선의 국제전화선을 늘릴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사관의 통신협력관인 김이남 배후한 협력자로에서 이같이 밝히고 AT&T사는 현재로서는 직통회선 개설 의사가 없으며, 미국방통신위원회(FCC)에 신청해 허가 받는데도 10~15회선을 늘릴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관인 또 양측간 수선과 발전에 있어서도 △북한 고대의 발전 또는 수선의 경우 평양의 전화 가입자만이 교환원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AT&T(D)방식으로도 통화가 가능하며 △평양지역의 가입자는 교환원을 가져야 하고 △미국과의 발전시에는 韓人들이 많이 사들일 리포니아와 뉴욕의 맨해튼 포틀러 뉴저지 지역에 한 해서 IDD방식이고 △외곽 지역은 교환원을 통해 해서 부하와 전속되며 △미국과 수선의 경우 △전 지역이 IDD방식이고 △수선으로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李載榮】미국은 오는 8월경 개통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AT&T사와의 협정 하에 미국과 한국간 10~15회선의 국제전화선을 늘릴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사관의 통신협력관인 김이남 배후한 협력자로에서 이같이 밝히고 AT&T사는 현재로서는 직통회선 개설 의사가 없으며, 미국방통신위원회(FCC)에 신청해 허가 받는데도 10~15회선을 늘릴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북한과 여권 평양에 귀환

本報 특파원 UNODA 신장파 부하 평양하거에



趙在鎮 특파원

10일 하얼빈시 28일(이하 신장) 1시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특파원 부하가 평양에서 UNODA(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방문하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파원은 평양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파원은 평양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파원은 평양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북측과 협의중임”이라고 평양에서 일방인제일이 전통전화 걸었다

평양에서 일방인제일이 전통전화 걸었다. 북한측과 협의중임이라고 평양에서 일방인제일이 전통전화 걸었다. 북한측과 협의중임이라고 평양에서 일방인제일이 전통전화 걸었다. 북한측과 협의중임이라고 평양에서 일방인제일이 전통전화 걸었다. 북한측과 협의중임이라고 평양에서 일방인제일이 전통전화 걸었다.

北韓 對日 關係

북한은 1995년 10% 수확량 감소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 수확량 감소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 수확량 감소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 수확량 감소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전북 평양을 방문한 특파원 10% 수확

특파원이 10% 수확량 감소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 수확량 감소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 수확량 감소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 수확량 감소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0% 수확량 감소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北·美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양호 감은 통화 한번에 연결안돼… 주선부 회

양호 감은 통화 한번에 연결안돼... 주선부 회. 양호 감은 통화 한번에 연결안돼... 주선부 회. 양호 감은 통화 한번에 연결안돼... 주선부 회. 양호 감은 통화 한번에 연결안돼... 주선부 회.

北·美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북한과 미국의 전통전화 첫걸음이며.

美、對北거래교포에 벌금刑

「제재안화」후 처음 對北성國교역法 위반

【워싱턴=李相石특파원】사립기업체인 제정교역법을 위반한 미기업가 3명이 13일 미국 연방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994년 12월 17일 제정된 「제재안화」(통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북한과 교역하는 데 있어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중 한 명은 13일 법원에서 벌금 10만 달러를 선고받았고, 다른 두 명은 벌금 5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제재안화」 시행 후 처음으로 북한과의 교역에 관련된 법적 위반 사례로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교역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美、北韓책 사상 첫 直수입

의회도서관 月初百여천...달려로 결제

【워싱턴=李相石특파원】의회도서관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서 책을 직수입했다. 의회도서관은 4월 15일 북한에서 1백여 권의 책을 직수입했다. 이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미국으로 책을 직수입한 것이다. 의회도서관은 북한에서 책을 직수입하는 데 있어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의회도서관은 북한에서 책을 직수입하는 데 있어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의회도서관은 북한에서 책을 직수입하는 데 있어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의회도서관은 북한에서 책을 직수입하는 데 있어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美, 對北거래교포에 벌금刑 지정

對北차관제공·교역혜택 금지

【워싱턴=李相石특파원】미국 정부는 14일 북한에 대한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4일 북한에 대한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4일 북한에 대한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4일 북한에 대한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4일 북한에 대한 제재안화 조항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기업, 북 정유공장 가동

스탠턴그룹 내달부터 나진선봉서 정제·수출

【워싱턴=정연주 특파원】나진·선봉지역의 발전·정유·경공업 개발 등 3대 중점개발계획을 추진해 온 미국의 스탠턴 그룹은 5월부터 나진·선봉에 있는 북한의 정유공장(현재 휴업중)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현재 재가동에 따른 기술적·경제적·법적 문제는 없다고 이 그룹의 스티븐 브라운 사장이 13일 밝혔다. 브라운 사장은 이날 《한겨레신문》과 가진 전화회견에서 "5월중 유럽에서 첫 원유를 도입해 이를 정제한 뒤 석유 메이저에 전량 수출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조처는 이미 다 마무리됐다"고 밝히고

"5월에 가동될 나진·선봉의 정유공장은 앞으로도 원유 도입-정제-전량 수출의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에 처음 도입되는 원유 양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피하면서 "현재의 정유공장을 가동하는데 충분한 양"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북한 정유공장의 기술 조건에 대해 "스탠턴 그룹 전문가들이 지난달 18일 북한을 방문해 2주 동안 나진·선봉과 평양에 머물면서 정유공장 재가동에 필요한 작업과 평가를 했으나, 재가동에 문제가 될 부정적 요인은 전혀 없

었다"고 전하고 "당장 정유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정유공장을 비롯한 나진·선봉의 정유·발전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에 대해 "북한의 '조선설비회사'와 스탠턴 그룹이 합작한 '설비-스탠턴 개발회사'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합작 비율은 사업상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스탠턴 그룹의 이런 사업 계획은 대북한 경수로 협상을 둘러싼 전반적인 정치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미, 북 마그네사이트 수입승인

코메탈사에 사업허가서...내달초 방북 본격상담기로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 재무부는 17일 미국의 광물거래사인 코메탈사(사장 조지프 로너)에 대해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미국에 수입할 수 있는 사업 허가서를 내주었다.

이로써 뉴욕에 있는 코메탈사는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코메탈사는 5월초 북한을 방문해 대미 수출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미 정부는 지난 1월20일 부분적인 대북한 경제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대미 수출과 관련하여 북-미간 직접금융거래의 예

외를 허용함으로써 마그네사이트 수출의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마그네사이트를 북한으로부터 직접 수입할 경우 미 회사는 사인별로 수입사업 허가서를 발부받도록 미 재무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조지프 로너 사장은 지난 2월4일부터 열흘 동안 북한을 방문해 앞으로 코메탈사가 마그네사이트의 대미 수출을 전담한다는 양해각서를 북한 대외경제협력위로부터 받았으며, 미 재무부의 사업 허가서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출 상담을 하기로 했다.

로너 사장은 18일 오전(미국시각)

본지와 가진 전화회견에서 "이제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를 미국에 수입하는 데 있어 법적인 걸림돌은 없게 됐다"고 밝히고 "5월초 북한을 방문해 마그네사이트 수입을 위한 상담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남은 문제는 북한과 마그네사이트 수입에 따르는 상업계약을 맺는 일"이라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그네사이트는 북한이 전세계에서 매장량 1위를 차지하는 비금속 광물자원으로, 마그네사크링커로 가공돼 제철공장에서 용광로의 내화벽돌이나 내화물질의 원료로 사용된다.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65억t 정도로 추정되며, 함경남도 단천군과 양강도의 백암 운흥지역에 집중 매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진-선봉 내달 완전개방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구역지대의 철조망 설치를 이달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등에서 조달한 철조망으로 나진-선봉지역과 다른 지역을 격리하는 작업을 이달 안에 끝낸 뒤 5월부터 한국과 외국기업의 유치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이동현 기자

코카콜라, 北 진출 계약 말단판매망도 구체 협의

미국의 코카콜라사가 북한 핵문제에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지난해 12월 북-미 정상회담 후 북-미 협정에 따라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을 승인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 코카콜라와 함께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는 버드와이저 맥주와 말단판매망도 코카콜라와 같은 시점에 북한 진출에 관한 양국적인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진출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가 3일 얻은 한 계약서본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재미교포 회사인 한미식품산업회 공영구대공사(KPC·대표 김진)에 영입권을 주고, KPC가 북한의 금강산국제그룹(KIG·대표 박경운)과 함께 북한 고령면 조남전협회(高民院)로부 터 코카콜라와 맥주의 북한내 생산판매업체로 지정되는 협상을 취했다. <李榮烈기자>

한정중 북한수출입관리국수출(신용보증)가 해 제되는대로 평양에 코카콜라 북한지사 설립을 구 체조 준비를 마쳤으며, 버드와이저 맥주·말단판매망도 북한 진출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사의 이태수 본사의 북한 진출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美기업대표단 訪北 무산

北韓서 일발취소 통보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제2차 미기업대표단 방문을 인출하고 오는 6일 북한을 방문하려 했던 제인스 증원트 전 국무부 차관(前 차관)은 3일 현지에서 "북한측이 3일 현지에서 일정이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증원트는 북한측의 당초 예정했던 미기업대표단 방문(訪北) 계획을 취소한 원인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평양을 전행사로 방문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

문중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포함한 각종 일정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암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워싱턴근교에서 증원트 방문을 결정하고 있는 그는 지난 2월 미정화회담사인 MCI 뉴욕의 FC I 그룹 등 11개 기업대표를 인출하고 평양을 방문할 계획과 결별운동을 협의한 바 있다.

美기업대표단 2차訪北 前 국무부 차관이 인출

북미 5~6개 기업 대표단 구성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기업대표단 2차 방문을 인출하고 오는 6일 평양을 방문하려 했던 제인스 증원트 전 국무부 차관(前 차관)은 3일 현지에서 "북한측이 3일 현지에서 일정이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증원트는 북한측의 당초 예정했던 미기업대표단 방문(訪北) 계획을 취소한 원인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평양을 전행사로 방문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

워싱턴근교에서 증원트 방문을 결정하고 있는 그는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행사인 MCI 뉴욕의 FC I 그룹 등 11개 기업대표를 인출하고 평양을 방문할

V. 사실 · 칼럼

| | | |
|---------------------------|-------------|-----|
| □ 심상창은 북·미주변 | 한 국, 4. 1. | 333 |
| □ 남북 교회 공동예배 | 조 선, 4. 2. | 333 |
| □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푸는 길 | 한겨레, 4. 4. | 334 |
| □ 「한국형」은 원칙문제다 | 중 앙, 4. 8. | 334 |
| □ 국회는 「한국형 결의」를 | 조 선, 4. 9. | 335 |
| □ 남북전화도 개통돼야 | 한 국, 4. 12. | 335 |
| □ 법 우습게 안 「입북」 | 조 선, 4. 13. | 336 |
| □ 안호상씨 방북과 ‘사법처리’ | 한겨레, 4. 16. | 336 |
| □ 핵강국부터 ‘비핵화’ 노력을 | 한겨레, 4. 18. | 337 |
| □ 북위협에 속지말라 | 국 민, 4. 22. | 337 |
| □ 경수로협상 정치화경계 | 세 계, 4. 23. | 338 |
| □ 「미국형」 전제 말도 안된다..... | 세 계, 4. 27. | 338 |
| □ 미북회담, 시간끌기냐 | 서 울, 5. 3. | 339 |
| □ 기독교인사 방북승인 | 국 민, 5. 4. | 339 |
| □ 평화협정은 남북한 문제 | 세 계, 5. 5. | 340 |
| □ 북한의 곡예, 보고만있나 | 경 향, 5. 8. | 340 |
| □ 이산가족 울린 평측 | 조 선, 5. 10. | 341 |
| □ 서울의 한미일 전략회의 | 동 아, 5. 10. | 341 |
| □ 대미평화협정은 망상 | 세 계, 5. 12. | 342 |
| □ 한국은 또 실수하고 있다 | 조 선, 5. 12. | 342 |
| □ 경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야 | 한겨레, 5. 16. | 343 |
| □ 우리제의, 북의 민생위한 것 | 서 울, 5. 17. | 343 |
| □ 국제관심사 된 북한 인권 | 중 앙, 5. 18. | 344 |
| □ 미의 대북 독자 노선? | 조 선, 5. 19. | 344 |
| □ 미국, 오해받을 일 왜 하나 | 중 앙, 5. 22. | 345 |
| □ 정전위 무력화에 동의? | 조 선, 5. 23. | 345 |
| □ 「한국형」 물먹이기? | 조 선, 5. 24. | 345 |
| □ 쌀 제공은 좋지만... | 조 선, 5. 28. | 346 |
| □ 북한의 다급한 식량사정 | 세 계, 5. 28. | 346 |
| □ 남북관계 개선의 새 전기로 | 한겨레, 5. 30. | 347 |
| □ 피랍어선 즉각 송환하라 | 동 아, 6. 1. | 347 |

| | | |
|-------------------|-------------|-----|
| □ 추방당하는 평양주민 | 국 민, 6. 2. | 348 |
| □ 계산된 우성호 납치 | 한 국, 6. 2. | 348 |
| □ 정확한 남북경위 밝혀라 | 중 앙, 6. 3. | 349 |
| □ 조선족축제 중단은 유감 | 동 아, 6. 4. | 349 |
| □ 「쌀」 왜 일본 통해? | 조 선, 6. 7. | 350 |
| □ 말로 하는 것 믿을 수 없다 | 동 아, 6. 9. | 350 |
| □ 직교섭없이 쌀없다 | 한 국, 6. 9. | 351 |
| □ 대북 쌀제공과 일의 이중성 | 서 울, 6. 10. | 351 |
| □ 북·미합의 추진말라 | 한 국, 6. 11. | 352 |
| □ 핵협상, 다음차례는 남북대화 | 서 울, 6. 12. | 352 |
| □ 경수로 타결이후 | 한 국, 6. 14. | 353 |
| □ 강대국의 핵논리 | 조 선, 6. 15. | 353 |
| □ 소아병적 대남정책 버려야 | 세 계, 6. 18. | 354 |
| □ 남북 쌀회담 | 동 아, 6. 18. | 354 |
| □ 쌀 제공의 참 뜻 | 한 국, 6. 19. | 355 |
| □ 정치성 배제가 대화의 끈 | 중 앙, 6. 20. | 355 |
| □ 쌀협상의 타결 | 한 국, 6. 22. | 356 |
| □ 쌀 합의문 공개부터 | 한 국, 6. 24. | 356 |
| □ 쌀주는 쪽의 체통 | 조 선, 6. 24. | 357 |
| □ 쌀 지원, 들떠서는 안된다 | 중 앙, 6. 24. | 357 |
| □ 「쌀」과 정상회담(?) | 조 선, 6. 25. | 358 |
| □ 북의 「정전협정파기」 불장난 | 중 앙, 6. 26. | 358 |
| □ 북한으로 가는 우리 쌀 | 동 아, 6. 26. | 359 |
| □ 화해와 협력의 쌀이 되도록 | 한겨레, 6. 28. | 359 |
| □ 쌀과 인공기와 밀입북 | 경 향, 6. 30. | 360 |
| □ 인공기 올린 쌀 운송선 | 조 선, 6. 30. | 360 |

칼 럽

| | | |
|---------------------|-------------|-----|
| □ 「한국 가지고 놀기」 | 조 선, 4. 1. | 361 |
| □ 클린턴의 북핵정책 오류 | 한 국, 4. 2. | 361 |
| □ 통일정책 뒷받침 장기적구상 필요 | 한겨레, 4. 9. | 362 |
| □ 경수로가 문제 아니다 | 세 계, 4. 12. | 362 |

| | | |
|------------------------------|-------------|-----|
| □ 안호상씨 입북 충격 | 조 선, 4. 14. | 363 |
| □ 왜 한국형인가 | 동 아, 4. 22. | 363 |
| □ 의미있는 남북대화 전제조건 | 한겨레, 4. 24. | 364 |
| □ 미, 북한 위협전술 대비할 「틀」
마련해야 | 중 앙, 4. 26. | 364 |
| □ 제네바합의의 첫 시련 | 동 아, 4. 27. | 365 |
| □ 평화체제 당사자는 남북한 | 동 아, 5. 13. | 365 |
| □ 클린턴행정부의 북핵딜레마 | 서 울, 5. 18. | 366 |
| □ 경수로담판 또 양보하는가 | 세 계, 5. 18. | 366 |
| □ 판문점의 종교집회 | 한겨레, 5. 26. | 367 |
| □ 「한국형」의 운명 | 조 선, 5. 26. | 367 |
| □ 대북 쌀제공 서둘지 말라 | 세 계, 5. 28. | 368 |
| □ 쌀과 북한 | 조 선, 5. 31. | 368 |
| □ 불교 방북 남북관계 청량제 될것 | 한겨레, 6. 4. | 369 |
| □ 북 「보릿고개」와 민족공동체 | 동 아, 6. 6. | 369 |
| □ 「핵합의 이후」의 과제 | 동 아, 6. 8. | 370 |
| □ 핵협상 미로찾기 | 조 선, 6. 9. | 370 |
| □ “민족적 큰 이익 확보했다” | 서 울, 6. 14. | 371 |
| □ 경수로협상의 교훈 | 한 국, 6. 14. | 371 |
| □ 「경수로 타결」이 남긴것 | 경 향, 6. 14. | 372 |
| □ 경수로합의가 남긴 문제점 | 세 계, 6. 15. | 372 |
| □ ‘경수로’ 남북화해 물꼬로 | 한겨레, 6. 15. | 373 |
| □ 좋아할것이 없다 | 조 선, 6. 16. | 373 |
| □ 남북경협 물꼬는 텅는데 | 세 계, 6. 20. | 374 |
| □ 남북 쌀합의 아쉬운점 | 세 계, 6. 23. | 374 |
| □ 김대통령의 통일정책은 | 한겨레, 6. 23. | 375 |
| □ 평화-통일의 출발...우리가 주도해야 | 조 선, 6. 23. | 375 |
| □ 청진항에 도착한 「쌀」 | 세 계, 6. 27. | 376 |
| □ 북한에 대한 환상 버리자 | 경 향, 6. 27. | 376 |

社說

심상참인 北·美 주변

자칫할 경우 아무 잘못도 없이 평안북한·동북한의 적자녀 전방까지 퍼질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은 남북교류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려 올 수 있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社說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남북교류 개방정책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사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푸는 길

남과 북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고 있다. 북한이 건설하려는 경수로를 두고 북은 “한국형은 절대 안된다”는 태도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고, 남은 “한국형이 아니면 돈을 한푼도 낼 수 없다”면서 초강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전제로 경수로를 세우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남쪽이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없애고 갈라진 민족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지는 것일 터이다. 그런데 요즈음 양쪽이 주고받는 말을 보면 살벌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남북 정권이 민족 화합의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으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조금도 양보를 하려 들지 않으니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열릴 리 없다.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얼어붙은 적은 군사정권 아래서도 흔하지 않았다. 일찍이 80년대 전반에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온 겨레에게 통일의 필연성을 일깨워준 이래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분단 극복을 위한 중요한 선언들이 나왔다. 그리고 비록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은 받았지만, 남북 당국자

의 교섭과 문화교류도 더러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녹지 않는 고드름처럼 되어버렸다.

우리는 김영삼 정권이 이렇게 최악의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풀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난 3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공식 제안한 내용에 그 실마리가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단체 대표들은 올해 8·15 50돌 행사를 남북한 정부 당국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갖자고 제안했다. 이것은 과거에 재야단체와 학생운동이 시도하던 범민족대회와는 방식이 다르고,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힌 점에서 유연성이 두드러진다. 우리는 남북의 정권이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권유한다. “정부 참여와 협조 없이는 명실상부한 민족 공동행사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남북한 당국이 이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하라”는 말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게 하려면 남북의 정권과 민간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립이 증오를 낳고, 감정적 공격이 반작용을 부르는 악순환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韓國型」은 원칙문제다

북한(北韓)경수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단순 명쾌하다. 3분의 2 이상의 돈을 대는만큼 경수로는 한국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 정부가 이 원칙하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對北)협상에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부 야당의원들이 6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이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두고 꼭 강경론만을 고수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여간 유감스럽지 않다. 자국의 이익챙기기에만 골몰하는 듯한 미국측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의 입장은 강경론이 아니라 원칙론이다. 미국이 과거 우리에게 원조하면서 썼던 정책이 미국물자구매 정책(Buy American Policy)임을 상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푼돈 정도라면 몰라도 30억달러의 돈을 대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다. 또 통일후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그렇다.

야당의원들의 유화론(柔和論)제기는 이 협상이 갖는 본질적 문제를 간과했거나 의도적으로 눈감아버린 데서 기인한다.

한국형이라는 것은 경수로의 한국형 시공을 포함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뜻한다. 韓·美·日 3개국 정부가 누누이 천명한 사항이다. 따라서 한국형 명칭고수에 집착하다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발언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러시아를 희망한 북한 제의의 수용의사를 물은 어떤 야당의원의 질문은 야당원의 유화론 논지와도 어긋난다.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건을 잊어버렸단 말인가.

우리 일부 국회의원들의 유화론이 미국에 이용당하지 말란 법이 없다. 미국은 이미 그런 시각을 관·민 양쪽에서 띄우고 있는 판이다. 우리의 원칙론을 강경론이라 불평하고 있는 미국측 의도에 놀아나는 일은 절대 금물(禁物)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은 명칭만 양보하면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순진무구한 시각이다. 그럴 경우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이익을 챙기고,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를 봉(鳳)으로 만드는 또다른 트집을 들고 나와 우리의 민족자존을 짓밟으려고 할 것이다.

社說

국회기 「한국형 決議」를

북한통일위원회가 위원회결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제헌헌법(憲法)의 개정(改定)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일위원회가 북한의 자주적인 협상을 촉구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남북 양국은 의제(議題)를 정수(定數)의 평등(平等)제에서 정부의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양국은 의제(議題)를 북측(北側)이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며 남측(南側)은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양국은 의제(議題)를 정수(定數)의 평등(平等)제에서 정부의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한국형 決議」를 채택(採擇)하는 것은 남북 양국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양국은 의제(議題)를 정수(定數)의 평등(平等)제에서 정부의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양국은 의제(議題)를 정수(定數)의 평등(平等)제에서 정부의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社說

북한통일위원회가 위원회결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제헌헌법(憲法)의 개정(改定)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일위원회가 북한의 자주적인 협상을 촉구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남북 양국은 의제(議題)를 정수(定數)의 평등(平等)제에서 정부의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南北전화도 개통돼야

북한통일위원회가 위원회결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제헌헌법(憲法)의 개정(改定)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일위원회가 북한의 자주적인 협상을 촉구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남북 양국은 의제(議題)를 정수(定數)의 평등(平等)제에서 정부의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양국은 의제(議題)를 북측(北側)이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며 남측(南側)은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양국은 의제(議題)를 정수(定數)의 평등(平等)제에서 정부의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북한통일위원회가 위원회결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제헌헌법(憲法)의 개정(改定)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일위원회가 북한의 자주적인 협상을 촉구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남북 양국은 의제(議題)를 정수(定數)의 평등(平等)제에서 정부의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양국은 의제(議題)를 북측(北側)이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며 남측(南側)은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양국은 의제(議題)를 정수(定數)의 평등(平等)제에서 정부의 우월(優越)을 주장(主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社說

法 우습게 안 「入北」

공의 법(법)을 의지적으로 위반하면서까지 北(북)에 들어가야 할 이유라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대종교의 安格相(안격상)은 2인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동안 정부가 민간의 入北(입북) 불허의 정책을 법에 따라 사안별로 허가 또는 규제해 온 이유를, 北(북) 남북 민간접촉을 이용해 우리 정부를 따돌리는 방식의 통일전선 공작을 할까보아 그런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그럴 만한 정당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십년간 北(북)의 대남정책을 관찰한 바로는 北(북)은 모든 남북 접촉을 그런 일관된 「공작」의 일환으로 활용하려 했다. 예면가대로의 접촉, 교류, 대화 본연의 개별에 충실한 것이 없었다.

를 두고 「정부의 착구도전」이라 비난하면서도 그 규제를 타파하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전술 앞에서 정부는 정부의 일정한 통제 불가피하다.

그런데 나의 이런 주사와 학부생 루사도 안(안씨)들의, 그것도 北(북)의 이런 정책을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전직 문교부장관이자 사회원투라는 인사가 무엇이 그리 그를 위해 화답하고도 막중한 大(대)사(대사)라고 국법 알기를 현신적 처럼 우습게 알면서 여봐란듯이 유유히 불법 入北(입북)을 했으니 나라와 사회의 기강이 그래놓고서도 흔들리지 않을 리가 없다. 한국가로서의 권위 그 자체가 그 나라의 사회원루라는 인사의 해 초라하게 무시당한 꼴이다. 당국이 사후에 그를 을 조사한다 해도 北(북)과 친북세력은 그것을 또 「양심적 민족화해 노력」에 대한 냉전 수구세력의 공안정국 조성 코즈(공작)인 「하며」 한판을 벌

일 것이 뻔하다. **법국 역시** 이를 이렇듯 맹목한 방식으로 되게끔 방치를 했는지, 어설편게 다루었는지, 아니면 명백하게 알아있던 당한 것이지 분명히 가려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일이

다. 통일원 따듯, 안기부 따듯, 외무부 따듯, 법무부 따듯: 식이라면 앞으로도 불법 入北(입북)은 얼마든지 국법과 공권력을 비롯하며 수출할 것이다.

안호상씨 방북과 '사법처리'

안호상씨가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뜻밖이라고 여긴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때로는 극우라는 평가까지 받은 인물로서, 대종교의 총전교인 그가 종무원장인 김선적씨와 함께 평양에 들어가서 북한 정권이 주선하는 여러 행사에 나가고 언론의 조명을 크게 받은 사실은 남쪽에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안호상씨 일행은 대종교 어천절 행사에 참가하고 단군릉을 참배하는 '종교행위'만을 하고,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안씨 일행이 돌아오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는지 관심이 크다. 더구나 안씨 일행은 오늘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니, 이것은 북한 권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서 남한 정권을 긴장시킬 것이다.

안호상씨의 북한 방문은 경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극한적으로 맞서 있는 시점에 일어나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다행히 이 며칠 사이 남북관계와 미국-북한의 제네바 합의가 파탄으로 가지는 않을 듯한 움직임이 보이기는 하지만, 안호상씨 문제를 놓고 남과 북이 서로 비방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던 모처럼 이는 봄바람에 먼지를 뿌리게 되거나 않을까 걱정이다.

안호상씨 일행 이전에도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89년 봄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씨를 시작으로 서경원 당시 평민당 의원, 작가 황석영씨,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임수경씨와 그와 동행하려 간 문규현 신부가 그들이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의 핵심에 있던 박철언씨를 비롯해서 재벌 총수들이 공개적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갔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권력이나 자본을 대표하는 이들 말고 재야 쪽 사람들이 모두 구속되어 재판받은 끝에 장기형을 선고받았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안호상씨 일행이 돌아오면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옛날과 달리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이 그들을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안씨가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씨의 고령도 고려의 대상이다.

우리는 민족 사이의 자유로운 왕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남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진통을 겪지 않게 되도록 남북 당국에서 자유왕래를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벌이기를 촉구한다.

社 說

北위협에 수지말라

『협상의 서로가 지체의를 했으나 미국측의 비협조적인 협상 태도로 결렬됐다. 오늘 회담이 마지막이다』

對北 경수문교협정 체결 시 한인21일 베를린을 떠나기 전에 서부한측 기정우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했다. 그는 北美회담 결과를 한마디로 「결렬」이라고 못박았다. 그의 결렬선언은 일방적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의 외교소식통들도 「그가 왜 결렬이라고 했는지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한 정파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렬선언을 의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문가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북한이 회담을 정수로 잘대 불가라기 기본협정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뭔가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면 그런 오산이다. 더구나 북한이 미국의 끝까지 회담을 고집할 경우 우5메가트 원자로에 핵연료를 재전입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다.

『북미의 위협이 「피랍을 협상시킬」 일수도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 그 자체가 아니라 협상을 끌고 가는 미국의 태도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미국의 對北협상인 한마디로 끌고 간다고 보면 끌려다니는 꼴이었다.』

이런 의도 의외가 아니다. 회담이 결렬된 직후를 전한 행정부는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내달 초 北美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미국이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알 수 없다.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면 거기엔 대응할 카드도 얼마든지 있다. 이미 예정돼 있는 제재조치를 강행하면 된다. 다만 좋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다.

북한의 속셈은 한국행을 거부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겠다는 데 있다. 이것은 산신에 속한다. 최악의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 북한이 공지에 불만족을 나타내 핵을 재장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한국과 협정 수교를 양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한미 공조체제 「관공」 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 대처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고집을 막을 수가 없으니 한국의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신의 발상

▽한겨레신문 1995. 4. 18

사설

핵강국부터 '비핵화' 노력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연장을 논의하는 회의가 17일부터 뉴욕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0년 조약발효 이래 25년 만에 연장 여부와 연장 방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 조약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핵무기를 선점한 강대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한 현 국제질서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늠하는 성격이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인류를 공동과멸로 이끌지도 모르는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핵확산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현 핵확산금지조약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핵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데 상당부분 기여해 왔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연장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장은 하되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기존 핵보유국들이 주장하듯이 무기한 연장을 하느냐 나이지리아·이집트 등 비동맹국들의 주장대로 일정기간만 연장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러한 문제는 25년 전 조약이 체결될 때부터 핵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에 원천적인 불평등이 깔려 있었던 데 기인한다. 당시 핵보유국들은 비보유국을 무마하는 방안으로 성실한

핵군축협상(핵금지조약 제6조)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기술 제공(핵금지조약 제4조)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에서 현재 보유중인 전략핵무기가 조약 체결 당시의 2배를 넘는데서 드러나듯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비보유국들의 불만이 누적돼 온 것이 사실이다.

회의에 임하는 정부의 생각은 비보유국으로서 핵강대국들의 독점적 지위에 불만이지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에 따른 불안 때문에 무조건 연장을 지지하는 쪽이다. 미묘한 외교문제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며 현실적으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을 통한 인류평화를 위해서는 핵강대국들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핵감축이 강제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이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기존 핵보유국부터 비핵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현상 고조되던 지난해 여름 미 국방부 일각에서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들 수도 있는 핵 선제공격이 검토됐다는 소식이 나오는 마당에 이런 원칙의 확인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공조체제가 아니다. 우리 전선부가 회담이 결렬된 후 北美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설득 노력을 할 경우 한국을 설득하려 해서 안된다든 점을 상조하고 싶다.

美北회담, 시간끌기냐

미국과 북한간 고위급회담이 곧 열리게 됐다고 한다. 지난달 베를린 전문가회담 결렬후 미국측이 고위급회담을 제의했고 북한이 1일 이를 수락함으로써 열리게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수순은 북한측이 전문가회담을 결렬시킬 때부터 예상된 일이다.

문제는 경수로문제를 전문가회담 아닌 고위급회담으로 가져간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시간을 벌기 위한 무작정의 지연전술인가,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북한이 더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는 것인가. 고위급정치회담을 통해 경수로뿐만 아니라 미·북간 연락사무소설치문제 같은 정치적 사안을 일괄타결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또 예견되는 것은 시간을 끌면서 「한국형」을 받아들이는 북한내 부용 명분을 축적하고 가능한 「한국형」을 명칭 등에서 희석시키려할 가능성이다. 북한의 이같은 저의를 빨리, 그리고 분명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듭 밝혀두거니와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로는 ▲「한국형」이어야 하고 ▲한국이 중심적 역

할을 맡아야 하며 ▲남북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은 원칙의 문제다. 이 원칙은 미·북회담에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 이들 전제는 한국·미국·일본 3개국도 그동안 수없이 확인해온 일이고 북한도 지난해 10월 제네바 합의 때 이미 양해한 일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이번 고위급회담을 통해 우리가 단연코 「노」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용할 수도 없는 어중잡은 「타협」을 만들어 낼 경우다.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또 하나의 우려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경수로 밖의 또 다른 정치적 양보다. 연락사무소설치문제만 해도 원칙적으로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나 설치시기는 북한핵문제와 병행해서 처리키로 그동안 얘기가 돼왔으면서도 1일 워싱턴에서 나온 반응은 그 문제는 상호연계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전제조건은, 확실하게 수용돼야 한다. 미국은 우리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社 說

기독교인사 訪北승인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스스로 열리고 있지 않은데도 두드러야 하고 그라도 열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50년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3일 종교인 8명의 방문을 승인한 것은 잘한 일이다. 통일원은 이들 종교인들이 북한 對外경제추진위원회 위원장 金正宇의 초청으로 방북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측이 초청했기 때문에 방북승인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북한측의 위장된 평화공세라고 해도 그들의 농간에 이용당할 인사는 아무도 없다. 방북종교인들의 면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물론 對北 경수로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관문점중립국감북위원회의 북측 사무실 폐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북한 對南공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방북승인하는 것이 오히려 조처인가 하는 일부 시각도 없지 않다. 관문점 中監署 사무실 폐쇄의도가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켜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속셈인 것만은 틀림없다. 경수로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배제전략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들의 對南전략과 전술을 간파하고 있는 이상 일일이 맞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기본 방침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羅雄培 통일부총리의 지문처럼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닫지 않는 한 절제를 포함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다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개방의 지름길일 수 있다. 북한이 하루아침에 변덕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의 對北정책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북한이 기대하는 우리 측 취약성의 노출이다. 우리는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는 인사들이 모두 기독교계 지도자라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기독교계 인사들의 방북목적은 북한땅에 교회와 병원을 건립하는데 있어 北韓내부의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비록 철조망이 쳐져 있어 북한 일반사람의 접근을 막는 나진·선봉지역이긴 해도 우리 교인들의 성심어린 교회와 병원이 들어설 수만 있다면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유도할 것이 분명하다.

조선시대의 「鎖國」도 결국 기독교에 의해 개방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21세기 鎖國」인 북한땅에 남한의 교회가 세워져 보듬으로 분단의 빗장이 열려 지기를 기원한다.

社說

對美병의 理想인 妄想

미국과 북한이 대미병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韓-美-日 3국의 대북정책은 대미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은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대미병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韓-美-日 3국의 대북정책은 대미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은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은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대미병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韓-美-日 3국의 대북정책은 대미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은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社說

한국의 또 실수하고 있다

이제라도 북한을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대미병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韓-美-日 3국의 대북정책은 대미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은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병 주장」이란 것은 사실이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미병을 주장하는 데 있어 '북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협,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야

정부가 대우그룹의 남포공단 합작투자, 쌍용·삼성그룹의 나진·선봉 지역 투자 등 대북 협력사업을 승인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대북 시범사업 승인원칙'을 곧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로서 북한으로의 송금 및 설비 반출을 위한 외환관리 특례규정을 마련중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논리'에 밀려 오락가락하던 경협이 이제는 본궤도에 오르는가 하는 성급한 기대를 해본다.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핵문제에 걸려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한 뒤에도 겉으로는 대북투자를 권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 불신을 사왔다. 한 보기로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고도 기업총수들의 방북은 자제토록 요구하는가 하면, 기업의 과열경쟁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대한 '뇌물공여설'을 조사한다며 기업의 대북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은 소리만 요란할 뿐 성과는 없는 빈껍데기 앙상이 되풀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공언을 한 것과는 달리 경협이 경수로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온 것이다. 이러한 동안 미국은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대북한 접근속도가 빨라졌고, 앞으로 추가 완화조치와 함께 이들의 발길이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여 대북한 투자경쟁에서 우리만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번에 '대북 시범사업 승인'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몇가지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앞으로는 경협이 정치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구태에서 벗어나 일관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남북문제는 앞으로도 경수로협상을 비롯해 평화협정 체결논란 등 수많은 정치적인 난제가 쌓여 있다. 그때마다 양쪽 정부의 긴장관계가 경협의 앞길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꾸준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경협이 지나치게 요란하게 진행되기 보다는 소리없는 가운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북한과 상담하면서 재량권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경협이 장기적으로 '민족경제'를 일으키고 민족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서울신문 1995. 5. 17

社 說

우리제의, 北의 民生위한 것

金泳三大통령은 국제언론인협회(IPI)서울총회 개최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곡물을 비롯,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金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의 베를린에서 이미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한 바 있지만 이번에 이를 거듭 강조한 것은 북한을 공존의 동반자로서 돕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시한번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金대통령의 이같은 인도적 제의를 환영하면서 북한당국도 겸허하게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金대통령은 이 제의에서 북한당국의 입장과 체면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곡물과 물자의 지원을 무상이 아닌 장기저리로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의 식량 및 물자부족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 특히 식량사정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올해의 곡물부족분은 2백59만 t으로 추정되고 있어 곡물도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식량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마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곡물최대도입선인 중국은 지난해의 흉작및 내수증가등으로 대북(對北)곡물공급을 거의 중단했다.

북한당국은 지난2월 태국과 30만 t의 곡물의 상구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미국·호주·일본 등에 구조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절박하다면 제3국에 식량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것이 당연한 일이고 순리이다. 북한당국은 우리정부의 도움을 받을 경우 흡수통일을 당하지 않을까 겁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정부는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金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급격하고도 일방적인 통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민족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우리정부의 도움을 받아들여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식량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오히려 체제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제관심사 된 北韓人權

정부는 북한(北韓)인권대책 실무조정회의를 설치하기로 결정,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실상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도 항상 남북한 사이의 뜨거운 현안(懸案)에 가리워 소홀하게 다루어진 감이 적지 않았다. 또 북한의 인권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은연중 당연한 일처럼 인식돼 아무리 인권탄압 실태가 알려져도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반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남북한 어느 쪽이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야 한다. 그런 기반이 없다면 설혹 남북한의 대화와 화해가 이뤄진다 가정해도 일시적인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는 언젠가는 폭발할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론인협회(IPPI)총회가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거론과 관련해 고무적이다. 언론인의 자유로운 북한출입과 언론 및 의사소통의 자유,

그리고 이산가족(離散家族)간의 편지 왕래를 촉구한 것 등은 모두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부는 미국 등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관계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동안 남북한 대화분위기에 신경을 쓴 나머지 이 문제를 기피해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도 말이다. 설혹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 나름대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관성(一貫性)있게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당장 현실적인 정책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유엔등 국제기구, 또는 인접국들과 협조해 가며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으로서도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개방된 민주사회로 탈바꿈시키는 바탕이 된다는데서 우리는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표해야 한다.

美의 對北 독자노선?

각국지(美)해대사는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동결만 계속 유지된다면 미북 연합사무소 개설 등 다 른 합의 이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또 팔라투루 트루(美)고위급 회담의 의제를 경 수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제한 하자는 北(北)의 요구에 동의했다 고 한다.

국가의 조율에서 「한국형이라는 명칭을 양보할 수도 있는」 내비 치더니 이제 미국의 독자적 진로를 밝히고 있었으니 말이다. 「한미 핵 양보카드도 이제 보지」한국의 중 심적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북 연합사무소 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배신감 비슷한 느낌마저 든다.

「미국은 도대체 北의 핵동결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연합사무소 교환을 미키(美)로 내 세우는지 모르겠다. 北은 북한면 실현을 원자로의 연료봉을 재장전 하겠다고 위협한다. NPT(핵확산 금지조약) 규정 절의에 노환선하지

않았다. 미북 연합 사무소가 교환 된 후에도 北은 언제는 핵동결 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미 국이 대응책으로 연합사무소를 철 수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결 국 北에 끌려만 가는 상황이 될 공 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네 바 합의 이행을 我田引水(아전인 수)로 해석하면서 연합 사무소 교 환에만 집착하는 듯 보인다. 제네 바 합의에서 미국과 북한이 이행해 야 할 사항은 상호 연합사무소 교 환과 北의 일시적인 핵동결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 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도 포함되 어 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이 의에 부합되는 부분만을 합의의 이 행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北의 쌍무적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는 북핵문제 는 풀 수 없게 된다. IPI 서울 총회 세미나에 참석한 제임스 배이 커(前) 미 국무부 장관은 핵동결만 핵 정지인 북한을 인정해주고 말았다. 물론 北은 정부를 당근만 앞지 체질을 달리는 진영의 인사가 한 말이 지 단 걸렸을 만 하다.

남북관계 개선의 새 전기로

남북 관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경수로 협상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하다는 외신이 전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 명암은 경제 문제에도 고차된다. 두만강 개발 사업에서 남한의 실질적인 참여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한 곡물 지원이 요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성으로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현실에서는 이리저리 꼬이기 일쑤여서 과연 그 일들이 어떻게 풀릴지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남한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두만강개발 협의위원회(커미션)의 권한을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으로 구성되는 두만강개발협조위원회(커미티)에 대폭 이양하여, 사실상 커미션은 자금만 대개 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커미티가 행사하겠다는 수정안이 나왔다. 행여 그것이 남한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처라면 즉시 철회해야 옳다. 투자나 수익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남한 밖의 외부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쌀에 대해서는 일본을 방문중인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이 일본 정부에 쌀 대여를 요청하면서, 남한의 지원 의사를 간접적으로 타진했었다. 이에 통일원이 아무 전제조건 없이 곡물을 제

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는 절차의 중요성과 신중한 처리를 강조함으로써, 전날 통일원이 보인 산뜻한 반응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했다. 일본이 북한에 곡물을 지원하기 앞서 남한과 협의해달라고 일본에 요청한 것은 민족의 문제는 민족 내부에서 먼저 해결하도록 하자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칫 '제삼자의 간섭'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북한의 지원 요청에 일본은 긍정적인 검토의 자세를 취했고, 미국 역시 인도적 차원에 입각한 쌀 공급 의사를 내비쳤다. 두만강 개발이든 쌀 지원이든 남북이 관련될 때는 단순한 경제 교류의 측면을 넘어서 민족이란 특별한 의미가 담긴다. 특히 쌀은 지난 84년 수재민 구호의 명목으로 북한이 7천2백t을 보내왔고, 남한도 91년에 직교역 형태로 5천t을 보낸 적이 있다. 복잡한 정치의 숨통을 다소나마 쌀이 뚫은 셈이다. 이왕 거기에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그 약속대로 실천하기를 당부한다. 오히려 문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움 만큼 남한의 쌀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군량미 전용 반대 따위의 엉뚱한 '소리'가 일을 망치지 않도록 일정한 주의와 조심이 필요하다.

▽동아일보 1995. 6. 1

피랍어선 증속 송환의 막

북한 증속 선박이 10척 이상 피랍어선으로 송환된다는 소식이다. 북한은 지난 5월 10일 남한 선박 10척을 피랍한 뒤, 남한 측에 송환을 요구했다. 남한은 피랍 선박을 송환할 경우 북한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피랍 선박을 송환할 경우 남한 측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피랍 선박을 송환할 경우 남한 측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증속 선박이 10척 이상 피랍어선으로 송환된다는 소식이다. 북한은 지난 5월 10일 남한 선박 10척을 피랍한 뒤, 남한 측에 송환을 요구했다. 남한은 피랍 선박을 송환할 경우 북한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피랍 선박을 송환할 경우 남한 측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양면한 것이다. 북한은 피랍어선 10척을 송환할 경우 남한 측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피랍 선박을 송환할 경우 남한 측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피랍 선박을 송환할 경우 남한 측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社 說

추방당업과 平壤주민

북한의 평양주민 1백만명을 지원하면 경제이주시키고 있다. 수십만의 평민과 민중심자가 양떼 양떼로 죽어간다. 아무리 자주이전의 자아가 유보된 통제 체제라지만 어떻게 전체 주민의 30%나 되는 인구를 지원하면 추방당업이 가능할까. 북한체제에 대해 언급하면 이승만전상에 수색이되며, 김일성이 여러 안락사자가 있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이 이북 평양주민을 수색시키면 이북과 북까지 주민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인민의 재배치를 통해 생산량을 높여 북한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경제학의 사회를 위해 제정당과 정적은 무조건이다. 진정한 인민해방의 방법은 이렇다. 북한정권의 부패하지 않게끔 인민을 정치화시킨 북한이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평양주민에 경제이전 시키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체제의 변혁을 원한다면 북한은 인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평양주민이

다 그 바깥을 본다. 이전의 '정권 불합조'를 이주대산이 된 삼의 정이되며 인민의 된다. 개량화가 되할 수 없는 추척적인 부패한 권력 위화분자를 사전에 처리 시켜 줄까? 아니면 구수업의 정체를 방어를 방지하고 평양에 '행'의 도시로 바꾸어달라. 이북의 정적은 가려져 있다.

하지만 아무리 통제에 순치된 북한주민들이지만 이북의 경제이주에 불응하고 저항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일 것이다. 더구나 평양주민이 수색되면 추방당업 정 내외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 정체를 신중히 파악해야 이북의 불만이 내전에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인민에게 없다면, 그와 함께 없으면, 그 후의 북한이 부패정권에 철저히 불응할 북한주민 불행의 자마져 평양주민의 수색이전이다.

피해복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자의 자유란 기쁨과 단란의 차가 없다. 이북의 피해정착을 거절하러 한 김일성이 개혁과 평등한 회복이 북한에 북한이 아니라도

제단 해결과 불가하다. 이것만 행하면 북한주민의 수색이 아니라 인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정적계가 북한의 인민을 수색하는 최수한 주자 불행의 지인이며 단결과 노획을 추구할 것인가 생각한다.

계산된 우성여 법칙

북한은 민간조선인 제영아정체 등 북한주민을 황정할 수 있는 북한인민이 50%에 달한다. 북한은 인민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수색하는 것이다.

평화인가 남북한간의 협력 정책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수색하는 것이다.

정권정권의 수색을 할지라도 정복의 수색을 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평양주민의 수색을 할지라도 정복의 수색을 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인민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수색하는 것이다.

북한이 평양주민을 수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수색하는 것이다. 북한은 인민을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수색하는 것이다.

社 說

朝鮮族족제 중단은遺憾

중국어권인 중국 하얼빈市에서 열린 조선족출세가 중국측의 한류연의인출연자로 중단된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나아가 韓中 우호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명의 한류연연인들이 조선족출세의 출연하기 위해 정식으로 비자를 얻었지만, 그들중 3명은 북한에서 출생한 것으로 드러났고, 3명은 중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조선족출세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조선족출세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조선족출세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조선족출세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했다.

데 하얼빈에 머물렀다. 현재 조선족의 吉林省遼寧省黑龍江省 등 일부와 동북3省的에 2백만 명 가까운 조선족이 살고 있다. 조선족이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20여 년의 불어선정만으로도 조선족은 2천만 명에 달하는 민족의 일원이 된다.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선족사회의 한국인들이 번지고 주조산업이 이젠 출몰이 없지 않다. 조선족의 이들을 역사 및 문화적 민족의식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조선족과 한국인과의 교류는 4만 조선족이 있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4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조선족은 2백만 명이 넘는다. 이들을 역사 및 문화적 민족의식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의식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조선족과 한국인과의 교류는 4만 조선족이 있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4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조선족은 2백만 명이 넘는다. 이들을 역사 및 문화적 민족의식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社 說

정확한 拉北경위 밝혀라

북한측의 공격을 받고 끌려간 86우성호의 피랍과정이 석연치 않다. 사건발생 직후부터 회사측은 우성호의 각종 교신내용을 근거로 해군이 우성호의 항로를 잘못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 항로부근을 지나던 상선(商船) 첼린저號를 어선(漁船) 우성호로 오인,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해경경비정이 작성한 당시의 교신내용에도 해군이 해경에 인계한 선박은 우성호가 아닌 다른 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해경관계자도 『해군이 항로를 유도하면서 상선을 우성호로 오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국의 잘못으로 우리 어선을 북한으로 넘어가게 한 꼴이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반해 국방부는 우성호가 항법장비 이상(異常)으로 항로착오를 일으켜 북쪽으로 항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해군 합정이 29일 오후부터 매시간 우성호와 교신하며 항로를 유도해 30일 새벽 경찰에 인계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처음에는 1백50km 이상 떨어져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해 교신으로 항로를 유도했으나 다음날 새벽

레이더에 포착된 선박은 우성호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에는 모두 의문점이 많다. 무엇보다 5급항해사가 있는 우성호가 정반대의 북동쪽 항로를 택해 북방한계선을 넘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해군이 10시간 넘도록 엉뚱한 선박과 교신하며 항로를 유도했다는 일이나 1백 t급 우성호와 3천9백 t급 첼린저호를 착각했다는 점도 이상하다.

사건이 난 후 국방부나 해경이 진상을 밝히려 하기 보다는 서로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기에 바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원들이 아직 북한에 억류중인 상태에서 국방부와 해경당국은 합부로 원인을 단정하려 하지 말고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남북 원인과 경위, 책임 소재를 신속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 우리측에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밝힌 뒤 선원 송환문제 등 북한에 대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본다. 이 때문에 한국은 특히 중국과의 교류를 볼 때 임의적인 소지가 있는 행태에 삼가야 한다. 중국도 조선족의 문화적 활동을 억압해 서는 안되며 특히 韓中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는 일은 다시 하지 않아야 한다.

社 說

말려 하기는 민을 수 없다

북한이 장수비 호미 호미에 많은 수로 발전소와 풍력발전소 10개의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풍력발전소가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장수비 호미 호미에 많은 수로 발전소와 풍력발전소 10개의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풍력발전소가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장수비 호미 호미에 많은 수로 발전소와 풍력발전소 10개의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풍력발전소가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장수비 호미 호미에 많은 수로 발전소와 풍력발전소 10개의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풍력발전소가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장수비 호미 호미에 많은 수로 발전소와 풍력발전소 10개의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풍력발전소가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장수비 호미 호미에 많은 수로 발전소와 풍력발전소 10개의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풍력발전소가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장수비 호미 호미에 많은 수로 발전소와 풍력발전소 10개의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풍력발전소가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장수비 호미 호미에 많은 수로 발전소와 풍력발전소 10개의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풍력발전소가 5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의 임원 통행

북한이 「철」의 임원 통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철」의 임원 통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이 「철」의 임원 통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철」의 임원 통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이 「철」의 임원 통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철」의 임원 통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北·美합의 追認말라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한반도 특사대사일행이 9일 서울에 올때만해도 미국이 또 지난번 제네바 협상때처럼 중요한 문제들을 구령이 담 넘어가듯 해놓고 한국을 설득하려 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한-미양국은 ▲합의문의 모호성 제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대시설 제공 불가란 대원칙을 설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합의문에 보다 구체적 표현으로 문서화 해야 하고 북한측이 뒤늦게 들고나온 부대시설 추가 지원 문제도 국가간 경수로 거래에서 통상 있는 수준이상의 추가 지원은 칼라룸푸르 회담에서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북간 핵협상에는 원칙이 지켜져야하고 한국의 입장과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것은 협상이 다소 더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후환을 없애고 중국에는 북한에 경수로를 보다 확실히 제공하는 길이기도 하리란 생각에서였다.

이번 한-미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보다 선명히 구체화된 것은 그런점에서 하나의 성과라고 믿는다. 이제 남은 문제는 남북대화다. 남북이 마주 앉아야 경수로문제는 물론 남북간의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한-미양국은 ▲합의문의 모호성 제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대시설 제공 불가란 대원칙을 설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합의문에 보다 구체적 표현으로 문서화 해야 하고 북한측이 뒤늦게 들고나온 부대시설 추가 지원 문제도 국가간 경수로 거래에서 통상 있는 수준이상의 추가 지원은 칼라룸푸르 회담에서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외교·식량·의료·문화·과학기술·북한인의 인권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협상을 중단할 것을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만든다. 경제 발전을 꾀한다.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만든다.

社 說

核협상, 다음차례는 南北對話

칼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미-북간 핵협상이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고위회담에서 대북(對北) 협상의 기본선을 다시한번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솔직히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일행이 9일 서울에 올때만해도 미국이 또 지난번 제네바 협상때처럼 중요한 문제들을 구령이 담 넘어가듯 해놓고 한국을 설득하려 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한-미양국은 ▲합의문의 모호성 제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대시설 제공 불가란 대원칙을 설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합의문에 보다 구체적 표현으로 문서화 해야 하고 북한측이 뒤늦게 들고나온 부대시설 추가 지원 문제도 국가간 경수로 거래에서 통상 있는 수준이상의 추가 지원은 칼라룸푸르 회담에서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깨지고 북한이 핵동결해제 조치 같은 강경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양국이 맞대응기로 한 것이다. 이는 미-북회담이 결렬되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것으로 경수로협상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이상 양보하진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미-북간 핵협상에는 원칙이 지켜져야하고 한국의 입장과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것은 협상이 다소 더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후환을 없애고 중국에는 북한에 경수로를 보다 확실히 제공하는 길이기도 하리란 생각에서였다.

이번 한-미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보다 선명히 구체화된 것은 그런점에서 하나의 성과라고 믿는다. 이제 남은 문제는 남북대화다. 남북이 마주 앉아야 경수로문제는 물론 남북간의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리게 될 것이다.

社 說

북한으로 가는 우리 쌀

북한이민이 아닌 쌀 2천t이던 것이
2천t. 5천t. 1만t. 15만t.의 증가로 북
북한이민이 아닌 쌀 2천t. 5천t. 1만t. 15만t.의 증가로 북
북한이민이 아닌 쌀 2천t. 5천t. 1만t. 15만t.의 증가로 북

북한이민이 아닌 쌀 2천t. 5천t. 1만t. 15만t.의 증가로 북
북한이민이 아닌 쌀 2천t. 5천t. 1만t. 15만t.의 증가로 북
북한이민이 아닌 쌀 2천t. 5천t. 1만t. 15만t.의 증가로 북

다. 북한의 북한산 쌀의 쌀
다. 북한의 북한산 쌀의 쌀
다. 북한의 북한산 쌀의 쌀

다. 북한의 북한산 쌀의 쌀
다. 북한의 북한산 쌀의 쌀
다. 북한의 북한산 쌀의 쌀

북한이민이 아닌 쌀 2천t. 5천t. 1만t. 15만t.의 증가로 북
북한이민이 아닌 쌀 2천t. 5천t. 1만t. 15만t.의 증가로 북
북한이민이 아닌 쌀 2천t. 5천t. 1만t. 15만t.의 증가로 북

북한이민이 아닌 쌀 2천t. 5천t. 1만t. 15만t.의 증가로 북
북한이민이 아닌 쌀 2천t. 5천t. 1만t. 15만t.의 증가로 북
북한이민이 아닌 쌀 2천t. 5천t. 1만t. 15만t.의 증가로 북

▽한겨레신문 1995. 6. 28

화해와 협력의 쌀이 되도록

북한으로 보내는 쌀 2천t을 실은 배가 청진에 입항해 있다. 남한 국적의 배가 북한 도선사의 유도를 받으며 북한 항구에 정식으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태극기를 달았더니 내렸더니 하며 언론 보도마저 엇갈리고 있다. 외국에 입항하는 배는 상대국 국기를 동시에 다는 것이 '예의'이나, 국내에서 인공기를 구하지 못해 그냥 출발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국기를 거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결코 사소한 일은 아니겠으나, 분단 이래 남북한이 쌓은 불신과 경계의 장벽을 생각하면 그런 혼선은 당분간 서로 참고 견뎌야 할 통과예일지 모른다. 오늘과 내일도 8천t의 쌀이 마산·목포·군산을 출항할 예정이다. 아무튼 동해의 푸른 파도를 가르며 북녘에 도착한 쌀이 그동안의 불신과 경계의 벽을 헐고 동족간에 화해와 협력을 심는 씨알이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그런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에 한층 진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서 남한 주민들로서는 주고자하는 남한의 자세보다 달리는 북한 쪽의 한층 더 까다로운 점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포장이나 수송 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쌀의 수분 함유량을 1% 더 줄이라는 요구 때문에 실무자 회담의 서명이 하루 늦어졌다는 보도가 사실이라

면 그 주문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그런 일들은 받는 쪽의 의연함을 넘어서 자칫 주는 쪽의 대범함마저 잃게 만들 위험이 있다. 내부의 사정이 절박하다고 해서 반드시 비굴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외에 뻔뻔스럽다는 인상을 남기는 처세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혹시 남북간에 무슨 '이면' 합의나,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자꾸 캐묻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의연하게 처신하라는 당부는 남한 당국에도 해당된다. 기왕의 경직된 자세를 풀고 북한과 적극적인 협력의 길을 찾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나, 너무 나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일례로 외국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그러하다. 외국 쌀을 사다가 북한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재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쌀 수입 대신 국내 벼수매를 늘리라는 농민의 항의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은가? 양곡 공역에 대한 국제적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움 차관 제공 등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더욱이 일본과 무모한 지원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일본의 쌀이 북한과의 수교에 징검다리가 되더라도, 이를 막을 명분과 도리는 없기 때문이다.

쌀과 人共旗와 密入北

어제 아침 신문에 실린 두 개의 대북관련 뉴스는 선거분위기에 젖어있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文益煥목사의 부인 朴容吉씨가 金日成사망 1주기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했다는 것과 쌀2천t을 싣고 청진으로 간 우리 선박이 태극기대신 인공기를 게양하고 하역작업을 했다는 뉴스가 그것이다.

故 文목사 부인의 밀입북사건에 대해 검찰은 방북목적이 김일성추모식 참석인데다 김일성동상에 헌화하는 등 평양제류 기간중의 이적성 활동에 대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살아있는 한 밀입북이나 김일성추모식에 참석하고 그의 동상에 헌화하는 등의 행동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차씨의 들출행동이 주는 충격은 더욱 크다.

차씨의 밀입북 못지않게 충격을 주는 또 하나의 사건은 쌀을 싣고 북으로 간 우리 선박이 하역작업중 인공기를 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청진항을 떠난 씨 아펙스호와 본사인 남성해운과의 교신내용에 따르면 우리 선박이 청진외항에 도착하자 북한측 導船士(도선사)가 승선,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달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선박은

하역작업기간 내내 인공기를 배의 가장 높은 곳에 게양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비록 북한항구에 입항했다 할지라도 우리 국적선이 어떻게 국가의 표상인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게양할 수 있단 말인가. 선박이 다른 나라에 들어갈 경우 船尾(선미)에 자기 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전 세계가 통용하고 있는 국제관례가 아닌가.

쌀부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북한항구에 입항할 때 쌍방의 깃발을 모두 달지 않기로 합의한 것도 우리로서 자존심상하는 일인데다 하역작업중 인공기까지 달았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체면만 생각하고 국기의 존엄성이나 국민적 자존심쯤은 아랑곳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당국의 책임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형식적인 사과 한두 마디로 얼버무릴 일이 결코 아니다.

아울러 인도적 차원이니 동포애니 하는 대의명분도 좋지만 이같은 受侮(수모)를 겪으면 서까지 계속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도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워단 밀입북사건도 결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저자세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人共旗 올린 쌀 운송선

쌀 2천t을 북한에 운송해온 씨 아펙스호(씨)는 청진항에서 北(북)의 영정인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만 배의 가장 높은 곳에 걸고 하역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신한노 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對北(북) 쌀 제공의 대행서는 정부가 협상 합의 내용을 대부분 비밀에 부치고 있어, 운송선의 국기 게양에 대해 어떻게 합의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선박의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만 달기로 미리 합의했었다면 정선나간 것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태극기를 내려야 한다면 北의 요구에 대해, 그러면 인공기도 달지 않겠나고 상응조치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협상차의 변질과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對北(북) 쌀 支援(지원)의 대행민정인 지지를 얻어낸다면 국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없다. 씨 아펙스호처럼 쌀을 싣고 가는 것이 아니다. 쌀 운송선도 계속 그런 판을 하지 못한 자제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 쌀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말 것이다. 씨 아펙스호처럼 쌀을 싣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쌀 운송선이 출항할 때 국민총리와 3명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대 행사를 벌이는 것으로 인공기를 달지 않았고 생 각했다면 그것은 좀 부족한 발상이다. 씨 아펙스호가 청진항에서 태극기는 달지 못하고 인공기만 높이 올렸다면, 동해항에서 우리 쌀을 싣은 배가 태극기를 달고 북을 향해 떠났다고 별전을 펼쳤던 일이 부끄러워진다.

남수북韓-美대립

한반도 북쪽의 '남수북韓' 현상은 최근 더욱더 뚜렷해져 갔다. 북한은 최근 몇몇 차례에 걸쳐 남한을 향해 대대적인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柳根-칼럼

북한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韓國가지고 놀기」

한국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추경여時論

북한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추경여



북한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北核정책 誤謬

북한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이에 맞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 간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통일정책 뒷받침 장기적구상 필요

보상심리 벗고 유연한 대응 창출을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에 있는 게 아니라 핵이라는 카드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다. 큰 관을 깨버리면 단기적 소익도 민족적 이익도 날려버리는 '무모함'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셋째는 시혜론이다. 20억달러라는 '거금'을 받는 입장에서 북한은 우리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핵발전 에너지를 포기하는 대가로 응답 받아야 하는 보상들이다. 남북의 화해와 통일기반 조성은 시혜

북-미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지 우리는 새 정부가 약속했던 화해-협력 단계로 나아가고, 북한도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좀더 유연하게 개방-개혁에 접근해 민족적 핵심 과제인 통일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경수로 협정 체결시한을 앞두고 '한국형 경수로'와 남한의 '중심적 역할'을 절대화하려는 데서부터 남북 간에는 적대-긴장감이 조조되고, 더 나아가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EDO) 탈퇴를 시사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은 듯하다.

이러한 '한국형 절대론' 주장은 크게 네 가지 논리를 내세운다.

민족적 이익 고려해야

첫째는 소외론이다. 이는 남한이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제물을 못하고 남한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으므로 이제 우리 몫을 기필코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남한 소외라는 결과가 과연 미국과 북한만의 탓일까? 남한은 특사 교환과 특별사찰을 고집하는 '판계기'나 제재와 대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비일관성의 일관성' 정책 등을 펼쳐 새 동북아 질서에 걸맞지 않고 민족적인 해결방안에 걸림돌이 되는 역할만으로 시종했다. 지금도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와 중심역할을 절대화하여 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돌파구를 막고 있다. 남한 소외를 해결하는 길이란 유연한 대안을 상호타협으로 창출하여 대응적 차원에서 서로의 접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둘째는 국익확보론이다. 미국은 돈도 별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생색과 실속을 다 치리는 꼴이므로 한국형과 주도역할을 강요해서라도 우리의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핵심은 어느 누구의 단기적 이해

론으로 감정적인 오만을 충족시키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 입장 속으로 나 자신이 들어가는 '감정적 이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넷째는 체면론이다. 주면서까지 큰소리도 못 친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도 우리 돈으로 미국이 주는 것처럼 되었으니 이제라도 우리 체면을 되살려야겠다는 보상심리이다. 체면 상실은 대미 추종외교의 쓰라린 결과물이다.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남북 공동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외세 의존적으로-처음부터 접근했기 때문이다.

또 남한에서는 단순히 체면 문제일지 몰라도 북한으로서는 체제 생존의 문제이다. 체면 때문에 상대방의 생존을 짓기려 한다면 '민족발전공동사업'은 커녕 민족 공멸을 초래하게 된다.

북한은 체제생존의 문제

지금 우리는 통일시대를 맞아 어떻게 하면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의 장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고뇌와 실천이 요구되는 민족사적 요청 앞에서 있다.

단기적인 경수로 문제는 중기적인 핵문제와 거시적인 통일문제의 하위정책으로, 곧 핵정책과 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구상되고 집행돼야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거대목표가 손상되는 형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韓永鐸

이들했다고 자랑한다. 게다가 한파의 시련을 극복하고 비정상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 북한은 또다시 부진한 경제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와 남한의 '중심적 역할'을 절대화하려는 데서부터 남북 간에는 적대-긴장감이 조조되고, 더 나아가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EDO) 탈퇴를 시사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은 듯하다.

추진하고 있지 않가. 국내의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외부유가가 탄 데 있다고 본다. 핵개발을 위한 유가 상승이 핵개발을 위한 자금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개발을 위한 자금의 원천이 유가 상승에 의존하는 것은 핵개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유가 상승이 핵개발을 위한 자금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핵개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유가 상승이 핵개발을 위한 자금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핵개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경수로가 문제이다

전문가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와 남한의 '중심적 역할'을 절대화하려는 데서부터 남북 간에는 적대-긴장감이 조조되고, 더 나아가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EDO) 탈퇴를 시사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은 듯하다.

위험하고 있다. 핵발전으로 KEEDO가 북한의 핵수출을 장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핵발전으로 KEEDO가 북한의 핵수출을 장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핵발전으로 KEEDO가 북한의 핵수출을 장려할 수 있다.

못 끼워진 것일 거기서였다. 그때부터 북한의 핵발전의 목표와 의의가 강하게 부상되어 오고 있다. 핵발전이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유가 상승이 핵개발을 위한 자금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東亞時論



吳洪坪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Introductory text for the article)

핵무기 보유는 북한이 '핵 안보'를 확보하려는 의도... (Main text paragraph)

파기 가능성 희박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제너바 합의의 첫 시련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寄稿

柳仁澤



남한 경제의 위기성

남한 경제의 위기성은... (Main text paragraph)

남한 경제의 위기성은... (Main text paragraph)

남한 경제의 위기성은... (Main text paragraph)

남한 경제의 위기성은... (Main text paragraph)

평화체제 당사자는 南北韓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북한이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Main text paragraph)

남한 경제의 위기성은... (Main text paragraph)

남한 경제의 위기성은... (Main text paragraph)

(필자명) 류인택

정부가 칼럼

아침을 열며



鄭 鎔 碩



(단국대 행정대학원장·정치학)

오늘은 평안북도 미천군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이 50년 동안 한반도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50년 동안 한반도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수개발사업 비용부담이 누가

북한이 이 사업에 투자할 경우, 남한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남한이 투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이 사업에 투자할 경우, 북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윌리엄 테일러 <미국국제전략연구소 수석 부소장>

북한은 클린턴 미 정부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점을 간파,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한·미관계를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윌리엄 테일러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수석 부소장이 15일 워싱턴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다음은 기고문 내용이다.

정책 차원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핵위기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으로서 다행한 일은 제네바 핵합의가 영변의 핵폐기물처리장 두곳에 대한 사찰이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난 한참뒤인 앞으로 5년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평양측에서 미국이 한반도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린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외교수법으로 보아 평양은 한미 동맹관계를 분열시키면서 미국의 '양보'를 계속 얻어내려 할 것이다.

'양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더 많은 외국지원금, 한·미군사훈련중단, 북미평화조약, 미국의 북한인정, 미·북한 무역 및 미국의 북한투자자에 대한 제한 완화, 주한미군철수, 남북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한국의 북한인정 등이다. 평양은 핵합의의 이행에 위한 '적절한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많은 사항들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많은 양보 문제를 떠나서 '적절한 조건'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지하 깊숙이 감추려고 하는 핵무기 개발계획이다. 북한은 이미 5메가와트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고거나 외국에 압력을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핵무기계획의 모호성을 이용,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다.

북한 관료의 관점에서 볼때, 그들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미국·한국 등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힘을 가져 남북대화를 위한 '조건'을 더욱 '북한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지도자 김정일의 지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지난 몇달 동안 김정일이 관심을 갖고 노력한 군부에 대한 그의 지도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미 의회의 공화당원들과 한국정부의 보수주의자들은 클린턴 정부가 평양측에 제시하는 양보조건들과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북한이 매년 '브릭스맨십'(일촉즉발의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이는 외교전략)을 유지하는 동안 클린턴 행정부는 핵합정에 있어 낙담을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미국 정부가 선거 이전에 핵위기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미국외교의 고전적인 딜레마다.

<정리=徐晶娥지>

클린턴행정부의 北核딜레마

북한은 클린턴 미 행정부 및 지난해 10월 이루어진 제네바 핵합의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 실제로 평양측은 핵합의에 따른 관련의제와 회담 시기 등 모든 면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있다.

워싱턴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로 채택하는 것의에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평양은 한국형 경수로와 기술자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이 새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핵협상은 무효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핵합의때 한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 대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미국도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워싱턴은 밝혔다. 이에 북한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한국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같은 '적절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계속하며 지난달 베를린 경수로 회담의 일방적 결렬을 선언했다. 또. 관문점에서 폴란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철수시킴으로써 53년 체결한 휴전협정을 보기 좋게 위반했다. 북한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임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클린턴 행정부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음으로써 클린턴 정권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이 외교적 교착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교착상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워싱턴은 이같은 상황에서 꼼짝 못하고 말 것인가.

최근 클린턴 전역의 외교정책이 결단성을 띠고 있다고 일부에서는 말한다. 그러나 이같은 말을 과신하지 말라. 공화당 후보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위해 출저서 있듯이 클린턴도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재임기간동안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외교정책분야였다. 따라서 그는 외교정책의 결단력이 없다는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분부중이다.

현재 긴급성과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의 문제는 평양과의 교착상태다. 클린턴 대통령이 내년 대선이 실시되기 전까지 외교



윌리엄 테일러

아침햇살

김명걸 논설위원



남북 종교인들의 교류와 접촉은 꾸준하다. 핵문제나 조문과동으로 또는 경수로 문제로 한반도 남북에 걸친 정치기류는 평온치가 않았다. 종교계는 이러한 정치권의 기상상태는 이렇듯 그렇지 않았다는 듯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독교는 지난 86년 이래 스위스 클리온에서 세차례나 세계교회협의회(세계기독교총연합회)의 주관 아래 남북의 접촉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 기독교인들의 연대를 다짐하는 합의문과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3월 일본 교토에서 네번째 회합을 가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조선기독교연맹의 남북 기독교인들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5개 실천사항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광복절이던 공동예배를 판문점에서 하기로 한 결정이다.

불교는 미국 시민권을 얻은 스님들이 88년부터 북한을 방문해 길을 트면서 교류를 주도했다. 지난 석탄절에는 평양을 방문한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합의회(평불합) 미주본부 대표단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8·15 남북한 합동법회를 판문점에서 열자는 제의를 받아들였고, 조계종 승월주 총무원장은 지

종교회의에 대표들이 참석하고, 남북 종교인의 접촉도 빈번해 갔다.

종교를 착취계급의 정신적 도구라고 했던 북한당국의 정책 선회에 대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기는 어렵다. 대남 선전활동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이들 종교단체가 내놓은 성명 등으로 때로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의 이번 판문점 집회 불허결정도 같은 인식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두 종교집회가 판문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성경 찬송을 듣고 예배하거나, 묵경하며 예배를 드리는 수준에 머물지않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송환을 외치고, 이런 외침들이 종교적 의식의 의미를 완전히 제압할 수도 있다.

공동집회, 대국적으로 봐야

남북의 종교인이 자리를 같이 한 역사적인 자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된다면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집회가 그렇게 치러져 더러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왜 그런가.

판문점의 종교집회

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수락했다.

정부가 안해한다면 광복절에 즈음해 두 종교집회가 분단의 한이 어린 판문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감격스럽게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그 두 행사를 통해 통일의 꿈이 무르익게 되리라는 성급한 표현은 삼가야겠지만, 남북의 갈라진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다름에서 민족사적 과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나중엔 통일부총리는 16일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나 행사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정치성 행사, 전국규모의 육의행사, 그리고 판문점 행사 등은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종교인들의 통일노력이 정부의 편견과 단견 앞에서 또 좌절을 맛보게 된 것이다

첫째, 일찍이 통일을 이루는 일에 소홀히 해온 우리는 그 정도의 감응은 감수할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 사이에 가로놓인 신적한 문제들이 아무런 소란도 없이 일지점을 찾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서로의 손을 쉽게 잡을 수 있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서 있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이 실사 정부가 파악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를 반박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같은 신앙생활과 같은 종교가 허용되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질화해가던 민족감정과 문화는 많은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북한이 종교를 허용했다는 사실은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던 좋은 선택으로 평가하고,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활용토록 힘쓸 일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나 장기수송환 등의 문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으며, 남북의 기독교인들이 일본 교토대회에서 이미 그 실험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한 사항이다. 국내외에서 논의하고 주장해 온 문제를 판문점에서 거론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일이다.

판문점의 종교집회가 통일에 어떤 보탬을 줄 것인가 하는 논의에 앞서, 이러한 집회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면 통일의 과업은 어떤 정부가 나서서 실현해갈 것인가, 정부의 대국적인 남북정책이 못내 이렇게 여겨진다.

북한, 종교 '허용'으로 정책 바뀌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정권수립 후 종교에 대해 억압정책을 펴왔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슬며시 각종 종교단체가 탄생 또는 부활한다. 조선불교도연맹이나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이름도 이 무렵부터 다시 등장했다. 80년대 후반에는 평양에 불승교회와 칠골교회가 세워지고, 묘향산 보현사나 평양의 용화사 등지에서 법회가 열리기 시작한다. 국제적인

路(平)太



都俊鈞

세가지 시나리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양측은 이 합의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5개 실천사항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광복절이던 공동예배를 판문점에서 하기로 한 결정이다.

기독교는 지난 86년 이래 스위스 클리온에서 세차례나 세계교회협의회(세계기독교총연합회)의 주관 아래 남북의 접촉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 기독교인들의 연대를 다짐하는 합의문과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3월 일본 교토에서 네번째 회합을 가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조선기독교연맹의 남북 기독교인들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5개 실천사항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광복절이던 공동예배를 판문점에서 하기로 한 결정이다.

불교는 미국 시민권을 얻은 스님들이 88년부터 북한을 방문해 길을 트면서 교류를 주도했다. 지난 석탄절에는 평양을 방문한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합의회(평불합) 미주본부 대표단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8·15 남북한 합동법회를 판문점에서 열자는 제의를 받아들였고, 조계종 승월주 총무원장은 지

판문점의 종교집회가 통일에 어떤 보탬을 줄 것인가 하는 논의에 앞서, 이러한 집회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면 통일의 과업은 어떤 정부가 나서서 실현해갈 것인가, 정부의 대국적인 남북정책이 못내 이렇게 여겨진다.

판문점의 종교집회가 통일에 어떤 보탬을 줄 것인가 하는 논의에 앞서, 이러한 집회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면 통일의 과업은 어떤 정부가 나서서 실현해갈 것인가, 정부의 대국적인 남북정책이 못내 이렇게 여겨진다.

「韓國型」의 안보

북한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5개 실천사항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광복절이던 공동예배를 판문점에서 하기로 한 결정이다.

기독교는 지난 86년 이래 스위스 클리온에서 세차례나 세계교회협의회(세계기독교총연합회)의 주관 아래 남북의 접촉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 기독교인들의 연대를 다짐하는 합의문과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3월 일본 교토에서 네번째 회합을 가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조선기독교연맹의 남북 기독교인들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5개 실천사항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광복절이던 공동예배를 판문점에서 하기로 한 결정이다.

불교는 미국 시민권을 얻은 스님들이 88년부터 북한을 방문해 길을 트면서 교류를 주도했다. 지난 석탄절에는 평양을 방문한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합의회(평불합) 미주본부 대표단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8·15 남북한 합동법회를 판문점에서 열자는 제의를 받아들였고, 조계종 승월주 총무원장은 지

北 시간벌기의 속셈

북한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5개 실천사항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광복절이던 공동예배를 판문점에서 하기로 한 결정이다.

기독교는 지난 86년 이래 스위스 클리온에서 세차례나 세계교회협의회(세계기독교총연합회)의 주관 아래 남북의 접촉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 기독교인들의 연대를 다짐하는 합의문과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3월 일본 교토에서 네번째 회합을 가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조선기독교연맹의 남북 기독교인들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5개 실천사항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광복절이던 공동예배를 판문점에서 하기로 한 결정이다.

불교는 미국 시민권을 얻은 스님들이 88년부터 북한을 방문해 길을 트면서 교류를 주도했다. 지난 석탄절에는 평양을 방문한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합의회(평불합) 미주본부 대표단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8·15 남북한 합동법회를 판문점에서 열자는 제의를 받아들였고, 조계종 승월주 총무원장은 지

美의 한반도 정책

미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5개 실천사항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광복절이던 공동예배를 판문점에서 하기로 한 결정이다.

기독교는 지난 86년 이래 스위스 클리온에서 세차례나 세계교회협의회(세계기독교총연합회)의 주관 아래 남북의 접촉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 기독교인들의 연대를 다짐하는 합의문과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3월 일본 교토에서 네번째 회합을 가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조선기독교연맹의 남북 기독교인들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5개 실천사항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광복절이던 공동예배를 판문점에서 하기로 한 결정이다.

불교는 미국 시민권을 얻은 스님들이 88년부터 북한을 방문해 길을 트면서 교류를 주도했다. 지난 석탄절에는 평양을 방문한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합의회(평불합) 미주본부 대표단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8·15 남북한 합동법회를 판문점에서 열자는 제의를 받아들였고, 조계종 승월주 총무원장은 지

전문가 칼럼

아침을 열며



정철



(단국대 행정대학원장·정치학)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일과와 우리...
제주전이나 정지전 부대조전 없이...
정지전이나 정지전 부대조전 없이...
정지전이나 정지전 부대조전 없이...

정철은 시기적으로 정철은 무한 배...
에 불고 나왔으며, 너무 선부름이...
鄭 鎔 碩

김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김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김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김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김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영남이 북측에 의해 조선전...

時論

정책 스케줄 차질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徐載鎭

수익면피 노모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북한이 어떤 나라의 정책...

살과北韓

가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가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가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가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가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가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가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가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가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가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가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가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韓國배제 안될것

한국은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
한국은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
한국은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

한국은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
한국은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
한국은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

한국은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
한국은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
한국은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

불교 방북 남북관계 청량제 될것

공동법회 등 합의 교류물꼬 터...초청장 기다리며 준비 바빠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남북한 불교교류사'에 빛날 획기적인 만남이 있었다. 분단 50년만에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쪽의 제의로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한 불교계 대표들이 만난 것이다. 이번 만남은 광복절 미주본부 실무대표인 정산스님(상임고문)과 지현정사(상임부회장)가 지난 4월 23일부터 9일 동안 방북해 조불련쪽과 깊게 협의한 결과에 힘입은 바 크다.

23일 오전 필자는 설승스님과 함께 베이징공항에서 조불련 대표단을 맞았다. 93년 6월 1일 일본 교토에서 만난 뒤 1년만의 상봉이었다. 이날 오후 5시 우리는랜드마크호텔 서라벌한식당에서 역사적 회의를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쪽이 제안한 6개항과 북한의 8·15 관문점 공동법회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북한 조불련은 이번 만남을 먼저 제안한 만큼 관문점 법회 봉행을 주의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남한 정부의 관문점집회 불허 방침으로 이 법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미 조불련 위원장의 친서에서 북쪽이 공식 제의한 송월주 총무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하고, 관문점을 통해 평양과 서울을 서로 오가며 공동법회를 봉행하는 것이 남북 교류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총무원장 방북을 제1토의과제로 제기했다.

우리쪽의 설득에도 북쪽의 논리와 주장은 불변이었다. 북쪽은

특별기고



신범타

조국평화통일 추진 불교인협의회 상임부회장·승려

하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저녁 베이징 평양방면식당(북한 직영)에서 만나기로 하고 결론없이 떠나셨다. 양쪽의 협의가 결렬되는 듯한 위기감이 감도는 순간이었다.

"위원장 스님! 이제 결론을 내시다.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가리고 합의합시다." 필자는 우리쪽이 준비한 6개항이 적힌 회의자료를 박 위원장께 내밀며 협의를 재촉했다. 마침내 박 위원장은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결론지었다. 그리고 필자가 보완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총무원장의 관문점을 통한 방북 △로스앤젤레스 법회 봉행 △매년 4월 8일 서울과 평양, 관문점에서 순차적 공동법회 봉행이 합의됐다. 드디어 역사적인 남북불교 교류의 길이 트인 것이다. 덕담이 오가는 속에 먹은 저녁 평양방면은 꿀맛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불교계 대표의 관문점을 통한 방북은 남북정부 사이의 어려운 정치·군사적 갈등에 청량제 같은 탈출구 구실을 하고, 앞으로 종교·문화·경제교류에 커다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민족종교화한 남북한 불교의 동질성이 확인되고, 불교가 애국종교로서 평화통일의 대화창구이며 가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북쪽의 방북 초청장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7월20일~8월5일 일정으로 잡힌 방북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진체주의의 평판

「진체주의」는 진체주의가 가진 진체주의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진체주의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진체주의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진체주의가 가진 진체주의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진체주의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진체주의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오늘과 내일

金在洪 (정치 2부차장)



우리 국민들은 남북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런 것들을 비롯하여 진체주의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진체주의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북방북개와 민족대동맹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북방북개와 민족대동맹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민족대동맹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북방북개와 민족대동맹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민족대동맹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북방북개와 민족대동맹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민족대동맹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미의 살지안 수련

美의 살지안 수련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살지안 수련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東亞時評

「金戰」중국의 서방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金戰」중국의 서방



金 瓊 元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金戰」중국의 서방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金戰」중국의 서방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金戰」중국의 서방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金戰」중국의 서방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金戰」중국의 서방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金戰」중국의 서방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金戰」중국의 서방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金戰」중국의 서방

「核협이 이후의 과제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核협이 이후의 과제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核협이 이후의 과제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核협이 이후의 과제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核협이 이후의 과제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核협이 이후의 과제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核협이 이후의 과제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核협이 이후의 과제

時 論

북한과 남북 협상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남북 협상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남북 협상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남북 협상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남북 협상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남북 협상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남북 협상



河 英 善

核협상迷路찾기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핵협상迷路찾기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핵협상迷路찾기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핵협상迷路찾기

이와 남북 협상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이와 남북 협상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이와 남북 협상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이와 남북 협상

북한이 서방의 위협에 대해... 이와 남북 협상

脫北자의 쓴맛 체험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咸 在 鳳

〈연세대학교 수석 정치학〉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경수리 탈북』이 남긴 것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칼럼

아침을 열면



정부는 10월 10일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10일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10일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10일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10일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10일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국대 행정대학원장-정치학)

경수리 탈북이 남긴 문화적 유산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탈북자들은 '탈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다.

특필기고

드디어 경수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우리는 이 타결이 단순한 경수로 타결만이 아니라 민족문제 타결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전환으로 발전시켜야 할 민족적 요구 앞에 서 있다.

로 주고 받는, 다 함께 이기는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남북간에 산적한 민족문제 가운데 몇가지만 들어본다면, 첫째, 울해는 한 회의를 해방 50돌이면서 통일의 분단 50돌이다. 이제 분단을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 울해를 통일원년으로 실질화하기 위해서 남북 정부와 민간은 통일기반 조성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장식해야 한다. 이의 출발로 8·15 민족 공동 행사의 개최는 민족적 요구이다. 남북 정부는 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경수로 타결을 계기로, 꼭 이 루도록 해야 한다.

남 담쌓기-북 따돌리기 벗어

이를 위해 핵 및 경수로 협상과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남북간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를 살펴보고, 거시적 민족 과제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족 사업 방향을 점검해 보겠다.

경수로 협상 과정은 첫째, 핵협상과 마찬가지로 비자주적인 협상으로 일관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한의 직접적인 참여는 배제되었다. 남한은 단지 미국을 거쳐 또 미국에 의존하는 북한 담쌓기식이었다. 또

북 정부는 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경수로 타결을 계기로, 꼭 이 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남북이 핵문제와 경수로문제 서로 반목·적대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군사비에 대폭 증강하여 군사대국이 되었다. 조총련계 여학생의 치마를 찢고, 패전 50주년을 맞아 독일처럼 철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

‘경수로’ 남북화해 물꼬로

북한은 남한 따돌리기 자세를 보였다. 북한의 요구는 북-미 합의를 통해, 남한의 요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서, 곧 남과 북이 모두 미국에 매달리는 모습이 었다. 남북의 모든 길은 워싱턴으로 통할 것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으로 직접 통해야 한다.

저한 사회와 새로운 다짐을 하기보다는 전쟁사회 및 부전결의를 반대하는 우의 총결기이다. 와타나베 망언 따위를 난무시키고 있다. 우리가 한-미-일 공조가 아니라 남북 공조로 나아갔더라면 과연 일본의 군국주의성이 이렇게 기세를 부릴 수 있었을까.

셋째, 아직까지 남북은 냉전의교식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상대방을 공동이익 합의를 위한 협상당사자로서, 곧 관계적 상대가 아니라 짓겨 굴복시켜려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한국표준형 절대 관철이라는 비외교적 연상이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최우위 당국자가 남발하는 식이었다. 이제 북한을 더이상 냉전적 대상이 아니라 21세기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또 민족공동체의 반쪽 주체로 인정하는 탈냉전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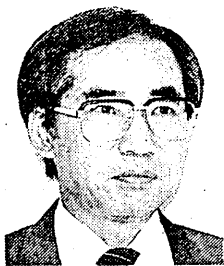
넷째, 북한 쌀 지원문제, 경제문제, 유성호 어부 송환문제, 선명회 쌀 지원문제, 북-일 수교문제, 조문과동 문제 등 여러 사안들이 쌓여 있다. 이제 일본 쌀, 북한 지원이라는 문제를 정치문제화하거나, 언 불성실의 논리로 남측이 재동을 걸어버리는 반인도주의적 추태는 벌이지 말아야 한다. 북한도 자넨 미군헬기 승무원을 재빨리 송환했듯이 유성호 선원을 빨리 송환함으로써 남북이 화해로 나아가는 물꼬를 터야 한다.

극미·극일·극러·극중 요구되는 때

셋째, 산술평균적 타협을 이상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남한은 미국의 조정에 의해 체면을 세우는 형식을 북한에 양보하고, 북한은 실질적인 내용을 남한에 양보하는 산술평균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한다. 서로 무승부라는 언론의 기제적 평가는 남과 북을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상징하는 비민족적 논리이다. 남북 관계를 민족관계로 볼 때는 서로의 현실적 조건에 따라 대폭적인 양보를 수시

이제 새로운 동북아질서 속에 민족사는 남한의 북한 고립식 북방외교도, 북한의 남한 배제정책도 허용하지 않는다. 경수로 타결을 계기로 민족사는 통북통남을 거쳐 극미·극일·극러·극중을 요구한다. 이러한 민족사적 책무와 요구를 저역할 때는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太)平)路



都俊鎬

절반의 실패 核합의

부러 26년간의 절친 지우하게 풀다리기를 해오던 한반도정부의 핵합의는 경수로 협상의 타결로 실패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내 부처와자한 한국기업이며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종이합의는 없다

다라 민족사민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없다. 핵합의는 종이합의였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분단 고착화 새싹이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남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했다.

전문가 진단

쓸과南北관계

한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안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양이론의 과제는 이 이론적 제

安秉俊



생산적對話 시사

북한이 한국을 받은 것은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남북관계를 다시 남북관계를 대등한 한 단계로 끌어올리게 했다. 이는 한국의 실정

영남지역의 수차례의 경제협력사업은 북한이 이 수혜를 얻고 있다. 이 수혜를 얻고 있다. 이 수혜를 얻고 있다.

로 이어지는 긴 과정의 출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우리가 북한에 15만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남북관계의 전환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기회를 기화로 삼아 우리의 긴밀한 단위의 완전한 단결을 성취시킬 것이다.

이 사실을 잘 반영한다. 북한의 체제변화를 무릅쓰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남북에서 양심론과 민주주의의 도를 관계개선용 무지하기 위해 서 북한은 한국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대의 원시성을 표기하지 말 것이라 할

北정세는 리우부

북정세는 리우부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리우부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평화통일의 출발...우리가 주도해야

평화통일의 출발...우리가 주도해야

이와같이 한 과정으로서의 평화와 통일만이 이 시대에 있다. 사실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대가로 중립과 자유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이론의 남북관계도 과거 경험에서 본바와 같이 평화적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북한의 변화가 우리의 대외정책의 전제로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북교류는 남북

협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남북관계를 단국적으로 한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수혜를 얻고 있다. 이 수혜를 얻고 있다.

의미있는 변화는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는

우리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침햇살

김명걸 논설위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과 더불어 펼쳐보이고 싶었던 대북정책의 구상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큰 포부가 담긴 원대한 구도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을까.

민족문제 해결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 항목에서도 제일 앞줄에 놓일 과제라면, 오랜 세월 대통령에의 집념을 쌓아 온 그에게는 나름대로 가슴속 깊이 그려온 그림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었고, 국민들의 이에 대한 기대 또한 컸었다. 30여년의 군부집권 시대를 마감시킨 문민정부라고 강조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의 정권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리라.

이인모 노인 북으로 보냈으나

대학교수 4명으로 외교안보팀을 짜서 예상을 뛰어넘는 포진을 들고나온 김 대통령의 의도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각료 구성은 국민에게 대통령이 의욕적인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켰고, 이 기

김 대통령의 차별성을 상징하는 구실을 했던 네 교수는 그 중 일부가 보수성향을 나타내면서 적응을 시도하는 느낌도 주었으나 모두 대통령의 결을 따르는 운명을 만났다.

북핵문제가 독자적인 대북정책의 영역을 허용하지 않게 되자 김 대통령은 급속히 강경론으로 방향을 잡았다. 강도 높은 대북 비난이나 차극성 발언을 통해 그는 군부 출신 집권자들과의 차별성이 아니라 때로는 더욱 강경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주었다.

대북 강경론이 한계에 이른 즈음에 카터 방북이 얻어온 남북 정상회담은 핵문제에 타격을 입은 김 대통령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듯싶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이 또다시 그에게 좌절을 안겼다면, 경수로 문제의 타결은 다시 그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다. 그의 행동영역을 제약해 왔던 북핵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이제야 그는 뜻한 바대로 대북정책을 펴갈 수 있게 되었다.

대북문제에 열린 공간을 제공한 경수로 협

김대통령의 통일정책은...

대에 부응하듯 장기수 이인모 노인의 방북 허용조치가 나왔다.

김 대통령이 참으로 웅대한 포부를 갖고 있었다면 하필 이때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나온 것은 역사의 지극한 장난이거나, 우연 치고는 너무도 불행한 일이었다고 해야겠다. 이인모 노인을 아무 조건 없이 북으로 보내겠다고 한 정부는 북한의 핵금지조약 탈퇴로 급변한 분위기에 불구하고 발표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밖에 없었다.

심이 그의 뜻대로 한국표준형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은 김 대통령에게 더욱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어 벌어진 대북 실재공 협상에서도 그의 뜻이 상당부분 수용되면서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문제에 접근해 가자겠다는 뜻을 굳히고 있을 것이다. 반가운 현상이지만 그러나 이제야 그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이 염려스럽다. 그는 이미 대북문제를 대결구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강경기조로 밀고 나가면 승리를 얻어내게 된다는 결론에 깊이 매달리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약 탈퇴가 불러온 북핵문제의 확산과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정부가 수행한 역할이 적정한 것이었느냐는 평가는 접어두자. 다만 우리 정부가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여건이 아니었다면 정부가 저야 할 책임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영삼 정권의 대북 정책으로 일궈낸 것들은 모두 증발되어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불신 씻는 화해작업 계속해야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통일의 실현이 아니라 함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현안을 앞에 놓고 북한과의 대결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면 그것이 성공이자 승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온당한다. 이인모 노인을 대가없이 보낸 것은 실패이고, 아무 조건도 없다던 쌀 제공을 통해 당국자 회담의 기회를 만든 것은 성공인가.

방북허가를 받고 판문점을 통해 극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이인모 노인이 예상대로 그곳에서 영웅 대접을 받자 역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김 대통령은 발의자이자 집행자인 한완상 부총리를 바꾸는 것으로 화답했다. 사정은 다르고 성향도 각각이라 4명의 교수 출신들이 모두 그 자리를 떠난 것을 한 묶음으로 엮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 자리를 직업관료나 군 또는 정치권 출신으로 메웠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집권 초

6·25의 참화를 겪었고, 휴전선에서 총구를 맞대고 있는 역사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는 반론이 없다. 그러나 그 역사와 현실은 우리의 민족적 과제가 대결을 통해서 풀리지 않는다는 경험과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VI. 남북관계 일지

남북관계 주요일지('95. 4. 1.~6. 30.)

4월

4. 1.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 대변인, 우리측 정당·단체들에 접촉 제의 호응 촉구 담화
4. 1. 남북기독교인, 광복절 판문점 공동예배 합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오충일 회장, 조선기독교연맹 강영섭 위원장
4. 4.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공세
- 민주당 이종찬 고문 등 5개 단체 5명
4. 5. 8·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공세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고문 계훈제 등 10개 단체 10명
4. 7. KEDO 제2차 집행이사회
4. 8. 나용배 통일부총리, 북한측에 울진원자로 공개 용의 표명 (울진 3호기 원자로 설치식 격려사)
4. 10. 미·북 직통전화 개설
4. 11. 8·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 우리측 단체들에 편지공세
- 김복동 신민당 대표 등 4명
4. 11. 통일원, 대중교 안호상 총선교의 방북관련 입장 발표
-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방북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4. 12.~ 14. 경수로 제공 문제 관련 미·북 전문가회담(베를린)
4. 14. 정부, 방북 안호상 일행 사법처리 방침 확인(통일안보정책)
- 이번 사건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4. 16. 방북 대중교 안호상 총선교 일행, 판문점 통과 귀환
4. 18.~ 20. 경수로 제공문제 관련 미·북 전문가회담(베를린)
4. 22. 외무부 대변인, 미·북 베를린 전문가회담 결렬 관련 논평
-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시한에 구애되어 핵동결을 해제할 경우,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고려,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계속 임하기를 촉구함.
4. 28.~ 29. 북한,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체육 및 문화축전 개최

5 월

5. 1.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미·북 고위급회담 수락 사실 발표
5. 2. 외무부, 북한의 고위급회담 수락 관련 논평
- 북한이 미국의 고위급회담 제의에 전제조건 없이 동의해 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함.
5. 3.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 폐쇄 성명
- 판문점 중감위 사무실과 휴게실, 오락실 완전 봉쇄
5. 4.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중감위 사무실 폐쇄 관련 논평
- 북측의 이번 조치는 현 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보장체계를 미·북간에 교섭해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임.
5. 8.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북핵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서면 보고
5. 11. NPT 연장회의, NPT조약 무기한 연장 결정
5. 15. 김대통령, 북한에 곡물·물자 제공 용의 표명(IPI 제44차 총회 개최식)
-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비롯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히는 바임.
5. 15.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 미·북 준고위급회담 개최 공식 발표
5. 16. 정부, 판문점 공동행사 불허 방침 발표(통일관계장관회의)
* 대북접촉·교류 허용기준
- △논의내용이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한 목적일 것 △해당 단체의 대표성이 인정될 것 △제반 국내법 질서를 존중할 것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
* 민간통일 논의·행사 추진 기준
- △정치성 행사 불허 △전국 규모 옥외행사 불허 △판문점 공동행사 불허
5. 17. 국제언론인협회(IPI), 북한의 개방·언론자유 촉구 결의문 채택(제44차 연례총회)
5. 19.~ 6. 12. 미·북 준고위급회담 개최(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
* 하바드 미국무부 차관보, 김계관 북외교부 부부장

5. 26. 북한, 일본에 쌀 공급 공식 요청
* 이성록 북 국제무역촉진위원장, 와타나베 일 연립여당 방북대표단 대표
- 남쪽으로부터도 아무런 전제와 정치적 조건없이 쌀을 원조하거나 대여한다는 제의가 있다면 검토하겠음.
5. 26. 나옹배 통일부총리, 대북 곡물지원 제의
-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측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
5. 27. 정부, 대북 곡물지원 관련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5. 29. 정부, 대북 곡물지원 관련 통일원차관 주재 유관부처 실무회의 개최
5. 30. 국방부, 북한의 「제86 우성호」 나포 발표
5. 31. 강영훈 한적총재, 「제86 우성호」와 승선어부 송환요구 대북 방송통지문 발표

6 월

6. 1. 나옹배 통일부총리, 남북직교역 확대 추진 방침 표명
6. 6. 송영대 통일원차관, 대북 쌀 제공 관련 북한측의 직접호응 촉구
- 아무런 조건없이 쌀과 다른 식량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함.
6. 8. 나옹배 통일부총리, 대북 쌀 제공 관련 일본측에 신중대처 촉구
- 남북 당국사이에 직접 접촉에 의해 우리의 대북 곡물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측이 신중히 대처해 주기를 강력히 요망함.
6. 8. 미·북 준고위급회담 관련 한·미·일 실무협의
* 장재룡 주미공사, 허바드 미국무부 부차관보, 다게우치 일외무성 심의관
6. 12. IAEA 정기이사회 개최(빈)
- 북핵 동결 감시상황 및 IAEA 관련 조치사항 논의

6. 13. 강영훈 한적총재, 대북 방송통지문 발표
 - 「제86 우성호」 선원들의 신상자료와 가족들의 호소문 전달을 위해 6.15., 10:00 판문점에 2명의 연락관을 내보낼 것임.
6. 13. 미·북 팔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 타결 공동 언론 발표문 발표
6. 13. KEDO 제3차 집행이사회(서울)
6. 15. 강영훈 한적총재, 대북 성명 발표
 - 「제86 우성호」 선원의 송환 촉구, 피납선원들의 신상자료와 가족 호소문 공개
6. 15. 미, 중유 전용 감시 협상팀 파북
6. 17. 대북 쌀 제공 문제 관련 남북 차관급회담(북경)
 *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전금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6. 18. 미, 폐연료봉 처리 기술진 파북
6. 23. 김영삼 대통령, 김정일 주석직 승계후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시사
6. 23. 일·북, 쌀 제공 문제 관련 협상(동경)
 * 호리 일 자민당 정조회장 대리, 이종혁 북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
6. 24. 남북한, 대북 쌀 제공 계약서 합의(북경)
 * 대한무역진흥공사 박용도 사장, 조선삼천리총회사 김봉익 총회장
6. 25. 대북 쌀 제공 2천톤 선적 씨 아펙스호 출항(동해항)
6. 28. 고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밀입북
6. 29. 정부, 북측의 '씨 아펙스호' 인공기 게양사건 관련 북한 당국의 공식사과 없으면 쌀 지원 중단 결정

'95 2/4分期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발행일 : 1995년 7월 22일

발행처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홍보협력관실(735-8766)

참여자 : 김 간 규

인쇄처 : 문성인쇄(주) 738-7434
